

---

##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8. 06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재)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지사 귀하

---

# Contents

## 제 1장. 과업의 개요

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7
2절 과업의 범위와 내용 .....	8
3절 참여 연구진 및 관계자 .....	9
4절 과업 추진 과정 .....	11

## 제 2장.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1절 고분 .....	19
2절 봉수 .....	36
3절 산성 .....	76
4절 제철유적 .....	94

## 제 3장.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1절 들어가는 글 .....	177
2절 전북 동부지역 권역설정과 내륙교통로 .....	180
3절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가야문화유산 .....	188
4절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가야문화유산 .....	199
5절 섬진강유역 가야와 백제 문화유산 공존 .....	209
6절 나오는 글 .....	220



## 제 4장.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계획(안)

- 1절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주요 경과(2018년) ..... 229
- 2절 조사 및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성과 추진 계획(안) ..... 235

## 제 5장. 전북가야 활용여건 분석과 전략

- 1절 주요 사례 분석 ..... 259
- 2절 전북가야 활용 환경 분석 ..... 271
- 3절 전북가야 활용방향 및 전략 ..... 283

## 제 6장. 전북가야 활용전략별 추진과제

- 1절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사업 개발 ..... 293
- 2절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 315
- 3절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 328
- 4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338
- 5절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 ..... 353
- 6절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 구축 ..... 369
- 7절 활용과제의 집행 및 관리 ..... 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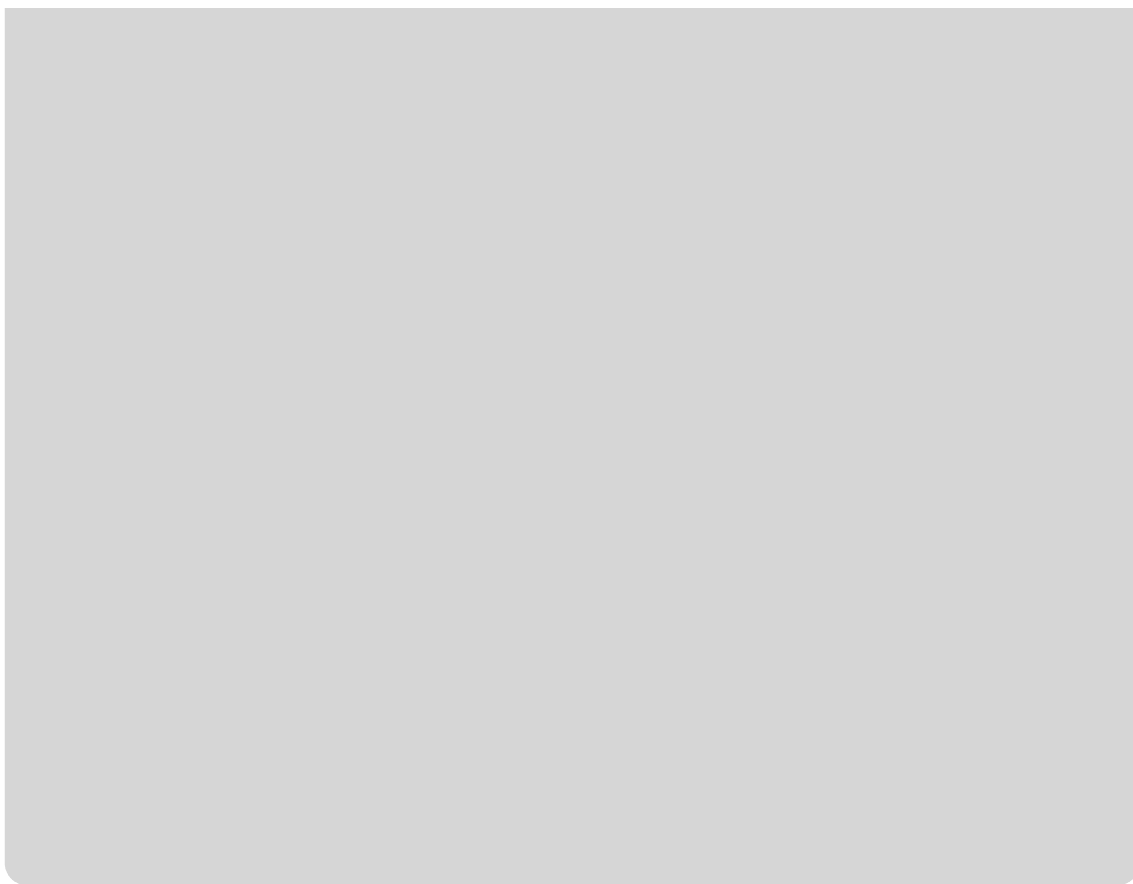
## ■ 부록

- 1. 전라북도 가야 관련 논저 목록 ..... 393
- 2.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목록 및 분포도 ..... 402



## ■ 제 1 장 ■

### 과업의 개요





##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 과업의 배경

- 2017.6.1.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시 「고대 가야사 연구 복원 사업을 지방 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추진」 지시에 따라 전북지역 남원·장수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야사 연구·발굴·복원·활용사업에 탄력이 받을 전망
- 2017.7.19.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정비·활용사업의 추진 체계 마련

### ■ 필요성

- 전라북도에 분포된 가야 관련 유적에 대한 전반적 조사·연구를 통해 전북가야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북 가야 유적의 발굴·정비·활용 방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방향 제시
-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국정 과제 수행에 따른 중앙 정부의 계획 수립에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가야문화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호남과 영남의 균형점 확보를 위한 예산과 행정력 집중지원 근거 마련
-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 대한 현황과 역사 고증, 가야 유적의 향후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체계적·종합적인 연구 자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 목적

- 전라북도 가야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유적 발굴·정비·활용 방안 모색 및 예산 확보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2절 과업의 범위와 내용

### ■ 전북지역 가야 유적의 목록화

- 전북지역 가야 관련 유적(고분, 산성, 봉수, 제철유적 등)의 현황 정리
- 전라북도 가야 관련 7개 시·군별 유적 분포도 작성
- 주요 유적 사진 및 위치도 작성 및 제시

### ■ 전북가야 조사연구 자료의 집성

- 전북가야 관련 조사 현황 자료 목록화(조사년도, 조사기관 등)
- 전북가야 관련 연구 논문 및 보고서 자료 목록화(발행 년도, 집필자, 발행기관 등)
- 주요 유적 사진 및 위치도 작성 및 제시

### ■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종합 정리 및 고찰

- 다른 지역 가야문화유산과의 차별화된 전북가야의 독창성이 부각된 종합 정리
- 전북가야의 독창적 문화유산(고분, 제철유적, 봉수 등)에 대한 고찰(논고 작성)

### ■ 가야 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 방향성 제시

- 전라북도 소재 가야 관련 유적의 조사 및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
- 단계별(연차) 조사 대상 유적 선별, 조사 방법 및 소요예산 제시
- 단계별(연차) 유적 정비사업 대상 유적 선정, 정비 방향성 모색

### ■ 가야문화유산의 활용방안 제시

- 지역 문화 축제와 연계된 가야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모색
- 전시관 건립 및 전시 콘텐츠 방향성 모색
- 지역민의 참여가 가능한 교육 및 체험, 관광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모색
- 백제·마한 문화와 연계된 관광 자원화(스토리텔링 등) 방향성 모색
- 가야를 통한 호남과 영남의 연계 프로그램 모색

### 제3절 참여 연구진 및 관계자

#### 1. 군산대학교박물관

##### ■ 담당 분야

- 전북가야 유적 목록화 및 현황조사(가야 관련 7개 시군별, 유적 종별)
- 가야 관련 조사 및 연구 자료의 집성(논저, 단행본, 보고서 등 목록 정리)
- 전북가야 독창적 문화유산(제철, 봉수, 고분 등)에 대한 종합 정리 및 고찰
- 전북가야 유적 조사 및 정비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계획(안) 제시

##### ■ 참여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곽장근(군산대학교박물관장)
- 참여연구원 : 조명일(군산대학교박물관 조사연구팀장, 용역 실무 담당, 봉수 전공)  
유영춘(군산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제철유적 전공)
- 연구보조원 : 신소미(군산대학교박물관 조교)  
김은희(군산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이한나(군산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 2. 전북연구원

### ■ 담당 분야

-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향후 활용 전략 및 방안 제시
- 가야사를 활용한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 가야문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북지역 대응 전략 제안
- 국정과제 관련 가야를 통한 호남과 영남의 연계 프로그램 모색

### ■ 참여 연구진

- 참여연구원 : 장세길(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김형오(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연구위원)  
장재협(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전문연구원)  
신지원(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전문연구원)

## 2. 전라북도청

### ■ 용역 관계자

송하진(전라북도지사)  
김송일(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인태(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학기(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임재옥(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정책팀장)  
이영일(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학예연구관)  
심수용(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주무관)



## 제4절 과업 추진 과정

### 1.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의

#### ■ 회의 개요

- 개최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요일)
- 회의 장소 : 전라북도청 4층 회의실
- 회의 내용 : 용역 개요 및 진행 상황 보고, 향후 일정 논의 등

#### ■ 회의 참석자

- 전라북도 :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임재옥(문화정책팀장), 이영일(문화유산과 학예연구관), 김승대(문화유산과 학예연구관), 김종철(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
- 군산대학교박물관 : 곽장근(박물관장), 조명일(조사연구팀장), 유영춘(학예연구원)
- 전북연구원 : 장세길(연구위원), 신지원(전문연구원)

#### ■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타 지역 가야 문화와 차별화된 전북 가야만의 독창성 부각 방향성 모색
- 시·군별 전북가야 유적의 조사 및 정비 우선순위 제시(선택과 집중)
- 우선순위 유적에 대한 조사·정비 방안 및 예산 수립 후, 관련 지자체 및 용역 수행 기관, 전라북도가 참여한 회의 개최(2월 예정)
- 전북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주민설명회 등) 제시
- 남원시·장수군 외 지자체의 가야문화유산 조사 활성화 방안 모색
-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조사 및 정비, 활용의 거점 지정 모색(연계와 융합)
- 가야문화특별법과 가야 관련 정부 사업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의

## 2. 수행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 ■ 회의 개요

- 개 최 일 시 : 2018년 2월 21일(월요일)
- 회 의 장 소 : 전북연구원 회의실
- 회 의 내 용 : 가야 관련 7개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용역 수행 과정 설명, 전북가야 유적의 조사 및 정비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 마련 등

### ■ 회의 참석자

- 전라북도 : 노학기(문화유산과장), 임재옥(문화정책팀장), 이영일(문화유산과 학예연구관), 심수용(문화유산과 주무관)
- 지자체 : 홍성봉·최규호(남원시), 손호성·이현석(장수군), 김진만(무주군), 전영미·김철배(임실군), 김완식·엄기일(진안군), 이승희·장기재(완주군), 강신영(순창군)
- 군산대학교박물관 : 곽장근(박물관장), 조명일(조사연구팀장)
- 전북연구원 : 장세길(연구위원), 신지원(전문연구원)

### ■ 주요 쟁점 및 논의 결과

- 전북가야 유적의 조사 및 정비, 활용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한 국가 지정문화재(국

가 사적)의 등재 추진 방안 마련

- 전북가야 유적의 단계별(1단계 : 국가 사적 등재, 2단계 : 전북 가야사 복원) 조사 대상 유적 선별 및 시·도비 지원 방안 논의
- 2018년 7개 시·군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선정,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모색



수행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의

### 3. 가야 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 균형발전 공청회

#### ■ 회의 개요

- 개최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 회의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안호영
- 주 관 : 전라북도·전북연구원
- 내용 :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곽장근,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 “국가균형발전과 가야사 특별법의 방향”(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발제 및 손덕환(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김동대(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최인선(순천대 박물관장), 유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 종합토론 진행
- 주요 쟁점 및 토론 내용
  - 국가균형발전과 가야사 특별법의 방향성
    - \* 가야사 연구·복원의 국정과제 추진의 의미는 단순히 소외된 역사복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화합적 성격의 국가사로 넓게 이해될 수 있으며 역사연구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 가야사특별법안의 보안으로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인 호·영남의 지역감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함

#### - 토론 내용

- \* 제시된 유적·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입증이 필요함
- \* 조사 복원에 대한 국가균형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 전북유적 사적지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북가야의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행되어야함
- \* 비지정유적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와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됨
-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목적에 공감을 하며 진흥기관 설립을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 관련 공청회

## 4. 주민설명회

### ■ 개요

- 개최 일 시 : 2018년 5월 21일(월)
- 장 소 :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회관
- 참석 자 : 객장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 조명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한나(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연구원), 장세길(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장), 신지원(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 전문연구원) 외 마을 주민 20여명 참석
- 안 건 : 전북가야 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 주요 내용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국가 사적 등재 및 세계문화유산 추가 목록 등재 과정 설명
- 가야문화유산 국가 사적 지정 등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 문화재 지정 및 조사와 정비에 따른 보상 및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역 발전 방안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
- 향후 지자체 및 관련 연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후,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 제시
- 금번 연구 사업에 지역 발전과 연계된 활용 사업 제시



수행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 ■ 제2장 ■

###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 제1절 고분

### 1. 개 관

#### ■ 전북지역 가야(계) 고분의 현황

지자체	2017년 6월 자료	2018년 6월 자료(현재)	비고
남원시	44개소 유적, 180기	53개소 180여기 이상	남원 서부 추가
장수군	47개소 유적, 240기	48개소 유적, 240기	1개소 추가
무주군	15개소 유적	15개소 유적	변동 없음
진안군	1개소 유적	9개소 유적	8개소 추가
완주군	-	-	
임실군	2개소 유적, 7기	3개소 유적, 9기	1개소 추가
순창군	-	3개소 유적	신규 추가
계	109개소 유적, 443기	131개소 유적, 456기	10개소 추가

※ 유적 상세 목록은 말미에 부록으로 별도 수록

#### ■ 고분의 특징과 주요 성과

- 남원·장수를 중심으로 가야 중·대형 고총 집중, 지배자 무덤, 전북가야의 중심지
- 고총의 평면형태 장타원형 다수(영남 가야 고총의 경우 원형이 대다수), 봉토의 성토방식과 주구의 존재 등 마한 분구묘의 전통적 요소 확인, 강한 지역색 보임
-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 청자 계수호와 철제 초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서 청동 수대경 등 최고급 위세품 출토, 가야계 정치체의 존재 확인

## 2. 주요 유적 현황(발굴조사 유적 중심)

### 1) 남원시

####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746-1번지 일원
- 지정사항 : 2018년 3월 28일 사적 제 542호 지정
- 조사현황 : 1989년 5기 발굴조사(전북대학교박물관)  
2011년 정밀지표조사(군산대학교박물관)  
2013년 32호분 발굴조사(전북대학교박물관)

####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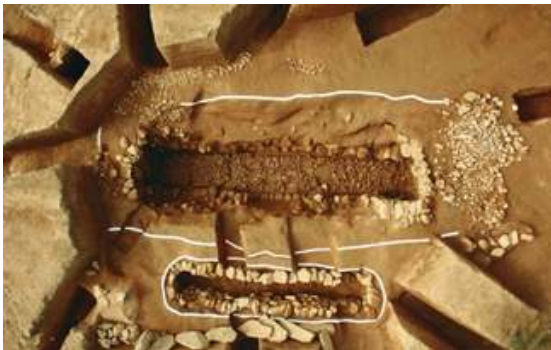
연비산에서 아영분지의 중심부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와 인월면 유곡리에 해당된다. 종래에 백제고분군으로 알려졌으나, 1989년 전북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계 고총군으로 밝혀졌다.

산줄기의 정상부와 북쪽으로 돌출된 두 갈래의 지류, 남쪽 기슭에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40여기의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 고총군에서 4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1기의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되었다.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밝혀진 두락리 1호분·2호분은 봉토의 중앙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마련된 단곽분으로 봉토의 가장자리에는 호석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횡혈식석실분에서 철도자, 꾸미개 등이 출토되었고, 석곽묘에서는 유개장경호와 기대, 호형토기, 등자, 기꽃이, 재갈, 안장가리개 등이 출토되었다.

2013년 전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이루어진 32호분은 고분군의 서쪽 465.9m 구릉과 동쪽 457.7m 구릉사이에 연결된 능선 상에 위치한다. 봉분은 상부가 경작으로 인해 상당부분 삭평되어 평탄화 되었으나 봉분외곽선을 연장하여 추정하면 봉분 높이가 3.2m가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32호분은 가야계 수혈식석곽묘로 총 2기가 확인되었으며, 주변부로 주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봉분 서쪽 하단부에 중복되어 원삼국 시대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가야계 발형기대, 유개장경호, 단경호, 뚜껑 등의 토기류 40점, 청동거울, 백제계 금동신발, 각종 마구류, 철모, 철촉 등 무기류등 금속제품 약 110여점 이상이 출토되었다. 한편 주석곽의 남쪽 장벽 옆의 봉분 내에서 말뼈(하악골)가 출토되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과 백두대간



32호분 매장주체부



32호분 조사후 정비 모습

## ■ 월산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1-7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도지정 문화재 추진 중
- 조사현황 : 1982년 M1~M3호분 발굴조사(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0년 M4~M6 발굴조사(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현 황

백두대간 산줄기에 자리한 시리봉에서 북동쪽으로 아영면 소재지까지 길게 뻗어내린 동쪽 경사면의 말단부에 자리한다. 동쪽 경사면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분포된 10여 기의 고총 중 제일 위쪽에 있는 M1-A호분은 전면적인 발굴조사, M4호분은 수습조사의 성격을 띠고 정리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후

조사만 이루어졌다. 봉토의 규모는 M1-A호분과 중복관계를 이루는 M2호분·M3호분을 제외하면, 동쪽 경사면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제일 윗쪽에 위치한 M1-A호분이 최대 규모를 이룬다. 이 분묘유적에서 조사된 10기의 고분은, 석곽의 규모와 벽석의 축조방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며, 현재 봉토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3기의 고총만 남아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남원의 재지계 토기가 주종을 이루면서 고령양식(高靈樣式)과 소가야양식(小加耶樣式) 토기가 약간 섞여 있으며, 후자는 위세품인 환두대도(環頭大刀)를 비롯하여 마구류와 무구류, 목관에 사용된 관못과 꺾쇠 등도 출토되었다.

M5분의 매장주체부인 석곽은 최하단인 1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묘광을 약간 굴광하고 2단 부터는 봉분의 성토층과 나란하게 축조하였는데, 석곽의 축조와 봉분의 축조가 병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장벽과 단벽은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11~13단 정도로 쌓아 올렸는데 최하단에는 126cm내외의 강돌과 할석을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서 시상대를 마련하였는데 약 1~2m 간격으로 바닥이 오목하게 ‘ㅼ’자 상으로 함몰부가 확인된다. 이는 등간격으로 목재를 놓고 그 위에 관을 안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의 흔적은 부식되어 전혀 남아 있지 않으나 M5호분의 경우 바닥 중앙부에 장방형의 형태로 꺾쇠가 일정하게



놓여 있어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M5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자계수호(靑磁鷄首壺)와 초두(鐵製廳斗)을 비롯하여 금제귀걸이(細環耳飾)·유리제목걸이(頸飾)와 같은 장신구류, 투구(冑)·목가리개(頸甲)·찰갑(札甲) 등의 갑옷과 기꽃이(蛇行狀鐵器)·발걸이(鐙子)·재갈(銜)·삼환령(三環鈴) 등의 마구류, 쇠손칼(鐵刀子)·쇠화살촉(鐵鏃)·쇠도끼(鐵斧)·쇠낫(鐵鎌) 등의 무구류, 꺾쇠(鐵釘), 원통모양그릇받침(筒形器臺)·바리모양그릇받침(鉢形器臺)·소형원통모양그릇받침(小形器臺)·뚜껑달린긴목항아리(有蓋長頸壺)·짧은목항아리(短頸壺)·굽다리손잡이발(臺附把手附碗), 뚜껑접시(蓋杯) 등 다양한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월산리 출토 청자 계수호

## ■ 건지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3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1988년 발굴조사(전북대학교박물관)
- 현 황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3번지 일대에 자리한다. 고분은 서쪽 경사면의 가파른 지역을 제외한 구릉 지대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봉토는 유구의 훼손상태가 심하여 원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유적에서는 ‘가’지구에서 17기, ‘나’지구에서 5기, ‘다’지구에서 17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가’와 ‘다’지구는 여러 개의 석곽이 하나의 봉토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지구는 하나의 봉토에 1기의 석곽이 자리한다. 고분의 축



건지리 고분군 출토유물

조방법은 생토면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한 다음 석곽을 축조하고, 그 위에는 여러 매의 천정석을 올렸다. 벽석은 바닥에 대형 판상석을 서로 잇대어 수직으로 세우고 그 위에 할석(割石)과 천석(川石)을 가지고 가로와 모로쌓기 방식을 혼용하여 곧게 쌓아 올렸다. 석곽의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풍화암반층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 ■ 봉대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산1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2011년 발굴조사(호남문화재연구원)
- 현 황

남원 봉대리 고분군은 2011년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고분군은 백두대간 시리봉에서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봉대 마을까지 길게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 8기, 수혈 1기, 구 1기, 민묘 6기 등이 조사되었다. 석곽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게 축조하였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투창고배, 양이부호, 호형토기, 병형토기, 유개단각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검, 철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조사된 석곽묘의 규모나 축조방법, 출토유물 등을 고려했을 때 인근의 건지리 고분군과 유사하다.

## ■ 행정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32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1992년 발굴조사(전북대학교박물관)
- 현 황

백두대간 산줄기의 정상부에 솟은 수정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동쪽 경사면 말단부에 자리하고 있다. 토광묘 1기, 수혈식 석곽묘 12기, 고려시대 횡구식 석곽묘 1기 등 모두 14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토광묘는 대부분이 파괴되고 서쪽 일부만 남았는데, 유물은 바닥에 판상 할석 1매가 반쳐진 상태로 격자문이 타날된 1점의 구형호가 출토되었다.



행정리 고분군 석곽 내 유물 출토 모습

등고선과 평행되게 장축방향을 둔 수혈식 석곽묘는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토광을 마련하

고, 벽석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주로 가로쌓기 방식으로 곧게 쌓았으며, 그 위에는 장방형의 개석을 덮었다. 바닥시설은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원상을 파악하지 못한 8호를 뺀 나머지는 모두 소형 할석을 전면에 깔았다. 유물은 도굴로 조합상과 배치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 종류는 토기류와 철기류를 비롯하여 곡옥과 구슬,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 ■ 임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임리 산49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2011년 발굴조사(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임리마을 서북쪽에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해발 490m 내외의 산줄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능선의 정상부와 가지능선 상에 대략 30여기의 봉토분이 분포되어 있다. 2011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1기의 고분을 대상으로 학술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임리 고분군 전경

이 봉토분에서는 3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는데,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배치되어 있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소형석곽이 배치되어 있다. 주석곽은 횡구식으로 벽석의 하단은 큰 석재를 세워쌓고 그 위로는 할석을 눕혀쌓았다. 이러한 벽석의 축조양상은 운봉고원 내 조사된 월산리·두락리·건지리 고분군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양장벽 사이를 막은 형태 및 장축방향이 경사면과 나란한 점



임리 고분군 주석곽과 순장곽

은 백제계 석곽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석곽은 수혈식으로 한 봉토 내에 주곽과 함께 축조된 순장곽일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다곽식의 형태는 월산리와 두락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운봉고원 내 수장층의 묘제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은 주석곽에서 유개장경호·석제방추차가, 소형석곽에서는 광구장경호·호형토기·개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운봉고원 내 가야의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며, 횡구식의 주석곽, 장축방향, 출토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하여 6세기 전반대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임리 임리 고분군은 가야지역의 백제 진출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 2) 장수군

### ■ 삼봉리 가야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8-1번지 일원
- 지정사항 : 2013년 11월 15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 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03년(군산대학교박물관), 2012년·2015년(전주문화유산연구원)
- 현 황

백두대간의 서쪽에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에 위치한다. 금남호남정맥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끝자락에 자리한 백화산(白華山:850.9m)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여러 갈래의 지류에 자리한다. 지류는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장계천까지 뻗어 내렸으며, 분지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문화유적총람』에는 “토만두형고분 25기가 현존하고 있으며, 그 중 9기는 발굴되고 천연석으로 된 장방형 호석만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40여기의 고총이 분포하고 있으며, 구릉의 정상(선)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내외의 대형분 2기와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직경 10~15m의 중형분이 배치되었고, 주변에 소형분이 자리한다.

2003년에는 군산대학교박물관이 주도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 가야계 중대형 고분이 분포되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세력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삼봉리 고분군에서는 봉토의 중앙부에 자리한 주석곽을 중심으로 2기의 순장곽과 이들 순장곽 사이에 장란형 토기를 잇대어 놓은 옹관묘가 배치된 다장식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2012년에 조사한 삼봉리 2호분은 군산대학교에서 조사한 고분과 바로 연결된 고분으로, 봉분의 내부에서는 주곽과 순장곽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2기와 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2호분 주변에서 수혈식 석곽묘 3기 및 고려시대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2호분의 주석곽은 양장벽 가까이 각각 4개씩 모두 8개의 기둥구멍이 확인되고, 가로와 세로의 평면비가 4.54:1로 세장





삼봉리 가야고분군과 장계분지



삼봉리 가야고분군 2·3호분



2호분 발굴조사 후 모습

방향으로, 대가야 지역이나 운봉고원에서 조사된 것보다는 다소 폭이 넓은 형태이다. 또한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출토유물로는 유개장경호·단경호·심발형 토기와 같은 토기류와 교구·등자·재갈·안교 등의 마구류, 철촉·철모·철부 등의 철제무기류가 출토되었다. 2015년 조사된 3호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타원형이고, 주석곽을 중심으로 석곽묘와 토광묘가 내장되어 있다.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석곽 내에서 8개소의 목주흔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유개장경호, 단경호, 심발형토기와 마구 및 마구 장식류로 재갈(함판비, 인수, 함), 안장가리개, 운주 등이 출토되었다.



## ■ 호덕리 고분군 B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17-1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1997년(전북대학교박물관)
- 현 황

백화산에서 뺀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장계읍을 비롯하여 주위를 조망하기에 좋은 곳에 입지를 두고 있다. 11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이들 고분은 생토층을 파내어 토광을 만들고 등고선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는 수혈식 석곽묘이다. 바닥 시설은 대부분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2호석곽에서는 바닥에 구형대호편을 일부러 깨뜨려 전면에 깔았으며, 3호석곽에서는 바닥에 10cm 내외되는 편평한 천석을 이용하여 전면에 깔았다.

## ■ 노하리 고분군 A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5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긴급발굴조사, 2016년(전주문화유산연구원)
- 현 황

금강의 상류지역인 장수분지에 자리한다. 장수분지는 장수군 장수읍과 천천면 일원으로, 백제의 우평현이 설치된 지역이다. 주변은 신무산 뜯봉샘에서 발원한 장수천이 북쪽으로 흐르면서 들판과 구릉이 발달되어 있다. 고분군은 봉황산(鳳凰山:863m)에서 북동쪽으로 뺀 내린 지류의 끝자락에 자리하며, 금강의 최상류인 장수천이 북류하고 있다.



노하리 고분군 석곽 내 유물 출토 모습

석곽묘 6기가 조사되었는데, 봉토는 유실되었으며 3호의 석곽묘의 경우 타원형의 주구가 확인되었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개석은 남아있지 않고, 벽석은 3~4단 내외로 남아있다. 1호와 2호의 경우 주변에 소형석곽이 확인되며, 3호 석곽묘의 주구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류가 훼손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마한의 분구묘적 요소로 추정된

다. 유물은 기대, 고배, 개배, 파배, 장경호, 단경호, 대부호, 발 등의 토기류와 철도, 철도자, 철검, 철부, 철촉, 살포, 금제이식 등의 금속류가 출토되었다.

## ■ 동촌리 가야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4번지 일원
- 지정사항 : 2016년 12월 16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 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03년(군산대학교박물관), 2015년(전주문화유산연구원)
- 현 황

금강의 상류지역인 장수분지 동남쪽에 자리한다. 마봉산(馬峰山:723.9m)에서 한 갈래의 지류가 장수읍 동촌리와 두산리의 경계를 이루면서 장수천까지 뻗어 내렸다. 지류는 가파른 경사를 이루다가 하단부에 이르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양쪽으로 여러 갈래의 구릉으로 갈라지는데,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80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자리한다. 고총은 구릉의 정상부와 돌출부에 직경 20m의 대형분 2기와 10~15m내외의 중형분이 정상부를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자리한다. 소형분은 구릉의 하단부와 규모가 큰 고총의 주변에 산재한다.



동촌리 가야 고분군 근경



동촌리 고분군 판비 출토 모습

200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학술발굴조사가 이루어져 14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2기의 골호 등 모두 1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봉토 내에 두기 이상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분이 확인되었으며,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2015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두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봉토와 매장시설의 축조방법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1호분 봉토의 규모는 남북 16.7m, 동서 7.4m, 잔존높이 2.1m 내외로써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주매장시설은 도굴된 상태로 석곽(돌널무덤)의 구조이며, 주변에 2기의 석곽이 배치되었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후 1m 내외의 높이로 성토를 한 후 굴광하여 축조되었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短頸壺), 기대(器臺), 발(鉢), 뚜껑(蓋)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뚝과 함께 편자[蹄鐵]가 출토되었다. 특히, 주석곽에서 출토된 편자는 징이 박힌 상태로 말뚝과 함께 공반되어 확인되었다. 이렇듯 말뚝과 함께 출토된 편자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구려 태왕릉·우산하고분·몽촌토성 85-2호 주거지·발해유적·산청 평촌리유적 등에서 편자만 보고된 바가 있다.



동촌리 고분군 출토 편자

## ■ 삼고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77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1995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백두대간 서쪽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가야 분묘유적이다. 유적은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장수천(長水川)과 장계천(長溪川)이 합쳐진 곳에서 남서쪽으로 3km 남짓 떨어진 지점인 삼장마을 북쪽 능선에 자리한다. 고분은 마을의 북쪽을 감싸는 능선의 북사면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산재되어 있다. 대형 고분은 주능선에, 소형 고분은 대체로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1995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19기의 수혈식석곽묘가 조사되었다. 봉토는 유실되었으며, 장축방향은



삼고리 고분군 석곽내 가야 토기 출토 모습

주로 등고선과 평행한 동서로 두고 있다. 주곽의 주변에 위치한 소형 고분과 방추차가 출토된 제5·15·19호분과 삼족토기(三足土器)가 출토된 제7호분은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고 있다. 석곽의 배치상태는 한 봉분 내에



삼고리 고분군 출토 토기류

여러 기의 석곽이 배치된 다곽식(多槨式)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고, 철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다. 토기류는 재지계, 백제, 대가야, 소가야 등의 유물이 혼재되어 출토되었다.

#### ■ 봉서리 고분군 B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산73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1999년(전북대학교박물관)
- 현 황

남원시 보절면과 덕과면, 장수군 산서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 봉우리에 삼국시대 축조된 ‘거녕성(봉서리산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 능선 상에 삼국시대 고분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척동마을에서 봉분이 잘려나간 고분 1기가 조사되었다. 봉분의 규모는 직경 11m 내외, 동서 폭 9m 내외이다. 묘광은 수직으로 파내어 토광을 마련하고 장방형의 석곽을 축조하였다. 석곽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동서로 두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372cm, 너비 112cm, 높이 118cm이다. 유물은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 3) 진안군

#### ■ 황산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04-2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1996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지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었다. 수몰되기 이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황산마을 동쪽 구릉 정상에 위치해 있었다. 여기서 조사된 고분은 모두 수혈식 석곽묘로, 금강변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뻗은 능선의 정상과 남쪽 경사면에 자리하는데, ‘가’지구 12기와 ‘나’지구 5기 등 모두 17기가 조사되었다. 이들 고분은 대부분 극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장축방향은 고분의 위치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의도적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두었다. 그리고 바닥면은 대부분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생토면을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

다. 다만, 소형고분인 3호·10호·12호 등은 강자갈이나 할석을 이용해서 깔았다. 유물은 유개장경호·광구장경호·장경호·대부장경호·통형기대·고배·삼족토기·심발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촉·철부·철검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황산리 고분군 석곽 내 유물 출토 모습

#### 4) 임실군

##### ■ 금성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산174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1972년(전주시립박물관), 2017년(전라문화유산연구원)
- 현 황

임실군의 중앙에 해당하는 관촌면 금성리 화성 마을을 마주하는 구릉에 자리한다. 금성리 고분군은 호남지역에 처음 조사된 가야계 고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1972년 조사된 3기의 고분은 유구가 워낙 심하게 훼손되어, 그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수혈식 석곽묘로 추정되며, 부곽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단경호, 광구장경호, 유개장경호, 고배 등의 토기류와 철제 대도, 철검, 철부, 철모, 살포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2017년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직경 16.2m 내외의 대형 고분이 조사되었다. 매장 시설은 2기의 석곽묘이며, 봉토 주변에 주구를 두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성리 고분군 출토 가야 토기

## ■ 도인리 고분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도인리 산3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09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임실군의 동쪽을 감싸고 있는 호남정맥의 고봉인 고덕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 상에 자리하며, 유적의 서쪽에는 섬진강의 지류인 임실천이 흐르고 있다. 석곽묘는 2기가 조사되었는데, 1호는 수혈식이며 2호는 횡구식이다. 1호에서 출토된 환두대도는 환두와 손잡이를 별도로 제작하여 단접하고, 검신과 병부를 못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남원 월산리·두락리 출토품과 제작기법이 동일하다. 공반되어 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도인리 고분군 석곽



도인리 고분군 출토 가야 토기

## ■ 석두리 유적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567-5임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10년(전라문화유산연구원)
- 현 황

유적은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의 남동쪽에 소재하고 있는 만지메 마을 북쪽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구고리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고도 210m의 야산이 서쪽과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능선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능선은 주변 산지에 비하면 높은 산은 아니지만 청웅면 일대가 흰히 내려다보이고 주변의 조망이 용이한 지리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2010년 청웅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 이루어졌다.

임실 석두리 I 유적은 2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1호분에서 3기, 2호분에서 1기 등 모두 4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고분은 풍화암반층 혹은 퇴적층을 파내어 묘광을 마련하고 그 안에 주로 할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석곽이 축조하였다. 개석은 도굴 및 후대 사방공사 등으로 유실되었다. 벽석은 대체로 납작하게 다듬은 석재를 가로로 눕혀쌓아 축조하였고, 일부 단벽은 판석형의 석재를 세워 축조하기도 하였다.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 동-서방향이다. 석곽묘의 바닥면은 1호분은 풍화암반층 또는 봉토의 기초부를 정연하게 다듬어 그대로 이용하였고, 2호분은 소형의 자갈을 바닥 전면에 깔았다. 유물은 1호분 1호 석곽묘에서 병형토기 2점, 개 1점, 배 1점, 금동이식 1쌍, 주조철부 1점이, 3호석곽묘에서 철도 1점, 철촉 8점, 개 2점, 호 1점, 각종 옥류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2호분에서는 금동 이식 1점, 각종 옥류, 철도자, 청동제 뒤꽂이 등과 함께 꺾쇠와 철정이 출토되었다.



석두리 1호분 전경

## 5) 무주군

### ■ 대차리 고분군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46임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시굴조사 진행 중(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현 황

무주의 북쪽에 위치한 향로봉(해발 420m)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고분군이 위치한다. 즉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 동쪽의 야산이 고분군의 범위에 해당된다. 예전에 야산의 남쪽에 인접된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대부장경호와 투창이 뚫린 고배 등이 주민



대차리 고분군 전경



에 의해 수습되어 유적의 존재가 보고되었다.

2018년 5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 의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수혈식 석곽묘 6~7기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신라와 가야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현재 정밀발굴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석곽 노출

## 6) 순창군

### ■ 구미리 유적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916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13(호남문화재연구원)
- 현 황

구미리 유적은 북쪽의 용굴산(645m), 동쪽의 무량산(587m), 서쪽의 두류봉(540m) 등 해발 500m 내외의 가파른 산지에 둘러싸여 섬진강의 본류가 흐르는 곳으로, 강변에 좁은 충적지가 형성된 지역에 자리한다. 2010



구미리 유적 발굴조사 전경

년 국도 21호선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에서는 신석기시대~삼국시대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이 중 3기의 석곽묘와 1기의 옹관묘에서 가야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곽묘의 벽석 축조방식이 장수 동촌리 고분군과 비슷하며, 가야와 백제 토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구미리 유적은 순창군에서 처음 확인된 가야계 유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전북가야의 확장과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제2절 봉수

### 1. 개 관

#### ■ 전북지역 삼국시대 봉수 현황

지자체	2017년 6월 자료	2018년 6월 자료(현재)	비고
남원시	3개소 유적	5개소 유적	2개소 추가
장수군	21개소 유적	21개소 유적	변동 없음
무주군	11개소 유적	11개소 유적	변동 없음
진안군	13개소 유적	14개소 유적	1개소 추가
완주군	4개소 유적	8개소 유적	4개소 추가
임실군	13개소 유적	14개소 유적	1개소 추가
순창군	-	-	-
계	65개소 유적	73개소 유적	8개소 추가

※ 유적 상세 목록은 말미에 부록으로 별도 수록

#### ■ 봉수의 특징과 주요 성과

- 전라북도,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삼국시대 봉수가 발견
- 장수·장계분지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봉수로(금산·진안, 무주, 남원, 임실) 형성
- 고려~조선시대 기록 無, 삼국시대 토기편 수습, 가야계 고총, 제철유적 분포권 동일
- 『일본서기』 계체기, 가야계 소국 반파가 기문과 대사를 두고 백제와 3년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산성과 봉수를 쌓았다는 기록됨

- 전북가야의 정체성 및 역동성 규명의 핵심 자료, 전북가야 권역 설정 가능
- 72개소 중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수 등 3개소만 발굴조사, 발굴조사 미진
- 최근 완주 지역에서 거의 온전한 형태의 봉수 다수 확인, 적극적인 발굴조사 필요

## 2. 주요 유적 현황

### 1) 남원시

#### ■ 주천면 덕치리 봉수(남원-1)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28번지 일원
- 현 황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회덕마을의 서북쪽이 솟아 있는 백두대간 정상부(728.2m)에 봉수가 있다. 본래 서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남원 주천면 할미산성의 부속된 '할미산 성보'로 보고되어 있지만, 평탄대지의 규모와 잔존 양상, 북쪽의 준향리 봉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봉수일 가능성이 높다. 사방이 트여 있어 운봉고원, 남원 서부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접된 할미산성과 함께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노치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봉수는 남원 봉수로의 시점으로서, 여기에서 북쪽으로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대략 4~6km 가량의 거리를 두고 봉수들이 연결되어 장수 영취산 봉수로 이어진다.

#### ■ 운봉읍 준향리 봉수(남원-2)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산34번지 일원
- 현 황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준향마을의 동쪽의 백두대간 정상부(665.5m 봉우리)에 봉수가 있다. 남쪽으로 550m 떨어진 백두대간 산줄기 상에 테괴식 산성인 준향리 양지 산성이 있고, 산성의 남쪽에는 남원시 운봉읍과 이백면 이어주는 백두대간 고갯길인 입망치가 있다. 준향리 봉수는 본래 남원 준향리 음지산성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지조사결과, 산봉우리에서 숲과 소토가 확인 되어 봉수일 가능성 높다. 북쪽의 고남산 봉수, 남쪽의 덕치리 봉수와 대응된

다. 산 봉우리의 평면 형태는 동쪽으로 돌출된 'L'자형으로 석축은 대부분 붕괴되고 남쪽과 북쪽에 일부만 남아있다. 산봉우리의 동쪽에는 망대로 추정되는 방형의 석축시설이 있는데, 폭이 3m, 높이 2m 내외이다. 유물은 석축이 붕괴된 남쪽에서 기벽이 두껍고 승석문이 타날 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준항리 봉수 원경



봉수 잔존 석축

#### ■ 운봉읍 권포리 고남산 봉수(남원-3)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38번지 일원
- 현 황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권포마을 서북쪽에 우뚝 솟아있는 고남산(846.4m) 정상부에 봉수가 있다. 고남산은 2개의 봉우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동쪽의 상봉에 봉수가 있으며, 서쪽의 하봉에 테뫼식 석성인 고남산성이 위치한다. 봉수의 남쪽으로는 남강수계 권이 운봉고원이 한눈에 들어오며, 북쪽으로는 섬진강 수계인 요천의 상류가 흐르는 남원시 산동면 일대가 조망된다. 고남산 상봉의 정상부는 타원형의 인위적이 대지가



고남산 봉수 원경

마련되어 있는데, 남쪽 가장자리에 길이 10m 내외의 석축이 남아있으며, 동쪽과 서쪽에는 무너진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급경사면인 북쪽은 본래 석축을 하지 않고 자연 지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표상에는 승석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삼국시대 토기편이 산재되어 있다.

#### ■ 아영면 아곡리 봉화산 봉수(남원-4)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산39번지 일원
- 현 황

88올림픽 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 북쪽의 백두대간 봉화산에 봉수가 있다. 봉수에서 북쪽으로 400m 가량 떨어진 곳에 이산산성이 위치하며, 여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백두대간 새맥 이재와 북성이뒀재를 사이에 두고 아막산성과 남원 매봉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 봉수와 관련된 지상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부 가장자리를 따라 2단 가량의 석축렬이 남아있으며, 그 아래쪽으로 상당량의 무너져 내린 석재들이 쌓여있다.

#### ■ 아영면 성리 매봉 봉수(남원-5)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성리 산50번지 일원
- 현 황

고대부터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던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치재에서 남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매봉(712.2m)에 봉수가 있다.

봉수의 북쪽에는 치재를 사이에 두고 장수 봉화산 봉수와 짓재토성이 배치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꼬부랑재를 사이에 두고 아막성과 남원 아곡리 봉화산 봉수가 분포되어 있다.



매봉 봉수 근경

봉수에서는 서쪽의 아영분지와 동쪽의 장수 번암면 일원이 한눈에 조망된다. 현재 지상에 봉수와 관련된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무너진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를 두른 석축이 일부 잔존되어 있다.

## 2) 장수군

#### ■ 천천면 춘송리 매봉 봉수 (장수-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35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천천면 소재지 북쪽에 있는 매봉 정상부(592m)에 봉수가 있다. 장수군 천천면은 전북지역 가야세력의 중심지로 알려진 장수군의 서북쪽 관문에 해당된다. 즉 서쪽의 방아재를 넘으면 곧장 장계분지로 들어갈 수 있으며, 동쪽의 새재와 방곡재를 넘으면 진안읍을 거쳐 섬진강 유역으로 곧장 나아 갈 수 있다. 또한 소재지의 동쪽에 흐르는 금강 본류 따라 삼국시대 장수의 가야세력과 백제를 이어주던 간선교통로가 지난다.

매봉 봉수는 서남쪽에 있는 성수산 봉수와 함께 방곡재, 새재 등을 감시하는 한편, 동쪽의 침곡리 봉수와 함께 금강을 따라 형성된 간선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고, 붕괴된 석재들만 일부 남아 있다.

■ 천천면 월곡리 봉화산 봉수 (장수-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11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박곡마을의 동쪽에 있는 봉화산 정상부(786.2m)에 봉수가 있다. 봉화산은 삼국시대 가야세력의 중심지로 밝혀진 장계분지의 서쪽을 에워싼 산줄기 상에 위치한다. 이 산줄기 상에는 봉화산 봉수, 침령산성, 침곡리 봉수 등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 장계분지의 서쪽 방어선을 이룬다. 봉화산 봉수에 오르면, 서쪽의 장계분지가 한눈에 들어오며, 동쪽의 백화산 봉수, 서쪽의 성수산 봉수, 북쪽의 침령산성과 침곡리 봉수 등이 조망된다. 현재 봉화산의 정상부에는 1990년 전북체신청에서 세워 놓은 '장수 비봉산 봉수대' 라고 쓰여 있는 표지 말목이 있으며, 정상부의 동쪽과 남쪽 기슭에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은



월곡리 봉화산 봉수 석축



월곡리 봉화산 봉수 수습유물

3~5단의 석축이 21m 가량 남아있다. 이 석축은 봉수의 외곽을 두른 방호벽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상부에 얼마간 떨어진 남쪽 기슭에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일부 석축시설이 남아있는데, 봉수군이 머물렀던 숙영지로 추정된다.

정상부에 조성된 민묘 부근과 숙영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격자문이 타날된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수습되어, 봉수의 조성 시기는 삼국시대일 가능성이 크다.

#### ■ 천천면 삼고리 성수산 봉수 (장수-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84-1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이방마을의 서쪽에 있는 성수산 정상부(1059.2m)에 위치한다. 성수산은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이어진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으로 진안군 진안읍과 장수군 천천면, 진안군 백운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북쪽의 천천면 매봉 봉수, 남쪽의 장수 원수봉 봉수, 동쪽의 장수 침곡리 봉수, 봉화산 봉수와 연결된다.

성수산의 정상부는 인위적인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봉수와 관련된 지상 구조물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장수읍 천천면 이방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성수산에 예전에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 받던 봉수가 있었다고 전한다.' 고 한다. 한편 성수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지류의 말단부에는 전북지역의 가야를 처음으로 알린 삼고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다.

#### ■ 장계면 무농리 수락봉 봉수 (장수-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산1-2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와 계북면 월현리의 경계에 있는 수락봉 정상부(759.5m)에 위치한다. 봉수의 동쪽에는 장계분지의 북쪽 관문이 집재가 있는데, 이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수락봉 봉수와 계북면 깃대봉 봉수가 마주한다. 장계분지에서 집재를 넘으면, 무주군과 금산군을 거쳐 옛 백제 땅으로 곧장 나아 갈 수 있다. 이 교통로를 따라 무주 수로봉 봉수에서 수락봉 봉수까지 봉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수락봉 봉수는 북쪽의 계북면 매봉 봉수, 동쪽의 장계면 깃대봉 봉수, 서남쪽의 천천면 매봉 봉수와 연결된다. 현재 수락봉 정상부에 6.25 전란 때 조성된 방공호가 곳곳에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봉수와 관련된 시설은 모두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상부의 외곽에 무너진 일부 석축이 남아있다.

## ■ 장계면 명덕리 할미봉 봉수 (장수-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번지 일원
- 현 황

장계분지의 동쪽 관문이자,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주요 길목인 백두대간 육십령에서 주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할미봉(1026.4m)이 있다. 할미봉은 기암절벽으로서, 동쪽과 서쪽은 급경사면을 이루고, 남쪽과 북쪽의 경사는 완만하다. 남쪽에 일부 석축시설이 남아있으며, 정상부에 직경 20cm, 깊이 10cm 내외의 홈이 있는데, 봉화구로



할미봉 봉수 전경

추정되고 있다. 할미봉 봉수의 남쪽에는 600m 가량 떨어진 능선 상에 장계면 명덕리 산성이 위치하며, 그 남쪽으로 육십령을 사이에 두고 구시봉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할미봉 봉수에서는 기벽의 두꺼운 회청색 경질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동일한 속성의 토기가 인접된 명덕리 산성에서도 수습되고 있어 서로 간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 ■ 장계면 오동리 구시봉 봉수 (장수-6)

- 위 치 : 전라북도 장계면 오동리 산65번지 일원
- 현 황

백두대간의 중요한 길목인 육십령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구시봉(1014.2m) 정상부에 봉수가 있다. 구시봉은 장수군 장계면과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경계를 이루며, 달리 '깃대봉 혹은 봉화산'이라고도 불린다. 구시봉에 오르면, 서쪽의 장계분지가 동쪽의 경남 함양군 서상분지가 한눈에 조망된다. 봉수의 북쪽으로는 육십령을 사이에 두고 할미봉 봉수와 마주하며, 남쪽으로는 7km 떨어진 곳에 영취산 봉수가 배치되어 서로 대응된다.

현재 구시봉 정상부에 봉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인위적인 평탄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주변에 봉수의 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구시봉 봉수는 할미봉, 영취산 봉수, 명덕리 산성과 함께 전라북도 가야세력의 중심으로 알려진 장계분지의 동쪽을 감시·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금덕리 깃대봉 봉수 (장수-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금덕리 산4번지
- 현 황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신기마을 동북쪽에 있는 깃대봉 정상부(930.3m)에 자리한다. 깃대봉은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쪽의 높은 봉우리에 봉수의 터가 남아있다. 깃대봉에 오르면, 서쪽으로 장계분지의 북쪽 관문인 집재와 수락봉 봉수가 조망되며, 남쪽으로는 장계분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동쪽으로는 할미봉 봉수, 명덕리 산성, 구시봉 봉수등과 육십령·민령을 비롯한 백두대간 준령이 조망되며, 북쪽으로는 멀리 무주 안성분지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현재 깃대봉의 정상부에는 봉수와 관련된 지상 구조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상부 가장자리를 ‘L’자 형으로 깎아낸 인위적인 평탄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안쪽으로 일부 토단의 형태가 관찰된다. 정상부 중앙에는 ‘깃대봉’이라는 표지석과 측량 기준점, 민묘, 등산로 등 조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봉수의 시설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상부 가장자리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일부 수습되어 봉수의 조성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 계남면 화음리 백화산 봉수 (장수-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산63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회곡마을 서쪽에 있는 백화산 정상부(849.5m)에 자리하고 있다. 백화산은 장수군 장계분지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어 조망권이 탁월하다. 백화산에 오르면, 장계분지를 감싸주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와 고봉들과 함께 산줄기 상에 배치되어 있는 산성과 봉수 등이 시야에 들어온다. 백화산 봉수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끝자락에 삼봉리 봉수가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 분포된 봉수의 종착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봉수의 서쪽에는 장수군 가야세력의 지배자 무덤인 삼봉리, 호덕리, 장계리 고분군 등이 있다. 장계면 오동리 회곡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백화산 정상부에는 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백화산 정상부에 봉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직경 10m 내외의 평탄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일부 석축이 남아있어 봉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 변암면 지지리 영취산 봉수 (장수-10)

- 위 치 : 전라북도 변암면 지지리 산15번지 일원
- 현 황

백두대간의 고봉인 영취산 정상부(1075.6m)에 봉수가 있다. 영취산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분기점이자, 금강, 섬진강, 남강 수계의 분수령을 이룬다. 영취산 정상부에서는 장계 분지와 장수분지는 물론, 동쪽으로 경남 함양군 서상분지가 한눈에 조망된다. 영취산의 서쪽에는 무령고개가 있는데, 금강과 섬진강 수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길목이다.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장안산 봉수와 마주한다. 영취산 봉수에서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남원 덕치리 봉수까지 한 갈래의 봉수로가 이어진다.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영취산 봉수에 대한 발굴조사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봉수의 기초부로 추정되는 단시설과 방호벽으로 추정되는 외곽 석축 시설이 확인되었다. 봉수의 기초부는 장축 8m, 단축 5m 내외의 장방형으로, 자연암반층을 깎아내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석재로 외벽을 축조하였다. 조사 당시 정상부 중앙에 대형 표지석이 있어 봉수의 거화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조성시기가 밝혀졌다. 출토된 토기의 속성과 공반관계가 장수군 가야세력의 지배층 무덤인 삼봉리·동촌리 고분군과 흡사하여, 고분의 축조세력에 의



영취산 정상부 근경



영취산 봉수 석축 근경



영취산 봉수 출토유물

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조성시기가 밝혀졌다. 출토된 토기의 속성과 공반관계가 장수군 가야세력의 지배층 무덤인 삼봉리·동촌리 고분군과 흡사하여, 고분의 축조세력에 의

해 봉수가 축조·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계남면 침곡리 봉수 (장수-1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산20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사곡마을 서쪽 산봉우리(616m)의 정상부에 자리한다. 봉수의 남쪽에는 장계분지의 서쪽 관문인 방아재가 있는데, 이 길목을 사이에 두고 침령산성과 마주한다. 이 봉수는 본래 침령산성의 자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규모와 형태, 입지를 고려해 볼 때, 봉수일 가능성이 높다. 봉수에 오르면, 동쪽으로 장계분지가 한눈에 조망되며, 서쪽으로는 장수군 천천면 일대와 멀리 진안군 마령면 일원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침곡리 봉수 잔존 석축

현재 정상부는 완만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자리를 따라 석축이 둘러져 있는데, 그 둘레가 100m 내외이다. 대부분 무너져 내려 정확한 축조기법은 파악할 수 없지만, 정상부 가장자리를 'L'자형으로 깎아내고 석축이 시설된 편축식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봉수의 석축과 정상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남쪽에 인접된 침령산성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유물의 속성과 상통한다.

## ■ 계북면 어전리 매봉 봉수 (장수-1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산70번지
- 현 황

계북면 소재지 북쪽에 남북방향으로 뻗은 한 갈래의 능선이 소재지를 휘감고 있다. 능선은 계북면 소재지 북동쪽에 위치한 솔고개재에서 그 방향을 직각으로 꺾어 남북으로 계북면 매계리까지 뻗어 내렸다. 계북면 소재지 북쪽을 휘감고 있는 능선의 정상부(635m)에 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신기마을 주민들의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봉수가 있었다고 전하는 635m 고지에는 남북길이 15m, 동서폭 8m 내외의 평탄지가 조

성되어 있으며, 그 남쪽에 산불 감시초소가 들어서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6.25 전란 때, 봉수대 터에 진지가 구축되었으며, 이후 산불 감시 초소가 조성되면서 대규모의 삭평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현재 봉수와 관련된 흔적은 모두 훼손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무주 수로봉에서 장계분지로 이어진 무주 봉수로 상에 입지하며, 북쪽의 무주 매장재산 봉수와 남쪽의 장수 수락봉 봉수의 사이에 위치하여 두 봉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장수읍 개정리 사두봉 봉수 (장수-1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4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와동마을의 서남쪽에 우뚝 솟은 사두봉 정상부(1014.9m)에 자리한다. 금남호남정맥 밀목치에서 장수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거쳐 사두봉까지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다. 사두봉은 그 형상이 뱀의 머리와 같다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갈라져 나온 금남호남정맥 산줄기 상에 있다. 사두봉의 서쪽에는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을 이루는 수분치가 있다. 이 고개를 사이에 두고 사두봉 봉수와 신무산 봉수가 마주하며, 동쪽으로 장안산 봉수와 연결된다. 사두봉에 오르면, 장수분지와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 섬진강 수계인 장수군 번암면 일대가 한 눈에 조망된다.

현재 사두봉 정상부는 직경 20m 내외의 인위적인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가장자리를 따라 2단 가량의 석축이 둘러져 있다. 그 구조와 형태가 영취산 봉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봉수의 기초부와 유사하다. 정상부 중앙에는 민묘가 들어서 있으며, 그 북쪽에 인접



사두봉 봉수 석축 과 돌탑



하여 돌무지가 있는데 봉수와 관련된 지상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돌무지의 중심에는 등산객들이 쌓은 돌탑이 남아있고, 1990년 전북체신청에서 세워둔 ‘사두봉 봉수대’라고 쓰여진 표목이 세워져 있다.

## ■ 장수읍 대성리 원수봉 봉수 (장수-1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258-1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금평마을 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원수봉(1013.4m)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원수봉은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인 팔공산(1151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상에 위치한다. 원수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능선 상에 장수 합미산성이 있으며, 그 남쪽에 자고개가 위치한다. 자고개는 장수분지로 들어오는 가장 큰 관문이다. 장수분지에서 이 고개를 넘으면, 섬진강 수계인 임실을 거쳐, 전주, 남원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원수봉 봉수 석축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원수봉 봉수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봉수의 기초부를 추정되는 단 시설이 확인되었는데, 그 구조와 형태가 장수 영취산·봉화산 봉수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 당시 다수의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봉수의 축조·운영시기가 삼국시대로 파악되었다.

## ■ 장수읍 가곡리 장안산 봉수 (장수-1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가곡리 산116-3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수읍 가곡리 지보마을 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장안산의 정상부(1236.9m)에 자리하고 있다. 장안산은 영취산에서 분기된 금남호남정맥 고봉의 하나로 장수군 계남면과 장수읍, 번암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북쪽으로 영취산 봉수와 서북쪽으로 사두봉 봉수와 연결된다. 『文化遺蹟總攬』에는 장수 동화리 봉수지로 소개되어 있으며, ‘장안산에 둘레가 250m의 석축으로 된 봉수대가 있으나 모두 붕괴되어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고 형태만 남

아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안산의 정상부는 평탄한 지형을 이루는데, 현재 헬기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정상부의 주변은 할석을 이용하여 쌓은 석축이 확인되는데, 본래 정상부를 한 바퀴 감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상부의 북쪽은 헬기장의 조성과정에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안산 봉수 석축과 수습 유물

남아있는 석축의 규모는 남북길이 27m, 동서폭 18.5m 가량이다. 정상부에서 명회색 경질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 장수읍 식천리 신무산 봉수 (장수-1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3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식천마을 동북쪽에 있는 신무산 정상부(896.8m)에 자리한다. 신무산에는 금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뜨봉샘’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남쪽에는 금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를 갈라놓는 수분치가 있다. 동북쪽으로 사두봉 봉수와 서남쪽으로 사계봉 봉수와 연결된다. 장수군 장수읍 원수분 마을



신무산 봉수 평탄지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지역의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신무산 여러 곳에서 봉화를 올렸는데, 그 모습이 땀을 뼀 것과 흡사하여 뜯봉샘(땀봉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현재 봉수와 관련된 지상 구조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상부에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쪽 가장 자리에 인위적으로 다듬은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또한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등산로 상에 대지가 남아있으며, 다듬어진 석재들이 남아있어, 봉수군의 주둔과 관련된 건물지로 추정된다.

## ■ 장수읍 오성리 묘복산 봉수 (장수-1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오성리 산106-1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와 식천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묘복산(845.9m)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묘복산은 달리 '개동산 또는 봉화산'이라고 불린다. 대성고원은 팔공산과 묘복산, 상서산, 천왕산으로 연결되는 능선이 서쪽을 휘감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팔공산에서 신무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감싸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와 식천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계상으로는 요천 발원지를 끼고 있으면서 모든 지역이 섬진강 수계권에 속한다. 묘복산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장수군 산서면과 번암면을 이어주는 마치고 북쪽에는 산서면과 대성고원을 연결해 주는 개치가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 개치를 사이에 두고 신무산 봉수와 마주하며, 서남쪽으로는 마치를 사이에 두고 사계봉 봉수와 대응된다.

《문화유적총람》에는, '장수읍 식천리에 개동산 혹은 봉화산이라 불리는 곳에 봉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의 중계지로서 임진왜란 때 사용되었다'고 전하며, '지금은 이 일대에 군사시설이 들어서 본래 봉수대의 위치와 규모를 상세하게 살피기가 어렵다'고 소개되어 있다. 현재 묘복산 정상부에는 봉수와 관련된 지상 구조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길이 12m, 폭 7m 내외의 토단이 형성되어 있다. 토단은 정상부 가장자리를 'ㄴ'자 형으로 깎아내어 조성되었다.

## ■ 번암면 동화리 봉화산 봉수 (장수-1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00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말골마을 동쪽에 있는 봉화산의 정상부(919.8m)에 위치한다. 봉화산은 백두대간의 준령에 위치한 고봉으로 전북 장수군 번암면과 남원시 아영면의 경계를 이룬다. 봉수의 남쪽에는 삼국시대 호남과 영남의 큰 관문이었던 치재가 있으며, 이 고갯길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봉화산 봉수, 남쪽에 남원 매봉



봉화산 봉수 전경

봉수와 아막산성이 자리한다.

봉화산에 오르면, 서쪽으로 금강 섬진강 수계인 장수군 번암면 일원이 조망되며, 동쪽으로는 남원 아영분지와 멀리 경남 함양군까지 조망권이 형성된다. 현재 봉화산의 정상부에는 백두대간 등산로가 지나고 있으며, 중심부에 대형표지석과 측량기준점이 시설되어 있다. 또한 북쪽 가장자리에 산불감지 카메라와 산림청에서 복원된 봉수 구조물이 남아있다.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봉화산 봉수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자연암반층을 깎아내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석재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두른 단 시설이 확인되었다.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장수 영취산 봉수의 봉수 기초부와 동일한 구조이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는 가야계 토기편을 비롯한 삼국시대 토기편이 출토되어 봉수의 조성시기가 삼국시대로 밝혀졌다.



봉화산 봉수 시굴조사 후, 기초부 항공사진



봉화산 봉수 출토유물

## ■ 번암면 노단리 매봉 봉수 (장수-2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산108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번암면 면소재지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매봉 정상부(485.4m)에 자리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번암면 노단리 봉화산 봉수, 동남쪽으로 번암면 동화리 봉화산 봉수와 연결된다. 매봉 정상부는 상당히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봉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노단 주민들에 의하면 “매봉 정상부에는 예전에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 받던 봉화가 있었다고 전한다.” 라고 제보해 주었다.



## ■ 산서면 사계리 사계봉 봉수 (장수-2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산71-1번지 일원
- 현 황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사계봉 정상부(322.5m)에 자리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묘복산 봉수, 서쪽으로 임실 영태산 봉수와 연결된다. 산 정상부에서 서남쪽으로 5m 가량 내려온 곳에 인위적인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 봉수의 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지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사계봉의 능선에는 장수 사계리 산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봉수와 관련된 산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文化遺蹟總攬』에는 ‘사계리 성지’로 표기되어 있다.

## 3) 무주군

### ■ 무주읍 읍내리 향로봉 봉수 (무주-1)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번지 일원
- 현 황

향로봉(420m)은 전라북도 무주군의 진산으로 봉수대가 있었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산의 정상부에는 기우단이 있었다고 전한다. 지명을 제외하고는 봉수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무주군 무주읍 소재지의 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가 향로봉이다. 무주 중앙 초등학교와 무주 여자 중·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 북쪽으로 오르면, 한수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을 지나 향로봉으로 곧장 오를 수 있다. 또한 향로봉의 서쪽 기슭에 위치한 북고사를 거쳐 오르는 등산로가 있다. 현재 전망대가 설치되면서 봉수와 관련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곳곳에 봉수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남아있어 봉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향로봉은 무주군의 진산으로 상징성이 크며 등산로가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 무주 향로봉 자연휴양림이 조성되고, 여기에서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향로봉 전망대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철저한 고증을 통해 봉수대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무주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무주읍 용포리 노고산 봉수 (무주-2)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54번지 일원
- 현 황

용포리 노고산 봉수는 노고산(550.7m)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는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과 적상천, 삼류천 등이 합류하는 곳으로, 예로부터 수륙 교통의 요지로서 곳곳에 봉수와 산성이 분포되어 있다. 전라북도 장수군을 시작으로 무주군을 거쳐 충청남도 금산군까지 연결된 봉수로상에 위치하는데, 북쪽으로는 부남면 수로봉 봉수와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부남면 조항산 봉수와 대응된다.

이 봉수는 2000년대 초반 군산대학교박물관이 실시한 전북 동부 지역 가야 문화유산 관련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봉수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산 정상부가 매우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봉수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옛날에 노고산의 정상부에 봉화대가 있었다"고 한다. 면적은 900㎡이다.

봉수의 운영 시기와 형태, 구조 등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가야를 잇는 주요 교통상에 분포되어 있고, 고려 시대 이후 문헌 기록에서 그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삼국 시대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정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부남면 굴암리 조항산 봉수 (무주-3)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산26-1번지 일원
- 현 황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소재지의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봉우리가 조항산(799.3m)이다. 조항산의 동쪽과 서쪽에는 금강의 지류인 삼류천과 안장천 등이 흐르고 있으며, 물줄기를 따라 남북 방향의 수륙 교통로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 교통로를 따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부터 충청남도 금산군까지 한 갈래의 봉수로가 이어져 있다. 굴암리 조항산 봉수는 이 봉수로상에 위치하며, 무주읍 노고산 봉수, 서쪽의 진안군 용담면 지장산 봉수, 남쪽의 안성면 봉화산 봉수와 연결된다.

조항산 봉수는 2000년대 초반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진행된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관련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면담조사만이 이루어져 정확한 봉수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현지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현재 봉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깎아 내어 대지를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며, 그 아래쪽으로 붕괴된 석재들이 일부 남아 있다.

봉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축조시기 및 구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 가야계 정치체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장수군에서 무주군을 거쳐 충청남도 금산군까지 이어진 봉수로 상에 분포되어 있다. 최근 전라북도 동부 지역의 봉수들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를 통해 그 운영시기가 삼국시대까지 소급되고 있는 만큼 조항산 봉수도 이른 시기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 부남면 가당리 수로봉 봉수 (무주-4)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239-1번지 일원
- 현 황

금남 정맥 성치 지맥 상에 위치한 수로봉(505.7m)은 전라북도 무주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의 경계를 이루며,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지삼치와 노고재라는 큰 고갯길이 있다. 특히 지삼치는 삼국 시대 신라 또는 장수 지역의 가야 세력이 백제의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의 요지였다. 수로봉은 지삼치의



수로봉 봉수와 지삼치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데, 수로봉 정상부에 가당리 수로봉 봉수가 있으며, 마주한 동쪽 봉우리에는 지삼치 산성이 위치한다. 부남면 수로봉 봉수의 남쪽으로는 무주읍 노고산 봉수가 있으며, 서로 조망이 용이하다.

수로봉 봉수는 2000년대 초반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진행된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관련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수로봉의 정상부에는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정상부에 인위적인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주변에 봉수의 부재로 보이는 석재들과 기와편 일부가 확인된다.

봉수와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

확한 운영시기 및 형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고대 주요 교통로인 지삼치가 한눈에 조망되며, 인근에 고대 산성으로 알려진 지삼치 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 시대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 적상면 방이리 구리골산 봉수 (무주-5)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65-1번지
- 현 황

구리골산(657.9m)은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소재지의 서쪽에 우뚝 솟아 있다. 산의 서쪽에는 금강의 지류인 적상천이 흐르고 있으며, 전라북도 진안군과 무주군의 경계를 이루는 험준한 산줄기가 이어져 있다.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구역 마을 경로당에서 북쪽으로 500m 가량 가면 서쪽으로 방이리 이동 마을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3.5km가량 오르면 남쪽에 최근 조성된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가 끝나는 부근에서 서쪽의 계곡을 따라 400m가량 더 오르면 구리골산 정상에 닿을 수 있다.

이 봉수는 적상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북쪽의 부남면 조항산 봉수와 남쪽의 안성면 봉화산 봉수와 연결된다.

현재 방이리 구리골산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산 정상부에 임의적으로 조성된 직경 3m 내외의 토단이 남아 있으며, 그 주변에서 무너진 석재들이 확인된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봉수의 정확한 축조시기 및 구조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가야계 정치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전라북도 장수군까지 연결된 봉수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 대응 봉수인 진도리 봉화산 봉수에서 삼국시대 토기편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른 시기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 안성면 진도리 봉화산 봉수 (무주-6)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60-1번지
- 현 황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소재지의 동북쪽에 높게 솟아 있는 봉우리가 봉화산(884m)이다. 봉화산은 무주군 안성면과 적상면의 경계를 이루며, 그 남쪽에 도치, 서쪽에 오두치 등의 고갯길이 한눈에 조망된다. 도치와 오두치는 현대화된 도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서 진안군과 충청남도 금산군 방면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였던 중요한 길목이다. 진도리 봉화산 봉수는 이러한 길목을 감시하기 위해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쪽의 적상면 구리골산 봉수, 남쪽의 안성면 매방재산 봉수와 연결된다.

봉화산 정상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둘레 60m 내외의 무너진 석재 더미가 이어져 있는데, 일부 2단~3단가량의 석축이 남아 있다. 이 석축 시설은 봉수의 외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며, 무너진 석재들 틈에서 삼국 시대 토기편 일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삼국 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봉수의 면적은 200㎡이다.



봉화산 봉수 잔존 석축

이 봉수는 무주군에 존재하는 봉수들 중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으로, 향후 정밀 지표 조사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봉수의 정확한 운영 시기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습 유물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삼국 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 안성면 죽천리 매방재산 봉수 (무주-7)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37-1번지 일원
- 현 황

매방재산(776.1m)의 동쪽과 서쪽에는 금강의 지류를 따라 형성된 수륙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교통로를 따라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장수군까지 한 갈래의 봉수로가 형성되어 있다. 안성면 매방재산 봉수는 이 봉수로 상에 위치하는데, 남쪽으로는 장수군 계북면 매봉 봉수와, 북쪽으로는 무주군 안성면 봉화산 봉수와 연결된다. 매방재산 봉수가



매방재산 봉수 근경

있는 매방재산 정상부는 주변 마을 주민들에 의해 '봉우둥이', '봉화재' 등으로 불린다. 무주

군 안성면 죽천리 평장 마을의 서쪽에 형성된 골안골을 따라 대략 1km가량 오르면 매방재산 정상부에 닿을 수 있는데, 등산로의 여건이 좋지 않다.

오래 전 헬리포트로 조성되면서 봉수와 관련된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동서 길이 21m, 남북 폭 19.7m 내외의 넓은 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94㎡ 내외이다. 정상부 주변에는 봉수의 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남아 있으며, 삼국 시대의 회청색 경질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일부 확인된다. 현재 봉수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위치와 유물 등을 통해 볼 때,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 안성면 덕산리 향적봉 봉수 (무주-8)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산109번지 일원
- 현 황

백두대간 덕유산의 최고봉인 향적봉(1,614m)의 남쪽과 북쪽에는 백두대간을 넘는 주요 고갯길인 동엽령과 검령이 있는데, 향적봉 봉수는 이 고갯길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동쪽 자연 경계를 이루는 백두대간을 따라 한 갈래의 봉수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향적봉을 시작으로 만봉~시루봉~삿갓봉~할미봉으로 이어진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에 있는 구천동 계곡을 따라 백련사를 거쳐 향적봉까지 등산로가 이어져 있다.

향적봉은 자연 암반으로 형성된 봉우리로 현재 봉수와 관련된 시설은 찾을 수 없다. 다만 곳곳에 암반을 깎아 낸 흔적이 남아 있으며, 2단~3단가량 쌓인 석축도 확인된다. 이러한 흔적이 봉수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장수 할미봉 봉수·원수봉 봉수, 통영 미륵산 봉수 등 이와 비슷한 양상의 봉수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향적봉은 덕유산의 최고봉이며, 인근의 무주 리조트를 통해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기 때문에, 봉수대의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덕유산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안성면 죽천리 만봉 봉수 (무주-11)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175-1번지 일원
- 현 황

만봉(1,046.5m)은 전라북도 무주군의 서쪽을 감싸고 있는 백두 대간(白頭大幹)의 고봉 중 하나이다. 만봉의 북쪽에는 예로부터 영남과 호남을 이어 주던 주요 고갯길인 동엽령이 있

는데, 동엽령을 사이에 두고 만봉 봉수와 향적봉 봉수가 마주한다. 또한 만봉의 남쪽으로 월성치를 사이에 두고 안성면 시루봉 봉수와 연결된다.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에 있는 원통사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900m가량 오르면 만봉에 닿을 수 있다.

현재 죽천리 만봉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정상부가 매우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가장자리에 봉수의 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존재한다.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명천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 만봉(망봉) 정상부에는 봉화가 있었다 하며, 망을 보는 곳이라 하여 '망봉'이라 전한다." 고 한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봉수의 정확한 축조 시기와 구조 등을 밝히기 어렵다. 다만 주민들의 증언과 지형학적 위치,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봉수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4) 진안군

##### ■ 주천면 용덕리 선봉 봉수 (진안-1)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산87번지 일원
- 현 황

진안군 서쪽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는 금남정맥의 산줄기를 따라 한 갈래의 봉수로가 이어지는데, 이 봉수로는 진안 운장산 봉수를 시작으로 충남 금산의 매봉 봉수까지 연결되어 있다. 선봉 봉수는 이 봉수로 상에 분포되어 있는데, 동쪽으로는 진안 성치산 봉수, 서북으로는 진안 태평봉수, 북쪽으로는 금산 백암산 봉수와 연결된다.

선봉 봉수가 자리한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일원은 진안에서 금산을 잇는 남북 교통로와 진안에서 공주·부여를 잇는 동서 교통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의 요지에 해당된다.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무릉마을의 동남쪽에 높게 솟아있는 봉우리가 금남정맥의 고봉인 선봉(697m)인데, 선봉의 북쪽 봉우리에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산 정상부는 평탄한 지형을 이루며, 그 주변은 경사도가 매우 급한 편이다. 이곳에는 현재 봉수대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무너져 있으며, 등산객들이 쌓은 돌탑이 남아있다. 붕괴가 심하여 육안으로는 봉수대의 정확한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경사면에 일부 석축이 남아있으며, 소량이기는 하지만, 삼국시대 토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선봉 봉수는 동쪽의 성치산 봉수, 서남쪽의 태평봉수와 함께, 진안군의 서북쪽을 통하는 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진안군에 분포되어

있는 봉수 중 그 흔적이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 ■ 주천면 신양리 성치산 봉수 (진안-2)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산12번지 일원
- 현 황

진안고원의 서쪽 자연 경계를 이루는 금남 정맥의 산줄기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북 방향의 교통로가 이어지는데, 성치산 봉수는 이 교통로를 따라 형성된 봉수로 상에 분포되어 있다. 서쪽으로는 용덕리 산성, 성치산성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봉화산 봉수와 연결된다.

진안군 주천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지방도 55호선을 따라 1.2km가량 가다 보면, 미적 마을 입구에 도달한다. 봉수는 성치산의 정상부(673m)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치산의 정상부에 봉수대가 있었다는 것은 미적 마을 주민들의 구전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본래 봉수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산 정상부에 헬기장이 조성되어 있어 지금은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경사면에 일부 석축의 흔적과 무너진 석재가 남아 있다.

성치산 봉수는 진안 고원과 금산 분지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최단 거리 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훼손이 심하여 정확한 축조 및 운영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봉수로 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인근에 고대 산성이 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주천면 대불리 태평 봉수 (진안-3)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31-2번지
- 현 황

태평 봉수는 금남 정맥의 큰 고갯길인 작은 싸리재의 동쪽에 위치한다. 작은 싸리재는 삼국시대 진안고원에서 공주·부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주변에 다수의 산성과 봉수가 분포되어 있다. 서쪽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일대로 고중리 산성, 봉수대산·탄현 봉수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태평 봉수대와 성재 산성이 세트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중리 마을에서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로 이어지는 임로를 따라 3.5km가량 가다 보면, 금남 정맥의 큰 고개인 작은 싸리재에 도달한다. 동쪽으로 등산로 따라



산 정상부까지 오르면 태평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다.

산 정상부에 높이 4~5m의 장방형 연대가 복원되어 있다. 복원 이전, 학술 조사를 통한 고증이 실시되지 않아,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복원된 연대의 주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77년 12월 31일에 전라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었다.



태평 봉수 복원된 연대 전경

태평 봉수대는 인근의 성재 산성과 함께, 삼국시대 영남 지역과 백제의 중앙을 이어주는 길목인 작은 싸리재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용담면 옥거리 봉화산 봉수 (진안-4)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4번지 일원
- 현 황

봉화산 봉수가 위치하는 진안군 용담면 일원은 진안고원을 통해 금산·대전 등으로 진출하는 남북 교통로와 금강의 지류인 무주 남대천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교통로가 만나는 곳으로 지리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특히 봉화산 봉수의 서쪽에 있는 솔재는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을 잇는 매우 큰 고갯길로 예전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진안군 용담면 소재지의 서쪽에 봉화산이 있는데, 봉수는 봉화산의 최정상부에 위치한다. 즉 용담면 소재지의 서쪽에 있는 송풍 저수지에서 계곡을 따라 서쪽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산 정상부는 매우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경사면에는 일부 석재들이 노출되어 있다. 봉화산 남쪽으로는 용담호가 한눈에 조망되며, 삼국시대 산성인 와정 토성, 월평리 산성 등이 시야에 들어온다. 서쪽의 성치산 봉수, 운봉리 봉수와 연결되며, 동남쪽으로는 남대천으로 사이에 두고, 지장산 봉수와 대응된다.

현재 개략적인 지표조사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축조·운영 시기를 밝히기는 어려

우나,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주요 고갯길인 솔재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 용담면 운봉리 봉수 (진안-5)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운봉리 산99-1번지 일원
- 현 황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일원은 삼국시대 진안고원과 공주·부여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는 동서 교통로와 진안고원과 금산 분지를 이어주는 남북 교통로가 만나는 분기점이다. 그 정점에 탁고개가 있는데, 탁고개의 남쪽에 운봉리 봉수, 운봉리 산성 등이 나란하게 자리하고 있다. 운봉리 봉수는 남쪽의 운봉리 산성과 세트 관계를 이루며, 동쪽의 봉화산 봉수, 남쪽의 갈용리 국사봉 봉수, 북쪽의 성치산 봉수와 연결된다.



운봉리 봉수 근경

진안군 주천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지방도 725호선을 따라 1.7km가량 가다 보면, 봉소동 마을이 위치한다. 이 마을의 남쪽에 있는 산 정상부에 봉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남쪽 산 정상부에는 삼국시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운봉리 산성이 있다.

산 정상부에는 현재 가로 50m, 세로 30m 내외의 인위적인 평탄 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앙부에 직경 2m 내외의 원형 토단이 남아 있는데 거화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운봉리 봉수는 고대 주요 교통로인 탁고개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쪽의 운봉리 산성과 세트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봉수의 흔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 ■ 안천면 삼락리 지장산 봉수 (진안-6)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48번지 일원
- 현 황

진안군 용담면 소재지에서는 남쪽으로 13번 국도를 따라 3.5km가량 가다보면, 용담댐을

지나 삼락교가 나온다. 이곳의 동쪽에 있는 지장골을 따라 올라가면 지장산(774.3m) 정상부에 이를 수 있다. 봉수는 지장산 정상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봉수와 직접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부가 매우 편평한 지형을 이룬다. 구전에는 “지장산 정상부에 언제 누가 쌓았는지 알 수 없지만, 불빛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 받던 봉수가 있었다.”고 한다.

지장산 봉수는 현재 그 흔적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입지나 지형상으로 볼 때, 봉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장산 봉수는 장수 분지·장계 분지에서 안성 분지를 거쳐 금산 분지로 연결되는 남북 교통로와 영남 지역에서 무주 남대천으로 통해 백제의 수도로 연결되는 동서 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정천면 갈용리 조포 봉수 (진안-7)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40-1번지 일원
- 현 황

금남정맥은 진안군의 서쪽 자연 경계를 이루는데, 남북으로 뻗어있는 산줄기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진안에서 공주, 부여 그리고 금산 분지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 교통로를 따라 한 갈래의 봉수로가 이어지는데, 갈용리 조포 봉수는 이 봉수로 상에 분포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국사봉 봉수와 응하며, 북쪽으로는 운봉리 봉수와 연결된다.



갈용리 조포 봉수 석축

진안군 정천면 소재지에서 지방도 725호선을 따라 3.5km가량 가다 보면, 조포 마을이 나온다. 봉수는 조포 마을의 동쪽에 높게 솟아 있는 산 정상부(631m)에 위치한다. 조포 마을에서 동쪽의 서산골 골짜기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

『문화 유적 총람』에는 ‘석축으로 약 90m 정도의 둘레를 쌓았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모두 허물어졌고 안쪽에 묘와 같은 형태가 있다.’ 라고 소개되어 있다.

현재 봉수가 존재했던 산 정상부에는 일부 암석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 석축렬이 돌아가는데, 대부분이 허물어져 정확한 형태 및 규모 등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구간

에는 2~3단의 석축이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산 경사면을 ‘L’ 자형으로 깎아 낸 후, 외벽만을 축조한 편축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포 봉수는 진안에서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부여, 그리고 금산 분지 등을 잇는 최단 거리 남북 교통로를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안군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수의 봉수들 중 잔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학술적 가치가 아주 높다.

## ■ 정천면 갈용리 국사봉 봉수 (진안-8)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88번지 일원
- 현 황

갈용리 국사봉 봉수는 진안군의 서쪽을 감싸고 있는 금남 정맥의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고대 교통로를 따라 형성된 봉수로 상에 위치한다. 북쪽의 갈용리 조포 봉수와 동남쪽의 성주봉 봉수와 연결된다.



갈용리 국사봉 봉수

진안군 정천면 소재지에서 용담호의 서안을 따라 이어진 지방도 49호선을 따라 동쪽으로 1.5km가량 가다 보면 학골 휴게소가 나온다. 이 휴게소의 북

쪽에 솟아 있는 봉우리가 국사봉(481.1m)인데 이곳 정상에 봉수대 터가 남아 있다.

현재 봉수대 터에는 정상부를 두른 석축이 남아 있다. 석축 대부분이 허물어져 정확한 형태와 축조 방법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략 장축 50m, 단축 30m 규모이다. 석축은 경사가 가파른 북쪽은 제외한 모든 방향에 둘러 있는데, 잔존 양상을 볼 때, 산 경사면을 ‘L’ 자형으로 깎아낸 후, 외벽만을 쌓은 편축식으로 축조되었다.

봉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이 수습되지는 않았으나, 잔존 현황 및 분포 양상으로 볼 때, 인근의 정천면 조포 봉수, 성주봉 봉수와 함께 삼국시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상전면 월포리 성주봉 봉수 (진안-9)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22-4번지 일원

○ 현 황

성주봉 봉수는 진안에서 충남 금산을 잇는 고대 교통로를 따라 형성된 봉수로 상에 분포되어 있으며, 동북쪽의 국사봉 봉수, 서쪽의 매봉 봉수, 동향면 국사봉 봉수와 연결된다.

용담호의 남쪽에는 진안과 무주를 잇는 국도 30호 상의 월포 대교가 동-서 방향으로 관통한다. 봉수가 위치한 성주봉은 진안에서 월포 대교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월포 휴게소의 동북쪽에 우뚝 솟아 있다. 봉수는 성주봉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는데, 월포 휴게소에서 정상부까지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육안으로는 봉수대의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지름 20m 내외의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곳곳에 봉수의 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봉수대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 암반이 확인되는데, 인위적으로 깎아 낸 흔적이 확인된다. 이곳에서는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 토기편과 고려시대 도기편이 일부 확인된다.

성주봉 봉수는 진안군에 분포된 봉수의 분포 양상과 수습되는 유물 등으로 볼 때, 삼국 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봉수는 진안에서 금산 또는 공주·부여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의 감시와 통신 수단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동향면 능금리 국사봉 봉수 (진안-10)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산17번지 일원

○ 현 황

진안군 동향면 소재지에서 구량천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진 도로를 따라 2.5km가량 가다 보면, 능길 마을이 나온다. 능길 마을의 북쪽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가 국사봉(756.6m)인데, 정상부에 봉수대 터가 남아 있다. 동쪽으로는 전라북도 장수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을 남북으로 이어주는 최단 거리 교통로의 주요 고갯길인 노루 고개가 조망되며, 남쪽으로는 구량천을 따라 이어진 동서 방향의 교통로가 한눈에 들어온다.

현재 봉수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평탄 대지가 마련되어 있어 봉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능길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 국사봉의 정상부에는 무주 봉화산과 신호를 주고받던 봉화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국사봉 봉수는 무주군과 진안군을 잇는 동서 방향의 교통로와 장수군과 충청남도 금산군을 잇는 남북 방향의 교통로가 만나는 분기점에 위치하여 고대부터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부귀면 대불리 운장산 봉수 (진안-11)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대불리 산1번지 일원
- 현 황

금남 정맥의 명산인 운장산은 동봉, 중봉, 서봉의 3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서봉에는 봉수가, 중봉에는 산성이 위치하여 서로 세트 관계를 이룬다. 운장산의 동쪽에는 진안고원에서 논산을 거쳐 부여·공주까지 연결되는 남북 교통로의 주요 고갯길인 칼크미재가 있으며, 북쪽에는 진안 고원과 전라북도 완주를 경계를 이루는 피암목재가 있다. 운장산 봉수는 남쪽에 있는 입봉 봉수와 북쪽에 있는 태평 봉수대와 함께, 금남 정맥의 산줄기를 따라 한 갈래의 봉수로써 형성한다.

진안군 주천면과 완주군 동산면의 경계에 피암재골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운장산 서봉에 봉수의 흔적이 남아 있다. 피암재골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2km가량 오르면 운장산 서봉에 닿을 수 있다.

현재 봉수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정상부가 매우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노출되어 있는 자연 암반에 인위적으로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서봉에서 중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상에 석축의 흔적이 확인되며, 삼국시대의 토기편이 일부 남아 있다.

운장산 봉수는 삼국시대 진안고원에서 부여·공주를 이어주는 남북 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봉에 있는 산성과 세트 관계를 이루고 있어 삼국시대 관방 체계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 부귀면 봉암리 입봉 봉수 (진안-12)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107-3번지 일원
- 현 황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와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를 잇는 구 지방도는 금남정맥의 고갯길인 모래재를 통과한다. 봉수대는 모래재 휴게소의 맑은 편에 솟아 있는 산봉우리(623m)에 자리하고 있다. 모래재 휴게소에서 북쪽 계곡부를 이어진 소로와 임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현재 봉수대의 원형은 남아 있지 않으나, 산 정상부가 인위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며, 무너진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정상부와 경사면에는 봉수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은 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봉암리 봉수는 북쪽의 입봉 봉수와 함께, 전주와 진안을 잇는 금남정맥의 주요 고갯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래재와 보령 고개가 고대부터 진안고원에서 전주 분지를 잇는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진안읍 물곡리 봉우재 봉수 (진안-13)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물곡리 산131번지 일원

○ 현 황

봉우재 봉수는 진안고원과 장수 분지·장계 분지를 이어주는 고대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봉수의 서쪽에 있는 봉우재는 장수군 천천면 일원에서 금강의 본류를 따라 공주, 부여, 금산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교통이 요지이며, 남쪽에 있는 색고개는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서 진안, 전주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넘었던 주요 교통로이다.

봉우재 봉수의 동쪽으로는 장수군 천천면 매봉 봉수와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진안 성주봉 봉수가 대응된다.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외오천 마을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지방도 72호선을 따라 1.5km가량 가다 보면 봉우재를 넘게 되는데, 봉우재의 동쪽에 솟아 있는 산 정상부에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육안으로 정확한 봉수의 흔적은 찾기 어려우나, 산 정상부가 매우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봉수대의 축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다. 주변 마을 주민의 구전에 의하면, “봉우재 위쪽 산봉우리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전해진다.”라고 한다.

#### ■ 마령면 계서리 봉수 (진안-14)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산175번지 일원

○ 현 황

계서리 봉수가 있는 진안군 마령면 일원은 금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서, 이곳에는 봉수를 비롯한 강정리 산성, 합미 산성 등 고대 관방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어 고대부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안군 마령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서산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서



쪽에 솟아 있는 높이 460m 내외의 산 정상부(496.6m)에 봉수대 터가 위치하는데, 고대 주요 교통로인 응봉치와 배치가 한 눈에 조망된다. 이곳은 서산 마을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국가 지원 지방도 49호선 상에 있는 절티 고개에서 북쪽으로 응봉치까지 이어진 등산로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현재 산불 감시 초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봉수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구전으로 봉수대 터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산 정상부가 매우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봉수가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서리 봉수는 인근의 강정리 산성, 함미 산성 등과 함께 고대부터 섬진강과 금강을 잇는 교통로를 감시할 목적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5) 완주군

### ■ 화산면 성북리 수락(각시봉) 봉수 (완주-1)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103 일원
- 현 황

완주군 화산면 소재지에 경천저수지로 향하는 도로를 타고가다 보면 왼편에 수락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각시봉 봉수는 수락마을의 동북쪽 산 정상부(364m)에 위치한다.

완주군 화산면 소재지 북쪽에 완주 고성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산봉우리에 완주 각시봉 봉수가 있다. 전북 완주군 화산면과 충남 논산시 양촌면 경계에 위치한 작봉산(419m)에서 승치산, 예봉산을 지나 남북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남쪽 끝



각시봉 봉수 석축



부분에 해당된다.

경천저수지 북쪽 산봉우리 정상부로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아 올린 연대는 그 평면형태가 방형이다. 연대 정상부 서남쪽에 거화 시설로 추정되는 직경 120cm 내외의 원형으로 돌린 석렬 유구가 잘 남아있다.

완주군에서 발견된 10여 개소의 봉수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논산 방면에서 넘어 온 여러 갈래의 교통로를 조망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 ■ 경천면 용복리 봉수 (완주-2)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산84 일원

○ 현 황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만수동마을 북쪽 산줄기에 완주 용복리 산성이 위치한다.

이 산성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와 운주면 구제리 경계를 이루면서 동서방향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는데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동서길이 200m 내외이다.

성벽은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는데, 동벽과 서벽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다만 남벽은 수직에 가까운 자연 절벽 구간을 제외하면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은 성벽이 일부 곡간부에 잘 남아있다.

이 산성의 양쪽에 봉수로 추정되는 방형의 석축 시설과 원형의 거화시설이 확인되어 완주 용복리 봉수로 명명하였다. 완주 탄현 봉수와 연대의 축조기법이 흡사하며, 동쪽에 완주 불명산 봉수와 서쪽에 완주 각시봉 봉수가 잘 조망된다.

논산 방면에서 넘어 오는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를 조망하기 위해 봉수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 ■ 경천면 가천리 불명산 봉수 (완주-3)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산152-1 일원

○ 현 황

완주 화암사 동쪽 산봉우리에 완주 불명산(428m) 봉수가 위치한다.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와 운주면 금당리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로 동쪽에 완주 용계산성과 남쪽에 용계재가 있다.

이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은 연대가 있는데, 연대는 그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동쪽에 연대로 오르는 시설이 남아있다. 연대의 북벽이 무너진 것으로

제외하면 유구의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연대 정상부 서남쪽에 거화시설로 추정된 원형으로 돌린 석렬 유구가 남아있다. 현지조사 때 연대 정상부에서 표면에 태선식 선문이 희미하게 시문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부여와 논산 방면에서 금남정맥의 작은 싸리재를 넘어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동서방향 교통로와 용계재를 통과하는 남북방향 교통로가 잘 조망된다.



불명산 봉수 석축

#### ■ 운주면 고당리 탄현 봉수 (완주-4)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17임 일원
- 현 황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마을의 서북쪽에 솟아 있는 산정상부에 위치한다. 금남정맥의 주요 교통로인 탄현(숯고개)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산성, 서쪽에 봉수가 분포되어 있다. 현재 석축 봉수가 남아 있다. 잔존된 봉수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한 변의 길이가 7m 내외이다. 봉수의 측벽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석재를



탄현 봉수 석축

수직에 가깝게 쌓아서 축조되었는데, 최대 높이가 2m 내외이다. 봉수의 석축 사이에서 삼국 시대 기와편 1점이 수습되었다. 탄현봉수는 금남정맥의 주요 고갯길인 탄현(숯고개)을 감사하기 위해 축조된 봉수로서 전라북도 동부지역에 분포된 봉수들 중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봉수의 서쪽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봉수의 서쪽에 금남정맥 등산로가 지나고 봉수의 남쪽에 1990년 전북 체신청에서 세워 놓은

봉수대 표목이 세워져 있으며, 그 옆에 자그마한 봉수 안내판이 놓여 있다.

#### ■ 화산면 종리 봉수 (완주-5)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종리 산65-5번지 일원
- 현 황

완주군 화산면에서 경천면으로 향하는 도로를 타고 가면 왼편에 농산마을을 지나게 된다. 봉수대는 농산마을의 북쪽에 자리한 번대마을에서 번대제를 지나 서북편에 위치한 해발 220.62m의 산 정상에 위치한다. 총연장 30~40m, 높이 90cm의 방형의 석축이 남아있다. 북편은 현재 벌목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조선시대까지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 ■ 고산면 소향리 봉수대산 봉수 (완주-6)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3-1번지
- 현 황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에서 대아 저수지의 길을 타고 가다보면 고개를 넘기 전에 마을이 하나 있다. 이 마을에서 북쪽으로 고산천의 상류를 따라 올라가다 수련원의 북쪽으로 경천과 고산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해발 585.1m의 봉수대산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봉수대산의 정상에는 조선시대에 봉화를 올렸다고 전해진다.

#### ■ 고산면 삼기리 기린 봉수 (완주-7)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11번지 일원
- 현 황

완주군 화산면과 고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기린마을 북쪽 산정상부(311.2m)에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 봉수대의 대부분은 허물어졌으며, 하부 직경은 약 30m, 상부직경은 약 10m이며, 높이는 약 10m에 이른다. 화구는 2개로 추정되며, 한 곳은 허물어졌고, 다른 한 곳은 돌탑이 세워져 있다. 봉수대의 동쪽으로는 소향리산성, 서쪽으로는 관동리산성과 백현리산성, 북쪽으로는 고성산성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 ■ 동상면 대아리 운암산 봉수 (완주-8)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1-2번지 일원
- 현 황

금남정맥 싸리재에서 시작해 왕사봉을 지나 동서방향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완주군 동상면과 경천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 운암산(605m)에 완주 운암산 봉수가 위치한다.

대아저수지 북쪽 산봉우리로 서쪽에 봉림산 봉수와 북쪽에 봉수대산 봉수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운암산 정상부에는 판석



운암산 봉수 석축

형 할석을 가지고 방형으로 쌓은 연대가 잘 남아있으며,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탄현 봉수와 상통한다. 연대 정상부 중앙에 산악인들이 만든 돌탑이 자리하여 거화시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금남정맥의 싸리재를 넘어 만경강유역에서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를 조망하기 위해 봉수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봉수를 중심으로 서쪽에 완주 소향리 산성과 서남쪽에 완주 대아리 산성이 위치하여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 6) 임실군

### ■ 신덕면 조월리 경각산 봉수 (임실-1)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산61번지 일원
- 현 황

호남정맥의 임실군 구간은 남쪽의 섬진강과 북서쪽의 만경강 유역으로 갈라놓는 분수령을 이룬다. 호남정맥의 고봉인 경각산은 산의 형국이 고래 등에 우뚝 솟은 혹을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만경강 유역이 한눈에 잘 조망되는 곳이다. 조월마을 주민들은 “위급할 때 연기와 불빛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있다.”고 제보했다. 섬진강과 만경강 유역을 곧장 연결해 주는 내륙 경로가 통과하는 호남정맥의 큰 고갯길인 불재가 잘 조망된다. 임실군에 분포된 10여 개소의 봉수 중 가장 북서쪽에 자리한다.

## ■ 신덕면 삼길리 치마산 봉수 (임실-2)

- 위 치 : 전라북도 신덕면 삼길리 산81번지 일원
- 현 황

임실군 신덕면과 완주군 구이면을 이어주는 호남정맥 불재의 남쪽에 위치한다. 불재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경각산 봉수와 남쪽의 치마산 봉수가 4km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봉수에 오르면, 동쪽으로 임실군과 섬진강 줄기가 한눈에 조망되며, 서쪽으로는 완주군 구이면 일대와 멀리 전주 모악산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치마산 봉수 전경

불재에서 호남정맥 종주로를 따라 남쪽으로 2km가량 가면, 호남정맥 주능선에서 치마산(568.1m)으로 분기되는 봉우리가 있는데, 이곳에 봉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타원형의 봉수 기초부가 남아 있는데, 둘레가 50m 내외이다. 가장자



치마산 봉수 석축

리에 석축을 둘렀는데, 다듬지 않은 할석으로 허튼충쌓기 되었다. 수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어 봉수의 거화와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도 수습하지 못하였다.

## ■ 신덕면 삼길리 노적봉 봉수 (임실-3)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6번지 일원
- 현 황

신흥리 신흥마을에서 남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노적봉(405.3m)에 자리한다. 이 산의

정상부에 봉수가 분포된 것은 신덕면 삼길리 외량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마을 주민들은 “노적봉 정상부에는 위급할 때 연기나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만경강과 섬진강을 곧장 연결해 주는 큰 고갯길인 호남정맥의 불재로 연결되는 내륙 교통로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으로, 여기서 북쪽으로 11km 가량 떨어진 호남정맥의 고봉인 경각산(689.3m)에도 봉수가 있다.

#### ■ 운암면 학암리 봉수 (임실-4)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산24번지 일원
- 현 황

학암리 학산마을 북쪽에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중앙의 산봉우리(395.1m) 정상부에 봉수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학산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를 통해 밝혀졌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언제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 전으로 마을 뒷산에 연기와 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이 봉수에서 남동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임실 백이산 봉수가 있다.

#### ■ 임실읍 신안리 백이산 봉수 (임실-5)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산93번지 일원
- 현 황

임실읍 신안리와 청웅면 향교리, 운암면 학암리의 경계인 백이산(530.7m) 정상부에 자리한다. 이곳에 봉수가 있는 것은 신안리 금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마을 주민들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위급할 때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불빛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있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모래재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백이산 봉수, 남쪽에는 무제봉 봉수, 동쪽에는 옥녀봉 봉수가 있다.

#### ■ 임실읍 용요산 봉수 (임실-6)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 산29번지 일원
- 현 황

임실읍 성가리 용요산(해발 489.9m)에 자리하고 있다. 임실읍 성가리는 옛 임실 현 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봉황산(해발 344.1m)’이라 불리는 산이 주산을 이루고 있다. 봉황산에서

서쪽으로 750m 정도 떨어진 곳에 용요산이 있는데, 이곳에 봉수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봉수대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정상부가 평편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정상부의 면적은 30㎡이다. 이곳은 자연 암반층을 이루고 있는데, 곳곳에 인공의 흔적이 확인된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 ■ 임실읍 두만리 옥녀봉 봉수 (임실-7)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산143번지 일원
- 현 황

장재리 장재마을 남동쪽 옥녀봉(396.2m) 정상부에 자리한다. 장재마을 주민들은 “언제 누가 쌓고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전으로 옥녀봉에는 위급할 때 서로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이 봉수의 북동쪽에는 신안분지와 임실분지를 이어주는 질루고개와 공개재, 남서쪽에는 임실분지와 청웅분지를 곧장 연결해 주는 모래재가 있는데, 이들 고개가 옥녀봉 정상부에서 잘 조망된다.

#### ■ 임실읍 이인리 무제봉 봉수 (임실-8)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산362번지 일원
- 현 황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무제봉(558.1m)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북쪽으로 옥녀봉 봉수, 동북쪽으로 봉화산 봉수와 동남쪽으로 매봉 봉수와 연결된다. 정상부는 길이 11m, 폭 6m의 편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봉수대의 축조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일부 남아 있다.

#### ■ 임실읍 망전리 매봉 봉수 (임실-10)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망전리 산72번지 일원
- 현 황

매봉(608.5m)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의 북쪽에는 임실군 오수면과 청웅면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인 되재와 봉화산 봉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무제봉 봉수가 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매봉에는 옛날부터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



받던 봉화터가 있었다고 전한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현재 매봉의 정상부는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봉수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상부가 편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의 중요 교통로와 관방유적·통신유적 등이 잘 조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봉수가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임실읍 대곡리 봉화산 봉수 (임실-11)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04번지 일원
- 현 황

임실군 오수면 대곡리의 막음재 동쪽에 있는 봉화산(467m)에 자리하고 있다. 서북쪽으로 옥녀봉 봉수, 남쪽으로 무제봉 봉수와 서쪽으로 덕재산 봉수와 연결된다. 이곳의 남쪽으로는 임실군 오수면에서 청웅면을 거쳐 정읍시 칠보면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로인 되재와 매봉봉수가 한 눈에 조망된다. 『朝鮮寶物古蹟資料』에는 ‘둘레 144m의 토축으로 일명 斗峙봉수대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봉화산의 정상부는 편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몇 년 전까지 중앙부에 직경 3m 내외의 원형 토축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군부대의 철책 공사로 인해 훼손되어 그 모습을 살피 수가 없다. 봉수의 남쪽 편에 넓은 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외곽을 토단이 감싸고 있다. 대지 내에는 민묘가 일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봉화산 봉수 토단(2007년 촬영)



봉화산 봉수 남쪽 대지 수습유물

## ■ 성수면 봉강리 덕재산 봉수 (임실-12)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116-2번지 일원

○ 현 황

임실군 지사면과 성수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덕재산(487.1m)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덕재산 봉수의 동쪽으로는 임실 매봉 봉수·영태산 봉수, 서쪽으로는 임실 봉화산 봉수·매봉 봉수가 자리하고 있다. 안하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덕재산에는 옛날에 불을 피워 신호를 주고 받던 봉화가 있었다고 전한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수풀과 잡목만이 무성할 뿐 봉수와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정상부가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 봉수가 잘 조망되는 것으로 보아 봉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성수면 왕방리 영태산 봉수 (임실-13)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산51번지 일원

○ 현 황

성수면 왕방리와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의 경계인 영태산(666.3m)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영태산 봉수의 서쪽에는 임실 지사면 매봉 봉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남쪽에는 장수 사계리 봉수, 남서쪽에는 장수 원수봉 봉수가 자리하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 학선리 주민들에 의하면 “영태산에는 본래 봉화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그 터만 남아있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제를 지냈었다.”라고 제보해 주었다. 현재 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으나 정상부가 편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의 봉수가 잘 조망되는 것으로 보아 봉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성수면 오봉리 매봉 봉수 (임실-14)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산81-2번지 일원

○ 현 황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 한골마을 동북쪽에 있는 매봉(430.1m)에 자리한다. 서남쪽으로 덕재산 봉수와 동쪽으로 영태산 봉수와 연결된다. 봉수의 양쪽에는 임실군 지사면과 성수면을 잇는 아침재와 한치재가 있다.

## 제3절 산성

### 1. 개 관

#### ■ 전북지역 가야 관련 산성 현황

지자체	2017년 6월 자료	2018년 6월 자료(현재)	비고
남원시	1개소 유적	11개소 유적	10개소 추가
장수군	11개소 유적	4개소 유적	7개소 감소 (남원 중복, 봉수 중복)
무주군	-	3개소 유적	3개소 추가
진안군	10개소 유적	10개소 유적	변동 없음
완주군	1개소 유적	9개소 유적	8개소 추가
임실군	14개소 유적	4개소 유적	10개소 감소 (가야 가능성 높은 유적)
순창군	3개소 유적	5개소 유적	2개소 추가
계	40개소 유적	46개소 유적	6개소 추가

※ 유적 상세 목록은 말미에 부록으로 별도 수록

#### ■ 산성의 특징과 주요 성과

- 전북지역 소재한 고대 산성 중 가야와의 관련성이 높은 유적으로 41개소가 확인
- 대부분 삼국(가야)시대 초축된 이후, 후백제 때 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
- 전북가야의 방어체계와 권역, 백제와 신라와의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
- 장수 합마·침령산성 연차 발굴조사 실시, 국가 사적 등재 추진

## 2. 주요 유적 현황

### 1) 남원시

#### ■ 인월면 성산리 합미성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62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4년, 2017년(전북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성산리 합미성은 인월면과 함양군 죽림리의 경계인 오봉산(878.5m)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하단에 위치한다. 이곳은 성산마을을 동북쪽에서 감싸는 산줄기 능선에 해당한다. 성을 ‘합미성’ 또는 ‘할미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뫼성’에서의 와전으로 추정된다. 퇴뢰식 산성으로 둘레는 300m 내외이며 해발 552m에 위치한다. 성벽은 산 정상부를 한 바퀴 돌렸는데, 대부분 무너졌으나 남쪽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성벽은 길이 40cm 내외의 다듬어진 직육면체 석재를 가로 쌓기하여 내탁식으로 조성되었다. 성내는 현재 밭으로 경작 중인데, 회백색 연질토기 구연부편, 개편, 집선문과 승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 적갈색 연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부속시설로는 추정 문지가 있다.

#### ■ 아영면 성리 아막 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성리 산83번지 일원
- 지정사항 : 전라북도 기념물 제38호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17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

오산마을 서남쪽에 조성된 시멘트 포장소로를 따라 2km 가량 서쪽으로 이동하면 아막성에 다다른다. 이곳은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시리봉(해발 777.7m)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하단부에 해당하는데, 남원시 아영면과 장수군 번암면의 경계이기도 하며, 아영분지에 들어서기 위한 주요 길목이다. 성 내부에서 바라보면 아영분지를 비롯하여 주요 길목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산성은 평면사각형으로 계곡을 감싼 포곡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가 633m에 달하며, 부속시설로는 추정 동·서·남·북문지와 축대, 집수정 등이 있다. 성벽은 대부

분 무너졌으나 서북벽 일부는 성벽이 잘 남아있으며, 북문지와 북벽 일부는 복원되었다. 성 내부는 남고-북저의 지형으로 대체로 완만한데, 북벽과 인접한 곳은 현재 암자터와 경작지로 조성되었다. 경작지에서는 집선문, 격자문, 파상문이 타날된 회청색경질동체부편, 구연편, 개배편, 기와편 등 백제계, 가야계, 신라계 유물이 모두 확인된다.

이 성은 602년(무왕 3년)에 백제와 신라 간에 격전이 벌어졌던 아막성 전투의 무대이며, 전투 이후 주변에 4개의 요새를 거느려 모산성(母山城)으로 불리기도 했다. '아막'이란 주성(主城)·주곡(主谷)을 뜻하는 말로, 아영분지 및 산성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막성 성벽 근경



아막성 수습 가야 토기편

## ■ 운봉읍 장교리 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108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4년, 2017년(전북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

장교리 산성은 남원시 운봉읍과 이백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다. 달리 '합미성', '할미성'으로 불린다.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고 쌓은 테뫼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제형이며, 성벽의 둘레는 400m 내외, 높이는 약 4m이다. 성 내부에서 바라보면, 남쪽의 장치와 여원치, 북쪽의 방아재가 잘 조망된다. 대체로 산성의 중앙부와 남쪽이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북쪽은 급경사이다.

성벽은 판상할석(板狀割石)을 이용하여 내탁법(외부 성벽만 돌로 쌓고, 내부 성벽은 흙과 잡석으로 채우는 축조법)으로 축조되었다. 부속시설로는 동문, 남문, 서문지와 건물지, 집수 시설 2개소, 치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외벽 바깥으로 10~

12m 정도 돌출되어 있다. 성터에서 삼국시대의 기와편과 격자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운봉면 장교리에 있고 합민성(合民城)이라 한다. 석축 둘레는 200간이고, 산 정상에 둘러싸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장수군

### ■ 장수읍 용계리 합미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읍 용계리 110-1번지 일원
- 지정사항 : 전라북도 기념물 제75호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14~2017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합미산성은 장수읍 용계리와 대성리를 잇는 자고개(비행기재) 북쪽의 팔공산(해발 1,151m) 남쪽 산줄기에 위치한다. 주변지역은 신무산(해발 897m), 팔공산 등 금남호남정맥의 고봉으로 둘러져있어 해발 500m 이상의 고원지대를 이루는데, 이를 '대성고원'이라 부른다. 자고개와 대성고원은 전주, 임실 등 외부에서 장수분지로 진입하거나 장수분지에서 외부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 길목이었다. 산성 내부에서 바라보면 자고개와 대성고원이 한 눈에 조망되는 것으로 볼 때, 주 조망권은 자고개와 대성고원으로 판단되며, 장수분지로 들어서는 적들의 침입을 막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미산성은 포곡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마름모형이며, 그 둘레는 대략 400m 내외이다. 『문헌비고』에는 '食川城·砧峙城 局騰錄 有廢城, 『고적조사자료』에는 '舍米城 周三百間 石築井一門三'라고



합미산성 남쪽 성벽

보고되어 있다. 성벽은 원지형을 'L'자 형으로 파낸 뒤, 안쪽은 흙과 돌로 채우고 외벽을 직육면체로 다듬어진 석재를 가로로 쌓는 편축법(또는 내탁법)과 양쪽 모두를 돌로 쌓아 성벽을 조성하는 협축법이 혼용되었다. 성벽에서 3개소의 치성이 확인되었으며, 부속시설로는 문지, 집수시설, 건물 대지 등이 있다.



합미산성 출토 삼국시대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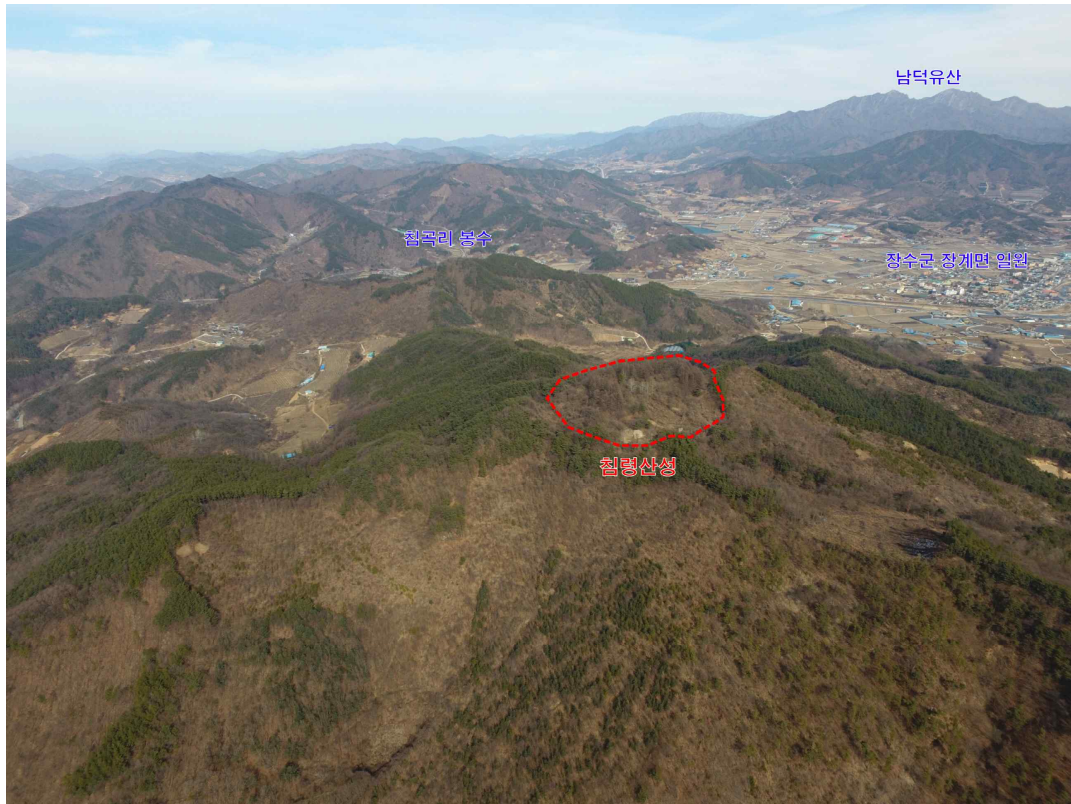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군산대학교박물관이 총 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2014년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2기의 방형집수시설과 건물대지조성을 위한 축대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2016년 발굴조사에서는 1기의 방형집수시설이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배수로, 축대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2017년에는 2016년도에 조사된 방형집수시설 외측면으로 중복된 집수시설의 존재와 내부구조가 간략히 파악되었으며, 주변 평탄대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건물지의 기초시설로 파악되는 석축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인장과, 삼국시대 및 후백제(나말여초) 토기(편), 자기, 목제유물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토기는 백제와 가야토기가 모두 수습되었으며, 선해무리굽·중국식해무리굽의 초기청자 완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유물이 삼국시대와 후백제 시기(나말여초)로 한정되기 때문에 산성은 삼국시대에 초축되어 운영되었다가 한동안 폐성된 뒤, 후백제 시기(나말여초)에 이르러 다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계남면 침곡리 침령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번지 일원
- 지정사항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6호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14~2017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침령산성은 계남면 침곡리와 천천면 춘송리의 경계를 이루는 방아재(675m)의 남쪽 산자락 정상부에 위치한 포곡식 산성이다. 방아재는 장계분지에 들어서기 주요 길목이기 때문에 산성은 인접한 장수 침곡리 봉수(침령산성 북쪽 6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와 함께 이곳을 조망 또는 방어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침령산성과 장계분지

『문헌비고』에는 ‘食川城·砧峙城 局騰錄 有廢城, 『고적조사자료』에는 ‘舍米城 周三百間 石築井—門三’라고 기록되어있다. 성벽은 원지형을 ‘L’자형으로 파낸 뒤 안쪽은 흙과 돌로 채우고 외벽을 직육면체로 다듬어진 석재를 가로로 쌓는 편축법(또는 내탁법)으로 조성되었다. 성벽의 둘레는 500m 내외이나 대체로 무너졌고 남쪽성벽 일부만 남아 있다. 부속시설물로 여장, 치, 망루, 문지, 집수시설, 건물 대지 등이 조사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총 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형 집수시설 1기와 부속건물지의 존재가 파악되었다. 2015년 실시된 시굴조사에서 원형 집수시설의 부존여부가 파악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를 통해 집수시설의 전체적인 규모와 잔존현황 등이 개략적으로 파악되었으며, 삼국시대 및 후백제(나말여초) 토기(편), 및 기와, 목제유물, 철기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2017년에는 원형 집수시설 내부가 모두 조사되어 잔존현황을 비롯하여 축조방법이 파악되었으며, 주변 평탄지를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부속건물지의 존재가 파악되었다. 원형 집수시설은 남아있는 최상단 내벽 지름 9m, 잔존깊이 5.3m이며, 집수시설 축조를 위한 굴광선은 지름 16m 내외이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집수시설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광양 마로산성, 남해 대국산

성, 거제 폐왕성에서 조사된 집수시설과 비교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구와 유물이 삼국시대와 후백제 시기(나말여초기)로 한정되기 때문에 함미산성과 마찬가지로 삼국시대에 초축되어 운영되었다가 한동안 폐성된 뒤, 후백제 시기(나말여초)에 이르러 다시 운영되었던 판단된다.



침령산성 원형집수시설

### 3) 무주군

#### ■ 무주읍 대차리 주계고성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54-3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7년(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 현 황

주계고성은 무주읍의 진산인 향로봉에서 서남으로 흘러내린 산줄기 남사면에 위치한다.

이곳은 무주읍 읍내리와 대차리의 경계에 해당한다. 『동국여지승람』 또는 『문헌비고』등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무주향교에서 간행한 『적성지지편』에 등장한다.

주계고성의 둘레는 약 1km이며, 포곡식(包谷式)의 석성이나 북쪽 성벽은 토석혼축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남쪽과 북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성 내부의 남서쪽에는 비교적 평탄한 곡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동헌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동헌터의 주변에는 석축과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성문은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소로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훼손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기와편을 비롯하여 선문양이 타날된 토기편 등이 상당량 수습된다. 주계고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무주의 행정을 도맡았던 치소성(治所城)이다. 또한 무주가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하다.

## 4) 진안군

### ■ 용담면 월계리 와정토성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32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1996년, 1998년(군산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 현 황

월계마을에서 지방도 795호선을 따라 서남쪽으로 1.3km 가량 이동하면 호안과 인접한 곳에 현재 섬으로 남은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다. 월계리는 백제가 동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요충지로 충청남도 금산과 전라북도 용담을 잇는 솔재의 육로와 금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수로가 만나는 곳에 해당한다. 즉 백제가 대가야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는 대가야가 백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하는 수륙 교통의 핵심지이다.

와정토성은 1996년 군산대학교박물관이 1차 조사 하였으며, 1998년 전북대학교박물관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토성의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동벽의 길이 115.5m, 서벽 100m, 남벽 40m, 북벽 56.5m로 총 둘레는 312m이다. 토성의 목책 열은 동벽을 제외하고 정상부의 외곽을 따라 이어지며, 동벽은 산 경사면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성 내부의 공간에는 장방형 형태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규모는 24.3~77.6㎡ 정도로 큰 편에 속한다. 4호 주거지는 출입시설, 부엌 공간, 주거 공간, 저장 공간을 갖춘



와정토성 전경(1996년 용담댐 수전 전 사진)

공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거지의 바닥은 판축 다짐을 하였으며, 저장 공은 3호와 4호의 외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구들은 주거지의 북벽 혹은 북서벽에 위치하는데, 아궁이가 내부에 있고 구들의 형태는 ‘-자형’, ‘L자형’, ‘다골형’ 등의 유형이 있다. 구들은 냇돌 및 깎은 돌로 옆벽을 쌓고 판석 재로 뚜껑을 덮은 후 점토로 보강하였다.

출토 유물은 장란형 토기, 광구단경호, 삼족기, 뚜껑, 발형 토기, 시루 등 백제 토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소량의 대가야 토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철제 갑옷의 철갑편이 여러 점 점 출토되었다.

와정토성은 백제가 진안 용담 지역으로 진출한 시기와 그 경로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가야 세력의 금강 상류 지역의 진출을 보여준다.

## ■ 용담면 성남리(월계리) 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15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7년(전주대학교박물관)
- 현 황

성남리 산성은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성남 마을의 서북쪽 성재산(해발 318.2m)의 정상부와 능선에 위치한다. 성남리 산성은 자연 지형을 고려하여 협축과 내탁을 겸용한 포곡식의 석성으로 둘레는 약 400m이다. 산성의 평면 형태는 서벽이 남-북으로 길고 동쪽은 계곡을



감싸고 있는 B자형에 가깝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용담 고적조의 ‘古山城 在縣東十三里 石築周二千二百一十一尺 今廢’의 고산성은 성남리 산성으로 비정된다. 둘레는 1,211척이며, 『일본서기(日本書紀)』 현종기 3년 4월 조 기록 중에 보이는 ‘대산성(帶山城)’으로 비정되기도 한다.



대산성으로 비정되는 월계리산성 성벽 근경

성벽은 북서 모서리 부분이 잘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내벽의 높이는 1.5m, 외벽은 2.3m이고 상단 너비는 약 3m이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크고 작은 판석형 할석을 가로로 쌓았으며 뒤채움은 긴 할석을 세로 방향으로 채웠다. 동성벽의 계곡을 따라 오목하게 꺾이는 부분의 능선 경사면에서 동문지가 확인되며, 성 내부에는 건물지와 망대가 있다고 전해진다. 성 내부에서는 호형 토기, 시루, 파수부, 발형 토기, 병형 토기, 대각 등의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특히 기와는 선문이나 격자문 타날, 측면의 완전 분할, 통쪽흔 등 백제기와의 특징이 보인다.

성남리 산성은 전라북도 동북 지역의 고대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륙 교통이 활발한 곳에 위치한다. 축성법 및 유물 양상에서 볼 때 백제시대로 판단되는데, 인근 백제의 와정 토성, 가야 토기 및 백제토기가 출토된 월계리 황산 고분군 등의 유적과 비교해 보면 이와 비슷한 시기로 생각된다. 특히 백제 동성왕 대의 대가야 진출과 관련된 관문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 ■ 부귀면 황금리 환미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부귀면 황금리 산45, 정천면 월평리 산76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7년(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 현 황

환미산성은 부귀면 황금리 가치마을과 정천면 월평리의 경계에 위치한다. 1989년에 간행된 『진안 지방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환미산성’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성의 유래 및

축조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성은 테뫼식 산성으로 평면형태는 제형에 가까우며, 동쪽은 급격한 경사를 이룬다. 성곽의 둘레는 약 410m 내외로 추정되는데, 남쪽 성벽은 석축성벽, 나머지 성벽은 토축성벽이다. 특히 남쪽 성벽은 그 높이가 최대 6m 가량 잔존하는데, 이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심하게 붕괴되었다. 성벽은 석재를 납작한 장방형으로 다듬은 후 위와 아래가 서로 맞물리도록 가로로 쌓아 조성되었다. 북쪽과 동쪽 성벽은 임도가 개설되면서 일부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단면에서 토축 흔적이 확인된다.

토축 성벽 주변과 내부 평탄지, 정상부 민묘군 주변에서는 등면에 선문, 격자문 등이 타날된 삼국시대 기와편이 다량으로 산재되어있다.

## 5) 완주군

### ■ 운주면 금당리 용계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79번지 일원
- 지정사항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75호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6, 2017년(전북대학교박물관,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현 황

용계산성은 운주면 금당리 금당마을 북편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성의 남쪽에는 논산천의 지류인 장선천이 서류한다. 산성이 위치한 산봉우리는 해발고도 150m 내외로 높지 않지만 동쪽 능선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은 장선천, 북쪽은 천등산의 험준한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용계산성 성벽 근경

『동국여지승람』과 문헌비고에는 둘레 1,014척으로 백제 때 쌓은 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벽의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그 둘레는 493m이다. 험준한 절벽을 이루는 동벽은 편축으로 축조되었으며, 그 밖의 구간은 협축으로 조성되었다. 남성벽은 외벽 4m, 내벽 2.2m, 폭 4.3m 내외이다. 북성벽 구간은 대부분 붕괴되어 석축만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서성벽과 남

성벽 구간은 협축기법으로 축성한 석축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성 내부에는 평탄대지가 다수 확인되며,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이 다량 산재한다. 수습된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 때 처음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중요한 거점 산성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 용진읍 구역리 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구역리 829-2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시굴조사, 2016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구역리 산성은 용진읍 화계마을 남쪽의 '봉선골'로 불리는 계곡부를 포함하는 포곡식 토성으로 해발 90~100m 내외의 산 정상부와 능선부를 따라 조성되었다. 『조선보물고적자료』에 '龍進面一里, 土城址 周圍 約 五百間, 高六尺 乃至 十尺 完全'이라 기록되어 있다. 산성의 총 둘레는 983m 내외이며, 내부에는 '작약사'라는 사찰과 명창 '권득삼'묘를 비롯한 안동권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지표에서 훼손된 성벽 주변으로 격자문과 집선문이 타날된



구역리 산성과 만경강 수로



삼국시대 토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2016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1차례의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산성의 동쪽 평탄대지 및 토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부속시설의 부존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굴조사 결과, 추정 집자리, 수혈유구를 비롯한 생활관련 유구가 조사



구덕리 산성 출토 삼국시대 토기편

되었으며, 토루의 잔존현황 및 층위가 부분적으로 파악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개배, 고배 등의 백제 토기편이 주로 수습되었는데, 생활 및 제사용기의 출토비율이 높다. 또한 신라토기 및 가야토기 등도 일부 혼재된 양상이다. 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유적의 현황 및 출토유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구덕리 토성은 삼국시대 수로 교통로를 통한 동서문물교류의 중심지로서 생활, 의례, 방어시설 등을 모두 갖춘 복합유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산성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완주군의 고대문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므로 향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에 구덕리 고분, 화계고분군, 성삼리산성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유적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봉동읍 용암리 배매산성

-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 둔산리 946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 2017년(전라문화유산연구원)
- 현황

완주 배매산성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해발고도 121.6m의 산 정상부와 9부 능선을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산성의 둘레는 562m로 길이 220m, 너비 80m내외의 장타원형을 이룬다. 성 내부에는 성벽을 따라 너비6~10m의 회랑도가 조성되어 있고, 백제시대 기와, 토기편이 산재한다.

2000년 전주권 광역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2017년 전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비지정 매장문화재 학술조사의 일환으로 발굴조사 하였다. 2000년에 산성 남쪽을 중심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주거지, 원형수혈유구, 목책열, 시기가 다양한 무덤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삼족기, 기대, 고배 등의 의례용기와 뚜껑, 발, 옹, 호 등 생활용기가 수습되었다. 백제 토기가 주를 이루나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 토기편도 출토되었다. 2017년에는 산성 서쪽을 중심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배수시설, 건물지, 부뚜막, 배연시설 등이 조사되었으며, 성벽의 조성방법 및 잔존현황이 부분적으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200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의례용기와 생활용기가 모두 출토되었다.

배매산성은 백제 한성시기 후반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방어시설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의례용 토기가 다수 수습되어 의례적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 6) 임실군

### ■ 성수면 월평리 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33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시굴조사, 2015년(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월평리 산성은 임실군 성수면에 자리한 월평마을 노인정에서 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해발 267m가량의 야산에 자리한다. 산성은 야산의 정상부 능선과 서남쪽사면을 함께 아우르는데 그 중심에 계곡을 끼고 있어 포곡식 산성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동남쪽 성벽과 가장 낮은 서남쪽 성벽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표고는 2~99m이며,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잔존 성벽의 길이는 총 660m가량이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동북쪽이 넓고 서남쪽이 좁은 삼각형에 가깝다. 현재는 부엽토가 상당량 쌓여있고 수풀이 우거져 토석 혼촉성처럼 보이지만 일부구간에서 돌을 이용해 쌓은 성벽이 확인되었다.

성벽의 구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쪽에는 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성벽이 자리하는데 잔존길이는 230m 내외로 정상부의 폭이 5m가량이다. 외벽에서는 무너진 벽석이 일부 확인되었다. 남쪽에도 사면부를 따라 내려오는 성벽이 자리하는데, 잔존길이는 180m 내외, 정상부의 폭은 4m 내외이다. 외벽에서는 돌을 이용해 쌓은 성벽이 확인되었는



월평리 산성 남쪽 성벽

데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성벽은 크기 40cm 가량의 판석형 할석을 면을 맞추어 가로 쌓기 하였다. 현재 성벽의 정상부에는 송신탑이 세워져있으며 하단부를 일부 잘라내어 등산로를 개설하였다. 북쪽에서도 잔존길이 250m 내외, 정상부 폭 4m의 성벽이 자리하지만 현재는 수풀이 우거져 돌을 이용해 축조한 성벽의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다.

성 내부는 경사면을 따라 비교적 넓은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묘지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안쪽에서는 채석장과 출입시설이 각각 한곳씩 확인되었다.

채석장은 성내부의 서쪽에 자리하는데 각을 이루며 다듬어진 커다란 바위 주변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함께 확인된다. 이러한 흔적을 통해 성에서 필요한 석재를 가공한 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시설은 서쪽 계곡의 하단부에 자리하는데 폭이 12m가량으로 성 안쪽의 계곡으로 바로 이어진다.

내부에서는 집선문, 격자문이 타날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명회색 연질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이와 함께 두께가 매우 얇고 전면분할 된 암회색의 기와도 함께 수습되었다. 수습된 토기편과 기와는 주로 삼국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수습된 유물로 미루어보아 이 성은 삼국시대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전주에서 함양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을 관망하기위하여 산성을 운영했던 것으로 추

정된다. 또한 2007년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문화유적분포도-임실군』에는 이 성이 삼한시대에 축조되었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군량미를 저장하기 위해 쌓은 성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여러 시대에 걸쳐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201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는 산성 내 동·서쪽 평탄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물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렬과 초석 등이 확인되었으며, 하단부에서 후대의 우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노출되었다. 유물은 삼국~고려시대에 이르는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가야토기와 살포 또는 철서(호미)로 추정되는 철제 농공구가 확인되었다. 살포와 철서는 주로 지역 수장층의 무덤에서 확인되고 있어 위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며,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임실 금성리 고분군과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산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삼국시대 초축이 이루어진 후 후백제 때 개축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고려~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 관촌면 덕치리 성미산성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덕치리 산24번지 일원
- 지정사항 : 비지정
- 조사현황 : 발굴조사(2007년, 전북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2017년, 군산대학교박물관)
- 현 황

전라북도 기념물 제 100호. 임실군 관촌면 덕치리 산24번지 일원의 해발 430.5m 성미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관촌면 소재지인 관촌리에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오원천의 동안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는 “둘레 약545m의 석축으로 한 개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였다. 정확한 고증은 없으나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삼국시대 백제의 변성으로서 군량미를 저장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미산성의 둘레는 522m 정도로 테뫼식의 석축산성이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정상부 쪽은 좁고 산 아래쪽이 넓은 북고남저의 지형을 이룬다. 2000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8개소의 계단상의 대지를 비롯하여 우물지·추정 수구지 등이 확인되었다.

성미산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헌기록으로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 6년조와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8년조 등을 들어 ‘각산성(角山城)’으로 그 위치를 비정하기도 한다. 이 산성



성미산성과 섬진강 본류

에 대한 최근의 발굴조사 결과 다수의 구들유구와 집수시설 2기, 성벽 등이 확인되었다. 구들유구는 수혈주거지 내 화덕 및 구들로 추정되는데 주거지의 윤곽을 비롯하여 구들의 훼손이 매우 심하여 일부만 잔존한 상태이다. 구들 주변에서는 자라병, 개배, 호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집수시설의 축조방식은 먼저 자연암반층까지 굴광한 후 뿔흙을 사용하여 수평을 맞춘 다음 석축을 하면서 뒤쪽에 점토를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성벽은 백제 때 처음으로 축성되어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남쪽대지 조사과정에서 다수의 백제 인장와가 출토되었으며, 원형의 석축 집수시설 2기가 확인되었는데, 이 백제의 집수시설 2기는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성벽 뒷채움 사이에서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성벽은 백제 때 축조된 것으로 내·외벽을 모두 판석형의 할석으로 협축하였다. 이러한 성벽의 축조방식은 주로 전라남도 동부 남해안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백제 산성의 축조방식과 유사하다. 집수시설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부정형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집수시설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굴광 후 바닥과 벽면에 점토를 채웠다. 이러한 형태와 축조방식은 여수 고락산성 1호 집수정·보루집수정, 광양 마로산성 2호 집수정 등 백제산성의 내부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백제 오부명(五部銘) 인장와를 비롯한 다량의 기와류, 철제 삽날, 철촉 등 다량의 철제 농구·무구류와 금동여래입상 등이 있다. 오부명 인장와는 주로 ‘上’·‘中’·‘下’·‘前’ 등



이며, 그 외 '五'·'水' 등이 있다. 이런 인장와는 백제 고도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으로는 청주 부모산성, 금산 백령산성, 정읍 고부구읍성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과 함께 백제의 오부체제 및 지방통치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산성의 축조방식과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성미산성은 백제 사비시기에 한하여 축조·경영되었다가 이후에 성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 7) 순창군

### ■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산51일원
- 지정사항 : 전북문화재자료 제71호
- 조사현황 : 지표조사, 2002년(전북대학교박물관)
- 현 황

동계면 신흥리 장동마을 서쪽의 산 정상부를 휘감은 테뫼식 석성이다. 성벽의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타원형으로 총 둘레는 484m 가량이다. 초축은 삼국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조선시대에는 보수하여 군량과 전시 차량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동서 장축길이가 약 196m이고, 남변과 북변의 폭은 약 75m내외이다. 성벽은 장방형으로 정연하게 치석된 석재로 축조되었는데, 대부분 무너졌으나 남쪽 성벽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산성 내부에 건물대지 및 집수시설 추정지가 남아 있으며, 삼국~후백제(나말여초) 유물이 수습된다.



합미성 성벽 근경

이 성은 전북지역 가야세력의 섬진강 루트의 확보와 관련된 산성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후 후백제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4절 제철유적

### 1. 개 관

#### ■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 현황

지자체	2017년 6월 자료	2018년 6월 자료(현재)	비고
남원시	33개소 유적	40개소 유적	7개소 추가
장수군	58개소 유적	60개소 유적	2개소 추가
무주군	30개소 유적	31개소 유적	1개소 추가
진안군	1개소 유적	21개소 유적	20개소 추가
완주군	5개소 유적	23개소 유적	18개소 추가
임실군	2개소 유적	4개소 유적	2개소 추가
순창군	1개소 유적	1개소 유적	변동 없음
계	130개소 유적	175개소 유적	45개소 추가

※ 유적 상세 목록은 말미에 부록으로 별도 수록

#### ■ 제철유적의 특징과 주요 성과

- 전북 동부지역, 172개소의 제철유적 확인, 우리나라 최대 밀집도
- 가야의 발전 원동력으로 알려진 철의 생산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
- 장수 대적골·신전리, 남원 고기리·옥계동 시발굴조사 실시
- 가야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제철유적이 확인, 전북가야의 우수성과 역동성 증명
- 향후 가야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활발한 학술조사·연구 필요



## 2. 주요 유적 현황

### 1) 남원시

#### ■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A (남원-1)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남재골
- 현 황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에 소재한 귀정사 남쪽 남재골에서 상당량의 철재와 노벽편이 채집되었다. 산동면과 보절면 경계에 위치한 남대문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귀정사(歸政寺) 부근에서 그 방향을 동쪽으로 꺾는 물줄기가 남재골이다. 현지조사 때 남재골 입구에 산죽이 대규모 군락지를 이루고 그 위쪽에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대상리 제철유적 A 수습 철재 및 기와편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높였다. 백제 무령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귀정사에 전해져 큰 관심을 끈다. 백제 무령왕 15년(515) 현오(玄悟)스님에 의해 창건될 당시에 만행사(萬行寺)로 불리다가 무령왕이 고승의 법문을 듣기 위해 직접 행차하여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나라 일을 보고 돌아갔다고 하여 귀정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sup>1)</sup>고 한다.

#### ■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B (남원-2)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땅골
- 현 황

1) 백제 무령왕이 3일 동안 머물고 나니 주위의 산 이름과 지명도 따라서 바뀌게 되었다. 만행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황봉(天皇峰)이 되었고, 그 아래 여러 줄기의 봉우리들도 태자봉(太子峰)·승상봉(丞相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왕이 행차했던 길은 남대문로(南大門路), 병사들이 머무른 곳은 둔병치(屯兵峙)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절이 있는 대상리 마을에서 산동면 소재지로 가는 중간에 당동(唐洞)과 요동(堯洞)이란 마을이 있는데, 이 지명은 3일간의 귀정사 왕정(王政)이 요순시절과 같이 살기 좋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천황산 동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중산골로 합류하는 물줄기를 땅골로 부른다. 현지조사 때 귀정사에서 동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땅골 입구에서 다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제련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땅골 입구에서 위쪽으로 600m 올라간 중단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해 그곳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C (남원-3)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도장골
- 현 황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와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경계에 복치채가 위치한다. 금남호남정맥의 수분령을 넘어 남원과 장수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던 큰 고갯길이다. 이 고개의 서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대상천으로 합류하는 물줄기가 도장골이다. 현지조사 때 도장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제련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도장골 중단부에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그곳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D (남원-4)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점골
- 현 황

남원시 산동면, 장수군 산서면과 번암면 경계에 상서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의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천으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대상천이다. 대상천 최상류를 자빠지기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곳에서 장수 삼밭골 제철유적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잠바지개재를 넘었다고 한다. 현지조사 때 자빠지기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평탄대지가 발달한 자빠지기골 중단부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E (남원-5)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윗점골
- 현 황

천황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자빠지기골과 합류하는 물줄기를 비인이골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그 이름이 윗점골로 바뀌고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면서 대상천의 최상류를 이룬다. 현지조사 때 비인이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평탄대지가 발달한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봉읍 화수리 제철유적 (남원-6)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옥계동계곡
- 현 황

운봉고원 중앙부에 바래봉이 있는데, 이 산의 북쪽 기슭 옥계동 화수리 제철유적이 있다. 바래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잠시 옥계저수지에 머문 뒤 운봉읍 화수리에서 광천으로 흘러든다. 옥계동 계곡 중단부 평탄대지에 채석장과 제련로, 숯가마 등의 유구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이 일대는 천연의 자연 분지형 지형으로 철재의 분포범위가 700m에 달하며, 현지조사 때 기벽이 상당히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 기편과 송풍관편이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인근 마을 주민들이 구전으로 옥계동 계곡에서 가야금과 거문금을 타는 소리가 들려 옥계동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제보해 주었다.



화수리 제철유적 수습 철재



화수리 제철유적 시굴조사 광경

#### ■ 운봉읍 산덕리 제철유적 A (남원-7)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쟁이재골
- 현 황

백두대간의 만복대에서 정령치를 지나 세걸산(1220m), 바래봉(1186m), 덕두산(1150m)까

지 남북방향으로 뻗은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가 운봉고원을 운봉권과 산내권으로 갈라놓는다. 해마다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로 유명한 바래봉의 서쪽 기슭 중단부에 산덕리 제철유적 A가 있다. 산덕마을에서 위쪽으로 1.3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천연의 자연 분지형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바래봉 서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쪽으로 흐른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쟁이재골 입구 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 ■ 운봉읍 산덕리 제철유적 B (남원-8)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소방골
- 현 황

남원 산덕리 제철유적 A 남쪽 소방골에 산덕리 제철유적 B가 있다. 운봉읍 일대에서 팔랑치<sup>2)</sup>를 넘어 산내면 내령리를 경유하여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가려면 대부분 거쳐야 하는 계곡이다. 바래봉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산줄기 정상부에 운봉읍과 산내면 내령리 일대로 곧장 이어주던 팔랑치가 있다. 이 고개 서쪽 기슭 하단부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사방댐 제방 아래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소방골 중단부 평탄대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봉읍 공안리 제철유적 A (남원-9)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쇠골
- 현 황

남원 산덕리 제철유적 B와 수철리 제철유적 사이에 공안리 제철유적이 있다. 세걸산에서 바래봉까지 이어진 산줄기 서쪽 기슭 중단부로 부운치와 팔랑재 사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부운치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공안리 제철유적을 적시고 공안리 수철리마을 동쪽에서 공안천으로 흘러든다. 수철리마을에서 동쪽으로 1.1km 가량 떨어진 쇠골 중단부로 지형이 완만하고 상당히 넓어 제철유적의 입지와 관련하여 천혜의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현지조사 때 쇠골 하단부 계곡에서 소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 ■ 운봉읍 공안리 제철유적 B (남원-10)

2)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떠난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8명의 젊은 남자들이 달궁 터를 지키던 고개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수철리

○ 현 황

전북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수철리마을 동쪽 금새암골에 공안리 제철유적 B가 있다. 전북학생교육원 동남쪽 계곡으로 길이 1km 정도 평탄대지에 철재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세걸산에서 전북학생교육원으로 뺀 내린 산줄기 남쪽 기슭으로 금새암골의 평탄대지에 철광석을 녹이던 제련로가 군데군데 잘 남아있다. 제련로는 지표면을 평탄하게 다듬고 대형 할석을 가지고 석축을 쌓아 마련되었다. 구전으로 철기를 만들던 주쇠뜸이 수철리마을 동쪽에 있는데, 수철리라는 마을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림 82] 공안리 제철유적 B 수습 철재

#### ■ 운봉읍 주촌리 제철유적 (남원-11)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고리봉

○ 현 황

백두대간은 만복대에서 정령치를 지나 고리봉까지 북쪽으로 향하다가 고리봉에서 그 방향을 서북쪽으로 틀어 수정봉까지 이어진다. 한반도 척추이자 등뼈인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진 백두대간의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운봉고원 고리봉에서 수정봉까지의 구간이 들판을 통과한다. 고리봉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주촌천은 줄곧 서북쪽으로 흘러 주촌마을 북쪽에 위치한 주촌저수지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주촌천 중단부 뒷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A (남원-12)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선유폭포

○ 현 황

백두대간의 만복대 북쪽 기슭 중단부로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에 속한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서 737번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향으로 가면 선유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에서 서



쪽으로 200m 떨어진 숲 속 평탄대지에 철재와 노벽편이 군데군데 쌓여 있다. 만복대에서 서북쪽으로 뺀 산줄기 동쪽 기슭 하단부로 남북길이 1.5km 구역에 철재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운봉고원에서 다름재를 넘어 전남 구례군 산동면으로 이어진 한 갈래의 교통로가 고기리 제철유적을 통과한다. 운봉고원 속 주천면 고기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4개소의 제철유적은 모두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고기리 제철유적 A 제련로



고기리 제철유적 A 퇴적구

#### ■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B (남원-13)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안암골
- 현 황

백두대간의 고리봉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고기제로 흘러드는 골짜기가 안암골이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제철유적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기제에서 안암골을 따라 300m 가량 올라가면 골짜기 양쪽에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 일대에 철재가 집중적으로 흩어져 있다. 현지조사 때 제련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철재가 상당량 산재되어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C (남원-14)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수태골
- 현 황

백두대간의 정령치와 고리봉 사이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고기제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수태골이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남원 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수

태골을 통과했다고 한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제철유적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기제에서 수태골을 따라 150m 가량 올라가면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나오는데, 이 일대에 철재가 쌓여있다. 현지조사 때 제련로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수태골 양쪽에 상당량의 철재가 흩어져 본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D (남원-15)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물방아골
- 현 황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제철유적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월계리 경계에 다름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개의 북쪽 기슭에서 시작해 줄곧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물방아골이다. 이 골짜기 중단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면담조사 때 주민들이 제보해 준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조사 때 물방아골에서 문양의 종류와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은 평기와편이 일부 채집되었다.

#### ■ 아영면 일대리 제철유적 (남원-16)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풍천
- 현 황

운봉고원 북쪽 아영분지에서 유일하게 조사된 제철유적이다. 남원 월산리·두락리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비교적 넓은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해 있다. 남원시와 장수군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이 북쪽을 가로막고 있으며, 봉화산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한 갈래의 산줄기가 전북과 경남의 도계를 이룬다. 백두대간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흐르는 풍천이 있는데,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일대마을 동쪽 풍천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수습된 철재는 흰색을 띠는 석영이 박혀 있는 점에서 고온의 제련로에서 철광석이 녹는 과정에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풍천에서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백두대간의 남쪽 계곡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인월면 인월리 제철유적 (남원-17)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덕두산
- 현 황

백두대간 만복대에서 북쪽으로 쭉 뻗은 험준한 산줄기 북쪽 가장자리에 덕두산이 있다. 이 산 북쪽 기슭 중단부에 흥부골 제철유적이 있는데, 현재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덕두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지나 인월리 용계마을 북쪽에서 광천으로 흘러든다. 광천에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구간까지의 흥덕골 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흥덕골에서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 인월면 성산리 제철유적 (남원-18)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투구봉
- 현 황

전북과 경남 경계에 위치한 삼봉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험준한 산줄기에 감투봉이 있는데, 이 산 북쪽 기슭 중단부에 성산리 제철유적이 있다. 팔령치 부근 흥부출생지로 유명한 성산마을에서 감투봉 방향으로 장평마을을 지나 800m 쯤 더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150m 가량 떨어진 혼때골 계곡 양쪽에 철재가 무덤의 봉분처럼 볼록하게 쌓여있다. 혼때골 범람으로 동쪽에 있는 철재 퇴적층은 유구가 반절 정도 잘려나간 상태로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다. 이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에 또 다른 제철유적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산리 제철유적 제철로 하부구조

## ■ 인월면 중군리 제철유적 A (남원-19)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움투골
- 현 황

전북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중군마을 움투골에 위치한다. 남원시 인월면 소재지에서 60번 지방도를 따라 실상사 방면으로 향하다가 중군교를 건너면 중군마을이 나온다. 지리산 제3구간 둘레길이 통과하는 곳으로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에서 풍천을 합치고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는 광천 서쪽에 자리한다. 현지조사 때 중군마을 위쪽 계단식 밭에서 철재와 기벽이 비교적 두껍고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면담조사 때 현지 주민들이 숯을 생산하던 숯가마가 움투골에 많이 있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중군리 제철유적 A 수습 철재

#### ■ 인월면 중군리 제철유적 B (남원-20)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아래봉
- 현 황

전북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수성대골에 위치한다. 덕두봉 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수성대골로 합류하는 부근에 석축을 쌓아 조성된 계단식 농경지와 그 부근에 제철유적이 있다. 수성대골과 인접된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둔 제철유적은 노벽편과 철재가 10m 구역에 흩어져 있다. 지금은 터만 남은 점터마을과 제철유적 중간지점에는 계곡 범람으로 생긴 절단면에 숯가마가 노출되어 있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부터 광천까지의 수성대골 계곡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중군리 제철유적 B 수습 노벽 및 철재

#### ■ 인월면 중군리 제철유적 C (남원-21)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아래봉

○ 현 황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백장암 동남쪽 하구박골에 자리하고 있다. 삼봉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 중단부에 백장암이 있다. 백장암 남쪽에 하구박골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은 달리 백장암계곡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다른 한 갈래의 물줄기가 줄곧 서북쪽으로 흘러 백장교에서 동쪽으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하구박골 계곡으로 흘러든다. 백장교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구간까지의 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지형도에 하구박골로 표기되어 있어 그 지명을 유적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 인월면 중항리 제철유적 A (남원-22)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항리 상황마을

○ 현 황

전북과 경남 도계에 위치한 삼봉산 서북쪽, 즉 산내면 상황마을에 중항리 제철유적 A가 있다. 산내면 중항리는 산내면에서 가장 구릉지가 발달한 곳으로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평탄대지가 많아 제철유적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내면 중항리 상황마을 위쪽으로 지리산 제3둘레길이 지나고 있는데, 중항리 동쪽 들구재를 넘으면 경남 함양군 마천면으로 접어든다. 오래 전 계단식 밭과 논으로 조성되어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철재가 다량으로 수습된 중항리 상황마을 부근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인월면 중항리 제철유적 B (남원-23)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중항리 하항마을

○ 현 황

삼봉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남쪽으로 흐르다가 실상사 동쪽에서 임천강으로 합류한다. 이 물줄기를 따라 양쪽에 완만한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오래전 계단식 논과 밭으로 개간되거나 대규모 전원주택지로 조성되었다. 산내면 중항리 하항토성 동쪽 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삼봉산 남쪽 기슭 중단부 평탄대지에 중항리 제철유적 B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산내면 내령리 제철유적 A (남원-24)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내령마을
- 현 황

백두대간의 만복대에서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운봉권과 산내권의 경계를 이룬다. 해마다 지리산 철쭉제가 열리는 바래봉의 동남쪽에 산내면 내령리가 있는데, 바래봉 남쪽 팔랑재가 운봉읍 산덕리와 내령리를 이어준다. 바래봉 동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외령마을 부근에서 만수천으로 흘러든다. 느령이골로 불리는 외령마을에서 팔랑마을까지의 1.5km 구간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한 팔랑마을 부근에 내령리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내면 내령리 제철유적 B (남원-25)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빗기재
- 현 황

백두대간 명선봉 동쪽 삼각고지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가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경남 함양군 마천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에 우뚝 솟은 삼정산(1182.2m) 서북쪽에 빗기재 계곡이 있다. 본래 빗기재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1970년대 정부의 이주정책으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삼정산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빗기재 폭포에서 만수천으로 흘러든다. 지표조사 때 빗기재 폭포 위쪽 청수암 부근 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남원 내령리 제철유적 B는 넓은 평탄대지로 이루어진 빗기재마을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내면 부운리 제철유적 A (남원-26)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부운치
- 현 황

운봉고원의 운봉권과 산내권을 갈라놓는 산줄기 동쪽에 산내면 부운리가 있다. 세걸산 동북쪽 세걸산골로 그 서쪽에는 산내면 부운리와 운봉읍 공안리를 연결해 주는 부운치가 있다. 세걸산 동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상부운마을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온 다른 물줄기를 합치고 줄곧 동쪽으로 흐르다가 하부운마을 동쪽에서 만수천으로 들어간다. 상부

운마울과 하부운마울 사이 세겔산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넓은 평탄대지를 이루고 있는 상부운마울 부근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 산내면 부운리 제철유적 B (남원-27)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개선골
- 현 황

전북 남원시 산내면과 경남 함양군 마천면 경계에 영원령(1289.5m)이 있다. 영원령 북쪽에 개선골이 있는데, 행정 구역상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에 속한다. 현지조사 때 개선골에서 상당량 철재가 수습되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윗개선골마을과 아랫개선골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현지조사 때 개선골에서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부운리 제철유적 B 노벽 및 철재 퇴적구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비교적 넓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두 개소의 마을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A (남원-29)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외얏골
- 현 황

백두대간 고리봉 동쪽에 외얏골이 있는데, 행정 구역상으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에 속한다. 세겔산 동남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외얏골을 적시고 덕동마을에서 만수천으로 흘러든다. 외얏골 중단부 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외얏골 도요지가 위치한 외얏골마을 부근과 외얏골 계곡을 따라 양쪽에 군데군데 평탄대지가 발달해 있는데, 오래전 대부분 논과 밭으로 개간되었다. 외얏골 중단부 위쪽에 덕동리 제철유적 A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B (남원-30)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외얏골
- 현 황

산내면 덕동리 덕동마을에서 위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 덕동리 제철유적 B가 자리하고 있다. 세걸산(1207m)에서 동쪽으로 덕동마을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 남쪽 기슭 중단부로 지형이 완만해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덕동마을에서 농로를 따라 외얏골마을로 가면 첫 번째 계곡으로 농로 아래쪽 밭에 철재와 소토가 폭 넓게 흩어져 있다. 현재 밭둑에는 상당량의 철재와 소토가 쌓여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경작 활동으로 유구가 심하게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C (남원-31)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큰점골
- 현 황

지리산 반야봉(1732m) 북쪽에 망바위봉(1379m)이 있는데, 망바위봉 북쪽에 큰점골이 있다. 망바위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큰점골을 따라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덕동마을과 학천마을 사이에서 만수천으로 흘러든다. 큰점골 입구에서 위쪽으로 1km 올라가면 계곡의 좌측 평탄대지에 철재와 노벽편, 숯이 상당량 쌓여있는데, 평탄대지를 포함한 폐기장의 규모는 동서 길이 20m, 남북 폭 10m 내외이다. 큰점골 내 폐기장의 규모가 넓고 철재의 양도 많아 오랜 기간 동안 철 생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동리 제철유적 C 수습 철재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D (남원-32)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언양골
- 현 황

백두대간 고리봉에서 동남쪽으로 달궁계곡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 말단부에 점등산이 있

다. 이 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외얏골과 서쪽에 언양골, 남쪽에 하점골, 동남쪽에 큰점골이 있다. 운봉고원에서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고리봉 동남쪽 절부골과 정령치 동쪽 도랑모랑이골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언양골을 이룬다. 남원 덕동리 제철유적 D는 절부골에 자리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와 노벽편이 쌓여있는 2개소의 제철유적을 절부골에서 확인하였다.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E (남원-33)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언양골
- 현 황

백두대간의 정령치 동쪽 기슭에서 발원해 도랑모랑이골을 따라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절부골 물줄기와 만나 언양골을 이룬다. 백두대간의 정령치와 구동치를 넘어 남원으로 이어지는 옛길이 언양골을 통과하였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언양골과 도랑모랑이골을 따라 올라가다가 정령치를 넘어 섬진강유역에 속한 남원 고기리 제철유적을 지나 남원까지 이어



덕동리 제철유적 E 수습 철재

졌다고 한다. 현지조사 때 도랑모랑이골 입구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남원 덕동리 제철유적 E는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도랑모랑이골 중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F (남원-34)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달궁터
- 현 황

지리산 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달궁터는 마한 왕의 왕궁 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달궁계곡의 궁자는 경북궁처럼 ㄱ자를 쓴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달궁터는 밭으로 개간된 구역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달궁터의 흔적이 대부분 없어지고 일부 보존된 왕궁터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마한 왕의 달궁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리산 달궁계곡 내 맑은계곡 민박집 부근에 덕동리 제철유적 F가 자리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때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G (남원-35)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하점골
- 현 황

지리산 반야봉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망바위봉 북쪽 기슭 하점골에 있다. 달궁계곡을 건너 반야봉 쪽으로 1km 떨어진 하점골 평탄대지에 노벽편과 철재, 철광석이 흩어져 있다. 하점골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 서쪽에 큰 할석을 가지고 조잡하게 쌓은 석축이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본래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련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련로 부근에 철광석을 채광 한 뒤 몇 단계의 파쇄과정을 거쳐 길이 2~3cm 내외로 잘게 부순 철광석이 상당량 쌓여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자리하고 있어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덕동리 제철유적 G

## ■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H (남원-36)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봉산골
- 현 황

지리산 반야봉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투구봉 서쪽 계곡이 봉산골이다. 달궁계곡 달궁마을에서 861번 지방도를 따라 성삼재 방향으로 1km 가면 새목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달궁계곡을 건너 투구봉 쪽으로 1.2km 떨어진 덕동리 제철유적 H가 있다. 이 일대는 봉산골 중단부에 위치한 평탄대지로 제련로의 석축과 그 주변에 상당량의 철재가 흩어져 있다. 현



덕동리 제철유적 H 조사광경

지조사 때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제철유적의 분포범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

였다.

#### ■ 산동면 좌사리 제철유적 A (남원-37)

- 위 치 : 전라북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계곡
- 현 황

지리산에서 하늘 아래 첫 동네로 유명한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마을 동쪽 심원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백두대간의 노고단과 임걸령, 성삼재에서 각각 발원하는 세 갈래의 물줄기가 심원마을 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 마을 동쪽 심원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운봉고원의 산내권에서 백두대간을 넘어 경남 하동을 비롯한 남해안으로 가려면 대부분 달궁계곡과 심원계곡을 지나 임걸령을 넘었다고 한다.



좌사리 제철유적 A 수습 철재

#### ■ 산동면 좌사리 제철유적 B (남원-38)

- 위 치 : 전라북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노고단계곡
- 현 황

백두대간 노고단 북쪽 노고단계곡에 좌사리 제철유적 B가 있다. 노고단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노고단계곡을 지나온 물줄기가 심원마을 부근에서 대판골 물줄기와 합쳐져 심원계곡을 이룬다. 운봉고원의 산내권에서 섬진강유역의 구례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심원계곡과 노고단계곡을 지나 백두대간 성삼재를 넘었다고 한다. 노고단 서북쪽에 위치한 성삼재는 달궁계곡의 마한 왕과 관련된 지명으로 세 성씨를 가진 군사들이 고개를 지킨대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지조사 때 노고단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구례 좌사리 제철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 ■ 산동면 좌사리 제철유적 C (남원-39)

- 위 치 : 전라북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대판골

- 현 황

백두대간 임걸령 북쪽 대판골에 좌사리 제철유적 C가 있다. 운봉고원 산내권에서 경남 하동군 등 남해안 일대로 가려면 지리산 심원계곡과 대판골을 따라 오르다가 백두대간 임걸령을 넘었다고 한다. 백두대간 임걸령은 황장군이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성을 쌓고 고개를 지킨 황령치로 추정된다. 현지조사 때 대판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백두대간 임걸령 북쪽 대판골의 계곡이 깊고 철재의 양도 많아 비교적 큰 규모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함양읍 죽림리 제철유적 (남원-40)

- 위 치 : 전라북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상봉

- 현 황

전북과 경남 도계인 삼봉산 북쪽에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가 있다. 남원 성산리 제철유적에서 동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감투봉 동북쪽 기슭 중단부에 죽림리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성산마을 주민들의 제보로 밝혀졌으며, 삼보사에서 남쪽으로 500m 떨어진 지점이다.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는 전북과 경남에 속해 있지만 지형상으로는 동일한 지역권 및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시대 팔령관이 있었던 팔령치는 전북과 경남을 잇는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던 큰 관문으로 그 동남쪽에 죽림리 제철유적이 있다.

## 2) 장수군

#### ■ 장수읍 노하리 제철유적 (장수-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판둔마을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오계치<sup>3)</sup>에서 동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산봉우리가 장수군 장수읍과 천천면, 진안군 백운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봉우리 정상부에서 한 갈래의 산줄기가 장수천까

3) 전북 장수군 천천면과 진안군 백운면을 연결해 주던 큰 고갯길이다.

지 동쪽으로 길게 뻗어 내렸는데, 이 산줄기 남쪽에 장수읍 노하리가 위치한다. 현지조사 때 천상대미골 상단부 계곡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장수 노하리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동쪽에 장수 노하리 고분군과 서쪽에 장수 성수산 봉수, 남쪽에 봉황산이 있다.

## ■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A (장수-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이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장안산(1236m)은 장수군 장수읍과 계남면, 번암면 경계를 이룬다. 장안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상북골을 따라 계속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지실가지 계곡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만나 무돌리골을 이룬다. 이곳에서 줄곧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연주마을을 거쳐 용림제로 흘러든다. 상북골 상단부 윗점에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A가 위치



덕산리 제철유적 A 수습 철재

하고 있는데, 현지조사 때 석축을 쌓아 만든 평탄대지에서 제련로와 그 주변에 철재가 폭 넓게 흩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죽(山竹)이 군락지를 이루어 제련로를 만들 때 필요한 양질의 흙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B (장수-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이골
- 현 황

장안산에서 서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중봉이 있는데,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B가 중봉 서쪽에 위치한다. 중봉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가운데골을 따라 계속해서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덕천암터 동쪽에서 상북골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만난다. 덕천암터에서 650m 가량 떨어진 가운데골 아래점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가운데골을 따라 산죽이 폭 넓게 자생하여 제련로를 만들 때 필요한 양질의 흙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C (장수-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이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장안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장수군 장수읍과 계남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가뚝재 남쪽에 자리 잡은 무돌이골 지실가지에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C가 있다. 무돌이골 북쪽에 위치한 지실가지는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들로 감싸인 천연의 자연분지로 평탄대지가 발달한 지실가지 입구가 대부분 계단식 밭으로 개간되었다. 현



덕산리 제철유적 C 수습 철재

지조사 때 지실가지 입구 개간된 밭에서 소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수습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D (장수-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이골
- 현 황

장안산 서쪽 무돌리골에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D가 위치한다.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연주마을에서 위쪽으로 7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무돌이골에서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한 곳이다. 무돌리골 물줄기가 거의 U자형으로 휘감는 곳으로 제철유적과 관련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일대에서 상당한 깊이로 제토작업이 이루어져 제철유적이



덕산리 제철유적 D 수습 철재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조사 때 민가를 중심으로 100m 내외의 구역에 제련로의 노벽편과 함께 철재가 폭 넓게 흩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 ■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E (장수-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로 763-3
- 현 황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D에서 위쪽으로 25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장안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용림제로 흘러드는 무돌이골 물줄기를 중심으로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D가 남쪽에 장수 덕산리 제철유적 E가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무돌리골 지실가지에서 용림제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 서쪽에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노벽편과 철재가 흩어져 있다. 2000년대 초 연주마을에서 지실가지까지 농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제철유적이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덕산리 제철유적 E 수습 노벽 및 숯

## ■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F (장수-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진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밀목치 남쪽 진골에서 다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수읍 일대에서 백두대간 중재를 넘어 경남 함양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밀목치를 넘었다고 한다. 밀목치 서남쪽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진골로 불리는데, 밀목치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합쳐 줄곧 남쪽으로 흘러 용림제로 흘러든다. 2005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덕산계곡 물줄기를 막아 용림제가 준공되었다. 용림제와 진골 골짜기 사이 계곡에서 다량의 노벽편과 철재가 수습되었다. 본래 밀목치 부



덕산리 제철유적 F 수습 노벽편 및 철재



근이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곳에 용림제 건설로 수몰민들이 모여 신덕산마을을 조성하였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진골과 신덕산마을 일대에 대규모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장수읍 식천리 제철유적 A (장수-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586 일원
- 현 황

장수 묘목산 봉수 서남쪽 기슭 하단부에 장수 식천리 제철유적 A가 있다.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말치골 점터로 장남제 위쪽 주민의 제보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몇 년 전 장수군 산서면과 번암면을 이어주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깊이로 제토작업이 이루어져 소량의 철재만 수습되었다. 묘목산과 상서산 사이 고갯마루가 말티고개로 한성기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이어주던 백두대간 치재로가 통과하는 곳이다.



식천리 제철유적 B 전경

#### ■ 장수읍 식천리 제철유적 B (장수-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말치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남쪽에 대성고원이 위치한다. 이곳은 해발 600m 내외되는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구릉지와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룬다.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비롯하여 분묘유적과 관방유적이 밀집 분포된 곳으로 고려시대 대성소의 행정치소였다. 현지조사 때 대성고원을 적셔주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식천리 식천마을 남쪽 용수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대성고원의 면적이 넓고 대부분 사과농장으로 개간되어, 아직까지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A (장수-1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 현 황

금강과 낙동강, 섬진강 분수령이 영취산(1075.6m)이다. 이 산은 백두대간에서 금남호남정맥이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삼국시대 봉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 서쪽에는 조선시대 유자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무령고개 혹은 영취령으로 불리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 남쪽 무룡골에서 다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서쪽과 금남호남정맥 남쪽 기슭에



지지리 제철유적 A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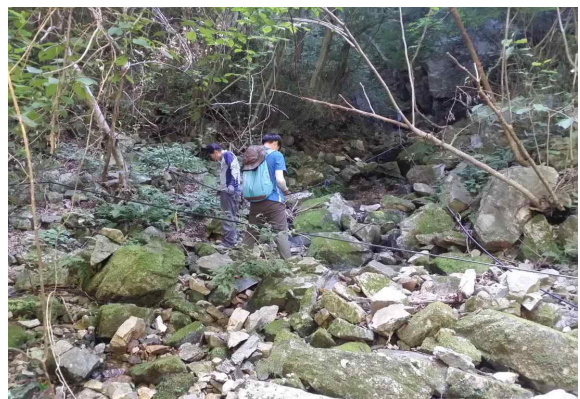
서 발원하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무룡골을 이룬다. 금남호남정맥의 무령고개와 다음에 설명할 장수 목골 제철유적 사이의 계곡에서 수습된 철재를 장수 무룡골 제철유적으로 이름을 붙였다. 백두대간 서쪽 선바위골 입구와 무룡고개 남쪽 기슭에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본래 이 일대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B (장수-1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 현 황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선태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영취산과 백운산 중간지점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곳을 선태골이라고 부른다. 지지계곡의 무룡골을 중심으로 선태골이 동쪽에 목골이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골짜기 입구에서 수습된 철재는 대부분 강자갈처럼 둥글둥글하여 선태골 물줄기를 따라 상당히 위쪽에서 흘러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태골 중간지점에 비교적



지지리 제철유적 B 근경

를 따라 상당히 위쪽에서 흘러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태골 중간지점에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구릉지가 넓게 펼쳐져 선태골에 제철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높였다.

## ■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C (장수-1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산줄기 남쪽 목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안산(1236.9m)에서 동쪽으로 800m 가량 떨어진 산봉우리 사이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흘러 선태골 부근에서 무룡골로 합쳐진다. 이 골짜기를 목골로 불리는데, 목골이 무룡골로 합쳐지는 계곡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목골 입구에서 위쪽으로 500m 구간이 계곡을 따라



지지리 제철유적 C 조사광경

라 그 양쪽이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목골과 무룡골이 합류하는 일대가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고, 2010년대 초 743번 지방도가 개설되는 과정에 제철유적이 얼마간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D (장수-1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 현 황

백두대간 백운산(1278.9m)은 전북 장수군 번암면과 경남 함양군 백전면·서상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북쪽으로 흘러 지지계곡으로 들어간다. 백운산과 지지계곡 사이 골짜기를 구골이라고 불리는데, 구골 입구에서 위쪽으로 300m 올라간 지점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곳에서 백운산에서 흘러 내려온 물줄기를 따라 동서 길이 350m, 남북 폭 150m 정도 되는 자연 분지형 구릉지가 있는데, 이 일대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200m 올라간 서쪽 기슭에도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구릉지가 있는데,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철광석의 채석부터 파쇄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지지계곡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철재의 분포 범위가 가장 넓다.

#### ■ 변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E (장수-1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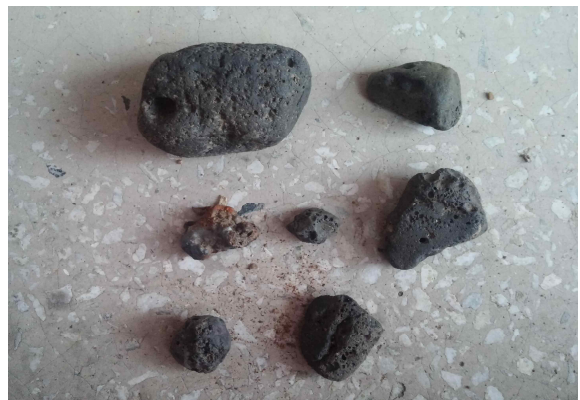
- 현 황

장수군 변암면 지지리 작은구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백두대간 백운산에서 북쪽으로 700m 가량 떨어진 산봉우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북쪽으로 흘러 지지계곡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작은구골이다. 작은구골 입구에서 북쪽으로 100m 올라간 지점에서 구골과 청옥골 물줄기가 합류한다. 현지조사 때 작은구골 입구에서 중단부까지의 골짜기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작은구골 입구에서 위쪽으로 450m 가량 올라간 중단부에 동서 길이 200m, 남북 폭 150m 정도 되는 자연 분지형의 구릉지가 발달해 있는데, 이곳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장수 구골 제철유적과 함께 지지계곡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2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대형에 속한다.



지지리 제철유적 D 근경



지지리 제철유적 E 수습 철재

#### ■ 변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F (장수-1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 현 황

금남호남정맥의 명산인 장안산은 장수읍과 계남면, 변암면 경계를 이룬다. 장안산 동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무룡골까지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청옥골이라고 부른다. 지지계곡 옥산가든에서 남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부근에서 청옥골 물줄기가 무룡골로 들



어간다. 이 골짜기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청옥골 입구에서 300m 떨어진 위쪽에 자연 분지형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본래 이 일대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몇 채의 민가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지폭포산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지계곡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본래 그 규모가 큰 유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변암면 지리리 제철유적 G (장수-1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지리리 지지계곡
- 현 황

전북 장수군 변암면 지리리 원삼거리마을은 장안산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 마을을 휘감은 산줄기 중앙부에 서남쪽으로 흐르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최근에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대규모 민가가 조성되는 과정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원삼거리마을 중앙부를 관통하는 골짜기가 깊지 않고 수량도 풍부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 ■ 변암면 지리리 제철유적 H (장수-1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지리리 지지계곡
- 현 황

장수군 변암면 지리리 서낭골 입구에서 굵은 모래가 붙은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안산 서쪽 중봉 서남쪽에 서낭골이 있는데, 서낭골 물줄기는 중봉 서남쪽 기슭에서 발원해 서남쪽으로 흘러 오래 전 폐교된 봉화초교 지지분교 부근에서 지지계곡으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형이 완만한 서낭골 상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판둔마을 입구 마을 숲 부근 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면담조사 때 원삼거리마을 주민들이 서낭골에 절터가 남아있다는 사실과 백두대간 중고개재가 장수와 함양을 이어주던 큰 고갯길이었다는 것을 제보해 주었다.

#### ■ 변암면 지리리 제철유적 I (장수-1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 현 황

변암면 지지리 어채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안산에서 증봉과 하봉을 지나 서남쪽으로 뻗은 비교적 가파른 산줄기가 장수읍 덕산리와 변암면 지지리 경계를 이룬다. 금남호남정맥의 하봉에서 서남쪽으로 1.2km 남짓 떨어진 곳에 어치재가 있는데, 백두대간 중재를 넘어 장수읍에서 경남 함양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넘었던 고개이다. 이 고개의 남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백운천으로 불리는 지지계곡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비교적 그 길이가 긴 골짜기가 어채골이다. 현지조사 때 철재와 직접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어채골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변암면 동화리 제철유적 (장수-1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동화리 하동마을

○ 현 황

백두대간 봉화산(919.8m)은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와 남원시 아영면 구상리를 갈라놓는다. 봉화산 정상에는 지표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봉수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이루어진 시굴조사 결과 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해 쌓은 봉수터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봉화산 북쪽에는 속금산(907m)이 인접해 있는데, 이 산 역시 험준한 산줄기를 자랑하며 사방



동화리 제철유적 전경

으로 계곡이 발달해 있다. 봉화산과 속금산 사이에는 동-서 방향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계곡에는 수량이 풍부한 계곡천이 흐르는데, 계곡천은 서쪽으로 흐르다가 봉화산 서북쪽에 위치한 '하동마을'을 관통한다. 하동마을회관 인근의 계곡천에서는 철재가 상당량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수습된 철재의 표면이 오랫동안 물에 휩쓸려 둥근 것으로 보아 둥근 것으로 보아 철 생산과 관련된 유구는 계곡상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철재가 수습된 하동마을 일대는 다목적 지화학도 확인결과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90% 내외로 높다. 따라서 주변에 매장된 원료를 통해 철을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변암면 국포리 제철유적 A (장수-2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삼밭골
- 현 황

전북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와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경계에 위치한 짐바지기재 북쪽에 장수 국포리 제철유적이 위치한다.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도장마을 서남쪽 삼밭골로 짐바지기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삼밭골을 따라 동북쪽으로 흘러 장남호로 들어간다. 장남호 남쪽 장남제이고 서남쪽 삼밭골 입구에서 상당히 큰 철재를 수습하였는데, 여름철 장마로 계곡 물이 많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삼밭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고, 삼밭골 중간에 비교적 넓은 완만한 지형이 형성되어 상당한 규모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변암면 국포리 제철유적 B (장수-2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도장골
- 현 황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와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행정경계를 이루는 산줄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흘러 물방아들 부근에서 요천으로 흘러든다. 이 물줄기를 도장골로 부르는데, 변암면 국포리 도장골마을 서남쪽에 위치한다. 현지조사 때 물방아들 부근 도장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재 사람들이 골짜기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도장골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도장골에 두 세 가구의 민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고 제보해 주었다. 일제강점기 때 변암면 일대에 많은 금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지조사 때 수습된 철재의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그 시기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변암면 국포리 제철유적 C (장수-2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쇠바탕골
- 현 황

장수군 변암면 국포리 쇠바탕골에 위치한다. 장수군과 남원시 경계에 위치한 만행산(909m)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사이 계곡에 상북마을이 위치한다. 쇠바탕골로

불리는 계곡은 내부 공간이 넓어 대부분 경작지로 개간되었으며, 수량이 풍부한 계곡천이 상북마을 중앙부를 관통한다. 현지조사 때 계곡천 하류에서 수습된 철재는 계곡을 따라 지속적으로 확인되는데, 상류 주변 경작지에는 마모되지 않은 철재와 노벽편,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지표에서 확인되는 노벽편의 양이 많고 경작지 내의 특정 범위에만 산재되어 이곳에 철 생산과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철유적이 자리한 일대는 다목적 지화학도 확인 결과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75~90% 내외로 높다.



상북마을 수습 노벽편 및 철재

#### ■ 변암면 교동리 제철유적 A (장수-2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교동리 산67-1
- 현 황

금강과 섬진강 물줄기를 나누는 수분령(530m)에서 장수로를 따라 북쪽으로 1.3km가량 이동하면 교동저수지가 나오는데, 이 저수지 아래에는 계곡을 따라 흐르는 교동천이 있다. 교동천은 북쪽으로 흘러가면서 주변 계곡의 물줄기와 점차 합류하여 요천을 이룬다. 저수지 주변에는 어덩이골과 두째골을 비롯한 계곡이 자리하고 있으며, 요천으로 합류하는 계



교동리 제철유적 A 수습 철재

곡천 동쪽으로는 경작지가 자리하고 있다. 교동저수지에서 북쪽으로 550m 가량 떨어진 계곡천 기슭에서는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수습된 철재는 오랫동안 물에 휩쓸려 표면이 매끄럽다. 현지조사 때 유구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철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평지 또는 계곡 내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철유적이 위치한 일대는 다목적 지화학도 검토 결과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90% 내외로 높기 때문에 주

변에 매장된 원료를 이용하여 철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 변암면 교동리 제철유적 B (장수-2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교동리 1319-17
- 현 황

변암면 교동리 금천마을은 금남호남정맥의 신무산(897m)에서 뺀 산줄기가 북쪽을 감싸고 있어 서고-동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계곡상부에서 흘러내린 계곡천이 마을까지 흘러내린다. 이 마을 주민들이 금천마을은 원래 우리말로 쇠내마을로 불렸는데, 이를 한자표기 하면서 금천(金川)마을로 바뀌었다고 제보해주었다. 이 마을 지명이 철과 관련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을 북쪽에 위치한 계곡부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이 제철유적이 위치한 일대는 다목적 지화학도 검토 결과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90% 내외로 높다.



교동리 제철유적 B 수습 철재

#### ■ 변암면 죽산리 제철유적 (장수-2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죽산리 대성방마을
- 현 황

변암면 사무소에서 장수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4km 가량 이동하면 도로 좌측으로 대성방마을이 위치한다. 이 마을은 천황산(909.6m)과 감투봉 주변의 험준한 산줄기 사이의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대성방마을이 위치한 계곡은 내부공간이 넓어 현재는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계곡상부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수량이 풍부한 계곡천을 이루어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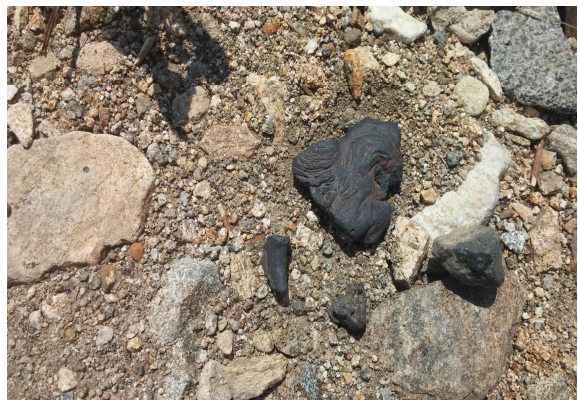
죽산리 제철유적 근경

을 관통해 흐르다가 계곡 하류에서 요천과 합류한다. 통나무계곡산장 부근의 계곡천에서 다량의 철재가 확인되었다. 하류에서 철재가 확인되어 중·상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계곡 통나무계곡산장에서 북쪽으로 550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다량의 철제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철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대규모의 철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목적 지화학도 확인 결과 이 일대는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75% 내외로 높다.

#### ■ 변암면 노단리 제철유적 A (장수-2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197
- 현 황

변암면 사무소에서 노단교를 건너 노단 신기길을 따라 남쪽으로 200m 가량 이동하면 신기마을이 나온다. 신기마을 동남쪽에는 깊이가 깊지 않지만 내부지형이 넓고 완만한 계곡이 자리하는데, 여기에 제철유적이 있다. 이 제철유적이 위치한 계곡은 백두대간의 봉화산(919.8m)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 사이에 해당하는 곳으로 그 중심에는 계곡천이



노단리 제철유적 A 수습 철재

흐른다. 현지조사 때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신기회관에서 노단신기길을 따라 동남쪽으로 200m 가량 이동한 지점의 계곡천과 경작지 사이에서 다량의 철재가 확인되었다. 당시에 수습된 철재 가운데 일부는 물에 휩쓸려 표면이 등글게 마모되었으나 대체로 마모되지 않았으므로 제철유적은 철재가 수습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다목적 지화학도 검토 결과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99% 내외로 매우 높기 때문에 주변에 매장된 원료를 이용하여 철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변암면 유정리 제철유적 (장수-2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변암면 유정리 641
- 현 황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에 위치한 원촌마을에서 원촌교를 건너 성암길을 따라 810m 가량

남쪽으로 이동하면 유정삼거리가 나온다. 도로 우측으로는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흐르는데, 이 물줄기는 번암면 논곡리에 서 흘러와 번암면 대론리로 흘러들어 요천을 이룬다. 유정삼거리 부근의 하천변에서는 철재가 수습되었다. 당시에 수습된 철재는 오랫동안 물에 휩쓸려 표면이 둥근데, 이를 통해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구는 철재가 수습된 위치보다 상류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철광상이 자리할 확률이 75%~90% 이상으로 높아 제철유적이 입지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정리 제철유적 수습 철재

#### ■ 번암면 대론리 제철유적 (장수-2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큰논실마을
- 현 황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큰논실마을 북쪽 빠찌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빠찌골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남쪽으로 흘러 큰논실마을을 지나 다시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 요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큰논실마을에서 북쪽으로 1.2km 가량 떨어진 빠찌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세째골과 당골, 뒷골 물줄기가 빠찌골로 흘러드는 부근에 장수 유정리 제철유적 B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큰논실마을 주민들이 도요지가 자리하고 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A (장수-2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 현 황

백두대간 장수덕유산 서쪽 대적골에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A가 위치한다. 장수덕유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처음에 안골로 불리다가 중단부에 이르러서 대적골로 그 이름이 바뀌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흘러 명덕리 동명마을에서 명덕천으로 합류한다. 현지조사 때 대적골 중단부에 위치한 절골부터 안골까지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그 길이가 1.5km에 달한다. 모두 네 개 지구로 나누어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다지구에서는 제련로와 함께 5m 이상의 철재 퇴적층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유물은 기벽이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 격자문과 선문이 시문된 기와편, 백자편과 옹기편이 수습되었다.



명덕리 제철유적 A 시·발굴조사 후 전경



명덕리 제철유적 A 퇴적구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B (장수-3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큰시양골
- 현 황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A 남쪽 큰시양골에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B가 위치한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흘러 큰시양골을 이룬다. 현지 조사 때 큰시양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왕래가 어려울 정도로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큰시양골 중단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이곳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C (장수-3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343 일원
- 현 황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B를 적셔준 큰시양골 물줄기가 대적골로 합류하는 부근에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C가 위치한다. 백두대간 서봉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남쪽 기슭 하단부로 일부 민묘 구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었다. 현지조사 때 밭을 경작하는 과정에 쇠뿔이 나온다는 신기마을 주민들의 제보로 그 존재가 확인되어 시굴조사가 이루



어졌다. 모두 두 차례의 시굴조사에서 솔을 만들던 거푸집과 함께 소토, 철재가 다량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유구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A·B에서 생산된 선철을 이용하여 이곳에서 솔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명덕리 제철유적 C 확인 폐기장



명덕리 제철유적 C 수습 용범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D (장수-3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너더리골
- 현 황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양삼마을과 동명마을 사이 너더리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서남쪽으로 갈라진 산자락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너더리골 물줄기는 줄곧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명덕천으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너더리골 중단부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2013년 완공된 사방댐 위쪽에서는 철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래 너더리골에서 가장 완만한 자연지형을 이루고 있는 사방댐 일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지조사 때 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장수 너더리골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그 위쪽에는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이 아래쪽에는 장수 삼거리골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E (장수-3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삼거리골
- 현 황

백두대간 장수덕유산과 할미봉 사이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삼거리골은 줄곧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양삼마을 부근에서 명덕천에 합류한다. 삼거리골 상단부에서 양삼마을 사이의 계

곡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삼거리골과 할미산골이 만나는 부근에서 숲과 철재가 섞인 상태로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유구의 성격이 제련로로 추정된다. 그리고 절단면에 노출된 제련로 부근에 약간 불룩하게 솟은 봉우리가 곳곳에 있는데 또 다른 제련로로 점쳐진다. 제련로에서 서북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남쪽 기슭 하단부에 장방형 구덩이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숲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숲가마로 추정된다. 삼거리골 골짜기가 상당히 깊고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어 또 다른 제철유적이 더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때 수연을 생산하던 장수광산의 흔적이 삼거리골 중단부에 비교적 잘 남아있다.



명덕리 제철유적 E 내 석축유구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F (장수-3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할미산골
- 현 황

백두대간 할미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삼거리골로 들어가는 할미산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큰덩이골과 삼매골이 하나로 합쳐져 할미산골을 이루고 있는데, 삼매골이 할미산골에 합류하는 곳에 철재가 집중적으로 흩어져 있다. 삼거리골에서 할미산골 방향으로 200m까지의 구간으로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 이 일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매골이 할미산골에 합류하는 부근에는 석축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일대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어 제련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 때 할미산골에서 수습된 철재 양이 많지 않아 제철유적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명덕리 제철유적 F 근경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G (장수-3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절골
- 현 황

장수 할미봉 봉수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절골을 이룬다. 현지조사 때 절골을 따라 흘러온 물줄기가 삼거리골 물줄기와 합류하는 절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양삼마을 주민들이 절골에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는 절터가 있는데, 지금은 그 흔적만 일부 남아있다고 제보해 주었다. 1915년 일제강점기부터 수연 광석을 채광하던 장수광장이 그 부근에 위치한다.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H (장수-3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문봉골
- 현 황

백두대간 할미봉 서쪽 기슭 하단부에 문봉골이 위치한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양삼마을에서 동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골짜기로 줄곧 활석을 채광하다가 지금은 폐광된 장수 덕유광산 서쪽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봉골 물줄기가 삼거리골에 합류하는 문봉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



명덕리 제철유적 H 수습 철재 및 토기편

하지 못하였다. 문봉골 골짜기가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계단식 논으로 개간된 문봉골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I (장수-3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정토골
- 현 황

백두대간 큰 고갯길로 유명한 육십령 서쪽 기슭 하단부에 장수 명덕리 제철유적 I가 위치한다.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육십령은 산적과 도적들이 많아 육십명이 한 개조로 편성되어야 고개를 무사히 넘을 수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지조사 때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원명덕마을에서 위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정토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2007년 준공된 한국마사회 장수경주마목장 건설공사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유실 내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J (장수-3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큰거두장골
- 현 황

백두대간 산줄기가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경계를 이룬다. 영호남의 큰 관문이었던 육십령 남쪽에 우뚝 솟은 장수 구시봉 봉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큰거두장골을 지나 장수경주마목장으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장수경주마목장 남쪽 가장자리 큰거두장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큰거두장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기 때문에 평탄대지가 발달한 큰거두장골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장계면 오동리 제철유적 (장수-3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쇠판이골
- 현 황

진안고원 속 장계분지 남쪽에 장수 백화산 봉수가 있다. 백화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쇠판이골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 큰골로 들어간다.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회곡마을에서 북쪽으로 흘러온 물줄기가 큰골로 오동교 부근에서 장계천과 만난다. 현지조사 때 쇠판이골 물줄기가 큰골과 합류하는 부근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쇠판이골 하단부에 평탄대지가 넓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일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A (장수-4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북정골

○ 현 황

백두대간 구시봉과 민재<sup>4)</sup> 사이 서쪽 기슭에 발원하는 물줄기가 북정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현지조사 때 북정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북정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북정골 중단 부에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이 일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 대곡리 제철유적 A 남쪽에 북정골보다 더 깊은 큰민재골과 작은민재골이 있지만, 현지조사 때 철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B (장수-4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점골

○ 현 황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곶촌마을 동쪽 점골에 장수 대곡리 제철유적 B가 위치한다. 백두대간 민재와 덕운봉 중간에 위치한 산봉우리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점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곶촌마을 부근에서 백두대간 영취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북쪽으로 흘러온 장계천과 만난다. 지표조사 때 곶촌마을 내 점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지만, 아직까지 점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C (장수-4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텃골

○ 현 황

백두대간 산줄기가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경계를 이룬다. 백두대간의 덕운봉 서쪽 기슭에서 발원해 서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텃골로 743번 지방도와 만나는 부근에서 무릉골로 합류한다. 텃골 물줄기가 무릉골과 만나는 부근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철재의 양이 많지 않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텃골에 몇 개소의 탄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귀농해 사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 텃골에서 3개소 이상의 숯가마를 보았다고 제보해 주었다. 텃골 중단 부가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그 주변에 숯가마가 자리하고 있는 점에서 철재와

4)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와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를 곧장 연결해 주던 백두대간 고갯길로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다.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D (장수-43)

- 위 치 : 전라북도 장계면 대곡리 무릉골
- 현 황

백두대간 영취산이 금강과 섬진강, 남강 분수령을 이룬다. 영취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남쪽의 섬진강과 북쪽의 금강유역으로 갈라놓는 금남호남정맥이다. 백두대간의 영취산 서쪽 기슭 하단부에 조선시대 유자광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 무령고개가 있다. 영취산 서북쪽과 무령고개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북쪽으로 흐르는 무릉골에서 철



대곡리 제철유적 D 전경

재가 수습되었다. 금남호남정맥의 무령고개와 텃골 사이 사방댐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000년대 초 무령고개를 통과하는 743번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유적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면담조사 때 지방도 도로공사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무릉골에서 쇠풀을 보았다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다.

## ■ 장계면 월강리 제철유적 A (장수-4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큰골
- 현 황

백두대간 서봉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가 장수군 장계면과 계북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에 장수 깃대봉 봉수가 있는데, 이 봉수의 서남쪽 큰골 골짜기에 장수 월강리 제철유적 A가 위치한다. 장수 깃대봉 봉수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반달모양으로 휘감아 돌아 월강농장 부근에서 토골을 따라 내려온 물줄기와 만난다. 현지조사 때 큰골 입구 월강농장 남쪽 골짜기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이 일대가 월강농장과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되어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 장계면 월강리 제철유적 B (장수-4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토골
- 현 황

장수 깃대봉 봉수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북당골과 각음안골 등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토골을 이룬다. 토골을 따라 서남쪽으로 흘러온 물줄기가 월강농원 입구에서 큰골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만난다. 현지조사 때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토골 골짜기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수량이 풍부한 토골 일대가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되어 당시에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구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 ■ 장계면 금덕리 제철유적 (장수-4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울음박골
- 현 황

장수 깃대봉 봉수 서쪽 울음박골 골짜기에 장수 금덕리 제철유적이 위치한다.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와 계북면 매계리 경계에 위치한 압곡봉 남쪽 기슭 중단부에 성관사가 있는데, 이 절의 남쪽 울음박골 두 개소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수와 무주를 잇는 19번 국도에서 성관사 일주문을 지나 위쪽으로 150m 가량 떨어진 계곡에서 상당량의 철재와 이곳에



금덕리 제철유적 수습 철재

서 위쪽으로 200m 떨어진 울음박골에서 제련로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성관사로 오르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생긴 절단면에 진한 녹물이 흘러내린 철광석이 모습을 드러내 이 일대에 철의 순도가 높은 철광석이 분포된 것으로 짐작된다.

## ■ 계남면 신전리 제철유적 A (장수-4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106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장안산(1236m)에서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장수군 장수읍과 계남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피나무재 북쪽 기슭 하단부에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마을 남쪽 구릉지에 장수 신전리 제철유적 A가 자리하고 있다. 현지조사 때 검은골 내 쇠점토로 불리는 구릉지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이 일대가 밭으로 개간되어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017년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제련로의 흔적과 함께 백자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신전리 제철유적 A 전경

■ 계남면 신전리 제철유적 B (장수-4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295

○ 현 황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에 장수 신전리 제철유적 B가 위치한다. 장수읍에서 19번 국도 따라 싸리재를 넘어 계남면 소재지 방면으로 가면 신전리 음신마을 입구가 나오고 이곳에서 200m 더 올라가면 신전교회가 나온다. 신전교회와 19번 국도 사이 구릉지에 장수 신전리 제철유적 B가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계단식 논으로 개간되었다. 면



신전리 제철유적 B 제련로

담조사 때 신전마을 주민들이 이곳을 주쇠뜸이라고 불렀는데 1990년대 경지정리사업으로 상당한 깊이로 깎아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쇠뚝과 불 먹은 흙이 쌓여있었다고 제보해주었다. 현지조사 때 논둑에서 소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 계남면 궁양리 제철유적 A (장수-4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가재골

- 현 황

계남면 가곡리 가재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호남정맥 장안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장수읍과 계남면 행정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에 장수읍 노곡리와 계남면 가곡리를 곧장 연결시켜 주는 가랫재가 있다. 장수읍 장수리 논개사당인 의암사와 장계면 대곡리 의암 주논개 생가지를 이어주는 군도가 가랫재를 통과한다. 가랫재 동쪽에 가재골이 있는데, 가랫재 동남쪽 산봉우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동북쪽으로 흘러 평지마을을 지나 벽남제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평지마을에서 위쪽으로 500m 떨어진 가재골 골짜기에서 굵은 모래가 붙은 철재가 수습되었다. 철재의 양이 많지 않고 유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재골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계남면 궁양리 제철유적 B (장수-5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지소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장안산(126.9m) 북쪽에 계남면 장안리가 있다. 계남면 장안리 원장안마을 동쪽 계남천에서 제련로의 노벽편과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안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계남천은 지소마을 위쪽을 부덕골로 불리는데, 계남천 동쪽의 차돌백이골과 서쪽의 후드룡골·가르메기골·큰골·가재골 등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합쳐 계남천으로 그 이름이 바뀐다. 지소마을과 원장안마을 사이 계남천에서 비교적 굵은 모래가 섞인 노벽편과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원장안마을 위쪽 계남천유역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면담조사 때 지소마을 주민들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구리 광석을 캐던 구리광산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제보해 주어 제철유적 못지않게 제동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계남면 궁양리 제철유적 C (장수-51)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괴목동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고봉 장안산 북쪽 기슭 하단부에 계남면 장안리 괴목마을이 있다. 현지조사 때 괴목마을과 밤실마을 사이 계곡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장안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물원공제골로 불리다가 동쪽의 절골과 갈골, 서쪽의 먹은한골을 합친 뒤

괴목마을을 지나 줄곧 북쪽으로 흐른다. 괴목마을을 중심으로 위쪽은 대부분 임야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아래쪽은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장계면 일대에서 경남 함양방향으로 가려면 괴목마을에서 물원공제골을 따라 올라가다가 금남호남정맥 괴목재를 넘었다고 한다. 현지조사 때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철광석이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 점에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A (장수-52)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지추골
- 현 황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로 국토의 지세를 파악하고 지리를 밝히는 근본을 이루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 다시 백두대간에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가 지역권 및 문화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양악리 제철유적 A 전경

신라의 국경을 형성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행정경계를 이루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전북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행정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백두대간 큰 고갯길인 월성치 서쪽 골짜기가 토옥동계곡이다. 백제 사비기 때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신로가 토옥동계곡을 지나 월성치를 넘었다. 장수 토옥동 계곡에 3개소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중봉과 남덕유산 사이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북쪽으로 흐르다가 월성치 서쪽에서 시작하는 다른 물줄기와 합쳐져 지추골을 이룬다. 지추골은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참새미골과 합류하는 토옥동마을 부근에 이르러 그 이름이 삼막골로 바뀐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토옥동마을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마을 흔적이 계단식으로 남아있다. 장수 토옥동계곡에서 철재가 가장 많이 채집된 곳이 지추골이다.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월성치 서북쪽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남북 길이 500m, 동서 폭 180m 정도 되는 구역이 비교적 완만한 자연지형을 이루고 있어 천연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 ■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B (장수-53)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 35 일원
- 현 황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계곡 월성치 서북쪽에 토옥동 제철유적 B가 있다. 백두대간 샷갯봉과 월성치 사이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추골 물줄기와 합쳐진다. 이 물줄기가 지추골과 합류하는 골짜기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바로 위에서 소개한 지추골과 물줄기가 다르고 월



양악리 제철유적 B 철광석

성치 서북쪽에 위치해 월성치 제철유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직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 지추골과 월성치 제철유적 일대의 철광석은 철분의 순도가 높아 대부분 붉은 황갈색을 띠어 마치 철괴와 흡사한 색깔을 보인다. 동시에 장수군 제철유적 중 해발 1000m 내외되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다른 제철유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

#### ■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C (장수-54)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참새미골
- 현 황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양악호에서 동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토옥동계곡 참새미골에 토옥동 제철유적 C가 있다. 백두대간 샷갯봉(1419m)에서 시작된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가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장수군과 무주군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에 우뚝 솟은 시루봉(1105.4m) 남쪽 기슭 물줄기가 한데 모여 참새미골을 이루고 있는데, 현지조사 때 참새미골 입구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참새미골 물줄기가 토옥동계곡으로 흘러드는 곳으로 그 서북쪽에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는 구역에 석축이 계단식으로 잘 남아있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과 관련된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백자편과 옹기편이 흩어져 본래 민가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새미골 입구와 그 위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계곡에서 수습된 철재는 가장자리가 상당히 날카로워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부근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지조사 때 수습된 철재 양이 많지 않고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제철유적의 현황과 그 성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C 석축

#### ■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D (장수-55)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원지기골
- 현 황

남덕유산(1507m) 서쪽 골짜기 원지기골에 위치한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백암봉에서 월성치를 지나 남덕유산까지 서남쪽으로 뻗어 내렸는데, 남덕유산에서 그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어 중봉을 지나 서봉<sup>5)</sup>에 도달한다. 백두대간의 서봉에서 여러 갈래의 산줄기가 계북면 양악리까지 서북쪽으로 흘러내렸는데, 이 산줄기들 사이에 원지기골이 자리한다. 현지조사 때 양악마을에서 동남쪽으로 450m 가량 떨어진 원지기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으로 찾지 못하였다.

#### ■ 계북면 어전리 제철유적 (장수-56)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삼막골
- 현 황

백두대간 서봉에서 서남쪽으로 흘러내린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가 계북면과 장계면 경계를 이룬다.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에서 서쪽으로 500m 남짓 떨어진 삼막골 계곡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계북면과 장계면 경계를 이룬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삼막골을 따라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계북면 소재지에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바꾼다.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평탄대지가 발달한 삼막골 중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달리 장수덕유산(1492m)이라고도 불린다.



#### ■ 천천면 오봉리 제철유적 (장수-57)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86 일원
- 현 황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오봉마을 입구 마을 숲 부근 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오봉마을에서 그 위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구역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제철유적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 장수읍 노하리 승마공원에서 천천면 월곡리 월곡목장 승마장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도로의 반절은 말이 다닐 수 있도록 포장하기 않고 잔디가 심어져 있다. 다만 펜션에서 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남쪽 기슭에 절골이 있는데, 가뭄 때 붉은 색을 띠는 녹물이 흘러 순도가 높은 철광석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봉리 제철유적 퇴적구 근경

#### ■ 천천면 삼고리 제철유적 (장수-58)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탑상골
- 현 황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중기마을에서 서쪽으로 800m 떨어진 골짜기에서 소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이곳에서 위쪽으로 400m 올라간 지점에서 탑상골과 지지발골, 푸삼발골, 질마재골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성수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해 동북쪽으로 흐르는 탑상골 물줄기를 따라 양쪽에 비교적 넓게 평탄대지가 발달해 있다. 현지조사 때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물의 양이 가장 풍부하고 평탄대지가 발달한 탑상골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천천면 남양리 제철유적 (장수-59)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먹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산줄기에 우뚝 솟은 성수산은 장수군 천천면, 진안군 진안읍과 백운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의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와룡호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먹골이다. 현지조사 때 신광사에서 동북쪽으로 300m 떨어진 먹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먹골에서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성수산에서 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진 골짜기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천천면 비룡리 제철유적 (장수-60)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와룡자연휴양림

○ 현 황

금남호남정맥 오계치<sup>6)</sup> 북쪽 장수와룡자연휴양림 내에 비룡리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이 휴양림 가장 위쪽 사방댐에서 서쪽으로 200m 가량 떨어진 골짜기로 천연의 자연분지를 이룬다. 금남호남정맥 샷갯봉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방향을 북쪽으로 꺾는 곳으로 골짜기 양쪽에 철재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30m 구역에 철재가 상당량 쌓여있는데, 철재의 퇴적층 깊이가 5m 이상이다. 그리고 북쪽에는 철재의 양이 많지 않지만 숯가마와 함께 제철유적과 관련된 생활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철유적과 사방댐 사이 산봉우리가 제철유적의 동쪽을 병풍처럼 휘감고 있는데, 이 산의 광석은 선캄브리아기 흑운모 결정 편암이다.



비룡리 제철유적 노벽면 및 철재

### 3) 무주군

■ 무풍면 금평리 제철유적 A (무주-1)

6) 금강에서 섬진강유역으로 나아가는 큰 고갯길이다.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쑥병리

○ 현 황

백두대간이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행정경계를 이룬다. 무주군 무풍면과 김천시 부향면을 이어주는 1089번 지방도로가 백두대간 부향령을 통과하는데, 이 고개 북쪽 산봉우리가 백수리산(1084m)이다. 이 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백악골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부향령에서 시작해 탄방마을과 철개들을 지나온 물줄기와 탄박골에서 만난다. 탄박골 동쪽, 즉 부향령에서 서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탄방마을이 있는데, 본래 쑥병이마을로 불렸다고 한다. 이 마을 동쪽에 큰골이 있는데, 이 골짜기에 숲을 굽던 숲가마가 있었다고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무풍현 봉현에서 철이 생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헌 속 봉현이 쑥병이마을로 추정된다.

#### ■ 무풍면 금평리 제철유적 B (무주-2)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대동천

○ 현 황

무주군 무풍면 소재지에서 30번 국도를 따라 백두대간 덕산재 방면으로 가다보면 탄방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탄박골까지의 구간이 산박골로 달리 대동천이라고도 부른다. 현지조사 때 산박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금평리 탄방마을을 중심으로 철개들과 탄박골, 백악골, 산지골 일대에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이 일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무풍면 금평리 제철유적 C (무주-3)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금평천

○ 현 황

백두대간 백수리산과 대덕산 사이 덕산재는 무주와 김천을 이어주는 30번 국가 도로가 통과하는 큰 고갯길이다. 삼국시대 때 백제가 공주에 도읍을 두었던 동안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가 통과하던 고개로 추정된다. 덕산재 서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서쪽

7) 당시의 경로를 추정 복원해 보면 공주를 출발하여 진안고원 내 금산분지를 거쳐 무주읍 용포리에서 금강을 건넌 뒤 나제통문을 통과하여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성주와 대구를 경유하여 경주까지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뒤 한 동안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신라가 당시의 사

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금평천이라고 부른다. 무풍면 소재지와 덕산재까지의 구간을 금평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간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거느린다. 대덕산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장배미골을 지나 율평마을 부근에서 덕산재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합류한다. 금평천 유역에서 가장 넓은 구릉지가 펼쳐진 곳이 금척마을로 그 북쪽에 쑥병이마을로 이어지는 지방도로가 통과하는 넘어가는 쇠재가 있다. 현지조사 때 금평천에서 습된 철재와 관련된 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금척마을을 중심으로 장배미골, 새끼골, 안터골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무풍면 현내리 제철유적 (무주-4)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극락골
- 현 황

전북 무주군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부항면 경계에 위치한 백수리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현내교 부근에서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이 물줄기가 흐르는 골짜기를 극락골로 부르는데, 현지조사 때 극락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평탄대지가 발달한 극락골 중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무풍면 현내리 복리마을에서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나왔는데,<sup>8)</sup> 무주 현내리 제철유적 서북쪽에 위치한다.

#### ■ 무풍면 철목리 제철유적 A (무주-5)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옥담골
- 현 황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철목마을 옥담골에 위치한다. 현지조사 때 옥담골 입구 철목마을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무주군 무풍면과 설천면 경계를 이룬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 동쪽 기슭에서 줄곧 동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옥담골이다. 옥담골 중단부에 새터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위쪽 평탄대지가 발달한 곳에 무주 철목리 제철유적 A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 철목리 제철유적 A 서북쪽 밀밀골에 주로 석영으로 이뤄진 광물로 알려진 규석을 채석하던 규석광산이 자리하고 있다.

행로를 따라 대규모 철산지인 무풍면 일대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8) 당시에 백제토기와 신라토기가 반절씩 섞인 상태로 나왔는데, 현재 무풍초등학교 향토관에 전시되어 있다.

## ■ 무풍면 철목리 제철유적 B (무주-6)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소미실골
- 현 황

백두대간 수령<sup>9)</sup>에서 북쪽으로 나제통문<sup>10)</sup>까지 길게 뻗어 내린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가 무주군 무풍면과 설천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소미실골을 따라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철목교 북쪽에서 남대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소미실골 입구에서 소량의 노벽편과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소미실골에서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한 중단부에 무주 철목리 제철유적 B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무풍면 증산리 제철유적 (무주-7)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도마천
- 현 황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돌메기마을 입구 도마천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대덕산 서쪽 산봉우리가 삼도봉으로 전북 무주군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대덕면, 경남 거창군 고제면 행정경계를 이룬다. 이 산봉우리와 삼도봉과 삼봉산 사이 고갯마루가 소사고개로 금강과 황강유역을 곧장 이어주던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던 큰 고갯길이다. 백두대간 험준한 산줄기가 구릉지로 바뀌는 곳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지금도 무풍면 소재지에서 1089번 지방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백두대간 소사고개를 넘어 경남 거창읍 일대로 나아갈 수 있다.

백두대간 소사고개 부근에서 발원한 도마천은 도마마을을 지나 줄곧 북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삭골마을에서 대덕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북쪽으로 큰삭골을 흘러 온 물줄기

9) 무주군 설천면에서 경남 고제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달리 빼재 혹은 신평령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을 빼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삼국시대 전략상 요충지여서 수많은 전사자가 생겨 뼈를 묻었다는 주장과 임진왜란 때 식량이 부족하여 주민과 군사들이 잡아먹은 짐승 뼈가 널려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는 주장이 있다.

10)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자리한 높이 5m, 길이 10m의 암벽을 뚫은 석굴이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이루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양쪽 지역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삼국시대 때 나제통문을 중심으로 서쪽은 백제의 赤川縣, 동쪽은 신라의 茂山縣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양쪽 지역을 합쳐서 茂朱縣이라 하였다. 茂豐縣은 신라의 무산현으로 경덕왕 때 무풍현으로 고쳐 개령군에 소속시켰고, 주계현은 백제의 赤川縣으로 통일신라 때 丹川縣이라 하다가 고려시대에 주계현으로 고쳤다.

와 만나고 돌메기마을을 지나 철목교 부근에서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삭골마을 동쪽 큰골과 일출골 양쪽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다. 도마천 유역 중 평탄대지가 발달한 심터골과 일출골, 큰삭골, 큰골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대덕산이라는 산 이름도 도마천 유역에 밀집 분포된 대규모 제철유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 ■ 무풍면 은산리 제철유적 A (무주-8)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대밭골
- 현 황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대밭골 입구에 위치한다. 백두대간 소사고개 북쪽에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산봉우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대밭골이다. 현지조사 때 대밭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무주 은산리 제철유적 A에서 멀지 않은 오산마을 남쪽 물골에 무주 은산리 폐금광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금광으로 개발되다가 광복 이후 폐광되었다고 한다.

#### ■ 무풍면 은산리 제철유적 B (무주-9)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절골
- 현 황

백두대간 신평령에서 나제통문까지 뺀 산줄기에 입지를 둔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동남쪽으로 흘러 무풍저수지로 들어간다. 이 물줄기가 흐르는 물줄기를 절골로 부르는데, 현지조사 때 절골 중단부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이곳은 은산리 안실마을 서쪽 절골로 대부분 농경지로 개간되어, 무주 은산리 제철유적 B와 관련된 제련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때 절골에서 금광을 개발하였는데, 광복 이후 금광이 폐광되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 ■ 설천면 미천리 제철유적 A (무주-10)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박실리골
- 현 황



전북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와 경북 김천시 부항면 하대리 경계가 백두대간이다. 이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설천면 미천리 점말마을에서 그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미대천 최상류를 이룬다. 현지조사 때 박실리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박실리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박실리골에서 평탄대지가 가장 발달한 점말마을 부근에 무주 미천리 제철유적 A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석에서 뽑어낸 진한 녹물로 박실리골 철광석이 붉은색을 띠어 거의 무쇠를 방불케 한다.

#### ■ 설천면 미천리 제철유적 B (무주-11)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도투마리골
- 현 황

백두대간 삼도봉이 조선 태종 14년(1414)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삼남의 분기점이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과 충북 영동군 상촌면, 경북 김천시 부항면 등 경계에 삼도봉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을 달리 날라리봉이라고도 불린다. 이 산봉우리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도투마리골을 따라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안골마을에 잠시 머문 뒤 아랫미래마을 부근에서 미대천으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하미마을 도투마리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도투마리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안골마을 부근에 무주 미천리 제철유적 B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A (무주-12)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내북천
- 현 황

백두대간 삼도봉에서 북서쪽으로 1.5km 거리를 두고 암봉으로 이루어진 석기봉과 진달래 철쭉으로 유명한 민주지산이 있다. 흔히 일반인들에게는 민주지산으로 잘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이 워낙 유명하고 삼도봉을 산행할 때 주로 민주지산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민주지산과 석기봉 사이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내북천이라고 부른다. 현지조사 때 내북천과 그 동남쪽 범마골과 박실리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민주지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내북천을 따라 중고개마을과 내북동마을 부근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삼도봉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

여 하미마을까지 서남쪽으로 흐르는 범마골에서도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대불리 점말마을 부근과 박실리골에서도 그 크기가 다양한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수량이 풍부하고 평탄대지가 발달한 내북천과 박실리골, 범마골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B (무주-13)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배나무쟁이골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불대마을 입구 배나무쟁이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민주지산(1241m)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불대마을에 잠시 머문 뒤 그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배나무쟁이골을 따라 내려와 대불리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배나무쟁이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배나무쟁이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불대마을 부근에 무주 대불리 제철유적 B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A (무주-14)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동골
- 현 황

백두대간 수령에서 나제통문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산봉우리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동골을 따라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하오마을 북쪽에서 원당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두길리 하오마을 위쪽 동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동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평탄대지가 가장 발달한 동골 중단부가 대부분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되어 무주 두길리 제철유적 A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B (무주-15)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벌한천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와 무풍면 은산리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계속해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벌한천이라고 한다. 벌한천은 두 갈래의 물줄기가 벌한 마을에서 합쳐져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방재마을을 거쳐 구산마을에서 원당천으로 흘러든다. 벌한마을은 북쪽을 향하는 곳에 마을이 위치하여 겨울철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며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방재마을은 구산마을에서 무풍면 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넘던 당재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현지조사 때 벌한천 유역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벌한천 가장 위쪽에 위치한 벌한마을을 중심으로 동쪽 무풍골과 서쪽 큰절골에 구릉지가 발달해 있으며, 당재마을 부근에도 도장골을 중심으로 구릉지와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다. 벌한천을 따라 양쪽에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지고 수량도 풍부해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최적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지조사 때 벌한천에서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자연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벌한마을과 방재마을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C (무주-16)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월현마을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월현마을 다르재골 입구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이 마을 서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다르재골을 따라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월현교 북쪽에서 원당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다르재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백두대간 백암봉 동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원당천이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구간을 동북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원당천 양쪽 골짜기에 제철유적이 한층 밀집되어 큰 관심을 끈다.

#### ■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D(무주-17)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와석마을
- 현 황

무주군 설천면과 적상면 경계에 청량재가 있는데, 이 고개는 무풍면에서 당재를 넘어 적상면 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넘던 곳이다. 청량재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바드래골을 따라 줄곧 동쪽으로 흐르다가 두길리 와석마을 동북쪽에서 원당천으로 들어

간다. 현지조사 때 바드래골 입구에서 다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무주 두길리 제철유적 D는 평탄대지가 발달한 와석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E (무주-18)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청량재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고사리골 입구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백암봉에서 덕유산 향적봉과 두문산을 지나 북쪽으로 뻗은 험준한 산줄기가 무주군 설천면과 적상면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정상부에 위치한 청량재 동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고사리골을 따라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두길리 양가들 서쪽에서 원당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고사리골 입구에서 다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주 두길리 제철유적 E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F (무주-19)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무르내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와 심곡리 경계에 거칠봉(1177m)이 있는데, 이 산봉우리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무르내골을 따라 서북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발원지부터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무르내마을에서 잠시 머문 뒤 계속해서 서북쪽으로 흘러 수성대 서쪽에서 원당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무르내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무르내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무르내마을 위쪽과 아래쪽에 무주 두길리 제철유적 F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심곡리 제철유적 A (무주-20)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깊은골마을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깊은골마을 입구 깊은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백두대간 신평령에서 나제통문까지 이어진 험준한 산줄기가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깊은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다가 깊은골마을 입구에서 원당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깊은골 물줄기가 원당천으로 합류하는 깊은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큰고모제골 물줄기가 깊은골로 흘러드는 깊은골 중단부에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이곳에 무주 심곡리 제철유적 A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심곡리 제철유적 B (무주-21)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등방천
- 현 황

백두대간 백암봉(1503m)에서 북쪽으로 덕유산 향적봉(1614m)까지 이어진 산줄기가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 경계를 이룬다. 덕유산 향적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등방천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적시고 배방교 동쪽에서 원당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배방교 서쪽 등방천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덕유산 향적봉 북쪽 기슭이 대부분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개발되어, 무주 심곡리 제철유적 B의 위치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A (무주-22)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현방골
- 현 황

무주 구천초교 북쪽 현방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와 두길리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현방골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구천초교 북쪽에서 원당천으로 합류한다. 현지조사 때 현방골 입구에서 다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현방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방골 중단부에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A 부근에 기벽이 비교적 두꺼운 회청색 경질 토기편이 흩어진 삼공리 유물산포지가 자리하고 있다.

## ■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B (무주-23)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월음령계곡
- 현 황

덕유산 구천계곡 구월담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하나는 덕유산 향적봉 동쪽 기슭에 발원하는 물줄기와 오수자굴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백련사에서 하나로 합쳐져 구월담까지 동북쪽으로 흐른다. 다른 하나는 백두대간의 대봉과 못봉 북쪽 기슭에서 시작하여 구월담까지 북쪽으로 흐르는 월음령계곡으로 달리 신대골로 불린다. 그리고 구월담에서 수경대까지 구간은 줄곧 북쪽으로 흐르면서 구천계곡 양쪽에 평탄대지가 발달해 있다. 현지 조사 때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월음령계곡을 중심으로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진 구천계곡 곳곳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일제강점기 자연 암벽을 뚫어 만든 나제통문을 경계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 대규모 철산지인 무주군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와 신라의 갈등 관계를 방증해 주는 제철유적으로 추측된다.

## ■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C (무주-24)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구천계곡
- 현 황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구천계곡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무주구천동은 그 이름의 유래에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옛날 덕유산에서 9천명에 이르는 成佛功者가 살았다 하여 구천동이라는 설과 다른 하나는 具氏와 千氏가 살며 집안싸움을 하는 것을 어사 박문수가 해결하여 具千洞이라 불리다가 지금의 九千洞으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신라 신문왕 때 백련이 초암을 짓고 수도하던 중 그곳에서 흰 연꽃이 솟아 나와 창건된 白蓮寺가 있다. 현지조사 때 덕유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수경대까지의 구천계곡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아직은 구천계곡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천계곡에 무주 삼공리 제철유적 C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안성면 덕산리 제철유적 (무주-25)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산계곡



○ 현 황

덕유산 향적봉 서쪽 덕산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옛부터 ‘덕(德)이 많아 넉넉한 산 혹은 너그러운 산’으로 불리는 곳이 덕유산이다.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의 경계로 백두대간의 백암봉에서 중봉을 지나 북쪽으로 1.6k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최고봉인 향적봉에 오르면, 북으로 적상산을 아래에 두고 멀리 황악산과 계룡산이 보이며, 서쪽으로 운장산과 대둔산, 남쪽으로 지리산과 반야봉, 동쪽으로 가야산과 금오산이 보인다. 그리고 향적봉에서 남덕유산까지 17km의 장대한 산줄기와 금강과 낙동강 분수령 등을 근거로 1975년 오대산과 함께 1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덕유산 향적봉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계속해서 덕산제로 흘러드는 물줄기를 향골이라고 부른다.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북쪽에 금평골과 은골, 남쪽에 성지골이 있는데, 여러 갈래의 골짜기를 하나로 묶어 덕산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덕산계곡 중 향골 중단부와 하단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현지조사 때 향골 중단부와 하단부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제철유적의 정확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덕산계곡의 금평골과 은골에는 금과 은을 생산하던 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덕산계곡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위치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골을 중심으로 덕산계곡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산계곡 근경



덕산리 제철유적 수습 철재

■ 안성면 공정리 제철유적 (무주-26)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용추계곡

○ 현 황

백두대간 동업령은 금강과 황강 유역을 이어주는 동서방향 교통로가 통과하는 큰 고갯길

이다. 무주군 안성면 일원에서 용추계곡의 칠연의총(七淵疑塚)과 칠연폭포를 지나 백두대간의 동엽령을 넘어 거창군 북상면 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오갔던 고개이다. 칠연계곡은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군대가 해산되자, 덕유산을 근거지로 활동한 의병장 신명선과 의병들이 모셔진 칠연의총과 칠연폭포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칠연폭포 남서쪽 망봉에 칠연계곡을 따라 동엽령으로 오가던 사람들을 살피기 위한 무주 망봉 봉수가 있다.

백두대간 백암봉 서쪽 골짜기를 용추계곡이라고 부른다. 이 계곡 중단부에 소재한 칠연폭포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데, 그 부근에 비교적 넓은 구릉지가 발달해 있다. 칠연폭포에서 아래쪽으로 1.2km 떨어진 칠연의총 부근에도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다. 현지조사 때 용추폭포와 칠연폭포 사이의 용추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용추계곡에서 수습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산줄기가 철광석의 산지로 밝혀졌는데, 백두대간 속 용추계곡은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최적의 자연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 용추계곡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용추계곡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안성면 죽천리 제철유적 (무주-27)

-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명천계곡
- 현 황

백두대간 무룡산(舞龍山)과 샷갯봉 서쪽 기슭에서 발원해 서쪽으로 흐르다가 명천호로 들어가는 물줄기를 명천계곡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명천이란 지명은 물이 깨끗하고 맑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무주군 안성면과 거창군 북상면 경계에 위치한 무룡산은 산의 모양이 마치 용이 춤추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샷갯봉은 산봉우리가 샷갯모양과 거의 흡사하여 생긴 지명으로 그 북쪽에 샷갯골재와 남쪽에 월성치가 있다. 무룡산에서 시작된 정태골과 샷갯골에서 발원하는 샷갯골 물줄기가 명천계곡 중단부 절골 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죽천리 제철유적 수습 철재

백두대간 무릉산 서쪽 기슭 중단부에 위치한 원통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이다. 원통사 서남쪽 명천계곡이 절골로 불리는 구간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해 있다. 명천계곡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철광석은 철 성분이 높아 표면이 짙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현지조사 때 명천호와 절골까지의 명천계곡 구간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은 명천계곡에서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명천계곡의 절골 부근에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명천계곡의 수량도 풍부하여 절골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진안군

##### ■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진안-1)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창말마을
- 현 황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구랑천을 이룬 뒤 계속해서 서쪽으로 흘러 용담호로 들어간다. 진안고원 내 구랑천 양쪽에 구릉지와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진 동향분지에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이 위치한다. 고려시대 때 동향소가 설치된 구리고을로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창말마을 서남쪽 구릉지에 철재가 폭 넓게 흩어져 있는데, 그 분포 범위가 200m 내외이다.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진안 문필봉 봉수<sup>11)</sup> 북쪽 기슭 중단부에 구리광산이 폐광된 상태로 남아있다. 2017년 시굴조사에서 제동유적의 제련로와 함께 토기편과 자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는데, 토기편은 적갈색 연질토 기편부터 고려토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량리 제동유적 시굴조사 후 전경

11) 진안군 동향면 소재지 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로 면담조사에서 봉수 존재가 확인되었다.

## ■ 부귀면 거석리 제철유적 A (진안-2)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큰골
- 현 황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금계곡마을 남쪽 큰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부귀면 소재지 북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금계곡마을에서 작은골 물줄기와 만나 큰골을 따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흘러 부귀교 부근에서 정자천으로 합류한다. 현지조사 때 진안 거석리 제철유적 A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지만 큰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금계곡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계곡마을 동쪽 불뚝재와 불무실마을 지명도 제철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부귀면 거석리 제철유적 B (진안-3)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마구실골
- 현 황

백두대간 영취산에서 시작해 주화산까지 이어진 금남호남정맥이 진안군 진안읍과 부귀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마곡마을을 지나 마구리골을 따라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금평마을 북쪽에서 정자천으로 합류한다. 현지조사 때 금평마을<sup>12)</sup> 내 마구리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제까지 진안군 부귀면 일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이 정자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안 거석리 제철유적 B가 유일하게 남쪽에 자리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끈다.



거석리 제철유적B 수습 철재

## ■ 부귀면 황금리 제철유적 A (진안-4)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번덕골

12) 우리말로 그 의미가 쇠뿔로 제철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 황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봉곡마을 서남쪽 번덕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정맥 운장산(1125m)<sup>13)</sup> 남쪽 기슭 말단부에 봉곡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 동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남쪽에 번덕골이 있다. 현지조사 때 봉곡마을 입구 번덕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는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평탄대지가 발달한 문덕골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 황금리 제철유적 A에서 서북쪽으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운영된 진안 봉곡 도요지가 있었다.<sup>14)</sup>

■ 부귀면 황금리 제철유적 B (진안-5)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중고개골

○ 현 황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중고개골 입구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봉곡저수지 서남쪽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물줄기가 중고개골을 따라 흐르다가 봉화골 물줄기와 만나 봉곡저수지로 들어간다. 중고개골 입구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있고, 이 일대에 산죽이 광범위하게 자생하고 있는 점에서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의 순도가 높아 녹물을 쏟아내 대부분 광석이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 부귀면 황금리 제철유적 C (진안-6)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봉화골

○ 현 황

금남정맥 운장산(1125m) 남쪽 골짜기 봉화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운장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봉화골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하단부에 이르러 그 방향을 동남쪽으로 틀어 봉곡저수지로 들어간다. 봉화골에서 가장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진 운장산 남쪽

13)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으로 동봉과 서봉, 상봉 등 세 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중종 때 이이의 친구 성리학자 송익필이 서봉 아래 오성대에 은거하여 그의 자인 운장을 따서 산 이름을 붙였다. 진안군 부귀면·정천면·주천면 경계인 상봉에 산성이 있다. 금남정맥의 피암목재에서 서봉을 거쳐 상봉에 이르기 직전에 성벽과 망대가 있다. 그리고 망대 바로 아래 남쪽 기슭에 석문이 있고, 거기서부터 기슭을 따라 무너진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 동쪽과 북쪽 기슭의 성벽은 잡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면담조사 때,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주민들이, “서봉 정상부에 봉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고 제보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14) 2012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백자와 도침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하단부와 봉곡저수지 사이 평탄대지에서 슬러그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가 산재된 일대에서 대규모 산죽 군락을 확인하였다. 봉화골이라는 지명은 운장산 봉수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봉화골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황금천으로 불리다가 부귀면 두남리에서 정자천으로 합류한다.



황금리 제철유적 C 근경

#### ■ 부귀면 궁항리 제철유적 (진안-7)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늦은목골
- 현 황

전북을 동부 산악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갈라놓는 경계가 금남정맥이다. 이 산줄기가 진안군 부귀면과 완주군 동상면의 군계를 이루고 있는데,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는 금남정맥 동쪽에 위치한다. 현지조사 때 궁항저수지와 정수암마을 사이 늦은목골에서 제련로의 노벽편과 백자편<sup>15)</sup>이 수습되었는데, 진안 궁항리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금남정맥 운장산 서봉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궁항천은 늦은목골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궁항저수지에 잠시 머물다가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흘러 정자천으로 들어간다.

#### ■ 정천면 봉학리 제철유적 (진안-8)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마조마을
- 현 황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가리점마을 부근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금남호남정맥 운장산(1125m)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정천면 봉학리와 부귀면 황금리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동쪽에 가리점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운장산 동봉에서 동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강우목재가 있는데, 정천면 가리점마을과 주천면 대불리 일대를 이어주던 고갯길이다. 강우목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남쪽으로 흐르다가 가리점마을에서 동남쪽으로 흘러온 물줄기와 합쳐진다. 가리점마을과 강우목재 사이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형성되어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15) 조선 후기 백자편으로 그 시기가 17세 이후로 추정된다.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정천면 갈릉리 제철유적 (진안-9)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릉리 갈거리안골
- 현 황

진안군 정천면 갈릉리 내동천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금남호남정맥 운장산(1125m)에서 북두봉까지 동쪽으로 뺀 산줄기가 진안군 정천면과 주천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 북두봉 부근 남쪽에서 발원하는 내동천이 내내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운장산자연휴양림을 지나 갈릉리 무거마을에서 그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어 진안 용담호로 흘러든다. 내동천의 상단부 운장산농장과 중단부 산림휴양관 부근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2월 중순경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장산자연휴양림 관리소 담당자의 공문 요구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 ■ 주천면 운봉리 제철유적 (진안-10)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물탕골
- 현 황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구암마을 남쪽 운봉교 안정천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금남호남정맥 운장산(1125m)에서 구봉산(1002m)까지 동쪽으로 뺀 산줄기가 정천면과 주천면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의 구봉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두 갈래의 물줄기가 북쪽으로 흐르다가 주천면 운봉리 안정동마을 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져 안정천을 이룬다. 이 물줄기는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한성기 백제 간선교도로<sup>16)</sup>가 통과하는 절연재<sup>17)</sup>에서 발원해 줄곧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와 운봉교 부근에서 합류해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용담호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안정동마을 양쪽 평탄대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6) 당시의 한성기 간선교통로를 복원해 보면, 한성-광주-이천-진천분지-청주분지-대전분지-새고개-금산분지-술치-진안-와정토성-진안-월계리 산성-진안-여의곡-진그늘-갈머리 유적(광대재-진안군 주천면 운봉리-탁고개)-대목재-진안읍-금남호남정맥 밀목치-마령분지-진안군 백운면-대운치-임실 월평리 산성-한치재-임실군 지사면 관기리-말치고개-장수군 변암면 노단리-치재-남원 월산리-두락리-남원시 인월면-남원 실상사-산청군 생초면-산청-진주-함안-김해로 이어진다.

17)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와 정천면 갈릉리 경계로 그 동남쪽 산봉우리에 진안 갈릉리 봉수가 있다.

## ■ 주천면 주양리 제철유적 (진안-11)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닭발골
- 현 황

진안군 주천면과 정천면 경계에 위치한 복두봉(1018m)에서 시작된 비교적 가파른 산줄기가 북쪽으로 명도봉(869m)을 지나 주자천까지 이어졌다. 이 산줄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휘감아 돌아 주양교 부근에서 주자천으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닭발골이다. 현지조사 때 닭발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되었지만 닭발골 중단부에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본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A (진안-12)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운양산골
- 현 황

금남호남정맥에 우뚝 솟은 운장산(1125m) 북쪽 기슭에서 주자천이 발원한다. 이 물줄기는 줄곧 동북쪽으로 흐르다가 운일암 반일암을 지나면서 그 방향이 동남쪽으로 바뀌고 주천면 소재지 부근에서 용담호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주자천 최상류 주천면 대불리 독자동마을 운양산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다만 독자동마을 부근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운양산골 서쪽에 피암목재와 활목재<sup>18)</sup>가 있는데, 전자는 금남정맥 고갯길로 진안군 주천면과 완주군 동상면을 연결해 주는 55번 지방도가 통과한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B (진안-13)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솔쟁이골
- 현 황

운장산 동봉과 강우목재 사이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두 갈래의 물줄기가 주천면 대불리 내처사동마을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 두 갈래의 물줄기는 솔쟁이골과 복도봉골을 따라 북

18) 운장산 서봉과 피암목재 사이 고개로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독자동마을과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상검태마을을 연결해 준다.

쪽으로 흐르다가 운장산 송어장 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현지조사 때 운장산 송어장 부근 솔쟁이골 입구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내처사동 위쪽에 지형이 완만한 평탄대지가 넓게 펼쳐져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운장산 동봉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가 진안 대불리 제철유적 E와 자연경계를 이루어 별도로 분류하였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C (진안-14)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곰직이골
- 현 황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중산마을 곰직이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운장산과 북두봉까지 이어진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가 주천면 대불리와 정천면 봉학리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에 입지를 둔 강우목재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와 정천면 봉학리를 곧장 이어주는 남북방향 교통로가 통과한다. 강우목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두 갈래의 물줄기가 곰직이



대불리 제철유적 C 근경

골과 깔끄매골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다가 중산마을 부근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곰직이골과 깔끄매골 중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D (진안-15)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능막골
-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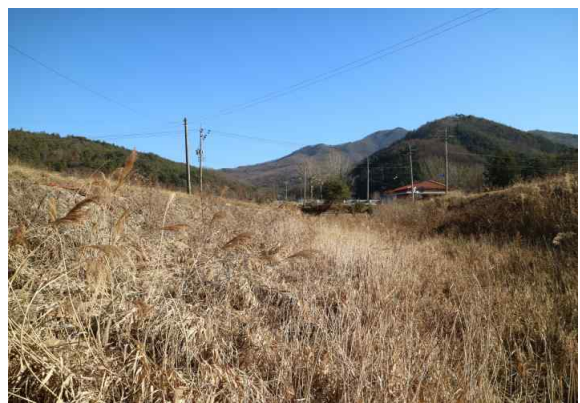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학선동마을 입구 학선교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정맥에 우뚝 솟은 운장산(1125m) 동쪽 북두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북쪽으로 흐르다가 능막골에서 그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고 학선저수지에서 잠시 머물다가 학선교 부근에서 주자천으로 흘러든다. 학선저수지와 능막골 사이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해 있는데, 현지조사 때 학선교 부근에서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1990년대 축조된 학선저수지 수몰지구 내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E (진안-16)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마당제골
- 현 황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개화동마을 마당제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운장산 동쪽 북두봉에서 북쪽으로 운일암 반일암까지 길게 뻗어 내린 험준한 산줄기가 있는데, 이 산줄기에 우뚝 솟은 산봉우리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마당제골을 따라 북쪽으로 흘러 개화동마을 북쪽에서 주자천으로 들어간다. 마당제골 중단부에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화동마을에서 북쪽으로 100m 가량 떨어진 구릉지에 진안 개화동 도요지가 위치하고 있다.



대불리 제철유적 E 원경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F (진안-17)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사지바위골
- 현 황

금남정맥 산줄기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와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에 입지를 둔 장군봉(724m)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사지바위골로 어둔골과 큰성골 물줄기를 합친 뒤 동남쪽으로 흘러 양지뜸마을 북쪽에서 주자천으로 들어간다. 현지 조사 때 양지뜸마을 서쪽 사지바위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사지바위골과 어둔골, 큰성골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G (진안-18)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사금비골
- 현 황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중리마을 서쪽 사금비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정맥 큰싸리재 남쪽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사금비골을 따라 동남쪽으로 흘러 중리마을 부근에서 주자천으로 들어간다. 면담조사 때 중리마을 주민들이 사금비골에 쇳몸과 사금파리가 쌓여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 주민의 안내로 중리마을에서 300m 떨어진 사금비골을 찾았지만, 오래전 밭으로 개간되어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이 일대에서 조선 후기 백자편이 상당량 흩어져 있는데, 그 시기가 17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H (진안-19)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고려장골
- 현 황

금남정맥 큰싸리재와 작은싸리재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두 갈래의 물줄기가 만나 고려장골을 이룬다. 이 물줄기는 계속해서 동남쪽으로 흘러 대불리 중리마을 입구에서 주자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가장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한 고려장골 중단부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



대불리 제철유적 H 추정 철광석

다. 큰싸리재는 전주방면으로 작은싸리재는 공주·부여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주로 넘었던 큰 고갯길이다. 작은싸리재 동쪽 산봉우리에 1990년대 정비 복원된 진안 태평봉수가 자리하고 있다.

##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I (진안-20)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칠은이골

○ 현 황

진안 운일암(雲日岩) 반일암(半日岩)<sup>19)</sup> 내 칠은교 남쪽 칠은이<sup>20)</sup>마을 계곡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진안군 주천면과 정천면 경계에 위치한 복두봉(1018m)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잠시 대불리 정수장에 머문 뒤 운일암 반일암 칠은교 부근에서 주자천으로 흘러든다. 이 계곡 상단부 칠은이골에 상당히 넓은 천연의 자연분지가 펼쳐져 있는데,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천연의 자연분지 서쪽 산봉우리에 매봉(865m)이 있는데, 금남정맥 산줄기에 입지를 둔 진안 태평 봉수와 신호를 주고받던 봉수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J (진안-21)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싸리재골

○ 현 황

진안군 주천면 소재지 서북쪽 명덕봉(845m)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서북쪽으로 휘감아도는 물줄기가 싸리재골이다. 운일암 반일암 내 삼거리마을에서 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싸리재골 입구에서 다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싸리재골 입구에서 위쪽으로 1.5km 떨어진 중단 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광석의 표면에 산화작용으로 녹물이 우러나 검붉은 색을 띠는 철광석이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

## 5) 완주군

■ 고산면 소향리 제철유적 A (완주-1)

19) 운장산 동북쪽 명덕봉과 명도봉 사이의 계곡을 말한다. 길이 5km의 계곡을 雲日岩 半日岩이라 하는데, 운일암은 70여 년 전만해도 깎아지른 절벽에 길이 없어 오로지 하늘과 돌, 나무, 오가는 구름뿐이어서 붙여졌다. 반일암은 깊은 계곡이라 하루에 반나절 밖에 볼 수 없어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름에 얽힌 다른 전설도 있다. 시집가는 새색시가 수십 길 아래 새파란 물이 흐르는 깎아지른 절벽 위를 가자니 너무 겁이나 울면서 기어갔다 하여 운일암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옛날에 전라감영인 전주와 용담현과의 가장 가까운 교통로가 이곳을 통과했는데, 길이 어찌나 험하던지 공물을 지고 가다보면 불과 얼마가지 못하고 해가 떨어진다고 하여 반일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20) 고려 말 일곱 분의 도인이 야생 인삼 씨를 심고 은거하면서 살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북암골

- 현 황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북암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와 운주면 고당리 경계에 위치한 칠백이고지(700m)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쪽으로 흐르는 무줄기가 북암골이다. 이 물줄기가 용암골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소향리 운문마을에서 하나로 합쳐져 운문골을 이룬 뒤 계속해서 서쪽으로 흘러 소향저수지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완주 소향리 운문사지<sup>21)</sup>로 학계에 보고된 북암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와 기벽이 비교적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다.

#### ■ 고산면 소향리 제철유적 B (완주-2)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동암골

- 현 황

현지조사 때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용암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와 동상면 대아리 경계를 이룬 비교적 험준한 산줄기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용암골이다. 이 물줄기가 북암골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만나는 용암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완주 소향리 제철유적 서북쪽에 봉수대산(582m)<sup>22)</sup>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70여 개소의 봉수 중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다.

#### ■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A (완주-3)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시우동골

- 현 황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시우동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정맥 싸리재에서 왕사봉을 지나 불명산(428m)까지 북쪽으로 뻗은 험준한 산줄기가 경천면과 운주면 경계를 이룬다. 후백제 견훤왕 고향 가는 길이 통과하는 용계재<sup>23)</sup>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용계재골 물줄기가 시우동마을에서 지척골을 따라 내려온 물줄기와 만나 줄곧 서쪽으로 흐르면서 시우동

21) 통일신라 때 창건하여 고려시대 번창했던 곳으로 최근 지표조사에서 14개소의 암자터가 발견되었다.

22)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와 경천면 경천리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로 제철유적의 방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3)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와 운주면 금당리 경계로 전주를 출발해 완주 봉림사지를 거쳐 문경방면으로 이어지는 동서방향 교통로가 통과한다.

골을 이룬다. 현지조사 때 가천리 요동마을 동쪽 시우동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B (완주-4)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불당터골
- 현 황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와 운주면 금당리 경계를 이룬 험준한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불당터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가천리 용궁가든 부근에서 선옥골을 따라 줄곧 서북쪽으로 흘러온 신흥천과 만나는데, 현지조사 때 불당터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아직까지 불당터골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완주 가천리 제철유적 B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면담조사 때 가천리 주민이 불당터골 입구에 위치한 민가 부근에 신흥사지가 있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가천리 제철유적 B 전경

#### ■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C (완주-5)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먹뱅이골
- 현 황

완주군 경천면과 고산면, 운주면 경계를 이룬 산봉우리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먹뱅이골을 따라 서북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신흥마을에서 새재골을 따라 내려온 물줄기와 만나 신흥천을 이룬다. 현지조사 때 먹뱅이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먹뱅이골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먹뱅이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중단부에 완주 가천리 제철유적 C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D (완주-6)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새재골

- 현 황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와 고산면 소항리 경계를 이룬 새재<sup>24)</sup>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새재골을 따라 북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봉수대산 동북쪽 기슭에서 시작해 불모골을 따라 내려온 물줄기와 신흥마을에서 만난다. 현지조사 때 신흥마을 남쪽 새재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새재골과 불모골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완주 가천리 제철유적 D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완주 봉수대산 봉수는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80여 개소의 봉수 중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다.

#### ■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A (완주-7)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검태골

- 현 황

금남정맥 연석산과 운장산 사이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검태골을 따라 북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하검태마을 운장산산장 부근에서 피암목재 서쪽 문박골에서 흘러온 물줄기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이름이 용연천으로 바뀐다. 현지조사 때 하검태마을 검태교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



신월리 제철유적 A 전경

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검태골 최상류 상검태마을 부근이 큰골로 불리는데, 이 일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져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B (완주-8)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문박골

- 현 황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문박골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완주군 동상면과 진안군 주천면을

24)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와 고산면 소항리 경계로 그 동쪽에 두 개소의 완주 소항리 제철유적이 있다.

연결해 주는 55번 지방도가 문박골을 경유하여 금남정맥 피암목재를 넘는다. 금남정맥 피암목재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문박골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 동상면 신월리 하검태 마을에서 용연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문박골 입구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문박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C (완주-9)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문박골
- 현 황

금남정맥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진안 대불리 산성의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지피골이다. 이 물줄기가 용연천으로 흘러드는 지피골 입구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피골 중단부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이곳에 완주 신월리 제철유적 C가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 대불리 산성은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제철유적의 방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D (완주-10)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율목골
- 현 황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문향춘추원 율목골 입구에서 철재가 채집되었다. 금남정맥이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율목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문향춘추원 부근에서 줄곧 서남쪽으로 흘러온 구수골 물줄기와 합류한다. 진안 대불리 산성이 금남정맥 산줄기에 입지를 두고 있는데, 이 산성의 서쪽 천연의 자연분지에 완주 신월리 제철유적 D가 위치한다. 현지조사 때 율목골에서 채집된 철재와 직접 관련된 제철유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한 신월리 밤목리마을 부근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E (완주-11)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구수골

- 현 황

금남정맥 장군봉(724m)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구수골을 따라 계속해서 서남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신월리 구수리마을 동쪽에서 어둠이골을 따라 줄곧 서쪽으로 흘러온 물줄기와 합류한다. 이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수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현지조사 때 수습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다만 구수골과 어둠이골에 비교적 넓은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두 차례의 현지조사에서 유물이 수습되지 않아 제철유적의 운영시기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F (완주-12)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마당목골

- 현 황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마당목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금남정맥 장군봉(724m)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가 마당목마을을 감싸고 있는데, 이 마을은 여러 갈래의 산줄기가 병풍처럼 휘감아 천연의 자연분지를 이룬다. 이 마을 서북쪽에 사기장골에 있는데, 현지조사 때 가마터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제철유적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당목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마당목마을 일대가 대부분 민가와 농경지로 개발되어 현지조사 때 제철유적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 동상면 대아리 제철유적 (완주-13)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축령골

- 현 황

금남정맥 싸리재 서쪽 축령골에 완주 대아리 제철유적 A가 위치한다. 만경강유역에 속한 전주와 완주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과 금산 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싸리재를 넘었다고 한다. 이 고갯길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축령골을 따라 은천마을까지 줄곧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현지조사 때 은천마을 동쪽 축령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아직까지 현지조사 때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구릉지와 평탄대지가 발달한 축령마을 부근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동상면 사봉리 제철유적 (완주-14)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황새목골
- 현 황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황새목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와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경계에 황새목재가 있는데, 이 고개는 금강유역에 속한 진안군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완주군 동상면 등 만경강유역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이용하던 곳이다. 금남정맥 황새목재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사봉리 황조리마을까지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그 방향을 서쪽으로 바꾸고 황조교에서 만경강 본류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황새목재 입구 황조교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 ■ 동상면 산북리 제철유적 (완주-15)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산북리 운주천
- 현 황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주암마을 운주천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진안 태평 봉수<sup>25)</sup>에서 금산 백령성<sup>26)</sup>을 지나 인대산까지의 금남정맥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운주천을 이룬 뒤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운주면 산북리 주암교에서 괴목동천으로 들어간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 운주천유역이 대부분 속해 있고, 그 범위가 넓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남이자연휴양림<sup>27)</sup>을 중심으로 세 개소 이상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금남정맥 작은싸리재 동쪽 산봉우리(824m)에 위치한다.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와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경계로 달리 대불리 봉수라고도 불린다. 금남정맥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어 완주 탄현 봉수와 작은싸리재 등 그 주변지역이 잘 조망된다. 1980년대 진안군에서 정비 복원된 연대는 그 평면형태가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이며, 남쪽에 연대를 오르는 등봉 계단이 있다. 연대와 그 주변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상당량 수습되었다.

26) 금남정맥의 백암산 북쪽에 자리한 산정식 석성으로 달리 백령성이라고도 불린다.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와 역평리 경계인 선야봉 동쪽으로 금산군 추부면을 거쳐 옥천과 문경방면으로 이어지는 전략상 요충지이다. 성벽은 거의 허물어졌으며, 서쪽 성벽은 높이 5.8~6.9m, 내벽 2.3~3m, 성벽의 너비는 4m에 이른다. 선야봉 산봉우리에는 봉수가 있어, 진악산 관양불봉의 봉수와 서로 연결된다. 후백제 건원왕이 완산에 도읍을 정하고 도읍 방어를 위해 금산군 남이면 대양리에 경양현을 설치하고 백령산성을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전해진다.

27)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연 활엽수림으로 기암절벽과 맑은물, 폭포 등으로 유명한 휴양지이다.



## ■ 운주면 완창리 제철유적 (완주-16)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안심골
- 현 황

금남정맥 대둔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안심천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안심천은 운주면 완창리 안심마을 입구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하나로 합친 뒤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완창마을 서남쪽에서 장선천으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안심마을 동쪽 안심천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안심사는



완창리 제철유적 근경

638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뒤 875년 도선국사가 중창하였고, 모두 12개소의 암자를 거느린 큰 사찰이었다고 한다. 아직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해 완주 완창리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개소 이상의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A (완주-17)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태평리골
- 현 황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태평리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와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경계를 이룬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태평리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고당리 삼거리마을에서 장선천으로 흘러드는데, 이 마을 북쪽에 숯고개<sup>28)</sup>와 그 서쪽 산봉우리에 완주 탄현 봉수<sup>29)</sup>가 있다. 아직까지 태평리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완주 고당리 제철유적 A는 태평리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8)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삼거리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후백제 때 전주를 출발해 문경방면으로 가려면 대부분 넘었던 고개이다.

29)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80여 개소의 봉수 중 유구의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봉수의 축조기법은 판석형 할석으로 쌓아올려 가야계 산성의 속성과 상통한다.

## ■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B (완주-18)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불모골
- 현 황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와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경계를 이룬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불모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른다. 이 물줄기는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1990년대 폐교된 고당초등학교, 즉 고당청소년 야영장 부근에서 장선천으로 합류한다. 현지조사 때 불모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아직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완주 고당리 제철유적 B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당시에 채집된 철재가 거의 마모되지 않고 매우 거칠어 불모골 입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불모골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C (완주-19)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당골
- 현 황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와 충남 남이면 건천리 경계에 銑冶峰(758m)이 있다. 이 산봉우리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당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다가 원고당마을 내 고당<sup>30)</sup>에서 장선천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평탄대지가 발달한 당골 중간부에서 철재가 쌓인 상태로 제련로와 함께 그 위쪽에서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 심하게 훼손된 숯가마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당골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의 수량이 넉넉하고 산죽이 광범위하게 자생하여 제철유적이 들어설 최적의 자연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야봉<sup>31)</sup>이라는 산 이름도 완주 고당리 제철유적 C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D (완주-20)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반피묵골
- 현 황

30)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원고당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할미가 모셔져 있다.

31) 銑鐵은 철광석이 제련로에서 환원되어 만들어진 철로 4% 가량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단하고도 부서지기 쉽다. 달리 강철의 원료로도 쓰인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피목마을 동쪽 반피목골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정맥 산줄기가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와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산줄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큰화랑골을 따라 서북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경계를 이룬 산줄기 서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줄곧 서쪽으로 흐르면서 작은화랑골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져 반피목골을 이룬다. 아직까지 반피목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피목골에서 평탄대지가 발달한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E (완주-21)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큰흐민골
- 현 황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큰흐민골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와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경계를 이룬 산줄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큰흐민골 중단부에서 그 방향을 서쪽으로 틀어 장선천으로 들어간다. 아직까지 큰흐민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완주 고당리 제철유적 F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합류하고 평탄대지가 발달한 큰흐민골 중단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F (완주-22)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싸리재골
- 현 황

금남정맥 작은싸리재<sup>32)</sup>는 사비기 백제와 신라의 사신들이 오갔던 사행로가 통과하던 큰 고갯길이다. 이 고개의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계속해서 북쪽으로 흐르면서 장선천을 이루고 있는데, 현지조사 때 큰흐민골과 작은싸리재 사이 싸리골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아직까지 싸리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완주 고당리 제철유적 F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선천 최상류에 해당하는 고당리 피목마을 부근에서 조선 후기의 백자를 생산했던 완주 고당리 도요지가 그 존재를 드러내 큰 관심을 끈다.

32)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경계로 그 동북쪽 산봉우리에 진안 태평 봉수가 있다.

#### ■ 운주면 금당리 제철유적 (완주-23)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활골
- 현 황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활골 입구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다. 금남정맥 큰 싸리재<sup>33)</sup> 북쪽에 위치한 칠백이고지산 동북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줄곧 활골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다가 2015년 준공된 금당제에 잠시 머문 뒤 금당리 활골마을에서 장선천으로 들어간다. 지금은 금당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폐쇄되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두 갈래의 물줄기가 만나는 대궁동마을과 평탄대지가 발달한 대활곡마을에 완주 금당리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철유적을 중심으로 북쪽에 완주 탄현 봉수와 서남쪽에 완주 봉수대산 봉수가 배치되어 큰 관심을 끈다.

### 6) 임실군

#### ■ 강진면 용수리 제철유적 A (임실-1)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사적골
- 현 황

임실군 강진면과 순창군 구림면 경계에 장군봉(780m)이 있는데, 이 산봉우리 북쪽 골짜기를 사적골이라고 부른다. 장군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동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가리점마을을 지나 30호 국도에서 섬진강 본류로 흘러든다. 사적골 중단부에 가리점마을이 있는데, 현지조사 때 가리점마을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다. 당시에 수습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가리점마을 위쪽이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사적골 상단부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리점이라는 마을 이름도 제철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 강진면 용수리 제철유적 B (임실-2)

33) 완주군 고산면 대아리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경계로 진안고원의 윤일암 반일암을 거쳐 전주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 넘었던 큰 고갯길이다.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쇠종골

- 현 황

회문산(830m) 동남쪽에 쇠종골 골짜기가 있다. 회문산 자연휴양림 반대편 골짜기로 임실군과 순창군 경계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계속해서 북쪽으로 흐르다가 배나무골마을 부근에서 섬진강으로 들어간다. 현지조사 때 배나무골마을 부근 쇠종골 입구 골짜기에서 소량의 철재가 수습되었는데, 임실 용수리 사적골에서 서남쪽으로 2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쇠종골 중단부에 제철유적이 들어설 정도로 넓은 평탄대지가 형성되어, 이 일대에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쇠종골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 ■ 신덕면 신덕리 제철유적 (임실-3)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치마산

- 현 황

호남정맥 치마산(馳馬山) 동쪽 기슭 말단부에 임실 신덕리 제철유적이 위치한다. 치마산은 말이 달리는 모습과 흡사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와 완주군 구이면 향가리 경계를 이룬다.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신기마을과 숲안마을 사이 논골로 불리는 곳으로 대부분 논과 밭으로 개간되었다. 현지조사 때 불에 붉게 그을린 크기가 다양한 할석과 제련로의 노벽편이 밭에 광범위하게 흩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밭 동쪽 가장자리 논과 경계부분에 상당량의 철재가 쌓여있지만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제철유적의 조영시기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 ■ 임실읍 금성리 제철유적 (임실-4)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쇠점골

- 현 황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화성마을 동북쪽 쇠점골에 위치한다. 임실읍 금성리와 관촌면 용산리 경계에 용암산(355m)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들 사이에 쇠점골이 있다. 임실문화원 최성미 원장님 제보와 현지 안내로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1970년대 칠접지<sup>34)</sup>가 쇠점골에 축조되어 대부분 수몰되었다. 현지조사 때 칠접지 서쪽을 휘감은 산줄기 동쪽 기슭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절단면에 검붉은 녹물이 흘러내린 철광

34) 달리 금성지라고도 불린다.

석과 결정 편암이 폭 넓게 편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지조사의 결과와 쇠점골 지명을 근거로 쇠점골에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7) 순창군

### ■ 구림면 금창리 제철유적 (순창-1)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천천
- 현 황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천천에서 철재가 수습되었다. 정읍시 산내면과 순창군 구림면 경계에 위치한 사실재<sup>35)</sup>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금천천은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금천교 부근에서 구림천으로 흘러든다. 현지조사 때 금천천 입구 금천교 부근에서 상당량의 철재가 채집되었는데, 당시에 채집된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금창리 제철유적 근경

다만 금천교에서 금창리 금상마을까지 금천천을 따라 양쪽에 평탄대지가 발달하여 철재와 관련된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순창군 구림면 동북쪽에 인접된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에 2개소의 제철유적과 금상마을 서남쪽에 금창리 금상 도요지가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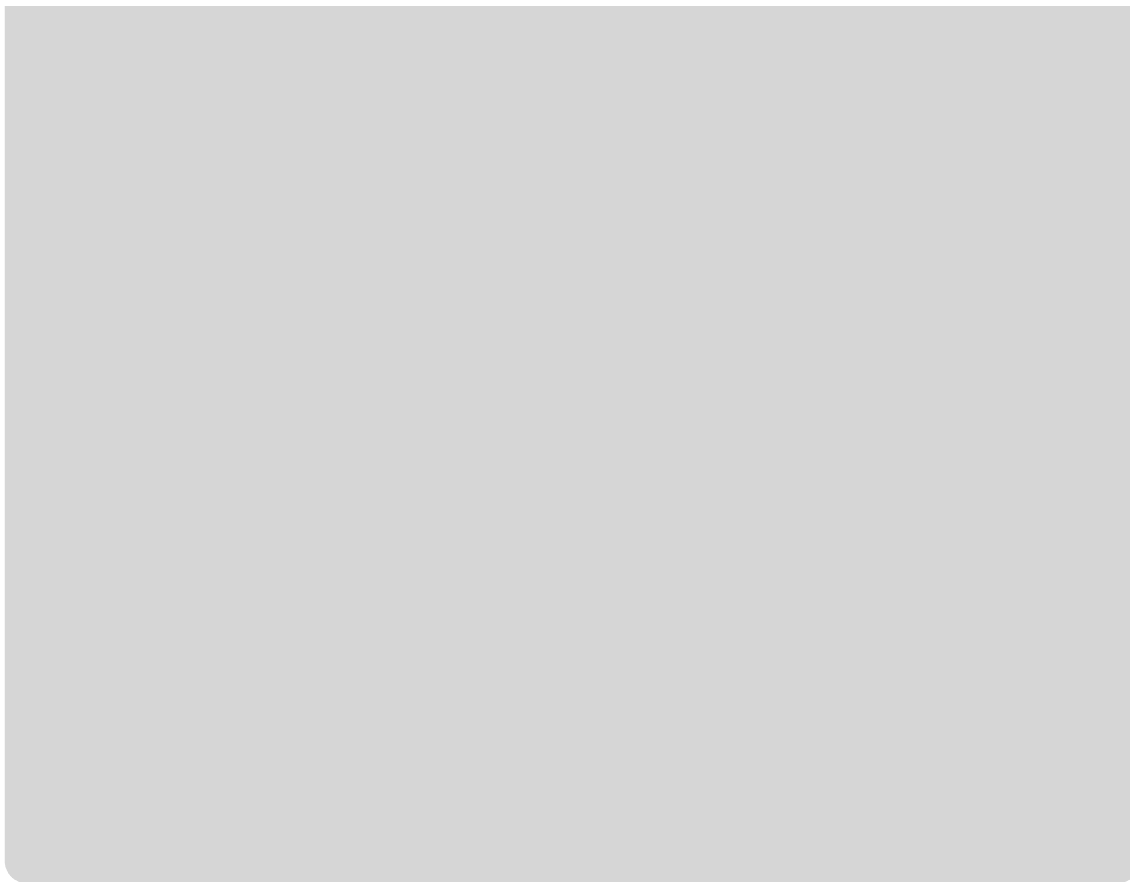
35)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상마을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금곡마을 경계에 위치한다.



## ■ 제3장 ■

# 전북가야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

곽장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제1절 들어가는 글

한반도의 척추이자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백두대간<sup>36)</sup>이다. 백두대간이 실린 『산경표(山經表)』<sup>37)</sup>는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자 지리학자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전통지리서이다. 금남정맥<sup>38)</sup>과 호남정맥<sup>39)</sup>이 전북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 놓는다.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sup>40)</sup>의 산줄기가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가르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sup>41)</sup>과 서쪽에 진안고원<sup>42)</sup>이 위치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지명의 음상사와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유개장경호에 근거를 두고 전북 동부지역<sup>43)</sup>을 하나의 권역으로만 설정하고 대가야의 영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동부지역을 하나의 문화권 및 생활권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전형적인 산악지대를 이룬다.

최근 완주군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과 국가를 상징하는 봉수가 새롭게 무

- 36)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리산 천왕봉까지 뻗은 거대한 산줄기이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큰 산줄기로서 다시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은 지역권 및 문화권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백두대간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산줄기들은 지역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되어,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형성하였고,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행정경계를 이루었다.
- 37)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중심으로 장백정간(長白正幹),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 호남정맥(湖南正脈) 등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5개로 분류하였다. 1900년대 초 일제(日帝)에 의해 우리 곁을 떠났다가 1980년 서울 인사동 고서방에서 산악인 이우형이 조선광문회에서 발간한 영인본을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 38) 주화산에서 부소산 북쪽 백마강 선착장 옆 조룡대까지 뻗은 산줄기이다.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으로 주화산에서 출발해 보룡재와 황조치, 연석산과 운장산, 진안 태평봉수와 금산 백령산성을 지나 대둔산에서 충남으로 접어들어 계룡산을 거쳐 부소산까지 이어진다.
- 39) 호남정맥은 동쪽에 섬진강, 서쪽에 만경강·동진강·영산강, 서남쪽에 탐진강을 가르면서 진안 주화산(珠華山)에서 광양의 백운산(白雲山)까지 뻗은 길이 398.7km의 산줄기를 말한다.
- 40)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장안산·수분령·신무산·자고개·팔공산·성수산·마이산·부귀산을 지나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분기점인 주화산까지 이어진다. 비록 63.3km의 짧은 거리이지만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백두대간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 큰 의미를 지닌다.
- 41)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여 문화권 및 생활권이 경남 함양군에 가깝고, 행정 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운봉읍·아영면·인월면·산내면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십승지(十勝之地)의 하나로 수계상으로 남강유역에 속한다.
- 42)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호남정맥 사이에 형성된 해발 400m 내외의 산악지대로 전북 진안군·장수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에 걸쳐 있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이 백제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해야 할 정도로 교통상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 43)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가야계 유적과 유물이 그 존재를 드러낸 전북 남원시·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순창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1963년 전북에서 충남으로 편입된 금산군은 문화권 및 생활권이 전북 동부지역과 긴밀한 관련성을 나타낸 곳이다.

더기로 발견되어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sup>44)</sup>라고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한 전북가야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더욱이 가야계 소국들이 백제의 중앙과 서로 교류 및 교역하는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간선교통로가 전북가야를 통과한다. 전북 동부지역을 무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의 장악 및 간선교통로의 관할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전북 동부지역은 마한 이래로 줄곧 백제문화권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되었다. 1972년 임실 금성리에서 가야토기가 그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1982년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구제 발굴에서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가야문화유산이 존재한다는 고고학적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와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도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난해에는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종합적인 지표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의 정체성과 지역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고고학 자료도 상당량 축적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고고학 자료를 지명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전북 동부지역을 대가야 영역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하고 가야계 소국 己汶國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방증해 주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강의 최상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던 진안고원의 장수가야<sup>45)</sup>와 관련된 고고학 자료도 다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최고의 위세품<sup>46)</sup>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편자, 수대경, 계수호가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고총에서만 출토됨으로써 그 당위성을 더욱 높였다.

반면에 4세기 말엽 늦은 시기<sup>47)</sup>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가야세력이 처음 등장해 계

44)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임실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완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모든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북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계 중대형 고총 420여 기,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 200여 개소, 햇불과 연기로 신호를 주고받던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된다. 이 용어에는 학술적인 의미보다 가야사의 복원을 위한 대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45)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군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로 비정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행정구역에 기준을 두고 장수가야로 수정하였다.

46)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물품을 말한다.

47)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앞두고 그 정치작업의 일환으로 후방의 안정과 운봉고원 철산지를 확보하기 위해 근

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마침내 운봉고원의 기문국<sup>48)</sup>과 진안고원의 장수가야로 발전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중대형 고총,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sup>49)</sup>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야계 소국의 정체성과 그 위치 비정도 다시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전북 동부지역 봉수 발굴조사에서 가야세력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었고,<sup>50)</sup> 지난해 장수 대적골,<sup>51)</sup>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과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봉수가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낸 완주 탄현 봉수 발굴조사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전북가야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리의 비약이 적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초고왕의 가야정벌을 단행한다. 이 무렵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은 근초고왕의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였다.

48) 종래에 남강유역의 가야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로 소개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49) 아직은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의 운영시기 및 운영주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야계 문화유산의 분포권과 거의 일치한다.

50)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 봉수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유물은 전북 동부지역 가야계 고총 출토품과 그 속성이 상통하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엽까지의 토기류만 나왔다.

51) 백두대간의 장수덕유산(1492m) 서쪽 골짜기 중단부에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이 자리하고 있는데, 슬래그(쇠뿔)의 분포 범위가 1.5km에 달한다. 모두 다섯 개 지구로 나누어 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다지구에서 모습을 드러낸 슬래그 퇴적층은 깊이 5m 이상이다.

## 제2절 전북 동부지역 권역설정과 내륙교통로

### 1. 고고지리와 권역설정

#### 1) 남강 수계권

남원시 운봉읍·아영면·인월면·산내면 등 행정 구역상 호남지방에 속한 지역으로만 한정하였다. 남원 동부권<sup>52)</sup>을 형성하는 해발 500m 내외의 전형적인 고원지대로 구릉지대가 발달한 남원 서부권과는 지형상 혹은 수계상으로 권역을 달리한다. 지리산 만복대와 세걸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한 광천(廣川)은 운봉읍 소재지까지 줄곧 북쪽으로 흐르다가 운봉읍을 지나면서 그 방향을 남동쪽으로 틀어 인월면 소재지에 도달한다. 그리고 인월면 소재지 동남쪽에서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해 줄곧 남쪽으로 흐르면서 아영분지를 관통하는 풍천(風川)과 합류한다. 광천과 풍천을 따라 그 양쪽에 들판과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운봉고원을 형성한다.

남원시 인월면 소재지에서 실상사까지의 구간은 산줄기 사이의 협곡을 통과한 다음 산내면 소재지에 이르러서는 노고단 동쪽 기슭에서 시작해 뱀사골을 지나온 만수천(萬壽川)과 만난다. 여기서부터는 수량이 풍부하고 그 폭도 넓어져 임천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는데, 임천강은 계속해서 남동쪽으로 흘러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의 본류로 흘러든다. 백두대간의 치재·복성이재·여원치·입망치, 운봉고원의 동쪽 매치·팔령치 등의 고갯길을 중심으로 내륙교통로가 그물망처럼 잘 갖춰져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행정 구역상 전북에 편입되어 있지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위치해 문화권이나 생활권이 경남 서부권과 가깝다. 삼국시대 초부터 남원은 백제와 신라 두 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 한쪽은 신라 땅으로 모산현(母山縣, 阿英城, 阿莫城)이 설치되었고, 다른 곳에는 백제의 고룡군(古龍郡)과 거사물현(居斯勿縣)이 설치되었다. 신라의 모산현은 남원 동부권의 운봉고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곳은 백제 무왕 17년(616)에서 25년 사이에 백제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경덕왕 16년(757)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 모산현은 운봉현(雲峰縣)으로 바뀌어 천령군(天嶺郡)의 영현이 되었다. 남강 수계권은 통일신라 때 운봉현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52)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남원시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뉜다. 전자는 낙동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남강 수계권에 속한 곳으로 행정 구역상 남원시 운봉읍·아영면·인월면·산내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통합되기 이전의 남원시와 12개 면으로 구성된 남원시 서부권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위치해 수계상으로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오히려 함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였다.

## 2) 금강 수계권

금남호남정맥의 신무산 동북쪽 뜯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충북 서남부를 흘러 옥천군 동쪽에서 보청천, 연기군 조치원을 남부에서 미호천을 합류하여 백제 고도 공주·부여를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금강 수계권<sup>53)</sup>은 금남호남정맥의 고봉들에서 발원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흘러드는 진안 용담댐과 금산분지,<sup>54)</sup> 완주군 운주면 일대로 그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하였다.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들이 외곽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이 모여 형성된 진안고원(鎭安高原)을 이룬다. 금강 수계권은 다시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교통로의 조직망, 삼국시대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을 기준으로 장수권(長水圈), 금산·진안권(鎭山·鎭安圈), 무주권(茂朱圈), 운주권(雲洲圈)으로 나뉜다.

장수권은 섬진강 유역에 속한 전북 장수군 번암면과 산서면을 제외한 장수군 모든 지역과 무주군 안성면과 부남면, 진안군 동향면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북쪽을 제외한 사방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백두대간 못지않게 험준한 산줄기가 북쪽을 감싸주어 지형상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한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에서 갈라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을 경계로 장수분지, 장계분지, 안성분지,<sup>55)</sup> 동향분지<sup>56)</sup>로 나뉜다. 장수분지는 금강의 발원지인 신무산 뜯봉샘이 자리하여 금강의 최상류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장계분지는 백두대간의 육십령<sup>57)</sup>이 자리하여 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안성분지와 동향분지는 가야계 중대형 고층의 존재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험장한 평야와 구릉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삼국시대 때 장계분지에 백이

53) 종래에 진안 용담댐까지로 금강 상류지역의 지역권이 설정되었는데, 최근 관방유적과 통신유적,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 전북 완주군 동북부와 충남 금산군이 전북 동부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입증되어, 이곳을 금강 수계권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54) 충남 금산군은 백제의 진내군(鎭乃郡)의 행정치소로 경덕왕 16년(757) 진례군(鎭禮郡)으로 고쳐 줄곧 전주에 예속되었다. 1963년 충남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지역과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하였던 곳이다.

55) 장수군 계북면과 무주군 안성면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하여 다른 지구와 달리 매우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고려 때 양악소(陽岳所)가 설치된 계북면 양악리와 안성면 일원에 구량천을 따라 험장한 들판과 구릉지대가 발달해 있다.

56) 고려 때 동향소(銅鄉所)가 설치된 곳으로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덕유산 서쪽과 남덕유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두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동향면 능금리·대량리 일대에 충적지가 발달해 있다.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에서 동서와 남북방향 교통로가 교차하며 백두대간의 육십령과 월성치로 연결되는 동서방향 교통로가 동향지구를 통과한다.

57) 영호남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관문으로 금강과 남강의 분수령을 이룬다. 장수군 장계면과 함양군 서상면 경계로 달리 육십현 혹은 육북치로도 불린다.

[해]군(伯伊[海]郡)과 장수분지에 우평현(雨坪縣)이 설치되었다.

금산·진안권은 진안군 북부권<sup>58)</sup>과 무주군 서부권,<sup>59)</sup> 충남 금산군<sup>60)</sup>이 여기에 해당된다. 종래에 진안군 북부권과 무주군 부남면 일부를 대상으로 서북부 지역권이 설정되었는데,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을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금남정맥과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서쪽과 남쪽의 자연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방으로 갈라진 산줄기들이 모여 해발 400m 내외의 진안고원을 이룬다. 금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교통로의 조직망이 그물처럼 잘 갖춰져 교통상 중심지 혹은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특히 한성기 때, 백두대간 산줄기 양쪽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던 가야세력이 백제의 중앙과 교류 할 때 주로 이용하였던 간선교통로가 이곳을 통과한다. 삼국시대 때 충남 금산읍과 부리면에 진내군(進乃郡)과 이성현(伊城縣), 진안읍과 용담면에 난진아현(難珍阿縣)과 물건현(勿居縣), 무주읍에 주계현(朱溪縣)이 설치되었다.

무주권은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이 무주권을 형성한다. 백두대간과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산줄기들로 감싸여 지형상으로 그 주변지역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민주지산의 삼도봉<sup>61)</sup>에서 덕유산 백암봉으로 이어진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동쪽과 동남쪽의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여러 갈래의 산줄기들이 모여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룬다. 다만 전북 무주군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대덕면 경계인 대덕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는 남대천을 따라 협장한 평야가 펼쳐져 있다. 나제통문(羅濟通門)<sup>62)</sup>과 남대천을 따라 백제와 신라를 곧장 연결해 주는 간선교통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삼국시대 때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는 신라의 무산현(茂山縣)과 모산현(母山縣)<sup>63)</sup>이 설치되었는데, 무주군 무풍면이 무산현의 행정치소이다.

운주권은 금남정맥 서쪽에 위치한 완주군 운주면이 여기에 속한다. 금남정맥은 주화산에서 부소산 북쪽 백마강 선착장 옆 조릉대까지 뻗은 산줄기이다. 금강과 만경강 분수령으로 주화산에서

58) 전북 진안군 진안읍 부귀면·상전면·정천면·안천면·용담면·주천면이 여기에 속한다.

59) 전북 무주군 무주읍 부남면·적상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60) 백제 진내군(進乃郡)의 행정치소로 경덕왕 16년(757) 진례군으로 고쳐 전주에 예속되었다. 1963년 충남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전북 동부지역과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하였던 곳이다.

61) 전북 무주군 설천면과 충북 영동군 상촌면, 경북 김천시 부항면 등 3개 도(道)의 경계로 달리 날라리봉이라고도 불린다. 조선 태종 14년(1414) 전국을 8도로 나눌 때 삼남의 분기점이다.

62)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자리한 높이 5m, 길이 10m의 암벽을 뚫은 석굴이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이루었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양쪽 지역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다. 삼국시대 때 나제통문을 중심으로 서쪽은 백제의 적천현(赤川縣), 동쪽은 신라의 무산현(茂山縣)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양쪽 지역을 합쳐서 무주현(茂朱縣)이라 하였다. 무풍현(茂豐縣)은 신라의 무산현으로 경덕왕 때 무풍현으로 고쳐 개령군에 소속시켰고, 주계현은 백제의 적천현(赤川縣)으로 통일신라 때 단천현(丹川縣)이라 하다가 고려시대에 주계현(朱溪縣)으로 고쳤다.

63) 전북 남원시 운봉읍으로 삼국시대 때 신라의 모산현(母山縣)이 설치되었고, 통일신라 때 운봉현(雲峰縣)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오히려 함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였다.

출발해 보령재와 황조치, 연석산과 운장산을 지나 대둔산에서 충남으로 접어들어 계룡산을 거쳐 부소산까지 이어진다. 진안고원의 서쪽 자연경계로 전북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쪽 평야지대로 갈라놓은 자연경계를 이룬다. 완주군 운주면은 수계상으로 금강유역에 속하는데, 대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괴목동천이 운주면 소재지에서 장선천에 합류해 줄곧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논산시 양촌면에서 논산천으로 흘러든다. 백제와 가야를 이어주던 사비기 간선통로가 시작되는 관문으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최근에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이 새롭게 발견되어 금강 수계권에 포함시켰다.

### 3) 섬진강 수계권

금남호남정맥의 팔공산 북쪽 상추막이골 데미샘<sup>64)</sup>에서 발원하는 섬진강은 여러 갈래의 지류를 거느린다. 진안군 백운면과 마령면을 지나고 임실군에서 갈담천, 순창군에서 추령천·오수천·경천, 남원시와 전남 곡성군의 경계에서 요천·옥과천·수지천이 섬진강 본류에 합류한다. 금남호남정맥과 호남정맥 사이를 통과하는 상류지역을 제외한 섬진강 중·하류지역에는 수량이 풍부해지고, 그 폭도 넓어져 강으로써 모든 위용을 갖추어 총적지가 곳곳에 발달해 있다. 호남정맥 서쪽의 영산강 수계권에서 호남정맥, 백두대간을 넘어 남강 수계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경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 내륙교통로를 이용하여 금강의 금산·진안권을 거쳐 남해안과 경남 서부지역으로 나아가려면 이곳을 거쳐야 한다.

섬진강 수계권은 금남호남정맥이 북쪽 경계를 이루고 동쪽의 백두대간과 서쪽의 호남정맥 사이를 흐르는 모든 물줄기를 말한다. 행정 구역상으로 전북에서는 진안군 남부권·임실군·정읍시 산내면·순창군·남원시 서부권<sup>65)</sup>·장수군 산서면과 번암면이 여기에 속한다. 섬진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총적지와 구릉지대가 발달한 곳으로 전북 동부지역의 2/3 정도 면적을 차지한다. 진안군 마령면에는 마돌현(馬突縣), 임실읍에는 임실군(任實郡), 임실군 청웅면에는 돌평현(突坪縣), 임실군 지사면과 장수군 산서면 일원에는 거사물현(居斯勿縣), 순창읍에는 도실군(道實郡), 순창군 적성면에는 역평현(礫坪縣), 남원 서부권에는 고룡군(古龍郡), 곡성읍에는 욕내군(欲乃郡), 곡성군 옥과면에는 과지현(菓支縣), 구례읍에는 구차례현(仇次禮縣), 하동군에는 다사군(多沙郡) 등이 설치되었다.

64)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원심암마을 위쪽 천상데미의 상추막이골에 자리한다. 천상데미의 ‘천상(天上)’은 하늘을 오른다는 뜻이며, ‘데미’는 ‘더미’의 전라도 방언으로, 그 뜻은 물건이 한데 쌓인 큰 덩어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상데미’는 ‘하늘을 오르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65) 섬진강유역에 속한 본래 남원시를 중심으로 이백면·산동면·보절면·덕과면·사매면·대산면·대강면·금지면·송동면·주천면이 여기에 속한다.

#### 4) 만경강 수계권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밤티마을 남쪽 밤샘에서 만경강이 발원한다. 본래 넓은 들 가운데로 흐른다는 뜻이 담긴 만경강은 여러 갈래의 지류를 거느린다. 금남정맥의 운장산 서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고산천과 호남정맥의 만덕산 북쪽에서 시작하는 소양천이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에서 합류한다. 그리고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호남정맥 오봉산 서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줄곧 북쪽으로 흘러온 삼천(三川)이 완주군 삼례읍 동남쪽에서 합류하여 만경강 본류를 이룬다. 군산시 대야면에서 익산시를 적서준 탑천을 합치고 군산시 옥구읍과 김제시 진봉면 사이 새만금<sup>66)</sup>에서 서해로 들어간다.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이 새롭게 발견된 완주군 고산면·경천면·동상면·비봉면·화산면을 전북가야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만경강 수계권은 줄곧 교통의 중심지와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금남정맥을 넘는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이 만경강유역에 잘 구축된 교역망을 따라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경강유역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장수가야로 이어진 내륙교통로를 따라 봉수가 선상으로 배치되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완주군 동북부 일대에 산성 등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은, 한성 상실로 백제가 갑자기 정치적인 불안에 빠지자 장수가야의 진출과 대규모 축성 및 봉수제의 운영을 통한 장수가야의 방어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백제와 전북가야의 경계에 위치한 완주군 고산면 소재지에 백제 난등량현(難等良縣)이 설치되었다.

## 2. 교통로의 기능과 조직망

흔히 교통(交通)이란 사람·재물의 장소적 이동인 운송과 통신을 의미한다. 이런 교통을 위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닦은 것이 교통로(交通路)이며, 그것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크고 작은 가닥으로 뻗어나간 혈관과 같다. 인류의 출현과 함께 생겨난 교통로는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착지를 중심으로 확장 내지 개척되는 과정에 가까운 거리에서 먼 거리로 확대되어 갔다. 일단 형성

66) 호남평야의 심장부인 김제·만경평야를 달리 '금만평야'라고 부르는 데, '새만금'은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시 비응도에서 아미도와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33km로 방조제를 쌓아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사업을 말한다. 오래 전부터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다.

된 옛길은 사람의 왕래나 물자의 교역을 위한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간선과 지선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러다가 국가단계의 정치체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치적인 중심지를 발판으로 전국에 방사선식으로 뻗어 나갔고, 간선과 지선, 지선과 지선들이 환상선식으로 연결되어 마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로의 발달과 교통망의 형성은 각 지역의 자연지형이나 강과 산줄기 등과 같은 자연조건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어떤 장소에 매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place-bound tradition)도 교통로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로가 어떠하였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것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정치적인 중심지를 거점으로 하여 교통로가 사방으로 뻗어 나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사시대 이래로 교통로는 줄곧 정치적·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수송을 위한 교역로로서 경제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때는 각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교통로를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잘 정비된 교통로의 조직과 개설이 이뤄졌다.

선사시대 이래로 교통로는 줄곧 정치적·군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수송을 위한 교역로로서 경제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때는 각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옛길을 재편성하게 됨으로써 그 이전 시기보다 잘 정비된 옛길의 개설과 조직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이 더욱 광범위하게 영역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옛길을 재편성하는 과정에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정비된 옛길의 조직과 개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과 사비로 옮김에 따라 수도를 거점으로 간선교통로를 비롯하여 교통망이 재편성되었다. 당시 교통로의 재편성 과정은 교통의 중심지에 행정치소의 설치, 전략상 요충지에 축성, 관문의 개척, 교량부설, 교통 장애요인의 제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백제 간선교통로의 조직망과 그 재편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조명할 수 있는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야와 백제의 중앙을 연결해 주던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대부분 통과하는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전북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 백두대간과 금남정맥의 양쪽에 기반을 둔 가야와 백제를 비롯한 여러 세력집단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주요 관문이 위치한다. 백두대간의 동엽령(冬葉嶺)·월성치(月城峙)·육십령(六十嶺)·중치(中峙)·치재·여원치(女院峙)·입망치(笠望峙)·구동치, 금남정맥의 지삼치(芝三峙)·목사리치(木士里峙)·솔재·싸리재·보룡고개, 호남정맥의 적천치·웅치(熊峙)·슬치(瑟峙)·가성정·구절재·추령(秋嶺), 금남호남정맥의 무령고개·밀목치·수분치(水分峙)·자고개·마치(馬峙)·개치

(介峙)·고동치·신광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강·남강·섬진강의 본류와 지류, 백두대간·금남정맥·호남정맥·금남호남정맥의 주요 관문을 중심으로 내륙교통로가 그물망처럼 잘 갖춰져 있다.

우선 동서방향 교통로는 모든 가야세력과 백제 혹은 영산강의 웅관묘 조영세력을 이어주는 경로이다. 그런데 동쪽의 백두대간, 서쪽의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산줄기들이 양쪽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 조직망이 방사상이 아닌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백두대간 산줄기의 월성치·육십령·중치·치재·여원치·입망치, 금남정맥의 탄현·싸리재·보룡고개, 금남호남정맥의 신광치·고동치·자고재·마치 등이 동서방향 교통로가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고개들이다. 금강과 황강 수계권을 연결해주는 동엽령과 월성치, 금강과 남강을 이어주는 육십령·민령, 섬진강과 금강의 자고개·신광치, 섬진강과 남강의 중치·치재·장치·여원치·입망치, 만경강과 금강의 탄현·싸리재·보룡고개·웅치·솔치, 동진강과 섬진강의 가는정·추령 등이 유명하다. 남강 수계권의 남원시 운봉읍과 아영면, 금강 수계권의 장계면과 장수읍, 진안군 진안읍과 용담면, 만경강 수계권의 완주군 용진읍과 고산면, 섬진강 수계권의 임실읍과 오수면, 남원시와 곡성읍 등이 교통의 요지를 이룬다.

다음으로 남북방향 교통로는 금강의 금산·진안권과 섬진강 수계권을 종단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그런데 동쪽의 백두대간, 서쪽의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넘지 않고, 이들 산줄기 사이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상으로는 장애물이 별로 없다. 전북과 충남의 경계에 위치한 지삼치·목사리치·솔재, 무주군 적상면과 안성면의 오두치·노루고개, 금강과 섬진강을 이어주는 무령고개·수분치, 만경강과 섬진강의 솔치, 섬진강과 남강의 중치·치재, 그리고 가치·지보재·싸리재 등이 대표적인 고개들이다. 이들 고개와 선상으로 연결되는 남북방향 교통로는 진안군 용담면, 장수군 장계면과 장수읍, 임실군 임실읍과 오수면, 통합되기 이전의 남원시와 아영면 일원에서 동서방향 교통로와 교차한다. 그런데 금강의 금산·진안권과 섬진강 수계권을 종단하는 남북방향 교통로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 남해안과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최단거리를 이룬다. 그러므로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기기 이전부터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지름길로 가야세력 및 왜와 교류 내지 교역을 하는데 중요한 내륙교통로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의 남부지방 중심부에 전북 동부지역이 자리하고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전북 동부지역의 철산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백두대간이 동쪽,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서쪽,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사이를 잇는 험준한 산줄기가 북쪽의 자연경계를 이룬다. 전북 동부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줄곧 내륙 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하였다. 백두대간 동쪽의 황강과 남강유역, 금남정맥 서쪽의 만경강과 동진강유역, 금남호남정맥 남쪽의 섬진강과 보성강유역, 북쪽의 남한강유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전북 동부지역을 경유하였다.<sup>67)</sup> 삼국시대 때 백제의 중앙과 가야



를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던 간선교통로<sup>68)</sup>가 전북 동부지역을 통과하여 백제와 가야, 신라 등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67) 백제 혹은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진안고원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가야세력들이 서로 교류하는 데 가교 및 교량역할을 담당해 문화상으로 점이지대(漸移地帶)를 이루었다.

68) 옛길의 형성과 활용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배경 못지않게 고갯길, 도강처 등의 자연지리적인 배경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3절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가야문화유산

#### 1.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운봉고원의 철광석이 서로 만나 새롭게 탄생된 것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다. 조선시대 ‘십승지지’이자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운봉고원은 한마디로 철광석의 산지이다. 바꾸어 말하면 백두대간 속 지붕 없는 철 박물관이다. 운봉고원의 철광석은 니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철광석 중 최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최근까지 진행된 지표조사를 통해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운봉고원에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대간 노고단에서 삼봉산<sup>69)</sup>까지 그 분포 범위가 25km에 달한다. 지금도 운봉고원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해 봄 가뭄이 심해 달궁계곡 철광석이 뿔어진 진한 황갈색의 녹물이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데 고고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요구되었다.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를 중심으로 남쪽 하점골과 서남쪽 봉산골, 서쪽 심원계곡, 북쪽 언양골, 동북쪽 외얏골이 여기에 해당된다.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은 철광석의 채광부터 숯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 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철의 유적공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백두대간 고리봉에서 세걸산을 지나 덕두산까지 이어진 산줄리 양쪽에도 1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남원시 운봉읍에서 지방도를 따라 정령치 방면으로 가면 선유폭포에 도달하는데, 그 부근에 슬래그(쇠똥)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으로 쇠똥의 분포 범위가 1.5km 내외로 운봉고원 내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세걸산 서쪽 금새암골에도 제철유적이 있는데, 수철리라는 마을 지명도 제철유적에서 유래되었다. 지명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데, 지명으로도 제철유적의 존재<sup>70)</sup>를 반증해

69) 전북 남원시 산내면 중항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와 마천면 구양리 경계에 위치한다. 이 산의 동쪽에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형왕이 머물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빈대굴터로 알려진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축동마을이 있다.

70) 세걸산 서북쪽 금샘에서 발원하는 광천이 운봉고원을 넉넉하게 적셔주고 있는데, 여기서 금샘은 달리 쇠샘이다.

주었다.

해마다 5월 중순 철쭉제로 유명한 바래봉 북쪽에 운봉읍 화수리 옥계동 제철유적<sup>71)</sup>이 있다. 바래봉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옥계동 물줄기는 북쪽으로 흐르다가 옥계저수지에 잠시 머문 뒤 운봉고원을 적시고 줄곧 동쪽으로 흘러온 광천과 합류한다. 이 저수지에서 위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옥계동 제철유적이 있는데, 이곳은 험준한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천연의 자연분지를 이룬다. 이 일대는 남북으로 약간 긴 장타원형으로 남북 길이 800m, 동서 폭 700m에 달한다. 현지 조사 때 철광석을 채광하던 채석장과 파쇄장, 숯가마 등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기벽이 두꺼운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송풍관편, 슬래그 등이 수습되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 중 장수 대적골·토옥동<sup>72)</sup> 제철유적과 함께 초대형에 속한다.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마한의 왕이 피난지로 삼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첩첩산중으로 유명한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이다.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지리산 뱀사골계곡 서쪽에 달궁계곡 달궁터가 있다.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와 백두대간의 정령치·성삼재, 팔랑치가 마한의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달궁계곡 서쪽 관문인 성삼재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의 장수들이 지킨 고개라는 뜻이다. 팔랑치는 8명의 젊은 남자들이 달궁계곡 달궁터로 향하던 고개를 지키면서 유래된 지명이다. 그리하여 마한 왕의 전설이 깃든 지리산 달궁계곡의 ‘궁’자는 경북궁처럼 宮자를 쓴다. 다행히 달궁터, 정령치 등과 관련된 기록이 남원읍지인 『용성지』 및 『여지도서』에 실려 있는데,<sup>73)</sup> 그 내용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황령과 정령은 둘 다 지리산 기슭 입세에 있으며, 몹시 가파르고 험하여 소나 말이 다닐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서쪽으로 남원부까지는 50리 쯤 된다. 옛 승려 청허당의 황령기에는 “옛날 한 소제 즉위 3년에 마한의 임금이 진한의 난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도성을 쌓았는데, 그 때 황·정 두 장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게 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성으로 고개 이름을 삼았다. 그 도성을 유지한 것이 71년이였다.”고 하였다. 지금도 무너진 성과 허물어진 벽이 남아 있으며, 그 도성이 었다는 곳을 세상에서는 달궁터라고 전한다. 두 고개 안에 있는 골짜기가 이전에는 남원 땅이었으나 지금은 운봉에 속한다.

71) 2017년 10월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제철유적의 분포 범위와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되었다.  
72) 백두대간 월성치 서쪽 골짜기로 입구에서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당량의 슬래그가 채집되었다.  
73) 『龍城誌』古蹟條에 “黃嶺鄭嶺 并在智異山初麓 皆極險峻 牛馬不通之地 西距府五十里許 古釋清虛堂黃嶺記曰 在昔漢昭帝即位之三年 馬韓主 避辰韓之亂 築都城於此以黃鄭二將 監其事守其嶺 故遂以二人之姓姓其嶺 保其都城者七十一年也云 頽城毀壁 今猶存焉 其所云都者則世傳達宮其也 在二嶺之內長谷 中古以南原地 今屬雲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청허당 서산대사가 쓴 황령기의 핵심 내용은 중국 한나라 때인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진한의 침공을 받아 지리산으로 피난하여 도성을 쌓고 그 도성을 71년 동안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 정 두 장수들로 하여금 성 쌓는 일을 감독하고 고개를 지키도록 하여 고개의 이름도 두 장수의 성을 쫓아 황령(黃嶺), 정령(鄭嶺)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지표조사를 통해 마한의 왕과 관련된 달궁터와 정장군이 성을 쌓고 지킨 정령의 경우도 그 위치가 파악되었다. 문헌 속 마한 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적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더해 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달궁터는 밭으로 개간된 것을 제외하면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구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지금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 주차장을 만들면서 달궁터의 대부분을 내 주고 일부 남은 왕궁터도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최근에는 정령치 동쪽 기슭 중단부에 자리한 절골이 달궁터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가장 넓은 평탄대지가 펼쳐진 절골은 최고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아직까지 지리산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제외하면 마한의 왕궁터가 확인된 곳은 없다. 그만큼 달궁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삼국지』<sup>74)</sup> 위지 동이전 한조에는 54개의 소국이 마한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국들은 대체로 현재 시·군 단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껏 마한 왕의 달궁터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과 조성연대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던 마한의 소국과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철기시대 때 최고의 테크노밸리였던 전북혁신도시<sup>75)</sup>가 그 출발지였을 것으로 추측<sup>76)</sup>된다. 다시 말해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하였던 제나라 전횡<sup>77)</sup>의 선진세력과의 관련성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의 정령치에서 마한 왕의 명령을 받고 정장군이 쌓은 성터가 발견되었다. 남원시 운봉읍과 산내면에 속한 달궁계곡을 잇는 큰 관문이 정령치이다. 최근에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74) 중국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290년 경 편찬한 책으로 후한이 멸망한 뒤 위(魏)·촉(蜀)·오(吳)의 3국이 정립한 시기부터 진(晉)이 통일한 시기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다.

75) 전북 전주시 덕진구와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조성된 혁신도시로 만경강유역에 위치한다.

76) 초기철기시대 때 전북혁신도시를 당시 최고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제나라 전횡의 후진세력이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본 견해가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77)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田橫)이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그를 모신 치동묘(淄東廟)가 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도 전횡장군사당이 있으며,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하고 있다. 외연도 동쪽 녹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사당의 주신으로 전웅대감(전횡대감)을 모신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전횡이 쓰던 칼이 사당 내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군산의 담양(潭陽) 전씨(田氏)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 1926년 치동묘를 건립하고 그를 배향하고 있다.

북적대는 정령치 정상부에 성벽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현재 정령치 서쪽 기슭에는 흙과 돌을 가지고 골짜기를 막은 토석혼축성과 고리봉으로 오르는 서쪽 기슭에는 돌만을 가지고 쌓은 석성이 있다. 석성의 성벽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만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는데, 성벽의 축성방법이 매우 조잡하여 삼국시대의 석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삼국시대의 석성과는 그 축조방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장군이 쌓은 정령치의 석성은 달궁계곡의 달궁터를 한 바퀴 휘감아 문헌의 내용대로 달궁터를 방어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성된 석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은 황장군이 쌓은 황령치는 그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백두대간의 노고단과 삼도봉 사이 임걸령이 황령치로 추정된다. 백두대간의 임걸령은 달궁계곡에서 곧장 남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고개<sup>78)</sup>이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고리봉 동남쪽 구릉지에서 밭 개간과 경작활동을 하는 과정에 쇠로 만든 화살이 많이 나왔었다”는 달궁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마한 왕의 달궁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제철유적이다. 마한의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을 떠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철기문화가 전래되어,<sup>79)</sup> 우리나라에서도 철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전북혁신도시는 경기도, 충청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철기문화가 시작되어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그렇다면 마한의 왕이 달궁계곡에서 70년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제철유적이 처음 개발되었을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에는 논과 밭이 거의 없는 첩첩산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삼국시대의 철산지를 연구하는데 『일본서기』 신공기 52년조의 기사가 자주 인용된다.

칠지도 1구와 칠자경 1면 및 각종 귀한 보물을 받쳤다. 이어 말하기를 “신의 나라 서쪽에 강수가 있는데, 근원은 곡나철산(谷那鐵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먼 곳은 7일을 가도 이르지 못합니다. 마땅히 이 물을 마시면 곧 이 산철을 채취할 수 있으므로 길이 성조에 받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문헌의 핵심 내용은 372년 백제 근초고왕이 곡나철산에서 생산된 철을 가지고 칼, 거울 등 여러 가지 귀한 보물을 만들어 왜의 조정에 보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곡나의 지명 음상사에 근거를 두고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곡나철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황해도 곡산설·안협설, 충주설, 여주설, 보은설이 있다. 2012년 섬진강유역에 속한 곡성설이 발표된 뒤 역사학계의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전남 곡성군에서는 제철유적의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78) 달리 소금장수들이 넘던 소금고개로도 유명하다.

79) 전북혁신도시로 철기문화의 전래와 관련해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말까지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상한은 경기도, 충청도보다 앞선다는 점에서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태까지는 지명의 음상사와 철산지를 서로 연결시켜 그 위치를 비정하였기 때문에 문헌의 핵심 내용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백제의 도읍에서 7일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고 강의 발원지를 거느리고 있다는 두 가지의 내용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자연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이다. 조선시대 이몽룡이 남원에 암행어사로 출도 할 때 서울에서 남원까지 7일이 소요되었고,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전주 경기전까지 이송하는데 6일 쯤 걸렸다. 그리고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하루를 더 가야한다. 운봉고원은 또한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과 섬진강 발원지를 함께 거느린다. 문헌 속 두 가지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곳이 대규모 철산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운봉고원이다.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계 토기류가 가장 일찍 출현하는 곳이 운봉고원이다. 남원 월산리·행정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백제계 광구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비정되었다. 아마도 한성기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잇는 간선교통로인 백두대간 치재로가 운봉고원을 통과하는 지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깊다. 남원 월산리 M1-A호에서 나온 금은새김 고리자루 칼에서 최고의 철기제작기술도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최근 대규모 철산지이자 철의 테크노밸리로 이목을 집중시킨 운봉고원이 곡나철산(谷那鐵山)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80)</sup> 올해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운영시기와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언제부터 개발되었는지, 아직은 기록이 없고 발굴조사도 매우 미진하여 그 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sup>81)</sup> 삼국시대 때 철산개발은 어느 집단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경제적인 원동력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제철유적을 장악하였던 가야계 소국들은 대부분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67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3개소의 철산지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한 곳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다. 삼국시대 이후 문헌에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후백제 멸망과 함께 철산개발이 일시에 중단되었을 것으로 유추<sup>82)</sup>해 두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운봉고원 속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에 가야계 고총을 남긴 기문국에 의해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교역망을 이용하여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다량의 철이 각지로 수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마한의 왕부터 시작된 철 생산이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면서

80) 철과 철광석, 슬래그는 인간의 DNA처럼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료의 과학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81)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은 삼국시대 이후 문헌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전에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실록지리지』에 67개소, 『동국여지승람』에 83개소의 철산지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전북 동부지역의 제철유적은 한 곳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82) 936년 후백제의 멸망 이후부터 줄곧 철 생산이 일시에 중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운봉고원이 가야의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였다. 그렇다면 백제의 위세품을 비롯하여 대가야와 소가야의 최상급 토기류가 공존하는 것은 운봉고원의 철 생산과 관련이 깊다. 그만큼 니켈이 함유된 운봉고원의 철은 최고의 철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이 함유된 최고의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앞 다투어 최상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운봉고원에 보낸 것 같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토기류도 ‘가야토기박물관’을 방불케 하였는데, 당시에 철의 생산과 유통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해 주었다. 동시에 삼국시대 때 대규모 철 산개발로 가야의 영역에서 거점지역으로 융성하였을 개연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운봉고원의 제철유적은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던 기문국의 숨겨진 비밀이 담긴 보물창고와도 같은 것이다. 동시에 기문국의 위상과 그 발전상이 올곧게 깃든 역사의 실체이다.

## 2. 운봉고원 가야계 왕국 기문국의 역동성

요즘 고고학계의 이목이 온통 철산지 운봉고원으로 쏠렸다. 2010년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위치한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수계호(鷄首壺)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sup>83)</sup>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威勢品)의 하나로 종전에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철제초두(鐵製鏃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꽃이 등 가야계 위신재(威身財)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수대경(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다. 금동신발을 비롯하여 수대경, 철제초두, 계수호는 가야의 영역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고령 지산동과 합천 옥전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제외한 가야계 최고의 위세품이 대부분 운봉고원에서 나왔다.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계수호와 철제초두가 남원 월산리에서 금동신발과 청동 거울이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sup>84)</sup>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운봉고원의 역사성과 함께 그 위상을 최고로 높였다. 아마도 백제가 대규모 철 산지이자 문물교류의 관문으로써 운봉고원을 얼마나 중요시하였던가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운봉고원 철의 생산과 유통이 담긴 물물교역, 즉 현 물경제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계

83) 최근에 일상용품이 아닌 부장용품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오히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중국 남제에서 직접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발표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84) 2013년 전북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남원 유곡리·두락리에 밀집 분포된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 중 봉분의 직경이 7번째 크기에 해당된다.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던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을 기문국(己汶國)으로 부르려 한다. 중국과 일본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가야계 소국이 기문국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그 존재를 세상에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공사에 포함된 가야계 고총에 대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 백제의 대형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당초 예상<sup>85)</sup>과 달리 그 조영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명소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1970년대 농지정리사업으로 3기의 고총이 유실되었고, 1982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을 통해 그 전모가 파악되었다. 지금은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가 노출된 상태로 M6호분은 원형의 봉분이 잘 정비 복원되어 있다. 최근에는 월산리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 1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더 분포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00년 전 기문국의 지배자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시신과 유물을 부장하기 위해 돌로 매장공간을 만들었는데,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그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계 고총들보다 상당히 크다. 가야계 고총에서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당시에 계세사상(繼世思想)<sup>86)</sup>이 널리 유행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하였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유일무이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지금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지만 산줄기 정상부가 아닌 구릉지에 입지를 두어 다른 가야계 분묘유적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sup>87)</sup>

운봉고원의 아영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풍천<sup>88)</sup>을 사이에 두고 아영면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면담조사 때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주민들이 “본래 고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1960년대 밭을 개간하거나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고분이 없어졌다”고 증언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에는 봉분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계 고총도 산자락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당시에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융성하였다는 발전상도 대변해

85) 남원 월산리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처음 발굴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지역이 모두 백제문화권에 속한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86) 사후에도 현실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상이다.

87) 가야계 고총과 관련된 분묘유적의 입지뿐만 아니라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으로 마한 분구묘 묘제와의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져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88) 백두대간의 봉화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해 아영분지의 중심부를 줄곧 남쪽으로 흐르다가 인월면 인월리 풍천교에서 광천과 만나 만수천을 이룬다.

주었다. 그리고 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운봉고원의 기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존속하였음을 방증해 주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계 고총은 아영분지 한 북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그 입지를 두었다. 남원 월산리가 구릉지에 입지를 둔 것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기문국 수장층의 분묘유적을 월산리에서 유곡리·두락리로 옮긴 이후 대가야 등 가야와의 결속력이 더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봉분을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이 구릉지와 평지, 백제가 산봉우리 남쪽 기슭에 왕릉을 조성한 것과 다르다. 아마도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문화와 장례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운봉고원에서 발견된 말무덤<sup>89)</sup>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그 기수가 180여 기에 달한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 발굴조사에서 마한의 지배층 분구묘<sup>90)</sup>로 밝혀진 말(물)무덤이 운봉고원의 운봉읍에서만 발견되었다.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구릉지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7기 내외의 물무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대부분 유실되었고, 현재 3기만 유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교리 연동마을 입구 논 속에도 마치 섬처럼 한 기의 말무덤이 있다. 아직도 남원 장교리 물무덤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성격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기문국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철산개발로 힘을 키운 마한 왕의 세력집단이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운봉읍 일대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 장교리 말무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남원 임리에도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 정상부에 봉분의 직경이 15m 내외되는 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모여 있다. 마한의 말무덤과 가야계 고총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본래 운봉읍에서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이어주던 한성기 간선통로<sup>91)</sup>인 백두대간 치재로<sup>92)</sup>가 아영분지 내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통과

89) 말이 마(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짐작된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90) 먼저 봉분을 만든 뒤 일정 부분 봉분을 파내고 그 안에 하나 이상의 매장시설을 축조해 넣는 방식의 무덤을 가리킨다.

91) 고대 교통로의 형성과 활용에 있어서 정치·경제적인 배경 못지않게 안정성·신속성·경제성과 고갯길, 도강처 등의 자연지리적인 배경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2) 당시의 치재로를 추정 복원해 보면, 한성-광주-이천-진천분지-청주분지-대전분지-새고개-금산분지-솔치-진안-와정토성-진안 월계리 산성-진안 여의곡 진그늘·갈머리 유적(광대재-진안군 주천면 운봉리-탁고개)-대목재-진안읍-금남호남정맥 밀목치-마령분지-진안군 백운면-대운치-임실 월평리 산성-한치재-임실군 지사면 관기리-말치

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운봉고원 서쪽 섬진강유역에서 말(물)무덤은 남원 도룡리·입암리·방산리, 순창 고원리, 곡성 주산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본래 30여 기의 말(물)무덤이 섬진강 중류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섬진강 상류 및 하류지역에서는 말무덤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말무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섬진강유역에서는 수장총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조영되지 않았다. 말무덤의 존재와 그 발전과정을 근거로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이 5세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에 있었을 때는 백두대간의 여원치가 섬진강유역과 교류하는데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가 5세기를 전후하여 기문국의 등장과 함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운봉읍에서 아영분지로 이동한다. 본래 운봉읍에 있었던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아영분지로 옮겨진 것은, 운봉고원으로 백제의 진출<sup>93)</sup>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sup>94)</sup>이다. 이 무렵부터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이어주던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백두대간의 치재<sup>95)</sup>를 통과하면서 치재가 운봉고원의 관문으로 그 몫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백제와 가야를 하나로 묶는 문물교류의 교섭창구이자 내륙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면서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한마디로 운봉고원은 대규모 철산지로 사통팔달하였던 교역네트워크를 갖춘 곳이었다.

이를 발판으로 가야계 소국으로 발전하였던 철의 왕국 기문국은 세 가지 점에서 강한 지역성<sup>96)</sup>을 보였다. 하나는 봉분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주체부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주체부가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이라는 점이다.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를 중심으로 한 함양 상백리·백천리, 산청 생초·중촌리,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계 고총은 봉분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장수 삼봉리·동촌리<sup>97)</sup>를 제외하면, 다른 가야계 고총군은 모두 남강 중류지역에 집중되어 하나의 분포권을 형성한

고개-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치재-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남원시 인월면-남원 실상사-산청군 생초면-산청-진주-함안-김해로 이어진다.

93)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가야 정벌은 운봉고원을 경유하는 백두대간 치재로를 따라 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에 백제는 비자발(比自狹)·남가라(南加羅)·녹국(喙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비롯해 그 서방의 고해진(古奚津)과 남방의 침미다례(枕彌多禮), 그리고 그 사이의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을 공략하였다.

94) 앞에서 이미 설명한 칠지도의 제작 시점을 泰和 4년 369년이라고 한다면, 369년 3월 근초고왕의 남정을 기준으로 곡나철산의 확보와 칠지도의 제작 및 왜로의 전래가 시간상으로 대부분 충족된다.

95) 남원시 아영면 성리와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경계로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이다.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조사에서 백두대간 치재를 넘던 옛길을 옛날고속도로라고 설명해 주었다. 우리나라에 신작로가 생기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치재를 넘어와서 일을 보고 다시 치재를 넘어갔다고 제보해 주었다.

96)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벽석의 축조방법,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점토 바름, 바닥시설, 장축방향 등 유구의 속성에서도 남원 월산리와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서로 상통한다.

97) 금강 최상류로 가야계 고총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장수가야만의 지역성과 독자성을 말해준다.

다. 아마도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경남 함양군과 산청군 일대에는 서로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하였던 가야계 소국들<sup>98)</sup>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천 봉계리 등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하였던 운봉고원 내 남원 유곡리·두락리의 경우만 유일하게 봉분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발전 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다. 아울러 가야계 고총에서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낸 철제초두를 비롯하여 철기유물이 대부분 나왔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철기류가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동시에 기문국 지배자의 시신을 모신 목관에 사용된 껍쇠<sup>99)</sup>는 가야 영역 출토품 중 그 크기가 가장 크다.

그런데 운봉고원 가야계 고총은 매장주체부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남쪽 기슭 제일 하단부에 자리한다. 봉분의 중앙부에 축조된 석실은 아래쪽이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천정석으로 덮었다. 연도의 위치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한다. 급기야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내부 구조가 백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에는 수혈식에서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가야계 고총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뀐 것은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sup>100)</sup>되었음을 말해준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5호분에서 나온 은제목걸이와 은제구슬, 유리구슬, 탄목구슬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의 관련성도 입증되었다. 기문국의 가야계 고총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백제계 유물이 상당량 나왔기 때문에 백제 웅진기 이른 시기부터 백제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운봉고원에 강하게 미쳤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운봉고원을 통과하던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백제가 가야지역으로 본격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만큼 백두대간의 치재로는 백제의 중앙과 경남 서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던 삼국시대 문물교류의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이었던 것이다. 운봉고원의 기문국에서 만들어진 니켈이 함유된 양질의 철도 백두대간의 치재로를 따라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원 임리에서도 백제묘제의 수용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임리 1호분은 봉분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배치되었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

98) 문헌에 기문국이 상·중·하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99) 가야세력의 수장층 혹은 지배자와 관련이 있는 가야계 중대형 고총에서만 나왔다.

100) 『일본서기』 계체기에 백제는 512년 임나사현(任那四縣),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己汶)과 대사(帶沙)를 두고 가야계 소국인 반파와 갈등관계에 빠졌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계 소국인 반파와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철의 왕국 운봉고원의 기문국을 복속시켰다.

장괵이 자리한 다괵식이다. 주석괵은 산줄기와 평행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그 출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주석괵의 내부구조가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묘제와의 친연성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즉 가야의 영역에서 백제묘제가 가장 일찍 수용된 곳이 운봉고원이다. 그만큼 운봉고원의 기문국은 백제의 선진문화와 선진문물이 가야 영역으로 전파되는 큰 대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철의 왕국 기문국이 521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 백제는 기문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에 패배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일시에 상실한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2호분, 아영면 봉대리 2호분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sup>101)</sup>를 근거로 6세기 중엽 경 운봉고원이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562년 대가야를 비롯한 백두대간 동쪽 가야계 소국들이 모두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면서 마침내 백두대간 산줄기에서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백제 무왕 때 20년 이상 백두대간에서 지속된 신라와의 아막성 전쟁도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탈환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었다.<sup>102)</sup>

101) 이밖에도 진안고원에 속한 금산 장대리, 진안 송금리에서 신라의 단각고배가 나왔다. 단각고배는 배부와 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2) 백제 무왕은 즉위 3년 만에 4만의 군대를 동원 신라 아막성을 공격하였지만 크게 졌고, 616년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624년 백두대간을 넘어 운봉고원을 다시 백제에 예속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경남 함양까지도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 제4절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 가야문화유산

### 1. 진안고원 가야계 왕국 장수가야의 지역성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진안고원이 있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도 지질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속한다는 주장도 있다. 1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백악기 때 호수였는데 지각 변동으로 융기해 해발 300m 내외의 산악지대를 이룬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sup>103)</sup>을 펼침으로써 백제와 가야, 신라<sup>104)</sup>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장수가야가 있다.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뜯봉샘<sup>105)</sup>이 자리하여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낙동강유역에 속한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계 소국 기문국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가야영역의 서북쪽 경계로 줄곧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왕국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sup>106)</sup>

1993년 이른 봄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진안고원에서 장수가야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해 장수군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입구에서 한홍석 할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군산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은 할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

103) 백제가 웅진 천도로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자 이를 틈타 신라가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진안고원의 무주권으로 진출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04) 전북 무주군 무풍면은 신라 무산현 행정치소로 백제토기와 신라토기가 반절씩 섞여있다. 1970년 대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서 수습된 20여 점의 신라토기와 백제토기가 무풍초등학교와 구천초등학교 등 3개소에 보관되어 있다. 신라토기는 대각부에 지그재그로 투창이 뚫린 이단투창고배와 대부광구장경호, 파수부잔 등이 있는데, 고배류를 제외한 유물의 속성은 진안 황산리 출토품과 상통한다.

105) 금남호남정맥 신무산 동북쪽 기슭 중단부에 위치한 곳으로 “이성계가 신무산 중턱에 단(壇)을 쌓고 백일기도를 하고 있는데, 백 일째 되는 날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그 무지개를 타고 봉황새가 하늘로 날아갔다. 봉황이 날아 곳을 가서 보니 웅달샘이 있어, 그 샘을 뜯봉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06)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의 가야계 소국들이 대부분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장수가야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계 소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고 고름장 이야기를 드렸다. 혹시 돌로 쌓은 고름장 혹은 고려장, 고리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쭙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주저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고름장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마을 주변 야산이 대부분 집안 종중산인데 할아버지께서 종중산을 관리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긴 창을 들고 와서 땅을 쑤시고 고름장을 파는 도굴꾼이 많이 다녀갔는데, 당시에는 도굴하던 사람들이 다녀가면 종중산이 웅덩이처럼 움푹 패이고 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조사단은 할아버지의 제보를 듣고 삼장마을 부근 야산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가야토기편을 발견하였다. 우연히 발독에서 발견된 가야토기편은 동전만한 크기로 그 외면에는 가야토기의 상징적인 문양인 물결무늬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당시 할아버지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결정적인 제보로 장수가야가 1500년 동안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1994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발굴비를 지원받아 할아버지께서 제보해 준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단은 삼장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하며 고단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할아버지께서 발굴단 숙소를 방문하였다. 몇 년 전 할아버지께서 종중산을 관리하는 과정에 우연히 발견한 토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꼭 쓰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가야토기를 기증하였다.<sup>107)</sup> 당시 발굴단에서는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할아버지의 완곡한 고사로 선물을 드리지 못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한홍석 할아버지는 장수가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빛낸 최고의 고고학자로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이를 계기로 해마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진안고원 내 가야문화유산의 분포양상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자체적으로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포양상도 심층적으로 파악되었다. 2003년·2012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긴급 발굴비를 지원받아 장수 삼봉리 가야계 고총 발굴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전라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9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구성된 장수 동촌리 고분군도 전라북도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되어 장수가야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종래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에서 발견된 가야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sup>108)</sup> 무

107) 당시에 한홍석 옹이 기증해 주신 가야토기는 장수군에서 나온 수많은 가야토기들 중 그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것으로 몸통부분이 상당히 풍만하고 목이 짧은 유개장경호와 다리부분에 타원형 투창이 뚫린 고배형기대로 그 시기가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단계로 편년된다.

108) 모든 가야 영역 중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포함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통신유적과 제철유적이 공존하는 곳은 장수군이 유일하다.

엇보다 가야의 영역에서 삼국시대의 봉수가 그 모습을 최초로 드러냄으로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고원의 분묘유적과 제철유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 밀집도가 월등히 높다.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는 대체로 천석과 합석을 이용하여 장방형의 석곽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과 유물을 부장한 뒤 대형 개석을 덮고 봉분을 씌운 구조이다.<sup>109)</sup> 유구의 장축방향을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어 풍수사상에 바탕을 두고 축조된 후대의 고분들과는 서로 직교한다. 당시 자연에 순응하고 살았던 가야인들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가야계 고총<sup>110)</sup>이란 봉분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무덤으로 그 주인공이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가야계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다. 이 고총들은 대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는데, 운봉고원의 경우처럼 봉분을 산봉우리처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 주인공의 권위와 신분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가야만의 장례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야계 고총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백두대간 동쪽 영남지방에서 밝혀진 가야묘제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2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확인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장계분지에는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계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sup>111)</sup>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있다. 그러나 진안고원의 금산군과 진안군, 무주군에서는 말무덤과 가야계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만 장수 동촌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계 중대형 고총으로 발전하였다.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한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장수가야의 존속기간을 웅변해 준다. 장수분지의 중앙부에 위치한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계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봉분의 직경이 30m 내외 되는 장수 화양리를 비롯하여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무리를 이루고 있어, 당시 철의 왕국으로 융성하였던 장수가야의 위상도 추론<sup>112)</sup>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야계 고총은 그

109) 장수가야의 하위계층 분묘유적으로 산자락 하단부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석곽의 규모가 커지는 발전과정을 보였다.

110) 봉분의 평면형태가 호석에 의해 원형 혹은 타원형의 분명한 분묘단위를 갖추고 있는 대형고분을 말한다.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위세품 및 대규모 석곽과 함께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암시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111) 금남호남정맥의 팔공산 서남쪽에 위치한 장수읍 대성리·식천리 일대로 수계상으로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112) 2016년 장수군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다. 장수군 번암면에서 무주군 무풍면까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분포 범위가 60km에 달한다. 2015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보존상태가 매우 안타깝다. 장수 삼봉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sup>113)</sup>과 대규모 민묘 구역 조성으로 40여 기의 고총 중 현재 2기만 봉분이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문중에서는 가야계 고총을 산봉우리로 인식하고 봉분의 중단부를 얼마간 파낸 뒤 그곳에 조상의 무덤을 쓸 정도로 매우 크다.

여태껏 백제문화권에 속하였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진안고원의 장수군이 처음이다. 동시에 장수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24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단일 지역 내에 밀집된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 기수가 많다. 더욱이 종래에 가야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되었던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자리하여 가야의 영역을 백두대간을 넘어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 속한 장수군 산서면·번암면<sup>114)</sup>에서는 가야계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가야계 분묘유적의 학술발굴에서 장수가야만의 지역성이 입증되었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봉분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sup>115)</sup>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연접되어 있거나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분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가야계 고총 중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은 가야 문화권에서 장수가야가 유일하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분을 만든 뒤 다시 파내어 매장주체부를 마련하여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묘제적인 친연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봉분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되었던 껍쇠<sup>116)</sup>가 출토되어, 가야계 고총의 피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계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에서도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장수가야만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야계 고총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을 띠는 것은 유일하게 장수군에서만 조사되었다. 무엇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껍쇠 등 값진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113) 일본인 무근수가 개발을 명분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유적지 내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대부분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도굴하였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토지대장에 소유주가 무근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고로 환수되었다.

114) 본래 남원군에 속하였던 곳으로 1906년 대한제국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장수군으로 편입되었다. 전북 동부 산악지대에서 가장 험준한 곳으로 동쪽의 백두대간과 북쪽의 금남호남정맥 산줄기 사이에 위치한다. 아직까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과 관련된 문화유적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수계상으로는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115) 봉토의 하단부가 서로 인접된 연접분(連接墳)으로 그 평면형태가 대부분 장타원형을 이룬다.

116)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의 장수 삼봉리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주석곽에서만 나왔다. 운봉고원의 가야계 고총 출토품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또 다른 가야계 소국이 있었음을 방증해 주었다.

극심한 도굴<sup>117)</sup>로 유물의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 안타깝다.

2015년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에서 말발굽과 말뼈가 함께 나왔다.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반반하게 고르고 1m 높이로 성토한 다음 다시 파내었는데,<sup>118)</sup> 유구의 속성은 호남 동부지역 가야묘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마한의 분구묘와 일맥상통한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고배형 기대·발·뚜껑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말발굽[蹄鐵]이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의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계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나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장수가야가 우수한 철의 주조기술을 가진 가야계 소국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장수가야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총군과 인접된 곳에 그 규모가 큰 산성이 있어야 한다. 금남호남정맥의 자고개[尺峙] 북쪽에 장수 합미산성과 장계분지 서쪽 관문인 방아다리재 부근에 자리한 장수 침령산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산성들은 골짜기를 막은 포곡식으로 성돌은 대부분 두부처럼 방형 혹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었는데, 후백제 견훤왕의 피난성인 전주 동고산성 성돌과 그 모양이 똑같다. 현재의 성벽은 가야토기편과 백제토기편, 삼국시대 기와편이 성돌과 성돌 사이에 끼여 있는 점에서 장수가야가 처음 터를 닦고 백제 혹은 후백제 견훤왕에 의해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가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복속되었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장수 삼고리에서 백제토기의 주요 기종으로 알려진 삼족토기·병과 장수 동촌리에서 직구단경호가 나왔는데, 그 시기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었다. 이를 근거로 장수가야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계 소국으로 존속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90여 개소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군으로 밝혀졌고,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장수가야의 존재를 방증해 주었다.

그렇다면 장수가야가 가야계 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백제와 가야의 교섭창구인 월성치<sup>119)</sup>·육십령의 장악과 다른 하나는 진안고원에 그물망처럼 잘 갖춰진 내륙교통망을 직접 관할하였다는 점이다. 진안고원의 동향분지에서 생산된 구리<sup>120)</sup>와 장수 대적골 등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도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을 병풍처럼 든든하게 감싸준 천혜의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가

117)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무근수가 주석곽 장벽을 드러내고 도굴이 이루어져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118) 호남 동부지역에서만 밝혀진 가야묘제의 속성으로 마한 분구묘와의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19) 백두대간의 삿갓봉과 남덕유산 고갯마루로 전북 장수군 계북면과 경남 거창군 북상면 경계를 이룬다.

120) 진안고원 내 진안군 동향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리고을이라는 동향(銅鄕)의 지명처럼 일찍부터 구리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동향소가 설치된 곳으로 동향면 대량리 창말마을 서남쪽에 슬래그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 범위가 200m 내외이다.

하면 백제의 중앙과 섬진강유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주던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진안고원의 장수군을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다가 진안고원을 가로질러 백두대간의 육십령을 통과하는 육십령로를 따라 경남 거창과 합천, 경북 고령 등 영남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때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장수가야의 존속 기간은 대략 150년 내외로 추정된다. 진안고원의 가야계 소국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된 이후에는 진안고원을 두고 백제와 신라가 치열한 각축전을 펼쳤다. 그리하여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인 충남 금산군과 전북 진안군·무주군에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당시에 대규모 철산지이자 구리산지인 진안고원을 차지하려는 삼국의 국가전략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장수가야 대규모 축성과 봉수제 운영

삼국시대 때 진안고원의 첫 번째 주인은 백제로 점쳐진다. 백제는 4세기 후반 이후 지방통치를 위해 교통의 분기점과 전략상 요충지에 토성과 산성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른 시기 백제의 성터는 강변, 냇가의 단구나 배후습지, 선상지에 입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 주는 토성이 진안고원에 있는데, 금산 수당리토성과 진안 와정토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금산분지에서 교통의 중심지인 금산 수당리토성<sup>121)</sup>은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만나는 곳으로 무주군에 속한 나제통문(羅濟通門)을 지나 경북 김천·성주방면으로 나아가는 백두대간의 덕산재<sup>122)</sup>로<sup>123)</sup>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다.

진안 와정토성<sup>124)</sup>은 백두대간의 월성치로<sup>125)</sup>와 육십령로, 치재로를 통해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이어주던 세 갈래의 간선교통로가 합쳐지는 곳이다. 와정(臥停)이라는 지명처럼 오고가던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던가 싶다. 백제의 중앙과 관련된 광구직구호·삼족토기·시루 등 백제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가야토기도 포함되어 있다. 전

121) 충남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토성리마을 서쪽 구릉지 정상부에 있다. 토성은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깝고 그 둘레는 350m 내외이다. 유물은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기와편 등이 섞인 상태로 나왔다.

122) 백두대간의 대덕산 북쪽 안부로 전북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와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경계에 위치한다.

123) 백제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 줄곧 백제와 신라를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루트로 공주-논산시 연산면-황룡재-논산시 별곡면-금산군 진산면-금산분지-금산군 부리면-지삼치-무주읍 용포리-무주읍-무주군 설천면-나제통문-무주군 무풍면-백두대간 덕산재-성주-대구-경산-경주로 이어진다.

124) 금강 변에 입지를 둔 반달모양의 토성으로 백제 한성기 진안고원으로 백제의 진출을 암시해 준다.

125) 백두대간의 샷갯봉과 남덕유산 사이에 자리한 큰 고갯길로 사비기 백제와 신라의 간선교통로이다. 백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송별하였던 곳으로 알려진 경남 거창군 위천면 수송대와 그 부근에 척수대,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가 지나갔다는 아홉산과 그 서쪽에 영승리가 있다.



북 동부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 곳이 진안 와정토성과 그 부근이다. 그렇다면 진안 와정토성을 경유하는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를 장악 혹은 관할하기 위해 5세기를 전후하여 이 토성들이 백제에 의해 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백제는 도읍을 공주로 옮긴 이후 한동안 한성의 상실과 귀족의 반란, 왕의 피살과 왕권의 실추 등으로 인해 일련의 정치적 혼미 내지 정치적 불안에 빠진다. 백제는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였지만, 대가야와 장수가야, 기문국 등 가야계 소국들은 가장 융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때 진안고원의 장수가야도 백제의 혼란기를 틈타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충남 금산군, 만경강 혹은 섬진강유역으로 진출을 모색한다. 진안고원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의 등장과 함께 금강·만경강·섬진강유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의 분포양상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진안고원의 충남 금산군과 전북 진안군·무주군, 완주군에서 5세기 후엽을 전후한 시기에 가야문화유산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곳으로 장수가야의 진출과 관련이 깊다.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장수가야가 장악함으로써 백제에 의해 줄곧 관리 운영되던 진안 와정토성이 문을 닫은<sup>126)</sup>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장수가야의 진출로 백제의 와정토성이 마침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진안 와정토성의 목책열과 그 주위에서 화재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당시의 화재가 와정토성의 폐성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수가야의 진출로 진안 와정토성 일대의 주도권이 백제에서 가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백제는 일련의 정치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시켜 왕권의 전제화를 모색한다. 공주로 도읍을 옮긴 뒤 12년 동안 정치적 불안을 일소하고 가야 영역으로 진출을 시작한다. 동성왕 9년(487)에는 임나(任那)가 쌓은 대산성(帶山城)을 공략<sup>127)</sup>함으로써 동쪽, 즉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으로 진출을 본격화한다. 일제강점기부터 대산성의 위치 비정을 두고 다양한 견해<sup>128)</sup>가 발표되었는데, 임나의 대산성은 최소한 가야문화유산의 존재와 함께 내륙교통로의 길목이자 나루를 통해 강을 건널 정도로 큰 강변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백제의 고산성(古山城)으로 알려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성<sup>129)</sup>이 문헌의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충족시켜 준다.

진안 월계리 산성은 대산(帶山)이라는 산의 이름처럼 금강을 따라 마치 띠 모양<sup>130)</sup>으로 뻗은 산

126) 진안 와정토성의 목책열과 그 주위에서 화재의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당시의 화재가 와정토성의 폐기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본 견해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7) 『일본서기』 현종기 3년(487)조의 “대산성(帶山城)을 쌓아 동도(東道)를 봉쇄하고 군량을 나르는 나루를 끊어(우리)군을 곤궁케 하였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대산(帶山)을 공략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기사이다.

128) 종래에 대산성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전북 태인설, 경북 성주설, 전북 임실설, 충북 음성 또는 괴산설, 전북 진안설 등이 있다.

129) 진안 와정토성에서 남쪽으로 2.5km 가량 떨어진 금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안천면 삼락리 승금마을, 서쪽에 용담면 월계리 성남마을이 있다.

130) 백제 때 물거현(勿居縣)과 난진아현(難珍阿縣)을 이어주던 교통로가 통과하던 고남치(古南峙)에서 그 길이가

줄기의 끝자락에 있다. 동시에 장수가야의 중심지로 향하는 백두대간의 월성치로·육십령로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금강의 폭이 200m 이상으로 워낙 넓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나루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한다. 그리고 진안고원의 장수군·무주군 일대에서 금남정맥 작은 사리재<sup>131)</sup>를 넘어 논산, 부여방면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곳을 거쳐 갔다고 한다. 백두대간의 월성치로·육십령로를 이용하려면 이곳을 대부분 경유해야 하였던 것이다. 진안 용담댐<sup>132)</sup> 건설로 당시의 나루터가 수몰되었지만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성남마을<sup>133)</sup>과 안천면 삼락리 승금마을<sup>134)</sup>을 이어주던 옛날 나루터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었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봉수는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써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제도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통신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오직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만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가야계 왕릉 못지않게 가야계 소국의 존재여부를 방증해 주는 가장 진솔한 고고학 자료이다. 문헌에 등장하는 가야계 소국인 반파[伴波(叛波)]가 513년부터 3년 동안 기문과 대사를 두고 백제와 갈등관계에 빠졌을 때 봉수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봉수<sup>135)</sup>가 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충분히 상정된다.

『일본서기』 계체기 8년 3월조에

반파는 자탄(子呑)과 대사(帶沙)에 성을 쌓아 만해(滿溪)에 이어지게 하고, 봉후(烽候[埃])<sup>136)</sup>와 저각(邸閣)<sup>137)</sup>을 설치하여 일본(日本)에 대비하였다. 또한 이열비(爾列比)와 마수비(麻須比)에 성을 쌓아 마차해(麻且奚)·추봉(推封)에까지 뻗치고, 사졸과 병기를 모아서 신라(新羅)를 핍박하였다. 자녀를 몰아 잡아가고 촌읍을 벗겨 빼앗아가니 적의 힘이 가해진 곳에는 남는 것이 드물었다. 무릇 포악하고 사치스럽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베풀어 죽임이 너무 많아서 상세히 적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삼국시대 봉수가 그 모습을 드러내 역사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듯이 90여 개소의 봉수<sup>138)</sup>가 배치되어 있

5km 가량 된다.

131) 부여에서 논산을 거쳐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간선교통로가 통과하던 관문으로 그 동쪽에 진안 태평 봉수가 있다.

132) 진안군과 무주군 사이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 1992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댐으로 길이 498m, 높이 70m이다.

133) 옛날 돛단배가 금강을 떠다녀 그 경치를 일러 성남귀범(城南歸帆)이라 하여 용담팔경의 하나였다.

134) 안자천이 금강에 합류하는 곳으로 옛날 나루터가 있었다고 해서 달리 배목 혹은 주향으로도 불린다.

135) 전북 동부지역에 5개소의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 봉화산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면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그 수가 90여 개소로 늘어났다.

136) 봉화를 올릴 수 있도록 쌓은 보루(堡壘)를 말한다.

137) 봉수군이 생활하는 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

138) 고고학에서 국가의 존재를 방증해 주는 봉수는 그 분포 범위가 전북가야의 영역과 일치한다.

다. 그렇지만 백두대간 동쪽, 즉 영남지방에서는 여전히 삼국시대 봉수의 존재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봉수는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장수군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잘 조망되는 산봉우리에 입지를 두었다. 그리고 산봉우리의 정상부에는 대체로 돌이나 흙으로 장방형의 단을 만들고 돌로 쌓은 석성<sup>139)</sup>을 한 바퀴 돌렸는데, 섬진강유역에 배치된 봉수에서만 성벽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에 삼국시대 봉수가 그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냈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탄현 봉수로 숲고개<sup>140)</sup> 서쪽 산봉우리에 위치한다. 이 산봉우리 정상부에 두께가 얇은 판석형 할석만을 가지고 연대를 쌓았는데, 연대는 그 평면형태가 거의 방형에 가깝고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약간 좁다.<sup>141)</sup> 1500년 동안 봉수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연대의 내부를 모두 할석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아마도 전북가야가 백제와의 경계에 국력을 담아 쌓은 결과로 점쳐진다. 그리고 부여, 논산 일대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과 금산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두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한눈에 조망된다. 동시에 전북가야의 서북쪽 관문으로 그 부근에 제철유적 및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완주군 동북부<sup>142)</sup>에서도 봉수대산 등 8개소의 봉수<sup>143)</sup>가 최초로 그 존재를 드러냈다. 만경강유역에서 금남정맥 싸리재,<sup>144)</sup> 금강유역에서 작은 싸리재를 넘어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sup>145)</sup>를 따라 선상으로 봉수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완주군 동북부에서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전북가야에서 또 다른 대규모 철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봉수의 분포양상을 근거로 전북가야가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을 틈타 완주군 동북부 일대로 진출하였음을 암시해 주었다. 반면에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양촌면·연산면 일대에는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았지만,<sup>146)</sup> 백제의 분묘유적과 관방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논산 표정리·신흥리·모촌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철기유물이 다량으로 쏟아져 전북가야와의 교류관계가 왕성하였음을 방증해 주었다.

그런데 봉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갈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이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무주군·진안군·임실군·순창군, 남원시 운봉읍에서 시작된 여러 갈래의 봉수로<sup>147)</sup>

139) 봉수가 소재한 산봉우리 정상부를 한 바퀴 돌렸는데, 그 둘레가 150m 내외이다.

140) 완주군 고당리 삼거리마을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달리 탄현(炭峴)으로도 불린다.

141) 연대(煙臺)의 정상부로 오르는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쪽을 제외한 다른 벽면은 거의 원상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연대는 길이 700cm, 높이 200cm 내외이다.

142) 완주군 고산면을 중심으로 비봉면, 화산면, 경천면, 동상면, 운주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143) 완주 탄현·불명산·용북리·각시봉·종리·봉림산·운암산·봉수대산 봉수로 방형 혹은 장방형의 연대를 두어 서로 친연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완주군과 인접된 충남 논산시에서는 여전히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144) 진안고원의 서북쪽 관문으로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와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경계에 위치한다.

145) 금남정맥 싸리재·작은 싸리재를 넘어 진안고원의 장수군으로 향하는 간선교통로를 말한다.

146) 완주에서 공주, 완주에서 부여 사이에서 한 개소의 봉수도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제와의 관련성은 희박하다.

가 모두 장수군에서 만난다. 조선시대 때 전국의 5대 봉수로가 서울 남산에서 합쳐지는 것과 똑같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편보다 그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수에서 채집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고려의 청자와 조선의 백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sup>148)</sup> 봉수에서 나온 유물의 조합상은 봉수의 설치시기와 설치주체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전북 동부 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삼국시대 봉수는 가야계 소국의 존재와 함께 전북가야의 영역을 방증해 준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백두대간 영취산·봉화산, 금남호남정맥 원수봉 봉수 발굴조사에서 그 설치 시기가 5세기 말엽부터 6세기 초엽까지로 밝혀졌다. 아마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영역으로 진출한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향을 살피고 제철유적의 방비를 위해 봉수를 운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동부지역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진안고원의 장수군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봉수들의 운영주체는 장수가야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 장수가야는 가야계 소국 중 유일하게 백두대간을 넘어 금강 최상류에 240여 기의 가야계 고총과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왕국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삼국시대 봉수들로 그 존재만으로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47) 종래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가야계 유적과 유물에 근거를 두고 복원된 전북가야의 영역과 일치한다.

148)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대체로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는 전북 동부지역에서 90여 개소의 봉수와 여러 갈래의 봉수로가 복원된 것은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제5절 섬진강유역 가야와 백제 문화유산 공존

### 1. 삼국시대 때 문화상 점이지대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서북쪽 기슭 중단부 데미샘에서 발원하는 섬진강유역이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2/3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백두대간과 낙남정맥, 호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이 자연경계를 이룬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남원시 서북권과 진안군 마령면·백운면·성수면, 장수군 번암면·산서면, 임실군과 순창군이 여기에 속한다. 일찍부터 섬진강이 제공하는 풍부한 물을 통해 농경문화가 발달하였고, 그 수계를 이용하여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삼국시대 때는 백두대간 동쪽의 가야계 소국과 서쪽의 영산강유역 마한세력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줄곧 완충지대<sup>149)</sup>를 이루었다.

섬진강유역은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한의 지배자 혹은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말무덤만 조사되었다. 현지에서 말무덤으로 불리는 것은, 전북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서 7기 내외의 말무덤,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서 7기 내외, 대강면 방산리에서 섬진강을 건너 서남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에서 7기 내외의 물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안타깝게 1970년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모든 말무덤이 유실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최근 지표조사에서 남원시 보절면 보룡리 도촌마을 동남쪽 구릉지 정상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3기의 말무덤만 봉분이 남아있다.

그러면 섬진강유역에서 마한의 말무덤이 사라지게 만든 강력한 세력집단의 주체를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세 가지로 가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산강유역의 전용 웅관묘 조영세력, 둘째는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세력, 셋째는 근초고왕(近肖古王)의 남정(南征)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가정은 전용 웅관묘와 장고분(長鼓墳)의 존재가 섬진강 유역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가망성이 희박하다. 두 번째 가정은 다양한 양식의 가야토기가 임실 금성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가야계 최고급 위세품도 출토되지 않았다. 세 번째 가정은 토기류의 조합상에서 백제토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야후기의 가야계 토기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149) 완충지대란 둘 또는 둘 이상의 강한 나라나 세력 범위 사이에 있어서, 그들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중립지대를 말한다.

삼국시대 때 섬진강유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야문화와 백제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지 못하고 백제토기와 섞여 있거나 지역색이 강한 가야 토기의 경우도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토기류가 서로 혼재된 조합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섬진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의 실체와 그 발전과정이 어떤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삼국시대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매우 미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없는 임실군 임실읍 일대에 가야계 소국 상기문(上己汶)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견해<sup>150)</sup>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1972년 임실읍 금성리 화성마을 동남쪽 산에서 나무를 심는 사방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3기의 고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에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고분의 구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혈식 석곽묘로 추정된다. 석곽은 대체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할석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는데, 석곽의 길이는 300cm를 넘지 않는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유개장경호를 제외하면 대부분 백제토기가 주종을 이룬다. 철기류는 철제대도(鐵製大刀)와 사곡검(蛇曲劍), 철검(鐵劍), 철모(鐵鎚), 모조철부(模造鐵斧)·주조철부(鑄造鐵斧), 마구류와 살포<sup>151)</sup>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화성마을 동북쪽 쇠점골에서 제철유적<sup>152)</sup>과 매장주체부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주구를 두른 고분<sup>153)</sup>이 조사되었다.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가야계 유개장경호를 5세기 후반 대가야와 기문 사이의 교역을 하였다는 증거물로 제시하고 당시 대가야가 교역로를 통하여 기문으로 침공해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유개장경호를 제외하면 단경호와 광구장경호, 원형투창고배, 장방형투창고배가 함께 수습되었는데, 이 토기들은 모두 백제계 혹은 백제토기이다. 토기류의 조합상에서 백제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소량의 가야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섬진강유역의 강한 지역성으로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분묘유적의 발굴조사에서도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공존하는 조합상을 보였다.

2010년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어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임실 구고리 산성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로 2기의 봉토분이 조사되었

150) 섬진강유역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한 면담조사 및 현지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51) 위세품의 하나라 논에서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 쓰는 농기구이다.

152)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화성마을 동북쪽 쇠점골에 위치한다. 임실읍 금성리와 관촌면 용산리 경계에 용암산(355m)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자락들 사이에 쇠점골이 있다. 현지조사 때 칠점지 서쪽을 휘감은 산줄기 동쪽 기슭에 농로를 개설하면서 생긴 절단면에 검붉은 녹물이 흘러내린 철광석과 결정 편암이 폭 넓게 편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53) 구릉의 정상부와 서쪽 기슭에 80cm 높이로 성토한 뒤 분구의 중앙에 매장주체부가 배치된 분구묘로 원형의 주구는 직경 16.2m, 너비 310cm, 최대 깊이 180cm이다. 유구의 속성은 마한의 분구묘를 비롯하여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조사된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상통한다.

다.<sup>154)</sup> 오래 전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많지 않았지만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섞인 상태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나왔다. 특히 1호분 내 3호 석곽에서 10여 점의 철못이 나와 섬진강유역 가야묘제만의 지역성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임실군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유역으로 가야의 진출 혹은 가야의 존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sup>155)</sup>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섬진강 중류지역에 속한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에서 4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유구가 대부분 심하게 유실 내지 훼손되었지만,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장방형으로 파내어 마련되었고, 석곽의 벽석은 천석과 할석을 섞어서 쌓았다. 유구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두었으며,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나왔다. 토기류는 직구소호와 삼족토기 등 백제토기가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야토기가 일부 섞여있다. 철기류는 3호분에서 쇠도끼와 쇠 손칼, 1호분에서 관고리와 관못이 출토되었다. 역시 섬진강유역 다른 분묘유적에서 밝혀진 가야묘제와 백제묘제의 만남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2013년 남원시와 인접된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와 팔덕면 월곡리에서도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되었다.<sup>156)</sup> 석곽은 그 평면 형태가 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유구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남북으로 두었다. 벽석은 대체로 할석을 옆으로 눕혀 쌓았으며, 횡구식과 횡혈식은 그 입구를 남쪽에 두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로 나뉜다. 토기류는 병이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경호·광구장경호·삼족토기·고배도 포함되어 있다. 철기류는 가위·철검·철부·도자 등이 있으며, 13호분에서 금동이식과 청동이식, 구슬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속성과 유물의 조합상은 백제의 진출과 그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sup>157)</sup> 3호분 학술발굴을 통해 그 성격이 마한의 묘제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횡혈식 석실분으로 밝혀졌다. 석실은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띠고 있으며, 연도는 길이 50cm 내외로 동벽에 잇대어 마련되었다. 반지하식으로 봉분을 휘감은 타원형 주구가 확인되었으며, 마한 묘제의 계승과 함께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과정을 암시해 주었다. 석실의 동벽에 붙은 상태로 최대북경이 동체부 중앙부에 자리한 단경호가 나왔는데, 유물은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었다. 섬진강유역으로 백제의 진출이 6세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54) 수혈식 석곽은 그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가야후기 고분의 속성을 강하게 담고 있다.

155)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룬 분묘유적이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가야계 분묘유적도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156)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계면 구미리가 동쪽에 팔덕면 월곡리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적과 유구, 유물의 속성은 가야보다 백제묘제와의 관련성이 강하다.

157) 남원시 대강면 소재지 서쪽 구릉지 남쪽 기슭에 봉분의 직경이 10m 이상 되는 10여 기의 말무덤이 무리지어 있는데, 말무덤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봉분의 직경이 더욱 커진다.



섬진강유역 분묘유적에서 밝혀진 가장 큰 특징은 백제와 가야요소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토기류의 조합상은 백제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야토기가 일부 섞여있다. 섬진강 내륙수로와 내륙교통로가 교차하는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와 순창군 구미리에서 6세기 이전 백제의 진출을 암시해 주었다. 그리고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수혈식 석곽묘에서 관고리, 관못 등이 나와 백제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삼국시대 석곽묘에서 백제와 가야묘제가 반절씩 혼재된 것은 섬진강유역만의 강한 지역성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대가야가 백두대간을 넘어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비정되고 있지만, 그 기간<sup>158)</sup>은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양직공도(梁職貢圖)』<sup>159)</sup> 백제국사조(百濟國使條)에 상기문이 백제 변방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열거된 점<sup>160)</sup>에서 그 독자성<sup>161)</sup>이 입증된다. 그렇다면 상기문이 6세기 초엽까지 가야계 소국으로 발전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해 주는 고고학 자료를 찾는다면, 그것은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존재이다. 그러나 섬진강유역에서는 마한과 관련된 재지계 토기류만 부장되고, 현지 주민들이 말무덤으로 불리는 30여 기의 분구묘만 조사되었다. 특히 上己汶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된 임실군 임실읍, 장수군 번암면 일대에서는 가야계 고총이 포함된 분묘유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야계 최고급 위세품도 출토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기<sup>162)</sup>를 제외하면 섬진강유역에 대한 주도권이 백제에 의해 줄곧 행사되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는 섬진강유역에서 가야계 고총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거나 무령왕(武寧王)의 인구추쇄책(人口推刷策)이다. 무령왕은 피폐해진 농가경제를 회복하고 농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두 가지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농토에서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농토에 안착시키는 유식자귀농책(游食者歸農策)이며, 다른 하나는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성을 본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던 인구추쇄책이다.

백제의 인구추쇄책은 인구파악과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지역<sup>163)</sup>으로 도망간 백성들

158)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부터 임나사현(任那四縣)과 기문(己汶), 대사(帶沙)를 차지하기 위해 가야계 소국인 반파(伴波)와의 갈등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159) 중국 양나라의 원제 소역이 그린 사신도이다. 526~536년 무렵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사절을 그림으로 그려 해설한 것이다.

160) 백제의 변방에 있는 반파(伴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前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연(麻連), 상기문(上己汶), 하담라(下耽羅) 등의 소국들이 백제에 부용한다는 내용이다.

161) 바꾸어 말하면 상기문은 6세기 초엽까지도 백제 혹은 대가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엄연히 가야계 소국의 하나로 존속하였다는 점이다.

162) 한성의 상실로 백제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는 시점부터 이를 극복하고 487년(동성왕 9) 대산성(帶山城)을 공략하여 다시 장악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63) 모든 가야의 영역 중 대규모 철산지로 융성하였던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진안고원의 장수가야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다.

을 대상으로 대가 끊긴지 3~4대가 지난자들까지도 쇠환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가야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의 쇠환지역으로 임실군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그 이유는 임실 금성리·석두리에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섞여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으로도 백제의 인구추쇄책이 추진된 시점<sup>164)</sup>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백제는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 임나사현과 기문, 대사를 두고 급기야 가야계 소국 반파와 갈등을 초래한다.

삼국시대 때 섬진강유역에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복속되었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편입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백제 때 설치된 행정치소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섬진강유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된 것만은 분명하다. 백제 때 임실군 임실읍에 임실군(任實郡), 청웅면에 돌평현(突坪縣)과 지사면에 거사물현(居斯勿縣), 남원시에 고룡군(古龍郡), 순창군 순창읍에 도실군(道實郡)과 적성면에 역평현(礪坪縣), 진안군 마령면에 마돌현(馬突縣)이 설치되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백제계 분묘유적이 임실읍 두곡리와 청웅면 구고리·석두리, 지사면 원산리, 남원시 이백면 초촌리·척문리,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신남리에서 발견되었다. 그런가 하면 백제의 행정치소와 관련이 없는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와 신평면 호암리<sup>165)</sup>에 횡혈식 석실분이 폭 넓게 분포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섬진강유역에 속한 남원시와 순창군, 곡성군에서는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말무덤이 발견되었지만, 임실군을 중심으로 섬진강 상류지역에서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임실 도인리 20호 주거지에서 마한의 상징적인 조형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임실군이 마한의 영역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임실 석두리에서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다양한 유물이 나와 임실군이 한성기 때 백제에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6세기 초엽에 이르러 백제가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다는 점,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까지 문헌에 등장하는 가야계 소국 기문국이 임실군을 비롯한 섬진강유역에 있었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섬진강유역에 간선교통로가 통과하거나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백제의 행정치소가 설치된 점에서 백제와의 관련성을 더욱 높였다. 그러다가 백제의 웅진 천도와 당시 백제의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해 백제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갑자기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자 섬진강유역이 가야의 영역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임실 석두리·도인리에서 가야후기의 수혈식 석곽묘와 임실 금성리·도인리에서 가야 후기의 가야토기가 출토됨으로써 그 가능성을 방증해 주었

164) 아직은 고고학 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혼재된 상황에서 토기류의 중심 연대가 대체로 6세기 전반대로 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65)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임실 상가 읍판유적 북쪽에 임실 호암리 고분군이 있다.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상천마을 동북쪽 산봉우리 남쪽 기슭 중단부로 이곳에 백제 사비기 때 널리 유행한 판석형 횡혈식을 가지고 축조된 단면 육각형의 횡혈식 석실분이 자리하고 있다.

다. 또한 임실군을 중심으로 섬진강유역의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을 통해서도 가야와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2. 산성 및 봉수 분포양상과 그 의미

섬진강유역의 산성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성이다. 오래전부터 삼한 시대 옛 성터로 학계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전주와 남원을 잇는 17번 국도변에 임실 월평리 산성이 있는데,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에 속한다. 성수산에서 발원해 줄곧 서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남쪽으로 꺾는 오수천 동쪽에 산성이 있다. 이 일대에서 오수천은 남천으로 불리는데, 남천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쭉 뻗은 산줄기에 산성이 있다. 남천 동쪽에 두 개의 산봉우리를 거느린 산이 있는데, 북쪽 산봉우리에 산성이 있으며, 남쪽 산봉우리 남쪽에 성말마을이 있다.

임실 월평리 산성은 세 갈래의 산자락 사이에 형성된 두개의 계곡을 아우르는 포곡식이다.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남쪽 두 개의 골짜기 구간을 제외하면 성벽은 대부분 산자락의 정상부를 통과한다. 성돌은 깎돌을 장방형으로 거칠게 다듬어 만들었는데, 성돌과 성돌 사이는 소형 깎돌과 기와편으로 메꾸었다. 성벽은 막쌓기로 남쪽 구간이 대부분 석성을 이루고 있으며, 다른 구간은 산봉우리의 가파른 지형을 그대로 살린 토성혼축성이다. 세 개의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그 주변지역이 잘 조망되어 본래 망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 내부는 대부분 계단식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 다양한 성격의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표조사 때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기와편이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토기편은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기벽이 얇은 고려 토기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자기편은 문양이 없는 순청자편을 중심으로 상감청자편, 분청사기편, 조선후기의 백자편까지 포함되어 있다. 유물의 종류와 그 속성을 근거로 산성의 존속 기간은 백제부터 조선까지 10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시기적인 폭이 넓은 유물이 산성에서 함께 수습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그만큼 임실 월평리 산성이 줄곧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남강유역의 내륙교통로가 임실 월평리 산성에서 합쳐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강 최상류 진안 와정토성을 경유하여 진안고원을 종단하는 간선교통로와 만경강유역에서 호남정맥의 슬치<sup>166)</sup>를 넘어 온 웅진기 간선교통로가 만난다. 동시

166)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와 임실군 관촌면 슬치리 경계로, 현재 전주와 남원을 잇는 17번 국도와 전라선이 이

에 백두대간의 치재를 넘어 운봉고원을 거쳐 경남 서부지역으로 향하는 백두대간 치재로와 호남 정맥의 석거리재를 넘어 고흥반도까지 이어진 내륙교통로, 동진강 하구의 가야포(加耶浦)까지 이어진 내륙교통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다. 따라서 임실 월평리 산성은 섬진강유역에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져 내륙교통망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호남정맥 슬치 못지않게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 가는정<sup>167)</sup>이다. 섬진강댐 내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서쪽에 호남정맥에서 가장 큰 관문으로 알려진 가는정이가 있다. 호남정맥 묵방산과 성옥산 사이 고갯마루로 섬진강에서 동진강유역으로 나아갈 때 꼭 거쳐야 하는 큰 고갯길이다. 호남정맥 가는정이를 넘어 팽나무정, 장성백이를 통과하면 호남평야 동쪽 정읍시 태인면에 다다른다.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가는정 부근<sup>168)</sup>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까지 이어진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는 가는정이는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조선 철종 8년(1857)에 제작된 『동여도(東輿圖)』<sup>169)</sup>에 가야포(加耶浦)가 표기되어 있다. 동진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그물조직처럼 잘 갖춰진 내륙수로와 내륙교통로의 총착지에 가야포가 있다. 1864년 김정호(金正浩)가 지은 지리책 『대동지지(大東地志)』<sup>170)</sup> 부안현 산수조에도 가야포가 등장한다.<sup>171)</sup> 부안군 부안읍과 계화도 중간 동진강 하구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창북리 일대에 속한다. 서해 연안항로의 기항지이자 해양제사 유적으로 유명한 부안 죽막동에서 그 위쪽으로 20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동진강 하구 일대에는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가야포를 중심으로 장신포·사포·덕달포·부포·줄포·식포 등 크고 작은 포구가 많았는데, 그 중앙에 가야포가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광활방조제와 1963년 계획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모두 농경지로 바뀌어 지금은 포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행히 1970년대 부안군 계화면과 동진면 일대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에서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어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동진강 하구에는 산성 및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어떤 고개를 넘느냐에

곳을 통과한다. 호남정맥의 산줄기가 지형상으로 매우 완만하여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167) 호남정맥의 묵방산과 성옥산 사이의 고갯마루로 호남정맥과 직교되게 형성된 자연협곡의 입구에 자리한다.

168)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 일대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동일 지역에 공존한다.

169)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위해 먼저 만든 필사본 전국지도이다. 우리나라의 고지도 중 가장 많은 인문지리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18,740여 개로 대동여지도에 수록된 13,188개보다 5,550여 개가 더 많다.

170) 전국 지리지이자 역사지리서로 고산자 김정호(1804~1866)가 편찬한 32권 15책의 필사본이다.

171) 조선 철종 13년(1862) 김정호가 펴낸 전국 지리지인 『대동지지』 부안현 산수조에도 “부안현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가야포(加耶浦)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 대가야 도읍 고령에서 출발하여 새만금 속 가야포까지 도달하는데 크게 두 갈래의 루트가 있다.

하나는 백두대간의 육십령(六十嶺)을 넘어 진안고원의 장수군을 횡단하는 방법이다. 고령을 출발하여 가조와 거창을 거쳐 안의에 다다르면, 이곳에서 남강의 지류인 남계천을 따라 오르다가 육십령을 넘는 루트이다. 영호남의 상징적인 관문인 육십령을 넘으면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층이 밀집 분포된 장수군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다시 장수군의 서쪽 관문인 금남호남정맥의 자고개를 넘게 되면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곧장 진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백두대간의 치재를 넘어 섬진강유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고령에서 함천과 거창을 거쳐 함양에 이르면, 이곳에서 팔랑치와 매치를 넘어 손쉽게 운봉고원까지 도달한다. 운봉고원은 남원 월산리·유곡리·두락리·임리에 18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층과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곳이다.

위에서 복원된 두 갈래의 내륙교통로<sup>172)</sup>는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성에서 만난다. 임실 금성리로 상징되는 임실군 임실읍은 백제 때 임실군의 행정치소로 지금도 백제 때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가야계 소국 상기문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고고학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서 다시 서쪽으로 청웅분지<sup>173)</sup>와 섬진강댐 내 임실 운정리를 거쳐 호남정맥의 가는정이를 통과하면, 호남평야의 동쪽 거점 정읍시 태인면에 다다른다. 이곳에서부터는 호남평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마한의 분구묘가 자리한 정읍 운학리·지사리, 부안 용화동을 거쳐 가야포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이 두 갈래의 루트<sup>174)</sup>는 대가야를 비롯한 영남 내륙지역과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세력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동진강 하구의 가야포까지 도달하는 데 가장 용이하다. 더욱이 고령과 가야포가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해 거리상으로도 최단거리를 이룬다. 그렇다면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계 소국들이 동진강 하구의 거점포구인 가야포를 이용하여 남제(南齊)<sup>175)</sup> 등 중국과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백두대간의 육십령, 치재를 넘어 가야포까지 도달하는 데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교통로의 필수 조건인 경제성과 신속성, 안정성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해안과 서해안의 연안항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중국의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안군 계화면 궁안리·용화동 일대에서는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가야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이곳은 가야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무엇보다 부안 용화동은 이중

172) 하나는 고령-거창-백두대간의 육십령-진안고원의 장수군-금남호남정맥의 자고개-임실 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거창-함양-운봉고원-백두대간의 치재-산서분지-임실 코스이다.

173) 백제 돌평현과 통일신라 구고현의 행정치소로 임실군 청웅면이 여기에 해당된다.

174) 그 루트를 추정 복원해 보면 임실-청웅분지-임실 운정리-호남정맥의 가는정-태인-부안-가야포에 도달한다.

175) 중국 남조 때 두 번째 왕조(479~502)로 소도성(蕭道成)이 송나라의 순제로부터 양위를 받아 세운 나라다. 국호는 제(齊)였으나 북제(北齊)와 구별하여 남제(南齊)라고 부른다. 502년 양나라의 무제에게 망하였다.

토단으로 내곽과 외곽을 갖춘 위곽유적(圍郭遺蹟)으로 본래 이곳에는 5기 내외의 말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동진강 하구 일대는 말무덤과 위곽유적을 근거로 마한 소국의 존재와 함께 가야포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곳이다. 당시 가야포는 중국에 있었던 신라방(新羅坊)<sup>176)</sup>과 그 역할이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영남 내륙지역과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가야계 소국들이 남제 등 중국과 국제교류를 할 때 주로 이용하던 국제교역항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철의 왕국으로 융성하였던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장수가야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련로에 넣었던 굴이나 조개껍질이 가야포에서 조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만경강에서 섬진강유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호남정맥 슬치 주변에 산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호남정맥 산줄기가 그다지 험준하지 않아 일찍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만경강유역에서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넘어야 하였던 큰 관문으로 전주와 남원을 잇는 17번 국도와 전라선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 고개의 서쪽 산봉우리에 임실 슬치리 산성과 그 동북쪽에 완주 만마관산성, 섬진강과 인접된 곳에 임실 대리·방현리·성미산성 등 5개소의 산성이 있다. 삼국시대 때 전북가야와 백제의 경계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이다.

호남정맥 슬치에서 멀지 않은 성미산(430m)에 성미산성이 있는데,<sup>177)</sup>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서쪽 기슭을 아우르는 산정식이다. 산성의 평면형태가 사람의 왼쪽 발바닥과 거의 흡사한 모양으로 그 둘레가 517m이다. 백제 무왕 때 쌓은 각산성(角山城)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2007년 발굴조사에서 성벽과 집수시설, 구들유구가 조사되었다. 성벽은 내·외벽을 모두 판석형 깎돌을 가지고 쌓은 협축식으로 산성의 가장 낮은 서남쪽에서 그 평면형태가 원형을 띠는 2기의 석축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백제의 지방통치제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오부명(五部名) 인장과(印章瓦)가 출토되어, 이 산성의 역사적인 의미를 더해 주었다.

섬진강 중류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오수천을 따라 10여 개소의 산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임실군 오수면에서 순창군 동계면까지의 구간으로 그 길이가 대략 10km 정도 된다. 오수천은 성수산에서 발원하여 줄곧 서남쪽으로 흐르면서 남천, 율천을 합치고 삼계석문(三溪石門)<sup>178)</sup>을 지나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에서 섬진강 본류에 합류한다. 오수천을 중심으로 그 양쪽에 크고 작은 분지들이 연속되어, 이를 합쳐서 오수분지라고 부르는데 오수천과 율천이 합류하는 부근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삼계석문 북쪽 산봉우리에 임실 삼은리 산성을 비롯하여 서쪽에 임실 삼계리 산성, 서남쪽에 임실 홍곡리 산성과 임실 세심리 산성, 서북쪽에 임실 덕계리 산

176) 당나라 때 중국 동해안 지역에서 신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신라인의 자치구역이다.

177) 백제 무왕 5년(605)에 쌓은 각산성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지만 발굴조사 때 상당량의 가야토기편이 나와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178)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삼계마을 서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룬다.

성<sup>179)</sup>이 있다.<sup>180)</sup>

우리나라에서 산성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곳이 전북 동부지역이다. 아마도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대규모 철산지였던 이곳을 장악하려는 삼국의 정치·군사적인 목적과 관련이 깊다. 제일 먼저 백제가 진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웅진 천도 이후 한동안 정치적 불안으로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자, 이를 틈타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산성 및 봉수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이 무렵 신라도 백두대간의 덕산재를 넘어 무주군 무풍면 일대를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전북 진안군과 충남 금산군까지 신라의 영향권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충남 금산군 일대에서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아직은 임실 성미산성,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 금산 백령산성을 제외하면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축성시기와 축성주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백제 혹은 영산강유역을 의식하고 진안고원의 장수군으로 통하는 내륙교통로의 길목에 산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전북 동부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만을 근거로 추론한다면 그 축성주체가 장수가야와의 관련성이 가장 가깝다. 그런데 섬진강유역을 제외하면 산성 및 봉수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곳은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도 서로 중복된다. 삼국시대 때 대규모 철산지를 지키려는 삼국의 국가전략도 함께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섬진강유역에는 임실군을 중심으로 진안군 일부에만 봉수가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안고원 속 장수군에서 시작된 한 갈래의 봉수로가 임실군을 가로질러 임실 봉화산 봉수까지 이어진다. 임실 봉화산 봉수는 산봉우리 정상부에 장방형의 토단이 마련되어 유구의 속성이 장수군에 밀접 분포된 봉수들과 상통한다. 임실분지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임실 국화봉 봉수, 남쪽에는 임실 봉화산 봉수와 북쪽에는 임실 용요산 봉수, 서쪽에는 임실 무제봉 봉수가 있다. 청운분지가 한눈에 잘 조망되는 임실 백이산 봉수를 지나 임실 학암리 봉수에서 섬진강을 건너 호남정맥의 치마산(馳馬山)<sup>181)</sup>·경각산(鯨角山)<sup>182)</sup> 봉수에서 멈춘다.

임실군 중심부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산줄기에도 봉수가 있다. 임실 봉화산 봉수에서 남쪽으로 3.1km 남짓 떨어진 임실 망전리 봉수와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5.5km 가량 거리를 둔 임실 세심리 봉수가 있다.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임실군에는 10여 개소의 봉수가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또 다른 봉수가 더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은 봉수의 설치시기와

179) 고흥반도까지 이어진 교통로와 오수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두 갈래의 교통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다.  
180) 오수분지를 관통하는 오수천을 따라 선상으로 연결된 내륙교통로를 관할하기 위해 임실 우번리 산성과 순창 신흥리 산성 등 10여 개소의 산성이 조밀하게 배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181) 최근 지표조사에서 봉수가 발견된 곳으로 마치 말이 달리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82) 임실군 신덕면과 완주군 구이면 경계에 위치하고 전주 일대 한눈에 잘 조망된다. 이 산 아래의 광곡마을에서 바라보면 모악산(母岳山) 방향으로 머리를 향한 고래의 모습이며, 정상부에 있는 두 개의 바위가 마치 고래의 등에 솟아난 뿔의 형상이다.



설치주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진안고원의 장수가야와 관련성이 가장 높다.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봉수의 분포망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면서 모든 봉수로의 종착지가 진안고원 속 장수가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봉수와 세트관계를 보이면서 산성이 배치되어 있다.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통과하던 금산분지의 북쪽과 진안고원에서 공주 혹은 부여방면으로 나아갈 때 주로 넘었던 금남정맥과 완주군 동북부 일대, 만경강유역에서 섬진강유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호남정맥의 슬치 부근이 여기에 해당된다. 백두대간의 산줄기에도 많은 산성 및 봉수가 세트관계를 보이면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섬진강유역에서 영산강유역으로 진출하려면 대부분 통과해야 하였던 오수천 일대, 만경강유역에서 진안고원으로 연결되는 내륙교통로가 통과하던 완주군 일대에도 산성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끝으로 전북 동부지역을 차지하려고 국운을 걸고 백제와 가야, 신라가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쳤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철산지의 장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6세기 전반 장수가야가 백제에 복속되었고, 백제와 후백제의 멸망 이후<sup>183)</sup>에는 전북 동부지역이 더 이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전북 동부지역을 경유하여 백제 혹은 후백제의 도읍을 연결해 주던 간선교통로가 끊기고 철생산이 일시에 중단된 것<sup>184)</sup>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야계 소국으로 전북가야의 발전과 삼국의 각축장으로 전북 동부지역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전북가야와 백제, 후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183)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는 진안고원은 후백제의 멸망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낙후된 지역을 암시하는 무진장(茂鎭長)으로만 회자되고 있다. 여기서 무진장(茂鎭長)은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을 가리킨다.

184)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자 장수가야와 백제, 후백제의 국가 발전을 이끌었던 철산개발이 갑자기 중단된 뒤 급기야 벽계군이 벽계현으로 강등되었다. 본래 신라의 모산현이었던 운봉고원은 경덕왕 16년(757) 운봉현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함양의 영현으로 편입되어 남원보다 오히려 함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고려 태조 23년(940) 남원부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후백제가 멸망하자 운봉고원의 철산지를 남원부에 편입시켜 철산개발을 중단시키고 국가 차원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고려의 국가전략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 제6절 나오는 글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지침서가 『산경표』이다. 조선 영조 때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전통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호남지방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금남호남정맥이 전북 동부지역을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운봉고원과 서쪽에 진안고원이 있다.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사이에 위치한 섬진강유역이 전북 동부지역의 대부분 면적을 차지한다. 조선시대 십승지지에서 그 이름을 올린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진안고원은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린다. 섬진강유역은 가야와 백제문화가 공존하여 문화상으로 점이지대(漸移地帶)<sup>185)</sup>를 이루었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계 소국 기문국은 4세기 후엽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중엽 경까지 가야계 소국으로 존속하였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 자연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고, 백제와 가야의 문물교류의 관문, 대규모 철산개발과 교역네트워크를 통한 철의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물)무덤과 가야계 중대형 고총, 최상급의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등 가야계 소국들이 니켈이 함유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철의 왕국 기문국에 보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 무령왕의 진출로 백제묘제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6세기 중엽 경에는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사이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토대를 둔 장수가야는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등장해 가야계 소국으로 발전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복속되었다. 금남호남정맥의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하였던 내륙교통망의 장악과 관할, 대규모 구리와 철산개발, 한성기 백제의 간선교통로가 통과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장수 동촌리 말무덤이 계기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만 조영되었다.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이 나와 장수가야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응축된 당시에 철의 테크노밸리였음이 입증되었다. 금강 상류 지역에서 가야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장수가야는 한마디로 1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제국이자 90여 개소의 봉수로 상징되는 봉수왕국이다. 동시에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

185)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두 지역 사이에서 중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의미한다.

상류에서 유일하게 가야문화를 꽃피웠던 가야계 소국이다.

전북의 동부지역에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섬진강유역이다. 이제까지 섬진강유역의 지표조사에서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일대에 말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그 존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진 말무덤이 자취를 감춘 이후 수장총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분묘유적도 더 이상 조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남원시, 임실군 일대에 가야계 소국 기문국이 있었던 곳으로 비정되었다. 그렇지만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계 소국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 자료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야계 및 백제계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 갈라진 한 갈래의 봉수로가 섬진강 상류 임실군을 동서로 횡단하는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 삼국시대 산성 및 봉수, 제철유적이 발견된 만경강유역이다. 완주군 동북부에서 탄현봉수 등 그 모습을 최초로 드러낸 7개소의 봉수는 유구의 속성에서 공통성을 보였다. 봉수는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방형의 연대를 마련한 뒤 할석을 가지고 채웠다. 완주 봉림산 봉수에서 상당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토기편은 기벽이 두껍고 희미하게 승석문이 시문된 삼국시대 토기편으로 6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정된다. 만경강유역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를 따라 봉수가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산성 주변에는 봉수의 연대와 동일하게 성벽을 쌓은 산성이 위치하여 봉수와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산성 및 봉수를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축성주체를 단정할 수 없지만 일단 전북가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만경강유역에서 전북가야와 관련된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있다. 진안고원으로 향하는 내륙교통로와 만경강 내륙수로가 교차하는 완주 배매산성·구역리 산성에서 소량의 가야토기편과 익산 등용리에서 가야토기가 나왔는데, 전북가야가 만경강유역에 잘 구축된 교역망을 이용하였음을 암시해 주었다. 판상철부로 상징되는 철기류는 유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완주 상운리에서는 상당량의 단야도구와 판상철부가 서로 공반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이 이곳에서 다시 가공되었음을 말해 주었다. 반면에 완주 신평·장포에서는 판상철부 등 다양한 철기류가 나와 만경강 내륙수로로 철이 널리 유통되었음을 방증해 주었다. 아직까지 전북가야와 관련된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만경강유역에는 전북 동부지역에서 생산된 철의 생산과 유통을 주도했던 세력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 두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의 가치는 그 보존과 활용에 있다고 한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은 대부분 잡목과 잡초 속에 갇혀 있거나, 지금도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봉분을 평탄하게 다듬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북가야의 인식 결여와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영남지방의 경우 1970년대 부터 시작된 학술발굴을 통해 그 실체가 일목요연하게 밝혀짐으로써 26개소의 가야문화유산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다행히 최근에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호남지방에서 최초로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됨으로써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사적을 지정 받기 위해 전라북도 7개 시군이 긴밀한 정책협약과 함께 학술발굴이 절실히 요망된다.

2017년 11월 25일에는 1500년 전 백두대간 속 전북 동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가야계 왕국으로 까지 발전하였던 가야세력을 하나로 묶어 전북가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삼국시대 때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역동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북가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호남 사람들이 오갔던 화합의 무대인 백두대간 치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탑도 건립하였다. 그리고 전북가야의 고총과 제철유적, 봉수 및 산성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학계의 관심과 행정당국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시에 전북가야문화유산을 역사교육의 장과 영호남 화합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보존대책 및 정비방안도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 전북 동부지역에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90여 개소의 봉수를 남긴 전북가야사가 올곧게 복원되는 그날까지 전 북가야를 꼭 기억했으면 한다.

## ■ 参 考 文 獻

-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014,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2007,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郭長根, 1999, 『湖南 東部地域 石槨墓 研究』, 書景文化社.
- \* 박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 \* 박장근, 2015,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백제문화』 제52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 박장근, 2017,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문화」, 『잊혀진 가야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 박장근, 2018,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전북연구원.
- \* 金世基, 1995,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 \* 金世基, 2002, 「大加耶의 발전과 周邊諸國」, 『大加耶와 周邊諸國』, 高靈郡·韓國上古史學會.
- \* 김세기,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 \* 金在弘, 2011, 『韓國 古代 農業技術史 研究 -鐵製 農具의 考古學-』, 도서출판 考古.
- \* 김재홍, 2011, 「전북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 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김재홍, 2017,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성격」,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 김태식,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 \* 盧重國, 2004, 「大加耶의 성장기반」,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高靈郡·韓國古代史學會.
- \* 朴普鉉, 1998,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槨墳의 消滅年代」, 『신라문화』 제15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 \* 朴普鉉, 2003, 「湖西地域의 水系別 新羅文化 定着科程」, 『嶺南考古學』 32號, 嶺南考古學會.
- \* 朴升圭, 2003, 「大加耶土器의 擴散과 관계망」, 『韓國考古學報』 49, 韓國考古學會.
- \* 朴天秀,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 \* 박천수, 2007, 「5~6세기 호남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교류와 갈등』, 湖南考古學會.
- \* 朴天秀,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韓國上古史學會.
- \* 方東仁, 1997, 「교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백승옥,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가락국과 백제」,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徐榮一, 2003, 「漢城 百濟의 南漢江水路 開拓과 經營」, 『文化史學』 第20號, 韓國文化史學會.
- \* 申鍾煥, 2006, 「陝川 冶爐와 製鐵遺蹟」, 『陝川 冶爐 冶鐵地 試掘調査報告書』, 慶南考古學研究所.

- \* 심승구, 2017, 「세계유산과 전북가야의 미래전략」,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제51집, 호남고고학회.
- \* 유영춘, 2017, 「백두대간 속 철기문화의 보고」,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 \* 유영춘, 2017, 「전북가야 철기문화의 독자성」,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유영춘 외, 2012,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 \* 柳哲, 1996,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 湖南考古學會.
- \* 유철, 2011, 「장수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유철, 2011,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장수·장계분지의 고분군·산성·봉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제42호, 전북사학회.
- \* 유철, 2017, 「전북가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 \* 윤덕향, 2011, 「호남지방 역사고고학의 현황과 전망」,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이군, 2017, 「鷄首執壺에 관련된 문제 및 한국의 고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의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이동희, 2004, 「전남 동부지역 가야계 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집, 한국상고사학회.
- \* 이동희, 2008, 「섬진강유역의 고분」,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 이동희, 2017, 「전남 동부지역의 가야문화」, 『잊혀진 가야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 이성주, 2007,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성격」,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李炯基, 2009, 『大伽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 \* 李熙濬, 1994, 「고령양식 토기 출토 고분의 편년」, 『嶺南考古學』 15, 嶺南考古學會.
- \* 李熙濬, 1995,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 \* 이희준, 2006, 「대가야의 물길과 뱃길」, 『대가야』 학술총서 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豎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 湖南考古學會.
- \* 전상학, 2011,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 \* 전상학, 2016, 「마한·백제시대의 전북혁신도시」,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혁신도시』, 호남고고학회.
- \* 전상학, 2017, 「분묘자료를 통해 본 전북가야」,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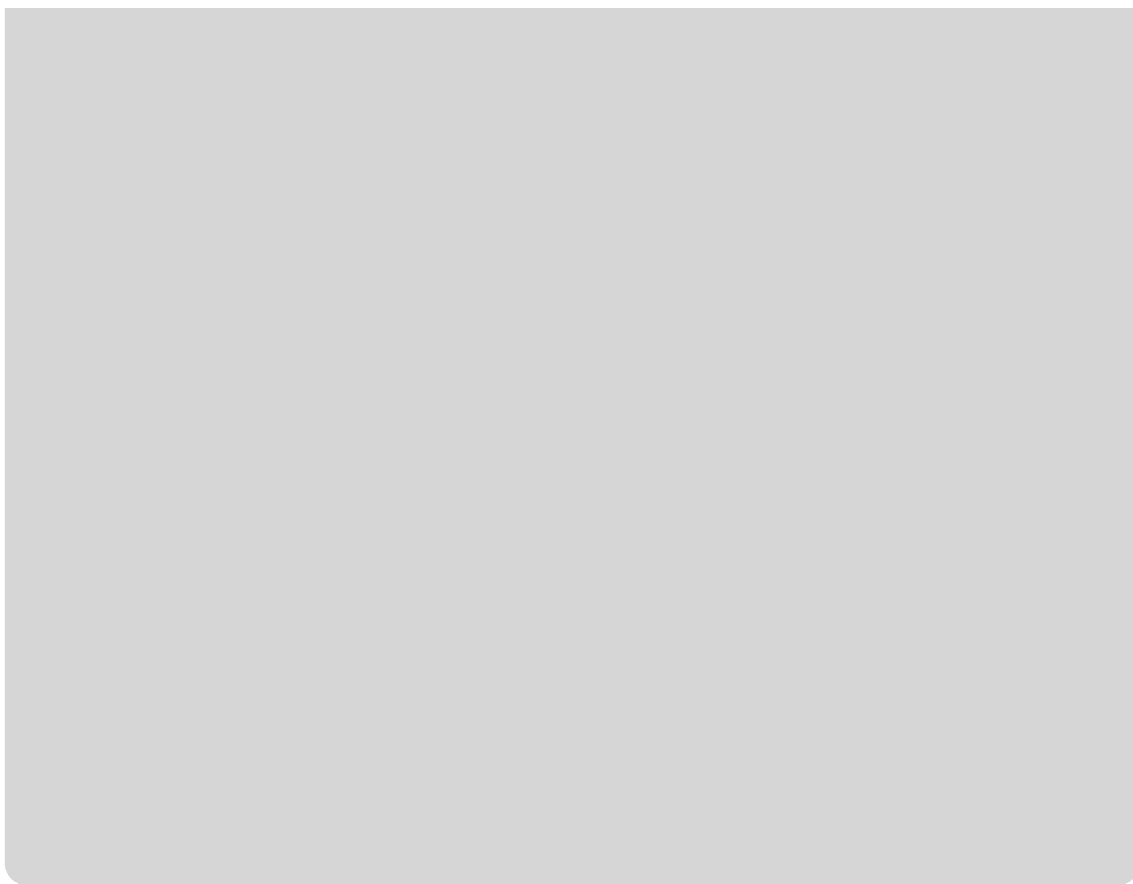
- \* 전상학, 2017,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全榮來, 1974, 「任實 金城里 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第3輯, 全羅北道博物館.
- \* 全榮來, 1983,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 \* 조명일, 2011, 「금강상류지역의 산성과 봉수의 분포양상」,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41號, 湖南考古學會.
- \* 조명일, 2017, 「전북가야의 봉수 운영과 역사성」, 『가야문화의 寶庫, 전라북도를 조명하다』, 호남사회연구회.
- \* 조명일, 2017, 「전북가야의 봉수 운영과 역사성」,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趙榮濟, 2002, 「考古學에서 본 大伽耶聯盟體論」, 『盟主로서의 금관가야와 대가야』, 金海市.
- \* 朱甫噉, 1995,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 \* 후보돈, 2006, 「대가야의 성장 배경」, 『대가야 학술총서』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朱甫噉, 2008,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嶺南學』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 후보돈, 2011, 「5~6세기 금강상류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항방」,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한국상고사학회.
- \* 후보돈, 2017, 『가야사 새로 읽기』, 주류성.
- \* 최완규, 2017, 「백제 유적의 보존과 활용 사례를 통해 본 가야사 복원 방안」, 『가야유적 발굴·복원·활용 방안 세미나』, 경남발전연구원.
- \* 최완규, 2017, 「전북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전북가야를 선언하다』, 호남고고학회.
- \* 최영준, 2002, 「영남대로와 문경」,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실천문화사.
- \* 최인선, 2000, 「섬진강 서안지역의 백제산성」,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 한국상고사학회.
- \* 최인선, 2008, 「섬진강 유역의 백제산성」,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 최인선, 2015, 「섬진강유역의 성곽과 사지」,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호남고고학회.
- \* 河承哲, 2005, 「伽倻地域 石室의 受容과 展開」, 『伽倻文化』, 伽倻文化研究院.
- \* 韓修英, 2001, 「全北地方의 土墳墓」, 『研究論文集』第1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 韓修英,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 洪潛植, 2006, 「대가야의 문화교류」,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 홍보식, 2008, 「6세기 전반 가야의 교역 네트워크」, 『6세기대 가야와 주변제국』, 김해시.





## ■ 제4장 ■

###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계획(안)





## 제1절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정비사업 주요 경과(2018년)

### 1. 추진 배경 및 전략

- 100대 국정과제 중 67번째 포함,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 문화재청 정책 방향, 전반기 현황조사 등 학술조사, 후반기 유적 정비
- 영남가야, 국가 사적 26개소 지정 관리, 가야계 분묘유적 중심 큰 단점
- 전북가야, 국가 사적 없음,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사적 지정
- 단기 전략,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발굴조사 기획 및 학술대회의 추진
- 장기 전략, 전북가야사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지역성 및 독자성 입증
- 전북가야 정체성, 백두대간 속 전북가야 과학이다, 영남가야와 차별화
- 봉수왕국 전북가야, 전북 동부지역 80여 개소, 영남가야 봉수와 무관
- 철의 왕국 전북가야, 7개 시군에 180여 개소 제철유적, 영남가야 희박

### 2. 시·군별 가야문화유산 조사 및 유적정비 추진 경과

#### 1) 남원시

##### ■ 남원시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남원 월산리·두락리·유곡리·임리 고분군 등 가야계 중대형 고총 180여기 분포
- 운봉읍 옥계동, 산내면 하점골 등 40개소 제철유적 확인(지속적인 지표조사, 증가 예상)
- 백두대간 산줄기를 따라 매봉, 봉화산, 고남산 등 5개소의 봉수 분포
- 아막성, 가산리, 고남산, 준향리 등 12개소의 산성 분포
- 문헌에 6세기 전반까지 등장하는 가야계 소국 중 '기문국' 비정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2018년 3월 28일 국가사적 제542호 지정
- 2018년 5월,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 목록 발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포함
- 월산리 고분군, 전라북도 기념물 등재 추진 중
- 옥계동 제철유적 발굴조사 진행, 삼국시대 조성 및 운영 가능성 고조
- 2018년 2월~6월 아막산성 정밀지표(측량)조사 실시 중,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24호분 발굴조사 확정,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2) 장수군

### ■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장수읍 동촌리 80기, 장계면 삼봉리 130기 등 250여 기 가야계 고총
- 장계면 대적골 등 70여 개소 제철유적 밀집, 우리나라 최대 밀집도
- 전북 동부지역 80여 개소 봉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 장수군 증명
- 장수 영취산·봉화산·원수봉 봉수 등 발굴조사, 6세기를 전후한 시기
- 장수 합미산성·침령산성·거녕성 발굴조사, 운영시기 삼국부터 후백제
- 봉수 관련 가야계 소국 존재, 백두대간 서쪽 유일한 가야계 정치체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합미산성, 침령산성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 삼봉리 발굴조사 추진 중, 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실시(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대적골 제철유적 2차 발굴조사 진행 중(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침령산성 4차 발굴조사 진행(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삼봉리·신무산 봉수 시굴조사 용역 진행(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진행(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침령산성 도기념물 승격 및 사적신청 자료 제작 용역 발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2018년 하반기 함미산성 4차 발굴조사 용역 발주 예정

### 3) 무주군

#### ■ 무주군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무주 죽천리 고분군 등 가야계 분묘유적 분포, 무풍면 신라 영역
- 안성면 봉화산 봉수 등 11개소 봉수 배치, 무주봉수로 추정복원
- 무주 구천동 등 30여 개소 제철유적 밀집, 무주읍 백제 赤川縣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무주 봉수 및 제철유적 분포조사 용역 수행 중(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 시굴조사 완료(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무주읍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 예정, 2018년 6월 중 착수
- 안성면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 추진 예정

### 4) 진안군

#### ■ 진안군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삼국시대 가야와 백제, 신라 각축장, 삼국의 유적과 유물 공존
- 용담면 황산리 고분군과 와정유적, 가야토기와 백제토기 혼재
- 용담면 월계리산성, 문헌 등장 帶山城 추정, 가야계 유물 채집

- 동향면 대량리 제동(製銅)유적, 가야세력과의 연관성이 높음
- 13개소 봉수로 상징되는 진안봉수로, 8개소 고대 산성 밀집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 용역 수행, 6월 초 착수(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용담면 월계리 산성 정밀지표조사 추진 예정

### 5) 완주군

#### ■ 완주군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삼국시대 가야와 백제의 국경, 전략적 요충지
- 23개소의 제철유적, 고대 산성 및 봉수 밀집
- 탄현 봉수 등 4개소 봉수 새롭게 확인, 잔존상태 양호, 발굴조사 추진
- 구역리산성·배매산성 등 가야 토기 확인 백제와 가야 교류의 중심지 부각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완주 가야문화유산(제철유적 및 봉수)분포조사 용역 수행 중(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2018년 하반기 탄현봉수 발굴조사 추진 중

### 6) 임실군

#### ■ 임실군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임실 금성리 고분군, 전북지역 최초로 보고된 가야계 분묘유적



- 임실읍 봉화산 봉수 등 12개소 봉수 배치, 임실봉수로 복원
- 섬진강루트 확보를 위한 가야와 백제의 각축장, 토기류 공존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성수면 월평리 산성 발굴조사 용역 발주 예정, 사전 협의 완료
- 임실읍 대곡리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 용역 발주 예정, 군부대 협의 중

### 7) 순창군

#### ■ 순창군 가야문화유산의 현황 및 특징

-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
- 전북가야의 섬진강유역 진출과정 및 백쟁와 역학관계 규명의 핵심지
-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 가야 및 후백제 관련성 제기
- 구미리·현포리 고분군, 가야계 무덤 및 유물 출토

#### ■ 추진 경과(2018년 5월 현재)

- 2018년 하반기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 발굴조사 추진, 협의 중

### 8) 문화재청 가야 관련 사업 현황

#### ■ 2018년 가야유적 분포현황 조사 용역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주, 2018년 11월 완료
- 가야 관련 유적 분포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조사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외 5개 기관 참여(영남 : 경남발전연구원·동서문물연구원·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극동문화재연구원, 호남권 :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 전북권(장수군, 임실군, 진안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조사 수행 중
- 전북권(남원시, 무주군, 완주군 등),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조사 수행 중

#### ■ 가야문화유산 발굴유적 총서 발간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주, 2018년 11월 완료
- 가야 관련 발굴조사 유적 목록 작성 및 원고 집필
-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소속 집필 참여

## 제2절 조사 및 정비계획의 정책 방향성과 추진계획(안)

### 1. 전제 조건

#### ■ 국비 확보 방안 마련

-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동안 가야사 관련 국가 예산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
- 문화재청은 가야사 연구 및 복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야사 정립을 위한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적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움
- 국비 예산 지원은 국가 사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전북지역에는 400여 기의 가야 고분, 180여 개소의 제철유적, 80여 개소의 봉수 등이 확인되어, 가야사 복원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됨, 그러나 최근 국가 사적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이 유일함
- 도비와 시·군비만으로는 전북 가야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사업을 통한 제대로 된 가야사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임
- 전북 가야문화유산의 조사와 정비, 활용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한 국가 사적의 등재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전북 가야문화유산 조사와 정비사업의 단계를 설정(1단계 : 국가 사적 등재, 2단계 전북 가야사 복원)하고, 이에 따른 대상유적을 선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 ■ 국가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 및 정비 사업 대상 유적선별 조건

- 전북가야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유적
- 유적의 보존상태 및 문화재지정 사항, 조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사적 등재 가능성이 높은 유적을 선별
- 향후 조사 및 정비·활용사업의 여건을 고려
- 전북가야 7개 시·군 별 유적의 중복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 2. 시·군별 조사 및 정비사업 정책 방향성 제안

### 1) 남원시

#### ■ 정책 방향성

- 2018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국가사적 542호로 지정되고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추진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2019년 세계문화유산 최종 목록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조사와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이에 2018년 하반기에는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2019년 상반기 최소한의 정비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추진 등에 따른 현지실사 단 방문에 대비함
- 2019년 이후에는 아막성, 월산리·청계리 고분군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동시에 남원 가야문화의 정체성 및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계동 제철유적, 장교리 고분군, 매봉 봉수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함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인월면 유곡리, 아영면 두락리	2018년 국가사적 542호 지정 2018년 세계문화유산 추진 목록 선정
2	월산리 고분군	아영면 월산리	2010년 발굴조사, 천계호·초두 출토
3	청계리 고분군	아영면 청계리	월산리 연계, 대형 봉토분 존재
4	아막성	아영면 성리	전북 동부 최대 규모, 가야 유물 수습

-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대상 유적(2단계, 2019년 이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봉화산 봉수	이영면 구상리	잔존상태 양호, 백두대간 치재 인접
2	옥계동 제철유적	운봉읍 화수리	발굴조사 실시 중
3	수철리 제철유적	운봉읍 공안리	유구 확인, 활용 연계성 양호
4	장교리 고분군	운봉읍 장교리	대형 봉토분

## 2) 장수군

### ■ 정책 방향성

- 2019년까지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삼봉리·동촌리 가야고분군과 침령산성 및 합미산성에 대한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전북가야의 독창적 문화요소인 봉수와 제철유적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추진하여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및 국가사적 추진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함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삼봉리 고분군	장계면 삼봉리	도기념물 128호, 호덕리, 장계리 등 연계 국가 사적 지정 추진 중
2	동촌리 고분군	장수읍 동촌리	도기념물 132호, 80여기의 고총, 사적 지정 추진
3	침령산성	계남면 침곡리	도문화재자료 176호, 호남최대 집수시설
4	합미산성	장수읍 용계리	도기념물 75호, 삼국~후백제 운영

-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대상 유적(2단계, 2019년 이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대적골 제철유적	장계면 삼봉리	최대 규모의 제철유적, 발굴조사 진행 중
2	노하리 고분군	장수읍 동촌리	장수 가야의 교류 관계 증명
4	삼봉리 봉수	장계면 삼봉리	전북가야 봉수의 집결지 추정
5	봉화산 봉수	천천면 월곡리 봉화산	잔존상태 양호, 삼국시대 유물 수습
6	영취산 봉수	장계면 대곡리 영취산	가야 봉수 확인, 영호남 화합의 장

### 3) 무주군

#### ■ 정책 방향성

- 무주군은 삼국시대 가야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상 점이지대로 문헌에 등장하는 가야와 백제와 신라의 갈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역
- 2018년 무주 대차리 시굴조사 실시, 가야와 신라 토기의 공존하는 것으로 밝혀져, 무주군의 역사성을 증명해 줌, 향후 정밀 발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라북도 문화재 및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해야 함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대차리 고분군	무주읍 대차리	삼국(백제, 신라, 가야)의 각축장, 유물 공존

-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대상 유적(2단계, 2019년 이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봉화산 봉수	안성면 진도리 봉화산	석축잔존, 삼국시대 유물 수습
2	죽천리 고분군	안성면 죽천리	지표조사, 가야토기 수습

#### 4) 진안군

##### ■ 정책 방향성

-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우리나라 최초의 구리 생산의 1차 공정 유적으로서 2017년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제련로와 폐기장이 확인됨, 2018년~2019년 대량리 제동유적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전라북도 문화재 및 국가 사적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함
- 진안군은 삼국시대 금강유역을 둘러싼 가야와 백제의 각축장임, 진안 용담면 월계리산성은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가야가 쌓은 '대산성'으로 비정됨, 향후 연차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 사적지정을 추진해야 함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대량리 제동유적	동향면 대량리	발굴조사 실시, 1차 구리 생산 공정 유적
2	월계리 산성	용담면 월계리	잔존상태 양호, 임나의 '帶山城' 비정



-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대상 유적(2단계, 2019년 이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월계리 산성	용담면 월계리	잔존상태 양호, 임나의 '帶山城' 비정
2	봉화산 봉수	용담면 와룡리	잔존상태 양호
3	갈용리 조포 봉수	정천면 갈용리	잔존상태 양호, 붕괴된 석축 존재
4	태평 봉수	주천면 대불리	도 기념물, 연대복원, 삼국시대 유물 산재

## 5) 완주군

### ■ 정책 방향성

- 완주군 동북쪽은 전북가야와 백제의 경계로서 다수의 관방유적(산성, 봉수)이 존재하며, 유적의 잔존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음
- 운주면 탄현봉수는 지상구조물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고 삼국시대 기와편이 수습되어, 삼국시대 봉수의 구조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파악됨, 이에 조속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여 그 성격을 밝혀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운주면 용계산성은 이미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해야함, 또한 봉동읍 배매산성과 용진읍 구덕리 산성은 가야와 백제의 교역 및 역학관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으로 전북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탄현 봉수	운주면 금당리 숲고개	온전한 형태의 봉수, 삼국시대 유물 수습

-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대상 유적(2단계, 2019년 이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용계산성	운주면 금당리	전라북도 기념물, 삼국시대 유물 공존
2	구역리 산성	용진면 구역리	가야와 백제의 교역 창구로 추정
3	배매산성	봉동읍 용암리	백제 한성기 토성, 가야토기 출토,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증명
4	불명산 봉수	운주면 금당리	봉수 기초부 잔존상태 양호, 삼국시대 토기편 수습

## 6) 임실군

### ■ 정책 방향성

- 임실군은 전북가야의 섬진강 진출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고분, 산성, 봉수 등 고고학 자료가 풍부함
- 봉화산 봉수는 봉수군의 주둔지로 추정되는 곳이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봉수의 운영체계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임, 이에 조속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을 밝혀 전라북도 및 국가 지정 문화재의 등재를 추진해야 함
- 성수면 월평리 산성은 전북가야의 동-서 진출로와 섬진강 본류를 따라 형성된 내륙교통로가 만나는 분기점에 위치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큼, 전북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유적임으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함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봉화산 봉수	임실읍 대곡리	임실봉수로, 토축, 봉수군 주둔지 확인, 삼국시대 토기

- 가야사 복원을 위한 조사 및 정비대상 유적(2단계, 2019년 이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월평리 산성	성수면 월평리	시굴조사, 삼국시대 유물 확인, 섬진강 내륙교통로의 허브
2	금성리 고분군	임실읍 금성리	발굴조사, 전북 최초로 조사된 가야 고분 임실군 가야문화의 역동성 증명

## 7) 순창군

### ■ 정책 방향성

- 순창군은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로서 섬진강유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
- 아직까지 조사가 미진하여 전북가야와 관련된 유적이 많지 않음, 향후 꾸준한 지표조사 와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은 잔존상태가 우수하며, 삼국(가야)~후백제까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 통한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대상 유적

- 국가 사적 추진 대상 유적(1단계, 2018~2019년 추진)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특 이 사 항
1	합미성	동계면 신흥리	지표조사, 삼국~후백제, 전북가야의 서쪽 경계

### 3. 2019년 시·군별 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 계획(안)

#### 1) 전라북도

##### ○ 전북가야 봉수 및 제철유적 분포현황 조사

- 사업명 : 전북가야 봉수 및 제철유적 분포현황 조사
- 위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하반기~2019년, 10개월 소요
- 사업내용 : 전북가야 권역 봉수와 제철유적에 대한 정밀 분포조사 실시(개별 유적 세부 현황 및 현황도 작성 등), 향후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및 조사 계획 수립에 반영
- 소요예산 : 100백만원(조사비 : 10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분포조사	-	100	-	100
계	-	100	-	100

#### 2) 남원시

##### ■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복원

- 사업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위치 :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746-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5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시굴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3기의 고분을 선정하여 정밀 발굴조사 실시한 후, 정비 복원 추진
- 소요예산 : 800백만원(발굴 : 600백만원, 고분정비 : 20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200	200	200	600
고분정비	50	50	100	200
계	250	250	300	800

#### ■ 청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 사업명 : 남원 청계리 고분군 발굴조사
- 위치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8-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3개월 소요
- 사업내용 : 청계리 청계 고분군 중 봉토의 잔존상태가 양호한 고분 대상 발굴조사
- 소요예산 : 20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100	100	-	200
계	100	100	-	200

#### ■ 월산리 고분군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월산리 고분군 문화재 지정 신청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현재 정비가 이루어진 월산리 고분군을 전라북도 기념물로 우선 등재를 추진하고, 이후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함
- 소요예산 : 5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50	-	-	50
계	50	-	-	50

#### ■ 아막성 시·발굴조사 및 국가 사적 등재 추진

- 사업명 : 아막성 시·발굴조사 및 국가사적 신청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성리 산8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2020년, 연차 발굴조사
- 사업내용 : 2018년 아막성 정밀지표조사(진행 중) 결과를 바탕으로, 집수정·문지·성벽·건물지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함
- 소요예산 : 85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2019 발굴	200	200	-	400
2020 발굴	200	200	-	400
2020 사적자료 작성	50	-	-	50
계	450	400	-	850

### 3) 장수군

#### ○ 합미산성 4차 발굴조사 및 사적지정 추진

- 사업명 : 합미산성 4차 발굴조사 및 사적 신청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110-1
- 사업기간 : 2018년 하반기~2019년, 7개월 소요
- 사업내용 : 3호 집수시설·문자·성벽·건물지 발굴조사 실시, 발굴구역 정비(안내판, 진입로 및 탐방로, 유적 복토 등), 국가사적 등재 신청자료 작성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발굴 : 500백만원, 정비 : 70백만원, 사적신청 : 30백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활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400	-	-	400
정비사업	70	-	-	70
사적신청	30	-	-	30
계	500	-	-	500

#### ○ 침령산성 5차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사업명 : 침령산성 5차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위치 :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7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4차 시·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벽 및 건물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1~4차 발굴조사 구역 정비(안내판, 진입로 및 탐방로, 유적 복토 등)



- 소요예산 : 400백만원(발굴 : 300백만원, 정비 : 100백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활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300	-	-	300
정비사업	100	-	-	100
계	400	-	-	400

### ○ 대적골 제철유적 2차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사업명 : 대적골 제철유적 2차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위치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 15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발굴조사 구역 기본 정비(안내판, 진입로, 유적 복토 등), 추가 발굴조사 실시, 전라북도 기념물 등재 추진
- 소요예산 : 400백만원(발굴 : 300백만원, 정비 : 100백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활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300	-	-	300
정비사업	100	-	-	100
계	400	-	-	400

### ○ 봉수 3개소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사업명 : 봉수 3개소(삼봉리, 봉화산, 사두봉)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 위치 :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10개월 소요
- 사업내용 : 장수군 관내 봉수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3개소(삼봉리, 봉화산, 사두봉)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후 복토 및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추진
- 소요예산 : 600백만원(발굴 : 400백만원, 정비 : 150백만원, 문화재지정 : 50백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활용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400	-	-	400
정비사업	150	-	-	150
문화재지정	50			50
계	600	-	-	600

#### 4) 무주군

##### ○ 대차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대차리 고분군 2차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신청
- 위치 :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4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발굴조사 구역 외 추가 발굴조사 실시, 문화재 지정 신청 자료 작성
- 소요예산 : 300백만원(발굴 : 250백만원, 문화재신청 : 5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125	125	-	250
문화재지정	50	-	-	50
계	175	125	-	300

### ○ 안성면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신청
- 위치 :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6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5개월 소요
- 사업내용 :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구역 정비(안내판, 진입로, 유적 복구 등), 문화재 지정 자료 작성
- 소요예산 : 250백만원(발굴 : 150백만원, 정비 : 70백만원, 문화재신청 : 3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75	75	-	150
정비사업	35	35	-	70
문화재지정	30	-	-	30
계	140	110	-	250

## 5) 진안군

### ○ 대량리 제동유적 2차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대량리 제동유적 2차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신청
- 위치 :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103-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5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발굴조사 구역 외 추가 발굴조사 실시, 문화재 지정 신청 자료 작성

- 소요예산 : 230백만원(발굴 : 200백만원, 문화재신청 : 3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100	100	-	200
문화재지정	30	-	-	30
계	130	100	-	230

## ○ 월계리 산성 시·발굴조사

- 사업명 : 월계리 산성 시·발굴조사
- 위치 :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1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7개월 소요
- 사업내용 : 임나의 '대산성'으로 비정되는 월계리 산성을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 추진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굴 : 50백만원, 발굴 : 25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시·발굴조사	150	150	-	300
계	150	150	-	300

## ○ 갈용리 조포 봉수 발굴조사

- 사업명 : 갈용리 조포 봉수 발굴조사
- 위치 :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40-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4개월 소요
- 사업내용 : 진안군 관내 봉수 중 잔존상태가 양호한 갈용리 조포 봉수 발굴조사 추진
- 소요예산 : 100백만원(발굴 : 100백만원),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활용 추진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	-	100	100
계	-	-	100	100

## 6) 완주군

### ○ 탄현 봉수 추가 발굴조사 및 정비,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탄현 봉수 추가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신청
- 위치 :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발굴조사(예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향후 추가 발굴조사 및 기초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함
- 소요예산 : 200백만원(발굴 : 100백만원, 정비 70만원, 문화재신청 : 3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50	50	-	100
정비사업	35	35	-	70
문화재지정	30	-	-	30
계	115	85	-	200

## ○ 불명산 봉수 긴급발굴조사 추진

- 사업명 : 불명산 봉수 긴급발굴조사
- 위치 :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51-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하반기~2019년,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
- 소요예산 : 100백만원(발굴 : 10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	-	100	100
계	-	-	100	100

## 7) 임실군

### ○ 봉화산 봉수 추가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봉화산 봉수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신청
- 위치 :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0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발굴조사(예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고, 향후 추가 발굴조사 및 기초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국가 사적 등재를 추진함
- 소요예산 : 200백만원(발굴 : 100백만원, 정비 70만원, 문화재신청 : 3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50	50	-	100
정비사업	35	35	-	70
문화재지정	30	-	-	30
계	115	85	-	200

### ○ 월평리 산성 2차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월평리 산성 2차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신청
- 위치 :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33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6개월 소요
-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 발굴조사 구역 외 추가적으로 성벽, 문지, 집수시설 등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라북도 기념물 또는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
- 소요예산 : 330백만원(발굴 : 100백만원, 문화재지정 : 3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발굴조사	150	150	-	300
문화재지정	30	-	-	30
계	180	150	-	330

## 8) 순창군

### ○ 함미성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추진

- 사업명 : 함미성 발굴조사 및 문화재 지정

- 위 치 :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산51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하반기~2020년
- 사업내용 : 2018년 하반기~2020년까지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인 합미성을 대상으로 연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사적 등재를 추진
- 소요예산 : 700백만원(발굴 : 600백만원, 정비 70만원, 문화재신청 : 30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군비	도비	국비	계
2019 발굴조사	150	150	-	300
2020 발굴조사	150	150	-	300
2020 정비사업	35	35	-	700
문화재지정	30	-	-	30
계	365	335	-	700



■ 2019년 전북가야 조사 및 정비사업 예산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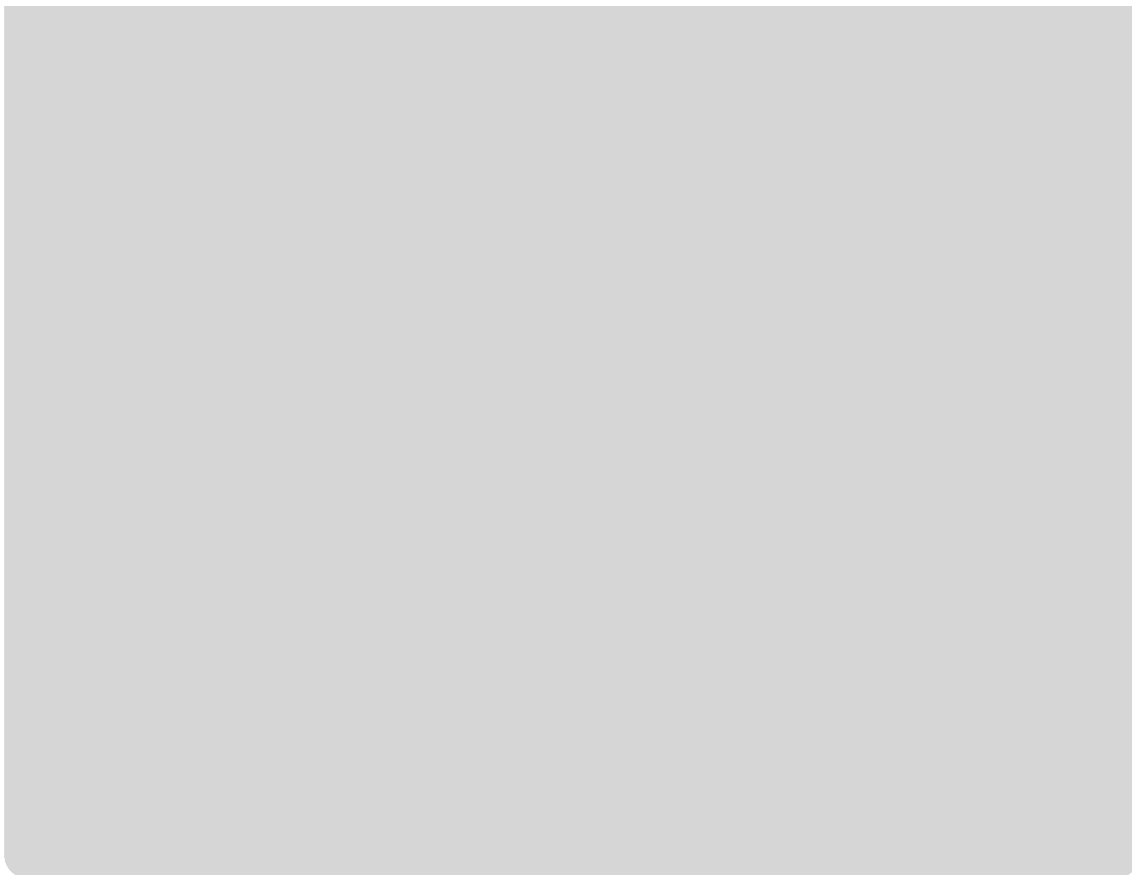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구분	사 업 명	계획년도			합계	국비	도비	사군비	기타
		18	19	20					
전라북도	① 전북가야 봉수 및 제철유적 분포조사				100		100		
남원시	①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 정비복원				800	300	250	250	
	② 청계리 고분군 발굴				200		100	100	
	③ 월산리 고분군 문화재 지정				50			50	
	④ 아막성 발굴, 사적 추진				850		400	450	
장수군	① 함미산성 4차 발굴, 사적 추진				500			500	
	② 침령산성 5차 발굴, 정비				400			400	
	③ 대절골 제철유적 2차 발굴, 정비				400			400	
	④ 봉수 3개소 발굴조사, 정비, 문화재지정				600			600	
무주군	① 대차리 고분군 발굴, 문화재지정				300		125	175	
	② 봉화산 봉수 발굴, 문화재지정				250		110	140	
진안군	① 대량리 제동유적 2차 발굴, 문화재지정				230		100	130	
	② 월계리 산성 발굴				300		150	150	
	③ 갈용리 조포 봉수 발굴				100	100			
완주군	① 탄현 봉수 발굴, 정비, 문화재지정				200		85	115	
	② 불명산 봉수 발굴				100	100			
임실군	① 봉화산 봉수 발굴, 문화재지정				200		85	115	
	② 월평리 산성 발굴, 문화재지정				330		150	180	
순창군	① 함미성 연차발굴, 사적지정				700		335	365	
합계					6,610	500	1,990	4,120	



## ■ 제 5 장 ■

# 전북가야 활용여건 분석과 전략





## 제1절 주요 사례 분석

### 1. 역사문화권 개발

#### 1) 역사루트 조성

##### 가.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_고령군

###### ■ 사업여건

- 사업대상지는 고령군을 가로지르는 회천과 안림천이 합류하는 고아리 일원에 추진 중이며, 기 조성되어 고령군의 핵심 관광명소로 운영 중인 대가야 테마파크와 인접하고 있음
- 대상지 인근 1km 이내에 대가야박물관, 우륵박물관, 사적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보물 암각화, 농촌체험특구 등의 관광기반시설이 집약되어 있어 기존 자원과의 연계성확보에 유리하여 사업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사업내용

- 고령지구의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은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야의 옛부흥을 주제로 가야문화권을 대표하는 광역관광 거점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가야 관련 생활체험의 복원 및 재현단지로서의 성격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대가야인들이 살았던 문화·생활·설화의 콘텐츠가 담겨진 대가야촌 건립을 계획하여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가야 거점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IT 기술과 접목된 테마파크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세부사업

### ○ 휴양문화

- 문화공연장, 대가야건국 설화공원, 가야 테라피타운, 공방촌, 화훼원, 왕궁/귀족촌, 서민촌, 기마문화체험장, 대가야 저잣거리, 민속놀이마당, 주산성, 가야산, 고분벽화 전시관

### ○ 공공편익

- 느티광장, 개울쉼터, 조각공원, 수변산책로, 수로, 선착장, 관리사무소, 도로, 주차장

### ○ 연계관광자원개발

- 암각화 관광자원화



## 나.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_성주군

### ■ 사업여건

- 가야국 창건신화의 모태 지역인 가야산 국립공원 내에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신화 테마관의 건축 연면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성주군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은 가야산 국립공원 진입부 주차장상 부공간에 추진 중으로 국립공원 탐방객 유인 등이 가능한 여건을 보유함
- 또한 대상지 인근에 호텔, 상가 외에 군에서 운영하는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등 연계가 능한 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 사업내용

- 가야국 창건신화의 모태신화인 정견모주 신화를 바탕으로 신화테마관을 조성하고 관련 스토리를 활용한 야외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화테마관의 경우 국립공원 진입부에 입지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탐방객을 위한 안내소 기능을 포함함

### ■ 세부사업

- 가야산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가야신화·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함. 신화테마관을 중심으로 솟대, 장승 등의 조형물을 배치하고 가야산 자행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야생화 단지 조성 예정
  - 신화공원지구: 신화테마관, 상아덤마당
  - 생태탐방지구: 오색꽃수레길, 천신의 길, 정견모주의 실, 숲속쉼터, 보존녹지

## 2) 역사 문화권 조성

### 가. 3대 문화권 지역발전협력체계 사업

#### ■ 사업여건

- 2008년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5+3 광역 경제권'을 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제시함. 대경권 역사·생태자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계획된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에는 유교·신라·가야문화권이 포함되며 가야문화권에는 고령군을 심화지역으로 지정함

#### ■ 사업내용

- 9개 선도사업 · 5개 전략사업 · 관광진흥사업으로 구성됨
-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간 협의를 위한 지역 발전협력체계 사업 추진함. 협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형 관광사업, 지역산업과 관광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

#### ■ 세부사업

- 3대 문화권 통합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3대 문화권 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
  - 3대 문화권 진흥사업 추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3대 문화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 지역주민, 공무원, 마을리더 대상 교육 실시
  - 산학협력(한방, 음식, 공예, 관광 등)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대한 연계 교육 및 R&D 지원 사업 전개



- 3대 문화권 창조문화마을(인문마을) 육성사업
  - 지역 내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테마마을을 선정, 지역민 주도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전개
  - 관광두레+마을미술+마을재생 프로젝트를 결합한 3개 문화권의 시범사업으로 실행
  - 대구, 경북 지역 중 3개소 이내의 마을 선정, 향후 20개소 내외의 창조문화마을 육성 목표
  - 창조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인문디자인 및 매뉴얼 개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국내외 교류 진흥 사업 등 포함
- 3대 문화권 문화원형 활용 대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가야, 신라, 유교, 불교문화 등의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OSMU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육성(4D콘텐츠, 홀로그램,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E-book 등)
  - 현재 추진 중인 관광자원개발 사업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유통 사업 중심 전개
  - 지역 산업체,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공모전 및 대표 콘텐츠 제작, 유통 및 활용 지원(홍보마케팅) 사업 포함
- 3대 문화권 대표 문화관광상품 육성 지원
  - 3대 문화권 문화원형 활용한 대표 공연, 기념품 등 문화상품 육성 지원
    - \* 대표 공연의 퓨전화, 상설화, 국제화 지원
    - \* 대표 문화상품(기념품) 제작 및 유통 지원
- 창조관광 육성 시범사업
  - 3대 문화권 문화원형 활용한 대표 공연, 기념품 등 문화상품 육성 지원
    - \* 대표 공연의 퓨전화, 상설화, 국제화 지원
    - \* 대표 문화상품(기념품) 제작 및 유통 지원

## 나. 김해 가야테마파크

### ■ 시설개요

- 김해시에서는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 179,000㎡ 부지에 635억원을 투입하여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였고 2015년 5월에 개장함
- 테마파크 내부에는 가야의 역사 문화를 재현한 전시 시설 및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 시설현황

- 가야왕궁 태극전 : 왕의 집무실이자 국가 의식을 행하는 공간 재현
- 가락정전 : 수로왕의 처소·외부정원과 회랑이 있으며 왕의 연못이 만들어져 있음
- 허왕후 스토리관 : 금관가야 수로왕의 부인 허왕후의 신행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내 최초 불교 도래지임을 그린 스토리관
- 인도갤러리 : 허왕후의 고향인 인도의 역사·문화·종교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 철광산 공연장 : 수로왕과 허왕후의 러브스토리를 활용한 뮤지컬 공연 '미라클 러브-왕의귀환'이 매 2회 진행됨

### ■ 시설평가

- 테마파크는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시나 공연 등의 다양한 이벤트성 콘텐츠 기획이 필요함.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가야'의 특색이 제대로 드러나는 콘텐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가야의 역사적 사실이나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재방문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프로그램들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가야와 관련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다.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 ■ 시설개요

-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는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에 위치에 있으며 2001년~2009년까지 약 9년에 걸쳐 154,588㎡ 부지에 총 256억이 투자되어 조성되었음
- 지산동 고분군·대가야박물관·장기리 암각화·주산성 등 테마 관광지 주변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가야 체험축제·학술 대회 등을 진행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테마 관광지에는 대가야의 의식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조성 되어 있음

### ■ 시설현황

- 고대문화관 : 영상과 빛 등을 활용하여 대가야인들의 의식주 생활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대가야 출토 유물을 형상화하여 가야의 우수한 철기문화와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대가야 탐방숲길 : 탐방 숲길을 거닐며 관광객들이 가야 관련 퀴즈를 풀며 관련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대가야 시네마 :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철의 왕국 대가야를 주제로 한 입체 영상들을 상영함

### ■ 시설평가

- 누구나 쉽고 즐겁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열린관광지] 2017년 채택됨. 장애인·어르신·영유아 동반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Barrier Free 코스를 조성함
- 하지만 조성된 공간의 규모와 주변 유적 분포에 비해 이를 연계하거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3. 역사문화축제

#### 가. 가야문화축제\_김해시

##### ■ 사업여건

- 김해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예술축제 행사인 가야문화축제는 가락국을 건국한 김수로왕의 창국정신을 기리고 우수한 가야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

##### ■ 사업계획 및 내용

- 가락문화제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통합하여 2007년에 새롭게 단장된 축제로 2017년 가야왕도의 새로운 비상(飛上)'이라는 주제로 제41회 가야문화축제를 5일간(4월 7일~4월 11일) 개최
  - 가락문화제 : 세계 각 국에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62년부터 수로왕 춘향대제일(음력 3월 15일)에 맞추어 개최
  - 가야세계문화축전 : 가야문화유산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로 2년간 개최

##### ■ 세부사업

- 공식행사 : 고유제/혼불채화, 춘향대제, 수로왕행차 퍼레이드, 개·폐막제
- 민속행사 : 김해 줄 땡기기, 무형문화재 김해오광대, 경남 무형문화재 단체, 가야농악경연대회, 민속웃놀이대회, 삼정걸립치기, 장유화상추모제,
- 축제행사 : 김해만장대 전국가요제, 전국 직장인동아리 밴드 페스티벌, 다문화가족 장가 자랑, 청소년 한마당, 김해 원도심 골목축제, 풍등날리기, 지역예술인 한마당
- 체험행사 : 가야를 즐겨라(가야유물 체험존), 가야를 즐겨라(가야시대 테마촌), 가야왕도 김해 농경문화체험, 가야무사 체험존,찾아라! 가야보물(왕도가야-GO), ICT 축제종합 홍보관, 가야배/인도배 뱃길체험, 시티투어

- 가야보물(왕도가야GO - 스마트폰 앱 설치) : 음성, 캐릭터, 지도, 사진 등을 조합하여 증강현실(AR)을 이용 가야문화축제장, 가야사누리길탐방로 일원 문화재 장소 근처에 도착하면 휴대폰으로 알려줌(소리, 진동) 가야문화재의 보물, 유물 등을 찾는 일종의 보물찾기 교육프로그램



- 설치행사 : 가야문양 깃발설치, 무사여 불을 밝혀라, 수로왕 탄강/ 결혼 설화 벽화설치
- 연계행사 : 제39회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전, 사회적 기업 홍보/판매, 2017 김해전국 차그릇 공모대전, 제23회 가야사 학술회의, 2017 가야차 문화 한마당(장군차 제다 및 차나무 심기 체험, 허왕후 헌다례 등)
- 부대행사 : 전국 학생 미술실기대회, 제41회 가야문화축제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제41회 가야문화축제 전국백일장, 제41회 가야문화축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제41회 가야문화축제 전국웅변, 스피치대회, 제29회 김해전국사진공모전, 제35회 전국정가(시조,가사,가곡)경창대회



## 나. 가야불교문화축제\_김해시

### ■ 사업여건

- 불교라는 단순 종교단체 행사가 아닌 금관가야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역사이야기를 연결하여 하나의 문화축제로 개최
- 본 축제는 가야불교 문화를 복원·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사업계획 및 내용

- '가야왕도 500년, 가야문화 2000년의 혼과 함께하는'을 주제로 '제1회 가야불교문화축제'를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성동고분군일대에서 개최

### ■ 세부사업

- 주요행사 : 불꽃놀이 및 108인 거리행진 퍼레이드, 선승 선공스님 발우공양 시연, 김영춘가요제,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 김해사충신 추모 영상, 스님과 함께 주먹밥 5000개 만들어 대접하기
- 참여행사 : 108번뇌 마음깨기(사기접시 깨기). 짐이 가야왕이로소이다(왕의 복식입고 기념촬영). 대왕초 소원발원 포토존, 고무신 멀리 날리기 및 많이 받기, 실버·주부·외국인·청소년 가요제



## 다. 대가야 체험축제\_고령군

### ■ 사업여건

- 강력한 철문화를 바탕으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 가야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5년부터 연1회 체험축제를 진행하고 있음
- 역사테마관광지·대가야박물관·문화누리 일대에서 진행되며 철과 우륵·전통 현악기인 가야금의 역사를 활용하여 축제를 기획함

### ■ 사업계획 및 내용

- ‘新4國의 개벽’이라는 주제로 제14회 대가야체험축제가 4월12~15일 까지 4일간 고령군 일대에서 진행됨

### ■ 세부사업

- 주요행사 : 가야문화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 및 시·군 공연 진행, 퍼레이드 공연 ‘가야의 통합’, 세계 현 페스티벌, 뮤지컬 ‘가얏고’ 공연 등 진행
- 참여행사 : 대가야 고상가옥 생활체험, 대가야 레전드 앱 운영, 가야사 국제 학술대회, 고분군 야간 트래킹 진행
  - 가야존 : 22개 가야문화권 시·군 각각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전통 체험 공간
  - 게임존 : 대가야를 스토리텔링화 한 앱 게임 [도전! 가야 최고의 레전드] 개발·운영
  - 체험프로그램존 : 가야금 활용 제작 체험 및 게임 프로그램 진행, 전통 무술도구 만들기 체험, 토기 제작 체험, 순장체험 진행
  - 글로벌존 : 학술 대회 및 페스티벌 진행
    - \* 영·호남 가야문화권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 진행
    - \* 세계 현(絃) 페스티벌 진행 : 가야금과 세계 현악기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 라. 김해 가야문화재야행

### ■ 사업여건

- 2016년 10월 11일 '2017 문화재 야행(夜行) 공모사업'에 '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야 초야행(初夜行)' 선정
- 김해에 조성된 가야사 누리길에서 흘러간 가야문화 및 문화재를 감상하고 걸으면서 가야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행사 개최

### ■ 사업계획 및 내용

- 보존 관리되고 있는 가야의 역사·문화유적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야간 도보탐방프로그램 개최
- 가야사에 담긴 이야기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콘텐츠 개발하여 가야 역사·문화의 향기와 정취 감상 기회 제공함. 유적, 유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설 탐방 진행

### ■ 세부사업

- 가야 밤길 7選 코스(가야사 누리길)
  - 가야유적 7선 : 대성동고분군,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봉황동유적, 국립김해박물관, 회현리 패총, 해반천(가야의 거리)
  - 총 5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별로 약 60분~90분 정도 소요
  - \* 2017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5차례 행사 실시
  - \* 주최 : 김해시, 주관 : (사)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사)걸고싶은부산, 후원 : 문화재청





## 제2절 전북가야 활용 환경 분석

### 1. 기본구상

#### 1) 종합분석 및 전략도출

##### 가. 분석방법

##### ■ SWOT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전북가야유적정비 활용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내·외부로 나누어 종합적인 환경 분석을 실시함. 내부 환경 분석에서는 전북가야와 관련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활용전략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함.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가야사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한 현황과 역사 문화자원 활용과 관련한 유사 법률을 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함
- 전라북도의 정책적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 요인으로 나누는 SWOT 분석을 실시함.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화(SO)·보완(WO)·극복(ST)·방어(WT)에 따라 대응 전략을 도출함



## 나. SWOT분석

### ■ 강점요인(strength)

- 경사가야와 차별화되는 유산(봉수·철)보존과 발굴이 이루어짐
  - 가야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봉수와 철의 유적(산업·생산유적) 분포가 경사가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국내 철 생산의 중심지가 위치하였고 제철 유적과 근접하게 가야계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야계 소국들이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함
  - 봉수와 제철 유적들을 연계하여 전북가야 활용을 위한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함

[가야 문화권 유적 분포 현황 (문화재청 GIS기준, 2017.12)]

구분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계(개소)
무덤유적 (고분·고분군)	분포현황	798	141	103	23(39)	87(129)	1,152(168)
	발굴조사	235	37	74	10(11)	9(30)	365(41)
산업·생산유적 (토기요·탄요·제 철·봉수 등)	분포현황	59	13	4	(7)	(129)	76(138)
	발굴조사	34	4	3	·	(3)	41(2)

\*경북 :고령·성주/ \*\*전남 :순천·여수·고흥·광양·구례·보성/ \*\*\*전북:남원·장수·진안·무주·순창·완주  
( )는 최근 보고된 유적으로 현황조사 완료 후 반영 예정

- 역사유산·전통문화자원·생태자원(동부권)이 공존함
  - 전북 동부 지역에는 가야유산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음. 현재 고분군 제철유적 등에 대한 발굴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동부 지역과 인접한 서부지역은 백제와 마한의 영역으로 당시 가야와의 역사적 역동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지역임
  -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청정자연을 활용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
    - \* 전북가야 선포식이 이루어진 봉화산 치제는 남원과 장수의 경계임과 동시에 매년 철쭉제를 진행하고 있음
- 첨단ICT 융복합 실감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반 보유함
  - 2016년 9월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융복합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

VR/AR 전라북도 특화사업화 방안을 발표함. “문화가 일상 속에 물드는 실감콘텐츠 도시, 전북”이라는 비전 아래 가상 하드웨어(VR/AR 장비) 보급과 빅데이터 기반의 역사문화 콘텐츠 복원 및 관광서비스 상품 창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음

-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나 마련된 기반시설들을 접목하여 콘텐츠를 개발 할 수 있음

## ■ 약점요인(weakness)

- 조사, 발굴사업 부족으로 활용기반 및 재원이 취약한 상황임
  - 현재까지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유적 정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였음. 가야 문화권으로 포괄할 수 있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사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현재 전북지역의 조사는 대부분 지표 및 발굴조사에 머물고 있어 긴급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실정임
  - 전북 가야 유적 중 유일하게 사적으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 조차 발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황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 지역 및 자원 간 연계 체계가 미흡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들이 부재하거나 1차적 수준에

## 머물고 있음

- 전북가야권역에 속한 7개 시군의 경우 협의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동의 협의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가야사 복원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영·호남의 화합 도모를 위해 지역에서 가야문화축제를 활용하여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지만 단순체험 및 기념물 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 경상 가야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상징(대표)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국가차원에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제도를 마련함. 유적 부분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8개 유형 중 사적 부분에 해당함.
  - 2017년까지 가야 관련 유적지의 사적 지정은 경상권에서만 이루어졌음. 이는 전북 가야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발굴·복원이 최근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차원에서도 가야문화를 경상지역에 한정시켜 관리·보존한 것으로 보임

[문화재(사적) 지정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문화재명	비 고 (지정일)
1	부산광역시 (3건)	동래구	부산 동래패총	1970. 4.
2		“	부산 복천동고분군	1981. 6.
3		연제구	부산 연산동 고분군	2017. 6.
4	경상북도 (4건)	고령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1963. 1.
5		“	고령 주산성	1963. 1.
6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1968. 12.
7		성주군	성주 성산동 고분군	1963. 1.
8	경상남도 (19건)	고성군	고성 내산리 고분군	1963. 1.
9		“	고성 송학동 고분군	1963. 1.
10		김해시	김해 봉황동 유적	1963. 1.
11		“	김해 예안리 고분군	1978. 6.
12		“	김해 양동리 고분군	2004. 7.
13		“	김해 분산성	1963. 1.
14		“	김해 구산동 고분군	1963. 1.
15		“	김해 수로왕비릉	1963. 1.
16		“	김해 수로왕릉	1963. 1.
17		“	김해 구지봉	2001. 3.
18		“	김해 대성동 고분군	1991. 1.
19		산청군	산청 전 구형왕릉	1971. 2.

20		양산시	양산 북정리 고분군	1963. 1.
21		창녕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1963. 1.
22		“	창녕 목마산성	1963. 1.
23		“	창녕 화왕산성	1963. 1.
24		창원시	창원 다호리 고분군	1988. 9.
25		함안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2011. 7.
26		합천군	합천 옥전 고분군	1970. 4.
27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2018. 3.
계			27건	

#### ■ 기회요인(opportunity)

- 조사·발굴에 따른 전북가야의 위상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문재인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북가야에 대한 관심 증대
  - 2017년 6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지시함. 이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 삼국 중심의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다 고대사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가야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가야사 복원 사업이 영호남의 지역적인 벽을 허물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국정과제 67번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강화를 강조하며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를 주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전라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전라북도 및 동부지역 7개 시·군(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지난 11월 남원·장수의 경계에 위치한 봉화산 치재에서 전북가야 선포식을 추진함
  - 전북도는 가야사 관련 연구·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북가야 연구·복원 TF팀 및 전북가야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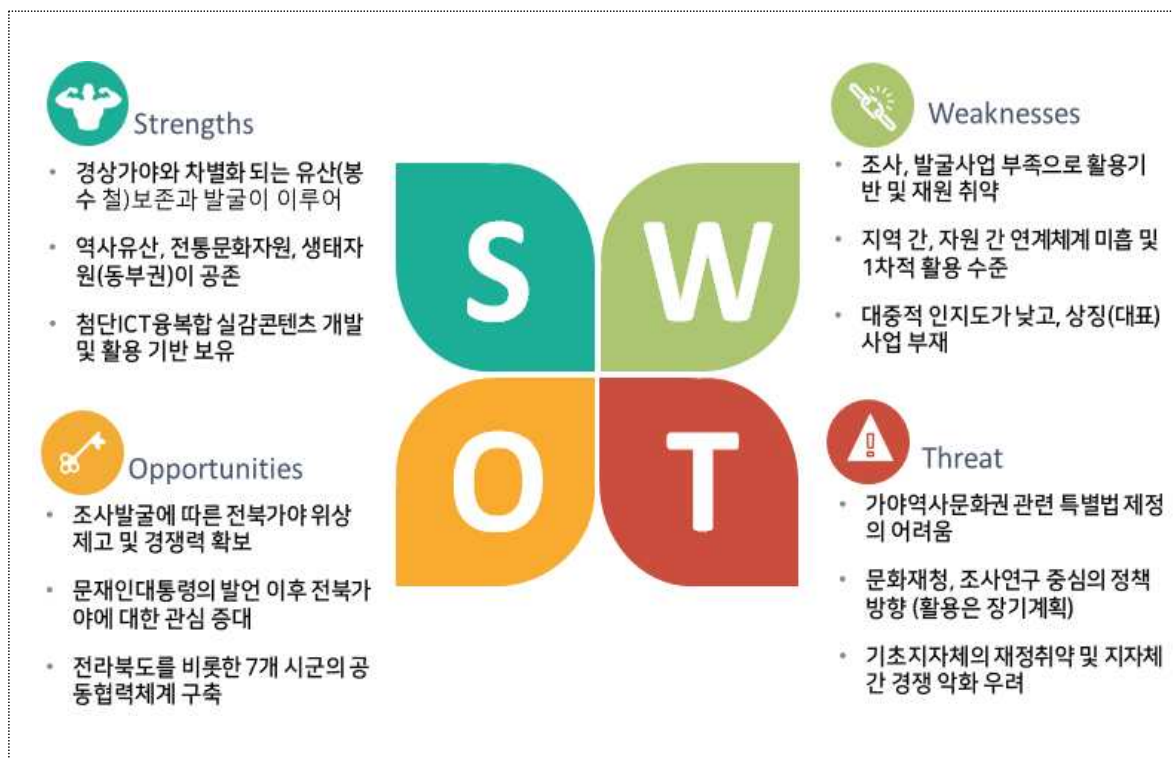
#### ■ 위협요인(threat)

- 경상가야 중심의 특별법 제정 및 활용사업 추진
- 문화재청에서 제안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단기 계획은 조사 사업에만 치중
  - 조사·연구 자료 집성 및 유적·유물 현황 중심으로 단기계획이 이루어져 활용부분에서 2022년까지 중점적으로 완성·실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 추진 일정]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조사 연구	기초자료 집성							단기과제
	가야유적 분포현황조사							단기과제
	종합연구계획수립							단기과제
	영·호남 중요유적 발굴조사							장기과제
	가야 네트워크 복원 심화 / 공동 연구							장기과제
	가야 역사문화 조사·연구기능 강화							장기과제
정비	중요유적 문화재 지정 추진							장기과제
	중요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검토							장기과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장기과제
활용	가야유적 체계적 보수정비							장기과제
	가야 역사문화체험 연계프로그램 확대							장기과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장기과제

- 기초지자체의 재정취약 및 지자체 간 경쟁 악화 우려
  - 가야문화와 관련 독자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이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왜곡된 역사 복원, 무리한 발굴·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유산 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다. 대응전략 수립

### ■ SWOT 분석에 따른 대응

#### ○ SO(강화)전략

- 전북가야의 경쟁력 있는 유산(철, 봉수)을 중심에 두고, 전통문화자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사업 발굴, 사업화 추진
- 정비되어 가시적 유산이 많은 경사가야와 차별성을 위하여 첨단 ICT를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활용 (AR/VR/MR/홀로그램 등)

#### (사례) 디지털헤리티지 사업

-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접목을 통해 전통문화의 콘텐츠화를 실현하는 디지털헤리티지 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음. 경북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는 '석굴암HMD 트래블체험관'과 '알바트로스 VR 체험관', '리얼4D 큐브체험' 등의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석굴암·첨성대·대릉원·불국사 등 지역 대표 문화유산과 명승지들을 가상공간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함



강점 기회	경사가야와 차별화되는 봉수, 철유산 보존, 발굴	역사유산, 문화자원, 생태자원(동부권)이 공존	첨단ICT융복합 실감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반 보유
조사발굴에 따른 전북가야 위상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	●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북가야에 대한 관심 증대	◎	◎	◎
전라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	○

주 1. ● (상관관계 아주 높음), ◎ (상관관계 높음), ○ (상관관계 낮음)  
2. ● 우선전략, ◎ 차선전략



## ○ WO(보완)전략

- 조사발굴 및 정비와 연계된 국책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전라북도+7개시군의 공동 연계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북가야에 대한 대중적 홍보(인식 확산)를 위한 전북가야만의 브랜드사업을 공동(도+7개시군)으로 추진

## (사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세미나

- 가야사 연구·복원의 방향 및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2017.8.31.)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 및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진행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가야문화를 통한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 동반자적 공동발전방안 모색, 동일 권역의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영호남권역 공동발전 및 통합브랜드 창출을 위해 2005년 2월 구성된 이래 꾸준히 확대·유지되고 있음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참여 지자체>  
거창군, 고령군, 고성군, 광양시, 구례군, 김해시, 남원시, 달성군, 산청군, 상주시, 성주군, 순천시, 여주시, 의령군, 장수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약점 기회	조사, 발굴사업 부족으로 활용의 기반/재원 취약	지역 간, 자원 간 연계체계 미흡 및 1차적 활용 수준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상징(대표) 사업 부재
조사발굴에 따른 전북가야 위상 제고 및 경쟁력 확보	◎	◎	●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북가야에 대한 관심 증대	●	○	○
전라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	◎

주 1. ● (상관관계 아주 높음), ◎ (상관관계 높음), ○ (상관관계 낮음)  
2. ● 우선전략, ◎ 차선전략

○ ST(극복)전략

- 경사가야와 차별화되는 전략이자 문화재청의 조사연구 위주의 정책방향의 대응전략으로서 첨단ICT융복합 실감콘텐츠 개발사업(문화부)을 적극 추진
- 전통문화자원, 산림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재청 외 타 부처(국토부, 과학부, 산림청, 문화부) 사업을 발굴, 국가사업화

(사례)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

- 2003년부터 산림청에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복원사업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전통 마을 숲을 생태·환경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숲 내 고사목 제거, 후계목 심기, 수목환경 개선 작업, 친환경 산책로 조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됨



강점 위협	경사가야와 차별화되는 봉수, 철유산 보존, 발굴	역사유산, 문화자원, 생태자원(동부권)이 공존	첨단ICT융복합 실감콘텐츠 개발 및 활용 기반 보유
경사가야 중심의 특별법 제정 및 활용사업 추진	◎	○	●
문화재청, 조사연구 중심의 정책방향 (활용은 장기계획)	○	●	◎
기초지자체의 재정취약 및 지자체 간 경쟁 악화 우려	◎	◎	○

주 1. ● (상관관계 아주 높음), ◎ (상관관계 높음), ○ (상관관계 낮음)  
2. ● 우선전략, ◎ 차선전략

## ○ WT(방어)전략

- 중장기적으로 재원확보 및 활용사업 추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국가차원 사업 기관의 전북 내 설립을 적극 추진
- 7개 시군의 가야유산 및 기타자원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시군별 기능을 구분하고, 도+지자체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

## (사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설립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야문화권역의 중요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연구 및 발굴조사를 위해 1990년 6월 개관되었음
- 중요 선사 및 역사 유적 대한 학술조사 추진을 위한 가야문화권 유적조사연구, 지역문화권의 역사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식기반 조성연구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백제·가야 유적이 넓게 분포한 전북권에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전북권역의 유물·유적 조사에 대한 체계성을 갖추고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소 설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임



위험 \ 약점	조사, 발굴사업 부족으로 활용의 기반/재원 취약	지역 간, 자원 간 연계체계 미흡 및 1차적 활용 수준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상징(대표) 사업 부재
경상가야 중심의 특별법 제정 및 활용사업 추진	●	○	◎
문화재청, 조사연구 중심의 정책방향 (활용은 장기계획)	◎	○	○
기초지자체의 재정취약 및 지자체 간 경쟁 악화 우려	◎	●	◎

주 1. ● (상관관계 아주 높음), ◎ (상관관계 높음), ○ (상관관계 낮음)

2. ● 우선전략, ◎ 차선전략

SWOT분석 및 대응방향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별화되는 전북가야유산의 보존/발굴</li> <li>역사유산/문화자원/생태자원이 공존</li> <li>ICT융합 실감콘텐츠 개발 및 활용기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발굴의 부족, 활용기반/자원 취약</li> <li>지역/자원 연계체계 미흡, 1차적 활용</li> <li>대중적 인지도 낮고, 상징사업 부재</li> </ul>
기 회 (O)	<p>조사발굴에 따른 전북가야 위상제고 및 경쟁력 확보</p> <p>대통령 발언 이후 전북가야에 대한 관심 증대</p> <p>전라북도를 비롯한 7개 시군의 공동협력체계 구축</p>	<p><b>【 강화전략(SO) 】</b></p> <p>전북가야의 경쟁력 있는 유산(철, 봉수)을 중심으로 두고, 전통문화자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사업 발굴, 사업화 추진</p> <p>정비되어 가시적 유산이 많은 경사가야와 차별성을 위하여 첨단ICT를 접목한 실감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활용 (AR/VR/MR/홀로그램 등)</p>	<p><b>【 보완전략(WO) 】</b></p> <p>조사발굴 및 정비와 연계된 국책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전라북도+7개시군의 공동 연계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p> <p>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북가야에 대한 대중적 홍보(인식 확산)를 위한 전북가야만의 브랜드 사업을 공동(도+7개시군)으로 추진</p>
	<p>경사가야 중심의 특별법 제정 및 활용사업 추진</p> <p>문화재청, 조사연구 중심 정책방향 (활용은 장기계획)</p> <p>기초지자체의 재정취약 및 지자체 간 경쟁 악화 우려</p>	<p><b>【 강화전략(SO) 】</b></p> <p>경사가야와 차별화되는 전략이자 문화재청의 조사연구 위주의 정책방향의 대응전략으로서 첨단ICT융복합 실감콘텐츠 개발사업(문화부)을 적극 추진</p> <p>전통문화자원, 산림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재청 외의 타 부처(국토부, 과학부, 산림청, 문화부) 사업을 발굴, 국가사업화</p>	<p><b>【 보완전략(WO) 】</b></p> <p>중장기적으로 자원 확보 및 활용사업 추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사업기관의 전북 내 설립을 적극 추진</p> <p>7개 시군의 가야유산 및 기타자원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시군 기능을 구분하고, 도+지자체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p>

## 제3절 전복가야 활용방향 및 전략

### 1. 활용 방향

#### 1) 활용 기초

##### ■ 중점 경쟁 자원 우선 활용 및 거점형 활용계획 수립

- 조사·발굴이 미진한 전복가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조사·발굴이 완료된 유적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유산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 앞서 있는 경상가야의 활용사업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복가야의 대중적 인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거점형 활용전략이 필요

##### ■ 특화자원과 연계한 활용사업 발굴

- 7개 시군이 연계된 활용전략과 사업을 발굴하고, 7개 시군의 특화자원을 전복가야와 연계하여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융합형, 연계형 사업을 발굴
- 동부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산림·생태 등과 연계하거나, 전복가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예술과의 융합, 비가시적 유산과 유적의 가시화를 위한 ICT의 융합 등을 고려

##### ■ 지속가능한 전복가야 활용전략 수립

- 국가 및 전라북도 예산을 투입하여 단기에 효과를 보는 사업을 추진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유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
- 사업의 체계화를 통하여 유사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 ■ 실효성이 확보된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투자비를 산정 및 계획하고,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반영으로 사업 집행 역량 및 실행력을 제고
-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추진사업을 발굴

중점경쟁 자원 우선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서 있는 경사가야의 활용사업에 대응하여 <b>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북가야의 대중적 인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산</b>하기 위해서는 <b>경쟁력이 있는 유산을 우선 발굴/활용</b></li> <li>• 사업의 <b>시군별 균등분배를 지양</b>, 선택과 집중에 따른 <b>거점형 활용계획 체계 수립</b></li> </ul>
특화자원 연계하여 활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가야 활용전략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간 긴밀한 협력으로 <b>연계 가능한 경쟁자원을 발굴</b></li> <li>• <b>지역여건에 맞는 연계형 콘텐츠 개발</b>을 통해 전북가야의 활용발전 효율성 제고</li> </ul>
지속가능성 전제된 활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b>통합적 추진 및 운영관리체계를 구축</b></li> <li>• 사업의 지속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b>유사사업 중복방지 등 효율적 개발</b>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li> </ul>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확보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b>현실성 있는 투자비를 산정 및 계획</b>하고,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반영으로 사업 집행 역량 및 실행력을 제고</li> <li>•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b>국가 차원의 추진사업을 발굴</b></li> </ul>

## 2) 활용 컨셉

### ■ 연계 발전 186)

-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발전방식
  - 허브앤스포크 발전방식은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지만 잠재력이 충분한 노드(node)를 특정권역의 중심인 허브(hub)와 연결시킴으로써 노드를 독립된 지역에서 개별적 특성과 발전방향을 갖는 스포크(spoke)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말함
  - 허브는 노드를 연결시킴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드 또는 외부로부터의 이동과 소통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노드를 비롯하여 권역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음

186) 문화체육관광부(2015),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335~341쪽 참조

○ 네트워크(network) 발전 방식

- 네트워크는 공간과 관련해서 장소 간의 관계와 유기성을 뜻함
- 지역 간 네트워크는 물리적 연계를 통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권역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연결망을 통해 일부 지역의 발전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력이 확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전반의 발전을 창출하는 통합적 발전구조를 형성함
- 네트워크가 형성된 공간권역은 권역의 범위를 개별 지역이 아닌 연계망에 포함된 지역 전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효과를 가져옴
- 커뮤니티연계, 산업연계, 자원관리 프로그램연계 등 지역 간 협력을 통하여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음



○ 클러스터(cluster) 발전 방식

-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상호지식을 교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합체를 의미함.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 공통성이나 보완성에 의하여 연계된 집적을 말함
- 협의의 클러스터 개념은 지리적 인접성, 즉 공간적 경계를 중요하게 인식함. 하지만 광의의 개념은 시스템 또는 기능적 연관관계의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바라봄

○ 클러스터 내 허브 앤 스포크 개발방식 적용

- 소리창작원 대상부지의 주변지역은 궁극적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되, 허브앤스포크 방식을 결합시킴으로써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노드 형식의 주요시설과 기관을 하나의 스포크로 발전시킴
- 거점은 소리창작원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하나의 거점으로 삼고, 어린이창의체험박물관, 건지산숲을 하나의 벨트로 연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며, 덕진예술회관과 전북도립국악원 권역을 또 다른 거점으로 개발함

## ■ 융합 발전

- 가야 + 역사문화자원 : 전북가야 외의 역사자원, 문화자원과의 융합
- 가야 + 자연관광자원 : 청정자연과 융합, 친환경 역사체험관광지대 지향
- 가야 + 첨단과학기술 : 첨단 ICT 융합, 실감콘텐츠 개발 및 활용
- 가야 + 지역커뮤니티 : 지역 간 연계협력,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융합





## 2. 활용 전략

### 1) 비전과 목표

#### ■ 비전

- 전북가야 활용의 비전은 “가야왕국 체험의 새로운 중심”으로 설정
  - 활용의 핵심방향을 체험으로 설정. 체험은 교육적 체험, 관광적 체험을 말하며, 체험의 내용은 역사유적의 관람 및 관련 콘텐츠의 체험, 유산과 연계된 생태환경 및 관광자원 등의 체험, 가야 역사를 활용한 예술콘텐츠의 체험 등을 의미

#### ■ 목표

- 첫째, 클러스터를 활용한 전북가야의 경쟁력 확보
  - 주요유적이 있는 장수군, 남원시뿐만 아니라 7개 시군, 나아가 경상가야 지역까지 포괄하여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 공통성이나 보완성에 의하여 연계된 집적을 형성
  - 중요자원을 발굴하여 거점을 조성하고,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둘째, 차별화된 체험을 위한 지역자원과의 융합 활성화
  - 경상가야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전북가야만이 아니라 지역 내 특화자원과의 융합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체험하지 못한 콘텐츠를 제공
  - 역사·자연·문화·기술을 융합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성화
- 셋째, 지역주민 주도, 지역협력형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도모
  - 국가 차원의 사업 지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협력형 발전방안을 수립, 전북가야의 지속적인 활용전략을 실현
  - 전북가야의 정체성 확립 및 계승과 지속가능한 활용기반을 구축

## 2) 6대 전략

### ■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 사업 개발

- 주요사업 : 장수가야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운봉가야 역사문화 '현장박물관', 고대역사 (관방유적) 실감체험 테마파크 조성, 가야문화마을 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가사업 활용, 가야역사문화마을 개발 등

### ■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 주요사업 : 전북가야 역사벨트 거점 조성, 한반도 최초의 봉수왕국 복원사업, 장수가야-운봉가야 연계, 전북가야 마실길 개발

### ■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 주요사업 : 전북가야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전북가야 테마, 문화유산 4.0 실감콘텐츠 개발, 전북가야 브랜드공연 및 예술행사

### ■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주요사업 : 전북가야 유산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개최, 전북가야 역사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 전북가야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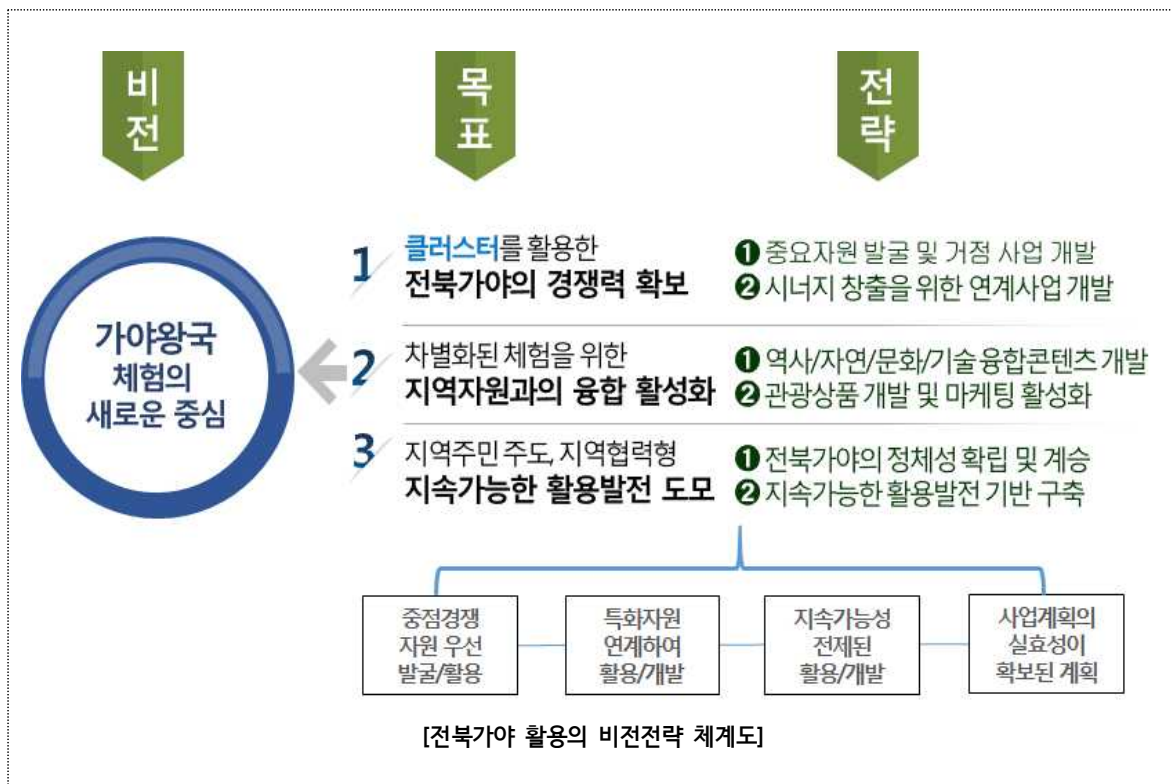
### ■ 전북가야의 정체성 확립 및 계승

- 주요사업 : 전북가야학의 정립 및 진흥, 전북가야 지역주민 역량강화, 가야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및 배치, 호·영남 가야교류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형 전북가야유적 돌봄 지원

### ■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 구축

- 주요사업 : 가야사 특별법 제정 및 개정, 전라북도 조례 제정 및 진흥기관 지정,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설립, 가야유산 및 고대제철유적의 세계유산 추진, 전북가야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 3대 목표를 위한 **6대 전략별로 전략과제를 수립**





## ■ 제 6 장 ■

### 전북가야 활용전략별 추진과제





## 제1절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사업 개발

### 1. 장수가야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 ■ 필요성 및 목적

- 장수가야를 연구·조사·정비한 이후에 주요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장기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다고 하면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집중될 필요가 있음
- 철과 봉수왕국이 장수가야를 상징하는 장소(장계)에 호·영남 교류의 상징이자, 고대제철 유적과 한국봉수의 원형을 간직한 장수가야의 역사문화유산을 한 곳에서 체험·교육·관광할 수 있는 종합거점이 필요함
- 종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 토지수용, 인허가, 세금지원 등이 중요하므로 장수가야 역사문화를 테마로 행정청(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관광지(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로 조성하되, 조사·발굴·정비 등이 시점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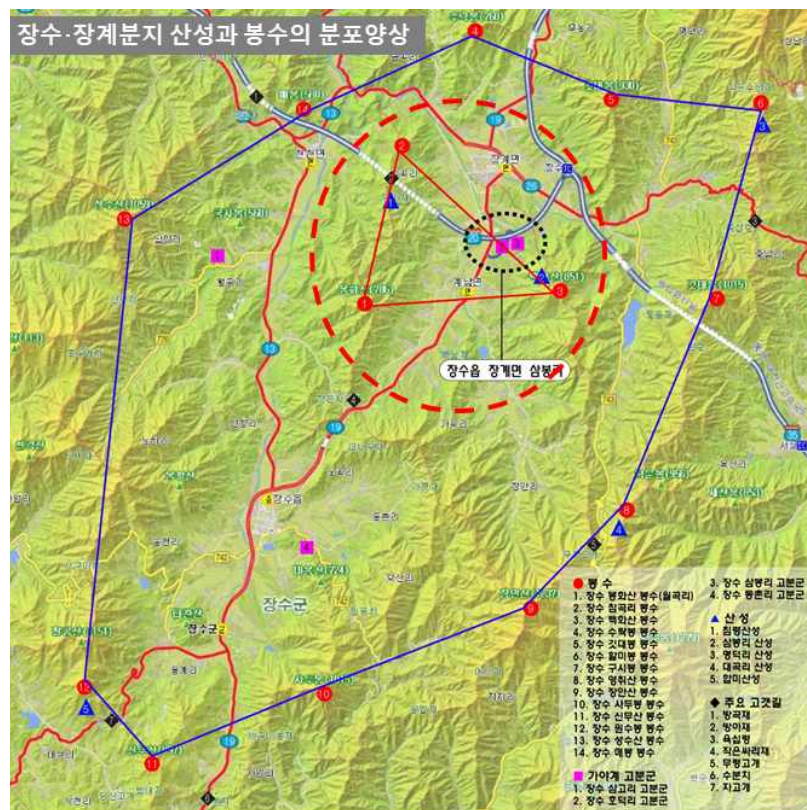
#### (사례) 역사문화테마 관광지: 백제가야 정읍사 관광지

- 면적: 65,282평
- 기간: 2012~2017년
- 예산: 30,400백만원(국비 9,380, 시비 19,970, 민자 1,050)
- 사업: 정읍사가야박물관, 한식체험관, 저잣거리, 정읍사여인집, 설화정원 등



## ■ 사업 개요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일원
  - 봉화산 봉수 - 참곡리 봉수 - 백화산 봉수를 잇는 삼각형의 중심을 대상으로 검토 (장계리 백화여고 일원, 삼봉리고분권 일원, 침령산성 포함 인근 지역 등)
  - 침령산성, 삼봉리고분군, 호덕리고분군, 봉수 등 연계 개발
- 규 모 : 50만㎡ 내외 (기타 유적은 연계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0~2028년(10개년)
- 총사업비 : 80,000백만 원(국비 32,000, 도비 1,800, 군비 46,200)
  -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증감 예정 (다부처(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업농촌식품부) 사업으로 추진)
- 사업주체 : 장수군(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 사업 내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및 개발
  - 문화재청의 역사문화유적 정비 사업은 개별 유적의 정비 사업(線적 개발)으로 추진하고, 각 유적을 포함한 관광지(面적 개발)를 개발
  -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개발되는 관광(단)지 중에서 행정청(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관광지로서 지정 신청하고, 각 부처별 사업을 포괄하여 추진
  - 철과 봉수왕국인 장수가야의 핵심유적을 체험하면서, 삼림을 활용한 역사생태관광지로서 조성 : 지붕 없는 박물관인 에코박물관(또는 현장박물관) 개념을 도입
- ※ 관광지로 지정되면 향후 관광진흥 국가예산사업 유치가 용이
- 도입기능과 도입시설
  - 장수가야의 역사 복원 : 장수가야왕궁과 철기가야 생활촌 복원(재현), 철·봉수왕국의 핵심은 고대제철로와 봉수대복원(재현), 고분군 복원·정비 등
  - 장수가야의 전시·교육 : 장수가야박물관, 한국고대제철문화관, 통신역사·미래관 등
  - 장수가야의 체험·관광 : 마상전투공연장 및 마상·제철 체험장, 생태공원(장계천 또는 침령산성 주변 생태림 활용), 고랭식물원(고랭식물군락지) 등
  - 방문객 휴양·편의 : 상가시설(고랭식물음식점·카페·사과음료점), 어린이놀이터 등

도입활동	도입기능	도입시설
공공편의 시설	이용편의 제공	공공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공중화장실 등
역사재현 시설	장수가야 역사문화 재현	장수가야왕궁, 철기가야생활촌, 고대제철로, 봉수대, 고분군(재현) 등
전시·교육 체험시설	역사문화유산 전시 및 교육, 유산관광을 위한 시설	장수가야박물관, 한국고대제철박물관, 통신과학관(역사미래)관, 마상전투공연장 및 마상·제철 체험장 등
상가시설	고랭식물음식점, 사과음료점 및 상품판매점	고랭식물 전문 식당 거리, 사과음료카페 거리 (예, 정읍쌍화탕거리), 산상카페 등
휴양·문화 시설	이용객 휴게휴식, 자연학습	생태공원, 고랭식물원 등
녹지·조경 시설	고랭식물 군락지, 생태하천	장계생태천 체험프로그램 운영시설, 산림생태탐방식 등

### 관광(단지) 정의 및 투자 인센티브 등

• 정의 및 특징 (관광진흥법 제2조)

-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임.

구분	시설 종류
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li> <li>-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제한 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li> <li>- 면적제한이 없으며, 행정청(공공기관)에 의한 시행</li> </ul>
관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li> <li>- 면적 50만㎡이상, 비행정청(민간사업자)에 의한 시행</li> </ul>

• 지정기준 및 관광시설 도입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8)

- 관광단지는 공공편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면적 50만㎡이상의 조성면적을 확보해야함.
- 관광지는 공공편의시설만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와는 달리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도입할 수 있음.

구분	시설 종류	도입기준
공공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공공편의시설 필수 도입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1종 이상의 숙박시설 도입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1종 이상의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도입
휴양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희음식점, 관광극장유희음점,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관광식당 등	임의 도입
지원시설	관광종사자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시설	임의 도입

• 투자 인센티브

-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의 취득·등록세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의 세금지원 혜택과 더불어 토지확보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토지수용권 제공 및 22개의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의 행정지원 혜택을 제공함

구분	지원내용	근거법령
세금지원	-사업시행자의 취득 토지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특례제한법 제54조
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비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인 원인에게 부담금 감면</li> <li>-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64조</li> <li>-개발이익환수법 제7조</li> <li>-농지법시행령 제52조</li> <li>-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li> </ul>
토지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계획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 2/3이상 취득한 경우, 잔여 토지에 토지수용권 부여</li> <li>-해당 지자체에게 토지수용 업무 위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54조, 제61조</li> <li>-시행령 제49조</li> </ul>
인·허가	-조성계획의 승인 시 22개의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법 제58조

○ 사업추진일정

- 2019년 : 전라천년광역관광권개발계획에 반영 (균특 경제발전계정 사업)
- 2020년 : 장수가야 역사문화 관광지 기본구상
- 2020년 : 제7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에 반영(제6차 계획에 2개소(남원 관광단지, 부안 관광지) 조성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조성사업 신청

## ■ 재원 투자계획

- 2019~2028년까지 총 80,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계	80,000	2,200	3,000	4,400	4,800	4,900	60,700
국비	32,000	400	800	2,000	2,100	2,200	24,500
도비	1,800	200	200	200	200	200	800
시·군비	46,200	1,600	2,000	2,200	2,500	2,500	35,400
기타	0	-	-	-	-	-	-

- 기본계획 수립 이후, 관광지 지정이 되면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 문화재청의 사적 정비사업, 산림청의 산림자원 활용 관광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기금 사업,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활용사업, 각 부처별 마을만들기 사업 등
- 가야특별법의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으로 추진
  - 장수가야 역사문화 관광지 기본구상을 수립, 특별법에 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선도사업으로 제안
- 전라천년광역관광권개발계획(전북 주도, 광주·전남 포함)에 선도사업으로 포함
  - 전라도 정도 천년을 계기로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포함시킨 광역관광권 개발계획 구상 : 2018년 기본구상, 2019년 기본계획, 2020년 사업시행 목표
  - 사업예산 : 지특회계 경제발전계획 지원 (경상가야 활용사업 대부분이 3대문화권(광역관광권개발계획) 사업으로 추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권개발계획의 장수군 사업을 변경, 추진

- 장수군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미추진

## 장수 천천(天川)에 놀라운 계획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 90 일원
- 조성면적 : 240,000㎡
- 사업기간 : 2017년 ~ 2025년(9년)
- 총사업비 : 6,530백만 원(국비 2,815백만 원, 지방비 3,715백만 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4153-308) -지특 경제발전계정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4개 사업 8,600백만원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7예산	'18예산	산출근거
■미륵사지관광지 (익산, 계속)	1,000	500	- 도로이설(L=1.2km, B=12m~18m) - 공공주차장(2,215㎡) - 상가 및 전통문화체험시설(800㎡) - 자연지형녹지(8,500㎡) 등
■옛다솜이야기원 (남원, 신규)	-	415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삼례삼색마을조성 (완주, 계속)	1,000	757	- 아트카페, 아트체험관(A=800㎡) - 삼례풍경길 (L=1,500m)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완주, 계속)	200	250	- 기반시설 조성 등
■부귀산 별빛공원 조성 (진안, 계속)	1,000	1,500	- 자연관찰시설(연면적 1,000㎡, 3층) - 전망대 1식, 탐방로 400m 등
■무주태권마을조성 (무주, 신규)	-	1,000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기반시설 조성(53,563㎡)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순창, 계속)	700	700	- 시설사업 공사 추진(발효테라피센터, 다년생화초식물원, 세계발효마을농장)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순창, 신규)	-	154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향가마을 소울터널, 무인공방 1개소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정읍, 신규)	-	208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태조희망의 숲 조성 (임실, 신규)	-	217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2. 운봉가야 역사문화 ‘현장박물관’ 조성

### ■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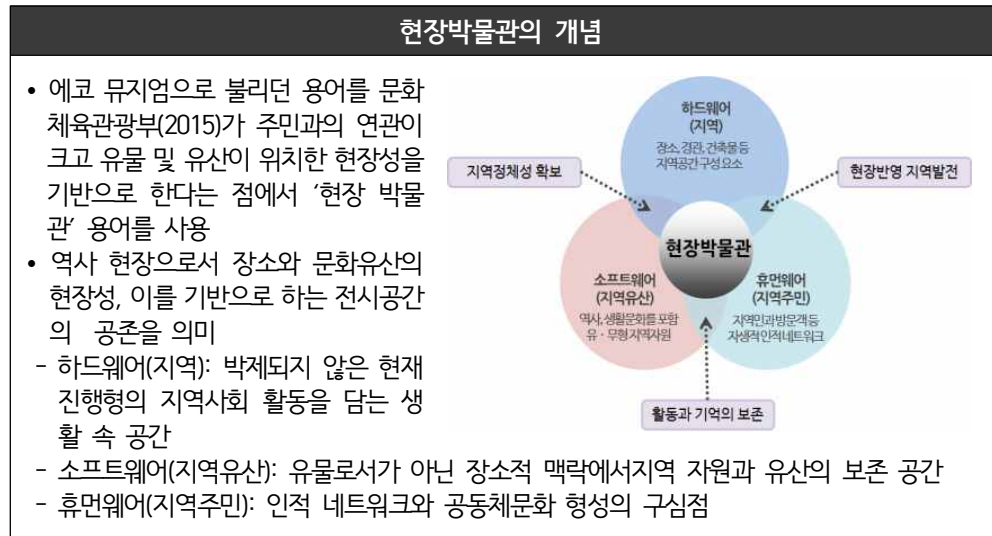
- 정부부처는 보상과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거버넌스에 기반 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문화유산 보호와 프로그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을 만들어 가는 ‘마을 만들기’와 연계추진을 유도

[문화재청의 지역 역사문화 관련 주민참여 사업 현황]

사업명	내용
주민 주도의 민속마을 재창조 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공동체: 사업발굴</li> <li>• 정부: 멘토링 및 스토리텔링 개발 홍보지원</li> </ul>
고도 이미지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절차 개선,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 정착 유도</li> </ul>
문화재지킴이 대상별 맞춤형 활동지원 및 교육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유산교육 연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대학생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단체 우수사업 공모 컨설팅, 지역 단체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상하반기 각 1회)</li> <li>• (교육 내실화) 기본교육(연 40회 이상) 실시, 기본 심화 교육과정에 ‘기본윤리의식’ 교육 의무화</li> </ul>

※ 자료 참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익산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191쪽

- 박물관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박물관은 지역이 간직한 장소성을 기반으로 살아있는 박물관을 지향. 국내에서도 ‘오픈에어뮤지엄’, ‘에코뮤지엄’, ‘지역공동체 박물관’, ‘역사마을·민속마을’, ‘마을박물관·마을미술관’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
- 문화유산을 점-선 측면이 아닌 면 측면에 접근하고, 현장성을 기반으로 주민과 지역공동체 참여 하에 지역문화 보전과 창조,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선순화되도록 유도
- 이를 위하여 역사문화자원이 집중 분포된 지역에 ‘현장박물관’ 개념을 도입하여 장소성과 역사성, 현장성에 기반 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매력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 참여에 기반 한 관광 활성화를 모색



※ 자료 참조: 문화체육관광부(2015), 『현장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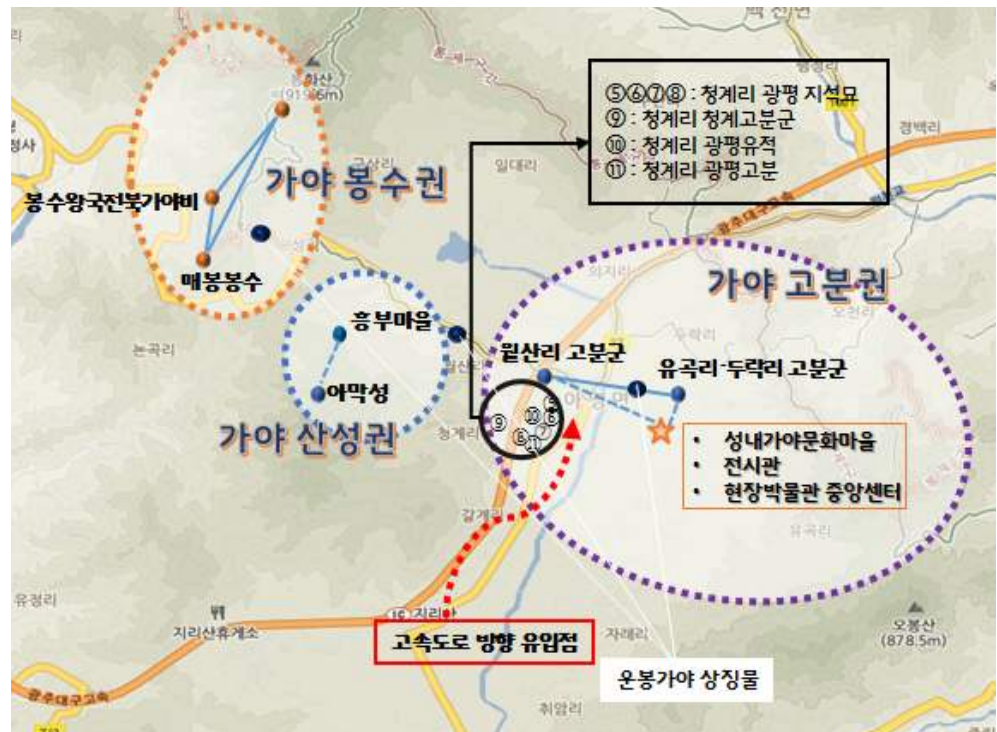
## ■ 사업 개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과 아영면 일원
- 사업기간 : 2020~2028년(9개년)
- 총사업비 : 46,159백만 원 (국비 17,819, 지방비 10,940, 민자 17,400)
  - 현장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교점·경로·권역 설정 : 500
  -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종합정비 : 22,459 (국비 9,319, 도비 6,440, 시비 6,700)
    - \* 남원시(2017),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참조
  - 아막성 정비 및 복원, 진입로 조성 등 : 10,000
  - 매봉 봉수 복원 및 가야봉수 탐방길 조성 : 5,000
  - 기타 유적 정비 및 권역 간 연계사업 : 5,000
  - 현장박물관 내 상징조형물 조성 : 500
  - 현장박물관 중앙센터 등 인프라 조성 및 정비 : 2,000
  - 현장박물관 홍보마케팅(책자발간, 브랜드개발, 언론홍보 등) : 200
  - 현장박물관 체험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500
- 사업주체 : 남원시(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 내용

- 현장박물관의 교점·경로·권역의 설정
  - 인월면과 아영면에 소재한 주요 유적들을 교점과 거점으로 설정
  - 3대 거점(유곡리·두락리고분군, 아막성, 매봉봉수)을 중심으로 인접 교점(성내마을, 월산리·청계리고분군, 흥부마을, 봉수왕국전북가야비)을 포함하여 권역 설정
  - 권역별 개발 주제를 설정하여 구역에 맞는 세부계획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 \* 운봉가야 고분군권: 가야고분 및 지석묘, 성내토성 등에 대한 유적, 가야문화마을 등
    - \* 운봉가야 산성권: 아막성 복원 및 산림치유 콘텐츠 운영, 흥부마을 연계 프로그램 등
    - \* 운봉가야 봉수 및 동서교류 문화권: 매봉봉수, 치재 등의 역사문화적 이야기 연계
- 권역 간 교점 연계 경로(Path) 개발
  - 각 거점을 연계한 유곡리·두락리고분군~아막성~치재(매봉봉수) 경로를 설정하고, 권역별로 각 교점 간 연계 경로를 구축
    - \* 각 유적에 대한 조사 발굴 및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예, 설화, 관광자원 등)을 추가로 발굴하여 권역 간 교점 확충 및 경로 확대가 필요

구분		범위
운봉가야 고분군권	거점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성내마을)
	교점	월산리·청계리 고분군, 유곡리 성내토성, 두락리 이등 옹기요지, 인월요지역사관 등
	경로	성내마을 현장박물관 종합센터→전시관→고분군→성내토성 등→월산리·청계리 고분군→운봉가야 산성권
운봉가야 산성권	거점	아막성
	교점	흥부마을(주요 거점), 흥부마을 체험관
	경로	흥부마을→아막성→흥부마을 체험관(가야문화체험관 병행)
가야봉수 및 교류문화권	거점	매봉봉수, 가야왕국전북가야비
	교점	봉화산봉수, 치재철쭉단지, 동서교류문화관
	경로	동서교류문화관(치재 철쭉단지 및 신규 조성)→매봉봉수→가야왕국전북가야비



#### ○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종합정비

- 개별 고총 정비, 고분군 수목정비를 통한 외부 조망권 확보, 탐방로 정비



유곡리·두락리고분군 탐방로 계획 동선



- 전시관 건립 및 편의시설 확충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 아막성 정비 및 복원, 진입로 조성

- 아막성 발굴 및 종합정비 사업 : 성벽 복원 등
- 아막성 내 산림치유공간 조성
- 아막성 진입로 신설 및 흥부마을 연계 (예, 흥부마을 체험센터 활용)
- 흥부마을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매봉봉수 복원 및 가야봉수 탐방길, 치재 동서교류문화관 조성
  - 매봉봉수 발굴 및 복원, 가야봉수 탐방길 (매봉봉수~봉화산봉수)
  - 고대 동서교류 거점으로서 치재와 운봉가야의 중요성에 대한 전시관 조성
    - \* 장수가야봉수왕국비 옆 휴게시설 활용 전시홍보관 조성, 또는 매봉 밑 주차 공간 활용
- 주요 유적의 조사·발굴·복원·정비
  - 유곡리 성내토성, 두락리 성내고분, 두락리 이등 옹기용지 등 유적에 대한 조사·발굴·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
- 현장박물관 내 상징조형물 조성
  - 시각적으로 공간에 유입됨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각 권역 거점 중 1개 권역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설치된 조형물의 연계 동선을 개발
  - 주요 거점에 역사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 주요 건물(주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조형물을 조성

(사례) 상징조형물 : 안성시 복거마을

- 복거마을은 호랑이마을로 알려진 곳으로, 공공미술사업으로서 마을 주민과 예술가가 100마리의 호랑이를 숨긴다는 것을 주제로 호랑이 형상조형물을 마을 곳곳에 설치: 폐 농기구와 드럼통, 벽화 등에도 다양하게 표현



\*자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korean.visitkorea.or.kr](http://korean.visitkorea.or.kr)).

- 현장박물관 인프라 조성 및 정비
  - 안내서비스 개선 및 확충: 애플리케이션 연동, GPS 기반 증강현실(AR) 콘텐츠 제작,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안내서비스 확충
  - 역사문화 스토리보드 제작 및 설치: 현장박물관에 포함된 각 교점의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배경과 관련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스토리보드 제작 및 설치
  - 현장박물관 종합안내센터 설치

○ 방문객 체험탐방프로그램 운영

- 체험탐방 신청: 운영단체를 통한 사전 신청 및 종합안내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 체험탐방 절차 예시 : 권역 간 이동수단을 활용하여 3개의 권역 프로그램이 분리 운영 및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8년까지 총 46,15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46,159	-	5,000	10,000	10,000	10,000	11,159
국비	17,819	-	2,000	4,000	4,000	4,000	3,819
도비	10,940	-	1,000	2,000	2,000	2,000	3,940
시·군비	17,400	-	2,000	4,000	4,000	4,000	3,400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장박물관' 시범사업 요청 : 국책사업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등의 지원 사업 활용<sup>187)</sup>

국가사업 공모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사례: 광주 양림 역사문화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림 역사문화마을은 도시 관광지로 국비 34억을 받아 양림 커뮤니티센터를 설립. 그 외에도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공모에 참여</li> <li>•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4천만 원, 문화재청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공모에서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양림 포럼 및 마을 장터 등을 기획하였고, '양림 100년의 문을 열다' 역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아 기획·진행. 한국관광공사의 '2017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2015~2017)'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50억을 지원 받음</li> </ul>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 94
	규모
	1,397㎡(지하1층~지하4층)
	사업기간
	2012년 2월 ~ 2015년 3월
	총사업비
	3,400만원
	구성
	4층: 작은도서관 3층: 주민 창작공간, 회의실 2층: 양림동 주민센터 1층: 주차장 지하: 문화공연장, 전시홍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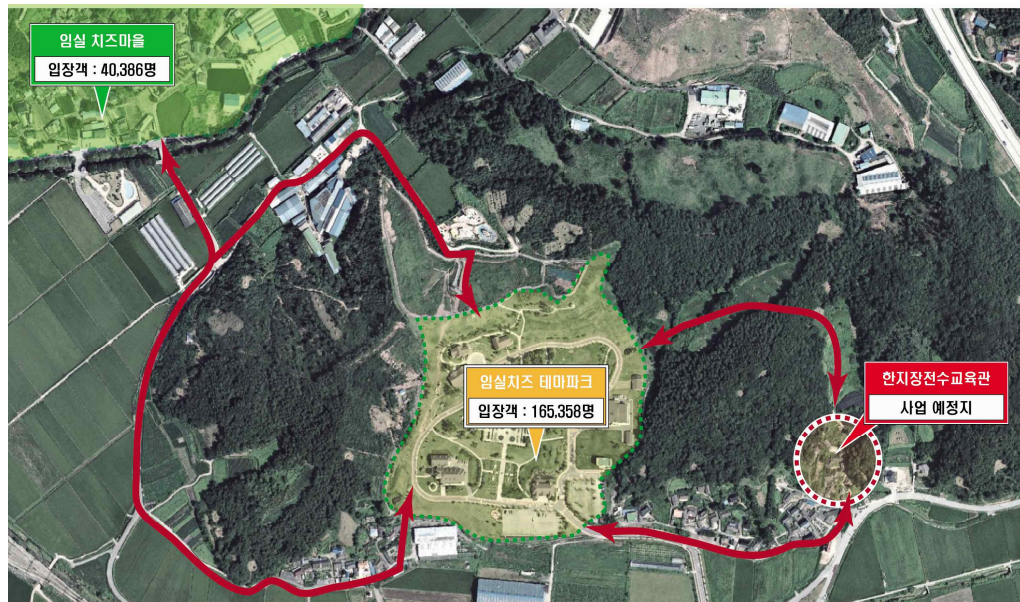
187) 문화체육관광부(2015년), 「현장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94쪽 참조



### 3. 고대역사(관방유적) 실감체험 테마파크 조성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는 봉수왕국이자 철의왕국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시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흥미를 갖기 어려움. 발굴이 되지 않은 유적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실감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전북가야 역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산관광의 최근 트렌드는 단순히 유적지를 관람하는 것에서 벗어나 ICT를 융합한 실감 콘텐츠를 통해 비가시적인 역사를 가시적으로 만들어 체험하도록 함
- 전북가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발굴하고 지역의 ICT를 융합한 디지털 실감체험관을 아동·청소년의 실감체험관 거점(임실119안전체험관)지역에 연계하여 설립함으로써 전북가야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 개발함
  -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체험인원 : 2013년 73,078명, 2014년 101,331명, 2015년 157,975명, 2016년 151,721명
  - 임실치즈마을의 연간 입장객 4만여명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연간 입장객 16만여명



## ■ 사업 개요

- 위 치 : 임실군 임실읍 (치즈테마파크 일원)
- 사업기간 : 2021~2023년(3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5,000, 군비 2,500, 기타 2,500)
- 사업주체 : 임실군(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 내용

- 고대역사 실감체험관 조성
  - 홀로그램, AR, VR, 4D영상관 등 최신 영상 및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역사체험 콘텐츠 시설을 개발하여 전복가야를 비롯한 고대역사에 대하여 체험
  - 전복가야 및 기타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엔터테인먼트, 교육(에듀테인먼트), 예술 및 문화(전시)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 콘텐츠는 별도 계획을 통해 수립
  -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AR, VR 등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현실공간에서 직접 가상의 게임에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위주로 개발하며, 예술 및 문화(전시) 콘텐츠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전시 및 연출로, 역사홍보는 관광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형 운영프로그램으로 개발
  - 체험관 공간은 프리 스테이지(pre-stage), 메인 스테이지(main-stage), 포스트 스테이지(post-stage)의 3단계로 구성

구분	특징
프리 스테이지 (Pre-S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의 감각적 체험을 위해 대기하는 공간</li> <li>• 실질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내러티브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임무를 부여 받는 단계</li> </ul>
메인 스테이지 (Main-S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체험자의 감각을 극대화하는 공간</li> <li>• 디지털 콘텐츠의 내러티브 구조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미션 수행 단계</li> </ul>
포스트 스테이지 (Post-S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콘텐츠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관련된 기념품 구입 공간</li> <li>• 미션 수행 후 기억을 재생하는 매개물인 캐릭터 상품 구매를 통해 체험을 내재화하는 단계</li> </ul>

※ 자료출처: 익산시(2016). 익산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기본계획(p.234) 참조하여 재구성

○ 고대역사 관방유적 야외체험장 조성

- 전북의 고대역사유적 중 주요 관방유적(봉수, 산성, 포, 군창 등)을 재현하고, 야외 세서 봉수·산성축조·포 체험 및 요새 지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 \* 재현 대표 유적 예시 : 월평리산성 (내륙교통의 허브, 가야부터 조선까지 운영)

(사례) 프랑스 알사스(Alsace) 에코뮤지엄

- Sundgau 내 작은 마을인 Gommersdorf의 옛 건물을 해체한 후에 다른 장소에 똑같은 모양으로 재건축하고, 그곳을 하나의 에코뮤지엄으로 조성
- 1980년 9월, Koetzingue 신문사 건물이 처음으로 지어졌으며, 약 20여 채의 집을 복원해 1984년 에코뮤지엄으로 개관. 1985~1987년에는 15세기 말의 파편과 도시의 중세 성벽 조각을 사용해 요새를 재건축 등





※ 자료참조: 장세길(2013), “농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 1002~1003쪽

■ 재원 투자계획

- 2021~2025년까지 총 10,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0,000	-	-	4,000	4,000	2,000	-
국비	5,000	-	-	2,000	2,000	1,000	-
도비	0	-	-	-	-	-	-
시·군비	2,500	-	-	1,000	1,000	500	-
기타	2,500	-	-	1,000	1,000	500	-

- 전라천년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현재 구상 중)

-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공동으로 계획 수립 중 (2020년 이후 추진 목표)

## 4. 가야문화마을 조성

### ■ 필요성 및 목적

- 마을주민이 전북가야 유적을 보존하면서 한편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사업이 필요.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형) 사업을 활용하여 전북가야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문화마을을 육성
- 가야라는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을주민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공동체를 육성하도록 지원

### ■ 사업 개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장수군 장계면
- 규 모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문화마을형) 2개소 추진
- 사업기간 : 2020~2023년(4개년)
- 총사업비 : 1,200백만 원(국비 480, 시·군비 720) ※ 1개소당 연간 200백만원
- 사업주체 : 남원시, 장수군(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 내용

- 연차별로 전체 2개의 가야문화마을 조성
  - 1단계 : 남원시 인월면 성내마을 대상으로 운봉가야문화마을 조성 (2020년 대상)
    - \* 남원시 아영면 성내마을의 유곡리·두락리고분이 사적으로 지정되었기에 우선 추진
  - 2단계 : 장수군 장계읍을 대상으로 장수가야문화마을 조성 (2021년 대상)
    - \* 장수가야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계읍을 중심으로 문화마을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문화마을형 사업을 신청 (전북도→문화부)
- 사업신청을 위한 마을공동체 육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주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하며,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사업계획서를 작성
    - \* 사업은 문화공간 및 장소(하드웨어),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공동체 육성 및 활동(휴먼웨어)로 구분하여 수립
- 전복가야 문화마을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 가야문화마을이 추진되면, 가야문화마을 공동으로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공동사업 및 교류사업 등을 추진
  - 공동의 홍보마케팅을 통해 유산관광 및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
    - \* 가야문화마을 공동주최의 가야문화마을축제, 체험프로그램, 가야문화역사교실 등 운영

## ■ 재정 투자계획

- 2020~2023년까지 총 1,200백만원(2개소 문화마을 추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200	-	200	400	400	200	-
국비	480	-	80	160	160	80	-
도비	0	-	-	-	-	-	-
시·군비	720	-	120	240	240	120	-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군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연계

[가야문화마을 조성 사업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군특(생활기반계정) 문화특화지역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3개년 지원</li> <li>• 지원예산 : 600백만원 (연 200백만원)</li> <li>• 지원방법 : 국고보조 40%, 지방 60%</li> <li>•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li> </ul>



## (사례) 임실 치즈마을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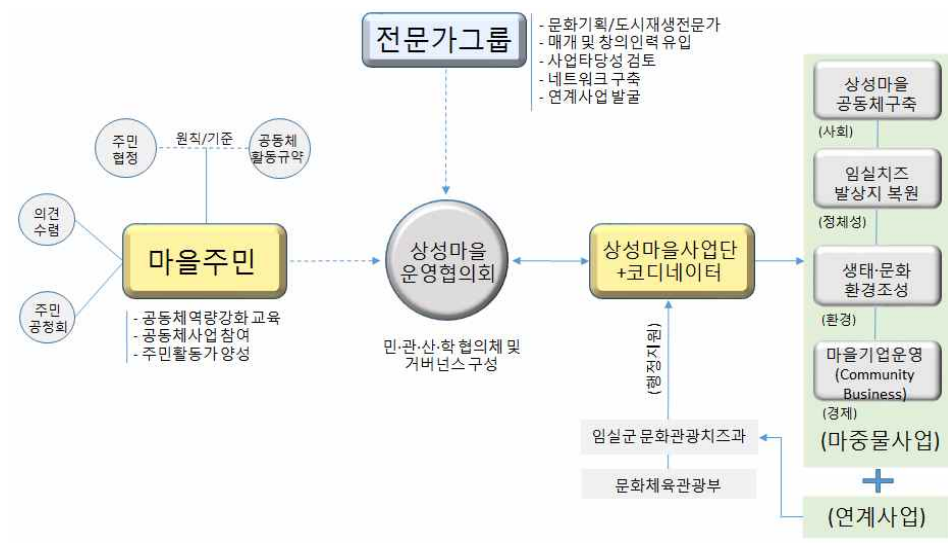
- 사업 기간 : 2018년 ~ 2020년
- 사업 예산 : 3년 간 600백만원 (국비 240, 지방비 360)
-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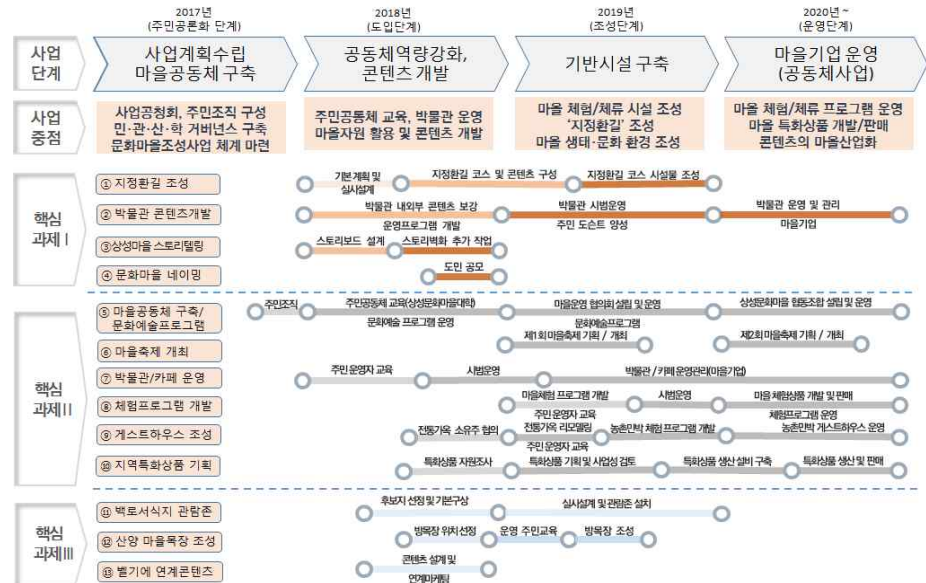
## ■ 주요 사업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
I. 임실치즈 발상지 복원	① '지정환길' 조성 ② 박물관 콘텐츠개발/운영(주민 해설가) ③ 상성마을 스토리텔링 ④ 문화마을 네이밍/브랜드 개발
II. 상성마을 커뮤니티 구축 및 마을기업 운영 (커뮤니티비즈니스)	⑤ 마을공동체 구축 및 운영 ⑥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⑦ 마을축제 개최 ⑧ 체험프로그램 개발 ⑨ 한옥/농가 게스트하우스 조성 ⑩ 지역특화상품 기획/개발
III. 생태·문화 환경조성	⑪ 백로서식지 관람존 조성 ⑫ 산양 마을목장 조성/운영 ⑬ 벨기에문화 연계 콘텐츠 개발

## ■ 사업 추진체계



## ■ 단계별 추진전략



## ■ 2017년 사업추진을 위한 월별 준비계획

구분	준비업무	업무주체	업무내용	비고
17년	4월	주민 설명회	향토자원 연구소	(가칭)상성문화 마을조성사업 기본구상 공유
	5월	마을문화자원 기초조사	상성사업단 (주민조직)	마을자원조사
	6월	TF 구성	임실군 문화치즈관	(가칭)임실읍 발전추진기구 결성
	7월	대상지 연계사업 조사	임실군 문화치즈관	연계사업 조사
	8월	문화마을조성사업 주민/공공 소양교육(1차)	임실군 문화치즈관	전문가초빙 교육
	9월	주민의견 수렴 / 아이디어 발굴	상성사업단 (주민조직)	주민토론회
	10월	문화마을조성사업 주민/공공 소양교육(2차)	임실군 문화치즈관	전문가초빙 교육
	11월	문화마을조성사업 주민/공공 소양교육(3차)	상성사업단 (주민조직)	선진지 답사
	12월	사업추진기구 구성	임실군 문화치즈관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5.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가사업 활용, 가야역사마을 개발

### ■ 필요성 및 목적

- 가야역사의 핵심거점 지역이 보존과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생활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지역(마을)이 가야역사문화를 매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가야역사문화의 대표거점을 개발하고 주민 스스로 가야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아영면, 장수군 장계면
- 사업기간 : 2020~2028년(9개년)
- 총사업비 :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
- 사업주체 : 남원시, 장수군(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 ■ 사업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장수군 장계면과 남원시 인월면(성내마을) 등의 주요유적지구의 개발사업을 추진
  - 농촌중심시 활성화 : 장수읍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장계면과 연계 추진
  - 기초생활거점 : 장수군 장계면, 남원시 인월면·아영면
  -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자율개발, 산림휴양치유마을(산림청) : 주요유적지구와 기타 유적보존지역 등의 마을 발전방향에 따라 신청
  - 농촌다움 복원 : 전북가야 연계형 사업(2개 이상 복수 지역 참여) 추진 (백두대간의 과학왕국, 고대 동서교류 및 동서화합벨트, 농업유산과 가야유산의 연계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유형별 주요 사업 내용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참조)]

사업명	사업내용	
I 농촌 중심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150억원 ± α 이하 (국비 70%, 지방비 30%)</li> <li>* 사업비는 중심성 지수 및 배후마을과의 관계 등을 고려 개별 사업별로 조정 가능</li> <li>- 시군청 소재 읍, 地 중심지 연계시 + 30억원</li> <li>- 지역개발 전담 지원부서 개설시 + 10억원</li> <li>- 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계획 포함시 + 50억원</li> <li>- 사업비 10% 이상 전달 P/G 의무</li> <li>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li> <li>- 농촌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배후마을도 함께 지원)</li> </ul>	
II 기초생활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40억원 ± α 이하 (국비 70%, 지방비 30%)</li> <li>- 읍면 소재지(읍은 1,2계층 외에 한함), 또는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거점 신청 가능</li> <li>- 단계별 지원방식 도입</li> <li>- 1단계 거점 형성 완료 후 2단계 배후마을 연계사업 추진 시 : 최대 20억 추가 사업 가능</li> <li>- 기 구축된 거점이 있는 지구에 한해 2단계 사업부터 신청 가능(최대 20억, 2020년부터)</li> <li>사업기간 : 5년 이내(1단계) + α (2단계) 자율</li> <li>-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중심지 접근성이 제한적인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등</li> <li>* 지역소득증대(소득기반, 체험관광 등) 내용의 사업은 추진 불허</li> </ul>	
III 마을 만들기	①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10억원 이하 (국비 70%, 지방비 30%)</li> <li>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3년까지 단축 가능)</li> <li>* 체험·소득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사업부지 자부담 100%</li> <li>*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li> </ul>
	② 자율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5억원 이하 (국비 70%, 지방비 30%)</li> <li>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3년까지 단축 가능)</li> <li>* 체험, 소득시설의 경우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사업부지 자부담 100%</li> <li>* 다목적회관(농업인회관), 복지센터 등의 신축은 불가(리모델링(증개축 포함)은 가능)</li> <li>* 소득사업 포함시 소득사업은 2억원 이하로 제한</li> </ul>
	③ 산림휴양 치유마을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li> <li>- 기반 : 5억원 이하/ - 종합 : 10억원 이하</li> <li>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li> <li>- 산림 및 산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 단위 개발사업으로 배후 산림을 이용하거나 임산물을 활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li> <li>*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중 사전 이수요건 충족은 미적용</li> <li>* 사업종료 이후 동일 단계사업 재신청 또는 단계를 역행한 사업 신청 불가 (기반-진입단계, 종합-발전단계)</li> </ul>
IV 농촌다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 20억원 + α이하 (국비 70%, 지방비 30%)</li> <li>- 20억을 기본으로 하되 복수 시군이 참여시 30억까지 한도 증액</li> <li>사업기간 : 5년 이내 자율</li> <li>- 생태,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촌가치 보전에 차별성이 분명한 사업 우선 지원</li> <li>* 마을, 읍면, 시군 등에서 제한 없이 참여 가능, 2개 이상 복수 주체 참여도 허용</li> <li>*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하나, 마을 사업 완료한 마을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li> </ul>	

## 제2절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사업 개발

### 1. 전북가야 역사벨트 거점 조성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는 봉수와 철의 왕국이자 과거 동서 교류의 핵심 축. 장수가야는 육십령을 통해 경상가야와 교류하였고, 남원의 운봉가야는 치재를 통해 경상가야와 교류
- 장수가야와 운봉가야를 중심으로 동서 교류의 핵심 축이자, 전라북도 동부권 전역에 확장되어있던 전북가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북가야 역사벨트를 설정하고, 전북가야를 상징하는 분야별 유적을 중심으로 7개 시·군별 핵심공간을 조성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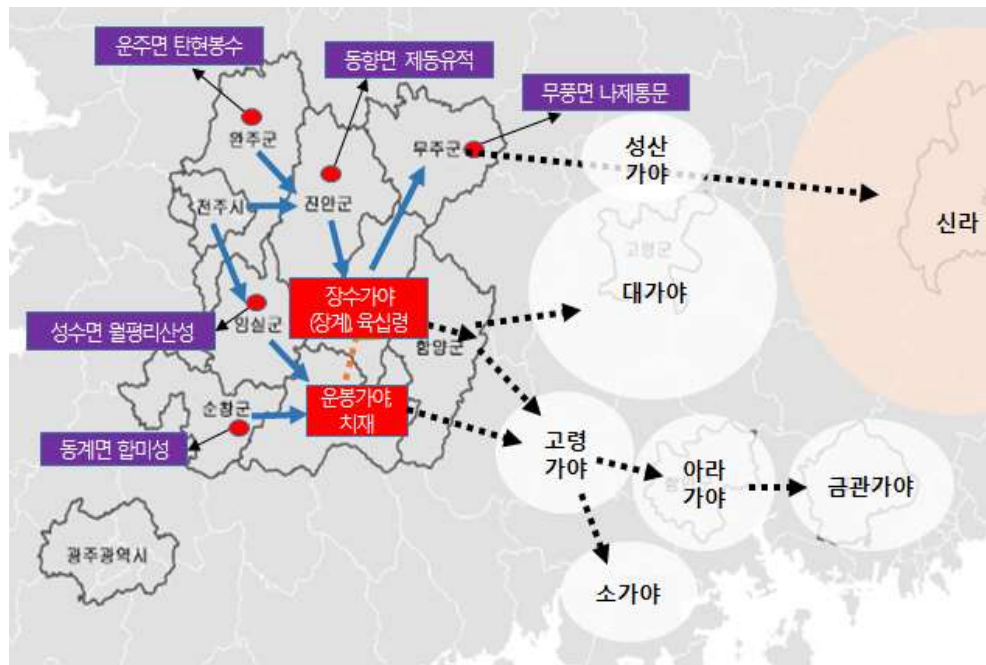
- 위 치 : 전라북도 7개 시·군
- 사업기간 : 2020~2025년(6개년)
- 총사업비 : 15,100백만 원(국비 7,000, 도비 100, 시군비 8,000)
  - 7개 시·군별 핵심유적 전시관 조성 : 14,000 (1개 소당 2,000)
  - 전북가야 역사루트 설정 및 통합 홍보마케팅 : 1,000
- 사업주체 : 전라북도, 7개 시·군(문화재청)

#### ■ 사업 내용

- 전북가야 핵심유적 중심의 역사루트 설정
  - 전북가야 역사벨트는 봉수왕국을 상징하는 봉수, 고대제철의 중심을 상징하는 제동

- 제철유적, 동서 교류의 핵심을 이루는 산성 및 교통로로 중심으로 구성
- 전북가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1개 소 지정 및 핵심시설 조성

구분	주요 거점
봉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주군 운주면 탄현봉수 (연대 온전하게 보존, 사적 지정 대상 유적)</li> </ul>
제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안군 동향면 제동유적(우리나라 최초 구리 생산유적, 사적 지정 대상 유적)</li> <li>· 장수군 장계면 대적골 제철유적(우리나라 최대 규모, 생산과 주조유족 보존)</li> <li>· 남원시 옥계동 제철유적(초대형 유적)</li> </ul>
산성/ 교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산성(내륙교통의 허브, 가야부터 조선까지 운영)</li> <li>· 순창군 동계면 함미성(전북가야 서쪽 경계)</li> <li>· 장수군 옥십령, 남원시 치재</li> <li>· 무주군 무풍면 나제통문</li> </ul>



○ 주요 거점별 전시관 조성

- 완주군 탄현봉수 : 고대봉수전시관 및 고대봉수탐방길 조성
- 진안군 제동유적 : 제동유적전시관 및 체험관 조성
- 임실군 월평리산성 : 월평리산성 복원 및 고대내륙교통전시홍보관 조성
- 순창군 함미성 : 함미성 일부 성곽 복원 및 안내체계 마련

○ 동서교류 역사문화 상징공간 조성

- 남원시 치재 : 전시홍보관(장수가야 홍보관) 및 동서교류 문화관 조성
- 장수군 육십령 : 백두대간 동서교류 문화관 조성 (육십령휴게소)
- 무주군 나제통문 : 삼국(백제/가야/신라) 교류 문화관 조성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5년까지 총 15,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5,100	-	100	3,500	3,500	3,500	4,500
국비	7,000	-	-	1,500	1,500	1,500	2,500
도비	100	-	100	-	-	-	-
시·군비	8,000	-	-	2,000	2,000	2,000	2,000
기타	0	-	-	-	-	-	-

○ 사적 지정에 따른 종합정비 사업, 전라천년문화권관광개발계획, 가야특별법에 의한 가야 문화권 정비 사업(기본계획 반영) 등을 활용

###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광역관광권개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li> <li>• 지원예산 :</li> <li>• 지원방법 :</li> </ul>
문화재청	사적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li> <li>• 지원예산 :</li> <li>• 지원방법 :</li> </ul>
국토교통부	가야특별법에 의한 가야문화권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li> <li>• 지원예산 :</li> <li>• 지원방법 :</li> </ul>

## 2. 한반도 최초의 봉수왕국 복원 사업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봉수왕국임을 상징하는 대중적 사업이 필요
- 현재까지 발굴된 봉수로를 활용하여 한반도 최초의 봉수왕국이 전북가야(장수가야)임을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봉수 복원 및 탐방, 봉수로 재현 사업을 추진
- 완주, 진안, 순창, 임실, 남원 등으로 이어져 장계로 집결되는 고대 봉수로를 재현하고, 과거의 봉수를 현재에 재현해보는 대중적 행사(축제)를 개최

### ■ 사업 개요

- 위 치 : 장수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주요 봉수유적
- 사업기간 : 2021~2023년(3개년)
- 총사업비 : 3,000백만 원(국비 3,000)
  -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사업 활용 (보조율 100%)
- 사업주체 : 7개 시·군(국토교통부)

### ■ 사업 내용

- 한반도 최초 고대봉수로 지도·책자 제작
  - 조사를 통해 한반도 최초의 봉수로를 확정하여 지도를 제작, 대중적으로 확산
  - 봉수가 장수가야로 집결된다는 점과 과거 봉수의 구조와 운영방식 등을 설명하는 '봉수왕국 전북가야'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
- 핵심 봉수유적을 중심으로 봉수 탐방콘텐츠 개발



- 봉수 복원 및 봉수꾼 거주지 재현을 통해 당시 봉수운영에 대한 체험 제공
- 주요 봉수유적을 연계하는 탐방로를 개발
- 고대봉수 시연 및 미디어콘텐츠 제작
  - 완주에서 시작되는 전북가야 봉수의 원형을 그대로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
  - 순차적으로 봉수가 시연되고, 이를 촬영하여 미디어콘텐츠로 제작: 방송 연계
- 장수군을 중심으로 고대봉수 재현 축제(행사) 개최
  - 봉수와 관련된 상황을 가상하여, 시간별 봉수를 재현하고 이와 관련된 상황을 장계 현장에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
    - \* (예시) 평사 시, 적 침략 시, 적 후퇴 시 등과 관련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맞춰 철기가야 생활재현, 적 침략 대비 전투 준비(침령산성 이주), 가야철기군 재현 등

## ■ 재원 투자계획

- 2021~2023년까지 총 3,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3,000	-	-	1,000	1,000	1,000	-
국비	3,000	-	-	1,000	1,000	1,000	-
도비	0	-	-	-	-	-	-
시·군비	0	-	-	-	-	-	-
기타	0	-	-	-	-	-	-

-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사업을 활용

[한반도 최초의 봉수왕국 복원 사업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li> <li>• 사업유형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지역개발 연계사업 등</li> <li>• 지원예산 : 단일 지역-20억원 내외(보조율 100%) 시군 연계-30억원 내외(보조율 100%)</li> </ul>

###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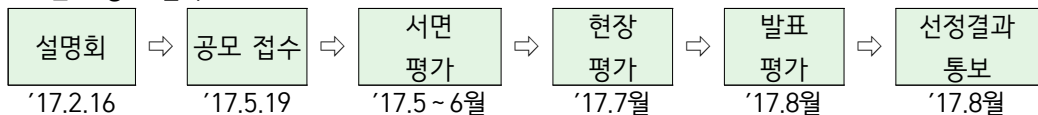
#### □ 추진 배경

- 기존의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대규모 SOC사업 위주에서 탈피,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기대

####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 \*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시·군('14년 재지정)
-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 사업유형 :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지역개발 연계사업 등
  - 특히, '17년도에는 복수의 시·군이 공동의 지역특화자원 등을 토대로 지역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지역개발 연계사업'을 도입(신규 유형)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개선사업, BIS 사업 등), 공모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22개 시·군(시도자율선정)
- (사업규모·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20억원(단일 시·군 사업), 보조율 100%
  - 지역개발연계사업(복수 시·군)의 경우 최대 약 30억원 지원(보조율 100%)
- (공모결과) '15년 공모시 신청사업 73개 중 총 26개 사업 선정, '16년 공모시 신청사업 71개 중 총 22개의 사업 선정
  - 서면평가·현장방문·사업 발표회를 거쳐 내용을 지속보완·개선

#### □ '17년도 공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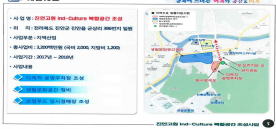









-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모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 □ 전북도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

-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지역활성화지역), 무주군, 장수군(지역활성화지역), 임실군(지역활성화지역),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 \* 지역활성화지역 : 도별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도별 시·군 중 30% 이내 선정)





구 분	[기존] 단일 시·군 사업	[신규] 지역개발 연계사업
지자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대상('14년 재지정 기준)	.성장촉진지역을 포함한 복수(2개 이상)의 시·군 대상(최대4개)
지원규모	.최대 약 20억원(보조율 100%)	. 30억원 내외(보조율 100%) - 연계 지자체의 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수	.약 15개 내외	.약 3개 내외
사업유형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 지역관광·체험 등	
사업예시	.주차장 등 지역산업 기반조성, 리모델링 등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지역간 축제·숙박시설 연계등 스토리중심 체험·관광프로그램

## ① 일반사업(20억원 미만, 15개)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조감도
태백	매봉산 슬로윌트레일 조성	태백을 대표하는 사계절 자연친화형 생태관광지 조성 (주차장 조성, 자작나무 숲길 생태탐방로 정비 등)	
영동	영동 햇살 다담(多談)길 조성사업	스토리가 있는 철도면 사면 정비로 문화관광자원 조성 (경부선 철도변 옹벽 정비, 다담길 정비 등)	
부여	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신동엽문학관 일대를 상상력과 사색이 살아있는 거리로 조성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 시인의 언덕 조성, 마을 갤러리 조성)	
임실	임실천 경관개선사업	식재, 스토리텔링 자원 활용을 통한 임실천 공원화 (임실천 천변공원화, 하천변 경관개선 및 보행안전 개선사업)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연중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체험형 관광지 조성 (짚트랙 설치, 캠핑파크 조성, 사계절 정원 조성 등)	
진안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	시장육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문화의 거리 조성, 휴식공간 설치 등)	
강진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쇠퇴지역 활력증진 (양곡창고 외관정비, 주차장 휴게공간 조성, 정원 조성 등)	
곡성	“6070 낭만곡성” 「영화路, 청춘어濫」	이분화된 관광지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허브공간 조성 (곡성 영화거리 조성, 창작 및 청년일자리 창출공간 조성)	
장성	원남골 도시락(圖市樂) 시간여행	노후된 옛 중심지의 주거 환경정비 및 경관조성사업 (문화 및 역사길, 상생장터 기반시설, 원남골 테마공원 조성)	
고흥	고흥군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 도모	

고령	대가야의 목금토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대가야의 역사자원을 도시활력의 자양분으로 활용 (문화시설 건축 및 경관개선, 가로경관 개 선 등)	
군위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방치된 폐교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기능 부여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다목 적 공원 조성, 체험팜 조성 등)	
봉화	‘역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운곡천을 중심으로 한 춘양면의 관광자원 발굴 육성 (백두대간수목원 첫걸음길, 역지춘양 다목 적광장 조성 등)	
고성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상족암군립공원 공룡탐방로와 연계한 인프라 정비·확충 (주차장, 지질 숲 탐방로, 공룡 탐방 로 등)	
산청	향노화 산들길 조 성사업	산재된 한방 향노화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구 심체 조성 (향노화 산들길 조성, 한방족욕장 조성 등)	

② 지역개발 연계사업(30억원 미만, 4개)

시·군	사업명	사업내용	조감도
단양 영월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 영월 한줄기 한자락	김삿갓 묘, 외씨버선길 등 도계지역 주변관광자원 연계 (연결로 설치, 캠프장 편익시설 정 비, 홍보관 설치)	
순창 담양	순담 Meta-Circle 프로젝 트	순창-담양군 간 국내 최장의 메타세 콰이어길 조성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순담 tour-station 설치 등)	
영양 영덕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	영양-영덕의 관광권역화를 위한 해 안·내륙자원 연계 (멸종위기종 자연생태 체험장, 산바 람·바닷바람 전망대 등)	
하동 광양	Re-花 萬事成 섬진강 여행 의 베이스캠프 조성	섬진강 여행의 통합관광거점 창출 (방문자센터, 이화만지 나루터, 입체 횡단 보행교 등)	

### 3. 장수가야-운봉가야 연계, 전북가야 마실길 개발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 주요 유적이 산 속에서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과 함께 천연의 산림자원을 연계할 경우 최상의 역사문화 걷는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장수가야와 운봉가야를 독립적으로 인식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전북가야의 쌍두마차로서 두 지역을 연계한다면 전북가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기존 전북의 '예향천리 마실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활용하여 장수가야와 운봉가야를 연계하는 걷는 길(마실길)을 조성함으로써 전북가야의 대중적 인식 확산과 함께 자연과 어울리는 새로운 유사관광 콘텐츠로서 활용



※ 자료 참조: 전북연구원(2011), 「전라북도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5쪽

## ■ 사업 개요

- 위 치 : 장수군 및 남원시 가야 유적 일원
- 규 모 : 장수군 가야마실길 및 남원 가야마실길 각 1개소

- 사업기간 : 2020~2022년(3개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국비 300, 도비 300, 시군비 400)
  - 남원 및 장수 가야마실길 개발 각 300, 남원·장수가야 연계 개발 400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 사업 내용

- 예향천리 마실길 연계, 장수가야 마실길 개발
  - 전라북도의 3대 마실길 중 백두대간 마실길과 장수군 자체 명품길과 연계하여 새로운 장수가야 마실길을 개발

[예향천리 마실길 3대 핵심권역]

구분	시.군	사 업 노 선	연장(km)
백두대간 마실길 (111km)	진안군	◦원덕현 → 구신치 → 상념북 → 중평 → 점촌 → 신리 → 원외궁 → 반룡 → 포동 → 풍혈냉천 → 양화 → 오암	29.0
	무주군	◦무주읍 서면마을 → 당산리 → 적상면 길왕리 → 서창마을 → 외사내 → 삼거리 (하가, 중가, 상가) → 안성면 사전리 → 금평리(수락, 덕곡) → 용추, 통안 → 명천마을 → 파암마을 → 장수면경계	45.0
	장수군	◦뜯봉샘(시점) → 수분령 → 바구니봉 → 방화동계곡 → 덕산제 → 덕산마을 → 지실가지 → 장안선능선 → 지소마을 → 도깨비동굴 → 희평마을 → 가재터널 → 지송마을 → 논개생개(주촌민속마을) → 동명마을 → 문성마을 → 당저(종점)	50.0

※ 자료 참조 : 전북연구원(2011), 「전라북도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0쪽

[장수군 명품길 현황]

시.군	사 업 노 선	연장
장수군	◦장수 향교(장수읍 장수리)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용림제 (장수읍 덕산리) → 덕산 용소(덕산리) → 방화동 휴가촌(번암면 사암리)	14km
	◦장수 노하숲 → 제2승마장 → 국제승마장 → 금강변 → 용광리 → 옥자동 → 계북면 월현 → 어전 → 당저	31km

※ 자료 참조 : 전북연구원(2011), 「전라북도 예향천리마실길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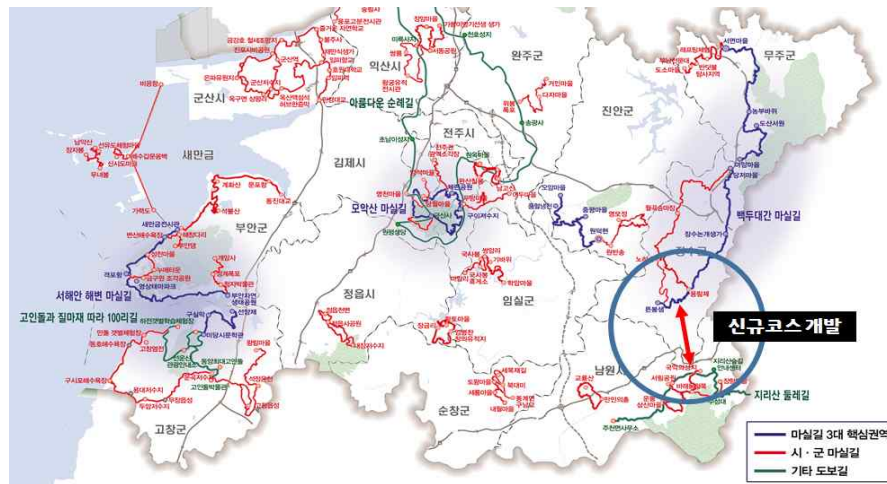
- 지리산 둘레길, 전라북도 마실길 등을 연계, 운봉가야 마실길 개발
  - 지리산 둘레길이 운봉가야 일원과 연계되어 있으나, 운봉가야의 핵심유적을 거쳐 가지 않음. 기존 지리산 둘레길 2번 코스와 주요 유적을 연계하여 개발





○ 장수가야 마실길과 운봉가야 마실길의 연계

- 기존 백두대간 마실길과 지리산둘레길 및 남원 명품길을 활용하여 장수가야와 운봉가야를 연결하는 마실길을 추가로 개발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2년까지 총 1,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000	-	100	700	200	-	-
국비	300	-	-	300	-	-	-
도비	300	-	50	150	100	-	-
시·군비	400	-	50	250	100	-	-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 사업인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활용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09년~단년도 계속</li> <li>○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li> <li>○ 지원조건 : 지자체 경상 및 자보보조(정률 50%)</li> <li>○ 추진체계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li> <li>○ 사업비('18년도) : 1,575백만원 - 1,575백만원(150~200백만원 × 10개소), 자본:경상 = 630백만원:2,205백만원)</li> </ul>		
지역	사 업 명	국비 지원액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1,800(자본 900, 경상 900)
부산	•갈대바람 타고 삼락습지 미로여행	210 (자본 140, 경상 70)
대전	•대청호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와 산책	340 (자본 40, 경상 300)
대구 달성	•천년의 용기(龍氣)를 품는 달성 옥연지	310 (자본 200, 경상 110)
강원 양구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	320 (자본 220, 경상 100)
충북 제천	•향(香)수(水)가 깃든 흑백숲으로	320 (자본 170, 경상 150)
전북 정읍	•술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170 (자본 90, 경상 80)
경북 문경	•길 위의 역사, 고개생태문화와 함께 하는 옛길	100 (자본 40, 경상 60)
경북 울진	•울진 금강송 힐링캠프	30(자본 -, 경상 30)
<야생화 관광자원화>		600
경기 파주	•파주 울곡습지 꽃가람 놀이배움터	경상 250
강원 춘천	•꽃피던 산골, 고향의 꽃 체험여행!	경상 200
강원 정선	•정선 천상(天上)의 도시락	경상 50
경남 남해	•팔색조 노니는 화전(花田)	경상 100



## 국토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환경부)

- 사업목적
  - 2020년까지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2,500km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탐방로 조성 소요 사업비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탐방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주관부처 : 환경부 생태서비스과(044-201-7518)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2017 국비 : 5,570백만원
- 주요사업
  -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보전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생태탐방로 설치·이용
  - 탐방지역의 보전가치, 생태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설치
  -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안) 마련('07.101)
- 추진경위
  - 국정과제로 생태탐방로 1,000km조성('12년까지) 선정('08.3)
  - 전국생태탐방정보 포털사이트 구축('08) 및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 제3절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 1. 전북가야의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 ■ 필요성 및 목적

- 일본사기의 반파국이라는 기록 외에 전북가야는 유적을 통해 역사를 정립해야 함. 이런 상황에서 전북가야를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 스토리텔링은 대중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대중의 눈높이에서 스토리를 확산시킴. 전북가야의 주요 유적에서 발굴된 유산 등을 소재로 전북가야의 위상(봉수왕국, 철의왕국, 기문국, 반파)을 제고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
- 대중적인 방식(예, 전국 공모)으로 전북가야만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텔링한 뒤, 콘텐츠(문학작품, 공연작품 등)가 개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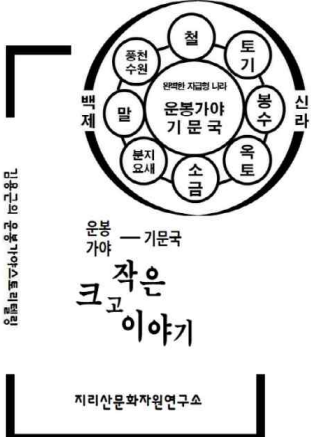
### ■ 사업 개요

- 위 치 : 남원시, 장수군
- 사업기간 : 2019~2021년(3개년)
- 총사업비 : 300백만 원(도비 100, 시·군비 200)
  - 전북가야 스토리 발굴 연구용역 100백만원
  - 전북가야 스토리텔링 공모전 100백만원 (연 1회 50백만원)
  - 전북가야 스토리 활용 콘텐츠 개발 100백만원 (연 1회 50백만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 ■ 사업 내용

### ○ 전북가야 스토리 발굴 연구 용역

- 전북가야(남원시, 장수군 중심)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전북가야 스토리 자원 발굴 용역 추진
- 가야 관련 지역주민이 기억하는 설화, 어릴 적 추억 등을 비롯하여, 전북가야의 특징인 봉수왕국과 철의왕국에 대한 스토리, 언론에서 전북가야를 소개한 기사, 학계에서 전북가야를 설명하는 내용, 발굴된 유산 등을 활용

전북가야 스토리 발굴 예시		
언론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수 고분서 튀어나온 1500년전 말재갈의 비밀</li> <li>- 한겨레신문 기사 : 장수 동춘리고분군 보도</li> <li>• 장수, 1500년전 백제의 변방이 아닌 가야의 중심지</li> <li>• 수백 개의 봉수가 장수로 향해 있다.</li> <li>• 남원~김해~동래... 가야사가 지역통합 열쇠?</li> <li>• 남원 운봉고원, 가야시대 기문국이 깨어나다</li> <li>• 가야와 백제, 그 조우(遭遇)의 땅 '남원'</li> <li>• 운봉고원에 묻힌 가야 무사 (남원 월산리 발굴 유물 특별전 제목)</li> <li>• 고대 철의 테크노밸리, 남원·장수 제철유적</li> <li>• 운봉고원, 가야시대 '포철단지'</li> </ul>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용근(남원시 공무원)의 운봉가야스토리텔링 「운봉가야 기문국」(전자책)</li> <li>• 20여 년의 자료조사와 구전 탐문 등을 통해 기문국으로 이야기되는 운봉가야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이야기화</li> <li>• 기문국 철도령과 염공주 이야기, 두락고분군의 비밀코드, 기문국 사랑유전자를 가진 모데미풀 이야기, 기문국 사람들의 잡곡식량이야기, 기문국과 말 이야기, 기문국 통치자의 모습, 기문국 주거 선택, 기문국 적 감시 레이더 봉수대 이야기 등 18편으로 구성</li> </ul>	

### ○ 전북가야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전 개최

- 발굴된 스토리를 활용하여 전북가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 전국 공모전을 통해 전북가야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발굴
- 연 1회, 2개년 동안 개최

- 전북가야 콘텐츠 개발 공모전

- 발굴된 스토리, 텔링된 스토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공모전
- 문학작품, 공연작품, 영화, 방송콘텐츠, 게임 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 제작 등에 대하여 전국 공모를 실시 : 연 1회, 2개년 동안 개최

(사례) 김해가야스토리텔링

- 김해가야스토리텔링협회 창립(2014)
  - 김해가야테마파크 개관 이후 스토리텔링 방향: 분권정치 실현한 김수로왕, 한반도 고대사의 첫 국제결혼, 철기생산국으로서의 위상과 4국 시대 주역, 한반도 최초 남방불교 전래 지역
- 
- 김해시는 금관가야 스토리의 핵심테마를 ‘사랑 이야기’로 설정
  - 부산스토리텔링협회 통해 김해 원도심 스토리지도 제작 : 가야의 사랑가 (Song&Road)라는 제목으로 제작
    - 테마1: 가락국 이천년 러브레이스]
    - 테마2: 황세, 여의와 함께 걷는 미로
    - 테마3: 김해의 또 다른 숨은 사랑가
    - 테마4: 김해의 자연 속 사랑가



※ 자료 참조: [www.kookje.co.kr/mobile/view.asp?qbn=v&code=0300&key=20160426.22009195703](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qbn=v&code=0300&key=20160426.22009195703)

(사례) 하동군 가야문화유산 스토리텔링

- 가락국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를 활용한 ‘칠왕자 캐릭터’ 개발
  - 칠왕자: 김수로왕과 허황옥 왕비 사이에서 낳은 10만 2년 중 일곱 아들. 지리산 화개골에서 정진수행 뒤 성불했다는 설화
  - 김왕광불, 김왕당불, 김왕상불, 김왕향불, 김왕성불, 김왕공불 등 일곱 왕자의 성불소 기을 듣고 수로왕이 크게 기뻐하며 큰 절을 지었는데 이 절인 지금의 칠불사
- “알프스 하동으로 가락국 칠왕자 만나러가요”

※ 자료 참조: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63348](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63348)

## ■ 재원 투자계획

- 2019~2021년까지 총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300	100	100	100	-	-	-
국비	0	-	-	-	-	-	-
도비	100	50	25	25	-	-	-
시·군비	200	50	75	75	-	-	-
기타	0	-	-	-	-	-	-

- 전라북도 스토리랩,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지역콘텐츠기업육성사업, 전라북도 웹툰체험관 등의 사업을 활용

[전복가야 기반,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콘텐츠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li> <li>• 지원사업: 유산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li> </ul>

## 2. 전북가야 테마, 문화유산4.0 실감콘텐츠 개발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 역사문화유산은 현재 대부분 발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가시적인 유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이 유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 어려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비가시적인 유적을 가시적인 유적으로 전환시키는 실감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실감 있는 유산관광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많은 지역에서 비가시적 역사유적을 가시적으로 전환하는 실감콘텐츠가 개발되었는데, 최근에는 단순한 복원만으로는 유산관광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한계가 커 다양한 스토리를 입힌 발전된 형태(스토리투어, 교육, 게임·스포츠 등)의 실감 콘텐츠가 개발됨
- 전북가야를 체험하는 복원 목적의 실감콘텐츠를 비롯하여, 철과 봉수 등 전북가야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4.0의 체험형 실감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 사업 개요

- 규모 : 주요 유적 복원 및 체험 실감콘텐츠 10건 이상 개발
- 사업기간 : 2020~2024년(5개년)
- 총사업비 : 5,000백만 원(국비 2,000, 도비 1,000, 시·군비 1,000, 기타 1,000)
  - 실감콘텐츠 1건 당 500백만원 추정 (콘텐츠의 운영·개선 포함)
- 사업주체 : 전라북도, 7개 시·군(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 내용

- 전복가야 주요유적 복원 실감 콘텐츠 개발
  - (예시) 유곡리·두락리고분군, 침령산성, 봉수로, 아막성, 삼봉리고분군 등 복원
- 전복가야 유산관광 및 유산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감 콘텐츠 개발
  - (예시) 해설이 있는 스토리 투어, 유산교육, 전복가야 스토리 활용 게임, 게임 및 스포츠 콘텐츠에서 전복가야 관련 상품 구매 가능한 환경 제공 등

콘텐츠 구분	내용
스토리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디오 해설이 겸비된 AR투어 앱(app)을 제작하여 전복가야 주요 유적 및 유물에 관한 큐레이팅을 제공함</li> <li>• 봉수왕국, 철의왕국, 기문국, 반파국 등에 대한 전복가야 스토리 활용 역사체험 VR 콘텐츠를 제작</li> </ul>
유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대간 과학왕국 전복가야의 우수성(고대통신과 제철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 관광객에게 가상 체험을 제공하고 교육교재로 활용</li> </ul>
가야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학생 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액션 롤플레이팅 게임콘텐츠를 개발함 (예: 봉수올리기 게임, 제철 및 철기 제작, 전복가야 관광 런닝맨 등)</li> <li>• 전복가야 철기 기마병 출정식을 모티브로 '기마병 레이싱'과 같은 VR게임 및 실내 놀이기구를 제작</li> </ul>
상품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 환경에서 쇼핑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복가야 시대 관련 기념품 및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 등 관련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li> </ul>

※ 자료 참조 : 익산시(2017), 「익산시 관광 마스터플랜」 참조 재구성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4년까지 총 5,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5,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2,000	-	400	400	400	400	400
도비	1,000	-	200	200	200	200	200
시·군비	1,000	-	200	200	200	200	200
기타	1,000	-	200	200	200	200	200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북도의 지역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활용

[전북가야 테마, 문화유산4.0 실감콘텐츠 개발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프로젝트 : 500백만원 이내 × 3개 과제 내외</li> <li>• 레벨업 프로젝트 : 300백만원 이내 × 10개 과제 내외</li> <li>• 정책과제지원 : 30백만원 이내 × 10개 과제 내외</li> </ul>
	•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 콘텐츠 × 400백만원 = 3,200백만원</li> </ul>
전라북도	• 1시군1콘텐츠 개 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li> <li>• 지원예산: 1,049백만원(2018년 기준) (도비 40%(425백만원) + 자부담(시군비+민간부담금 5% 이내) 60%)</li> <li>• 지원건수: 연 평균 2개 과제 내외</li> <li>• 지원분야: VR/AR 등 실감형 콘텐츠 분야 (지역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등을 활용)</li> </ul>
	•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주체: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li> <li>• 총사업비: 120백만원(국비) ※자부담 10% 이상</li> </ul>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선정 사례 (2017년 기준)]

구분	과제명	최종산출물
경남 (글로벌)	공룡 테마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전시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공룡과 조경으로 구성된 다이노가든, 기 보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체험존, 신규 개발 결과물을 활용한 VR 체험존으로 구성</li> </ul> 
경기 (레벨업)	우석헌 박물관 공룡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 전시 체험용 콘텐츠 : &lt;백악기 공룡 화석 속으로&gt;</li> <li>• 홀로그램 AR형 증강현실 콘텐츠 : &lt;Alive Psittacosaurus!&gt;</li> </ul> 
울산 (레벨업)	반갑다 고래야! ARVR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 5분 분량의 VR콘텐츠 2편</li> <li>• AR 체험콘텐츠 10편 내외(고래 3D AR 5편, 바다 생물 AR 5편, 나레이션 1편)</li> <li>• AR 브로슈어, AR·VR 제작과정 소재 TV 매거진용 1편</li> </ul> 



### 3. 전북가야 브랜드공연 및 예술행사 개발

#### ■ 필요성 및 목적

- 유산관광 활성화 요소로 '진정성', '교육성'이 꼽히나, 교육적 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관광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산관광에서는 '엔터테인먼트'가 강조됨
- 유산관광의 핵심요소를 만족시키는 대표 콘텐츠로서 예술 융합형 관광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연콘텐츠가 인기를 얻음. 지역별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입하고 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즐거운 체험상품'으로 지역브랜드공연 개발이 증가함
- 전북가야의 유산관광 목적으로서 예술을 활용한 행사 및 브랜드공연을 개발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남원시, 장수군
- 사업기간 : 2021~2028년(8개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4,000, 도비 1,000, 시·군비 5,000)
  - 브랜드공연 개발 및 상설공연 : 1,600백만원 ※ 연간 200백만원
  - 역사유적예술제(대지예술제·역사영화제) : 8,000백만원 ※ 연간 1,000백만원
  - 민간예술단체 전북가야 예술콘텐츠 개발 지원 : 400백만원 ※ 연간 50백만원
- 사업주체 : 남원시, 장수군(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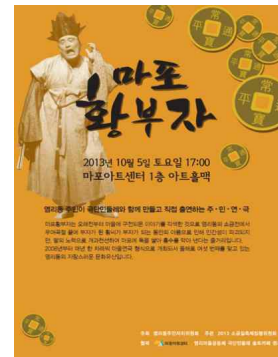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 전북가야 브랜드공연 개발 및 주말 상설공연
  - 전국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스토리를 활용 하여 장수가야, 운봉가야 주제의 브랜드공연 각 1건 개발

- \* 기존 브랜드공연 개발 및 지원 사업을 활용하거나, 기존 공연기관의 정기공연 등을 활용: (예)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창극공연, 한옥경관 활용 상설공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 등
- 전복가야 브랜드공연 '마을극단' 운영
  - \*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극단 창단 및 운영: 전문적 극단을 지향하기보다 주민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표하는 매개로서 기능하도록 운영
  - \* 지역 연극단체 및 공립예술단을 통한 대본 개발 및 단원 교육 지원

(사례) 「마포 사는 황부자」 주민 연극공연

- 2009년에 극단 민들레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주민이 협력하여 마을에 구전하는 한국판 베니스의 상인 '구두쇠 황득업'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
- 황득업에 관한 이야기는 기존에 '마포 황부자'라는 제목의 마당놀이 등으로 여러 차례 공연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극단 민들레의 단원들이 주요 배역을 맡고 주민들이 조연이나 단역으로 출연
- 참여 주민 중 72세 고령 포함, 마을축제에서 지속 공연



\*자료: [www.mdl.or.kr](http://www.mdl.or.kr)

○ 역사유적예술제 개최

- 관방유적을 활용한 대지예술제 개최: 장수가야와 운봉가야 지역 중심
  - \* (예) 유곡리·두락리고분군 등을 대상으로 대지예술 콘텐츠 개발, 예술제 진행
- 대지예술제와 병행, 역사영화제를 개최: 장수군과 남원시 순회 격년 운영
  - \* (예) 역사유적, 역사적 사건 등을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

(사례) 대지예술제 사례

- 일본의 대지예술제(좌), 영국의 Rural arts(중), 일본의 대지예술제(우)



## ■ 재원 투자계획

- 2021~2028년까지 총 10,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0,000	-	-	2,200	2,200	2,200	3,400
국비	4,000	-	-	1,000	1,000	1,000	1,000
도비	1,000	-	-	200	200	200	400
시·군비	5,000	-	-	1,000	1,000	1,000	2,000
기타	0	-	-	-	-	-	-

-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활용(전라북도), 비엔날레 개최 지원(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전라북도) 등 활용

[전복가야 브랜드공연 및 예술행사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비엔날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예산 : 군특회계 생활기반계정</li> <li>•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li> <li>-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 등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 결정</li> </ul> </li> </ul>
전라북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 840백만원(국비[기금] 600, 도비 240)</li> <li>• 사업규모 : 도내 5개소, 상설공연 100여회</li> <li>• 사업내용 : 한옥자원을 활용한 창작공연 제작 및 운영</li> <li>• 시행주체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li> </ul>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 702백만원(국비 351, 도비 351)</li> <li>• 사업규모 : 8개 내외 공연장 및 공연단체 지원</li> </ul>

## 제4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 1. 전북가야 유산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 유산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단체 방문객 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함
- 역사문화유적지는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 대학생, 어린이 동반 가족 등의 유산관광이라는 목적관광지로서 경쟁력이 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젊고 매력 있는 기념품을 개발함
  - ICT 기술을 융합해 자신만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생산과 구매가 확산되는 추세,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전북가야만의 독특한 기념품을 개발



3D프린터로 복원한 러시아 소수민족 바시키르인 전통장신구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2028년(10개년)
- 총사업비 : 1,900백만원 (국비 800, 도비 200, 시·군비 800, 기타 100)
  - 투어상품·볼런투어리즘·발굴현장 체험프로그램 등 개발 : 100백만원 (연구용역)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 1,600백만원 (연간 200백만원, 8개년)
  - 전북가야 기념품 개발 : 200백만원
- 사업주체 : 7개 시·군(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 ■ 사업 내용

### ○ 전북가야 유산관광 투어상품 개발

- 단계별 투어상품 개발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산과 향후 사적 지정을 추진하는 유적을 중심으로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전북가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상품을 발굴 (예, 유적과 둘레길 연계 상품,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상품 등)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도로 유산관광 투어상품 개발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공모 선정 및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대상)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중 시·도 추천 대상</li> <li>· (선정규모) 10개 프로그램(기존 5개, 신규 5개)</li> <li>· (지원기간) 당해년도</li> <li>· (지원규모 / 지원대상) 500백만원(프로그램당 5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li> </ul> </li> <li>* (기본) 프로그램 개발·기획·운영비 지원, (추가)프로그램 진단·컨설팅, 홍보 등</li> </ul>				
지역	테마	지역·핵심자원	중점수행기관	비고
강원 강릉	인물이야기	강릉 신사임당, 허난설헌	강릉문화재단	'16~'17년
전북 전주	생활문화(한옥·한복)	전주 유네스코 유산	전통문화 연구소	'16~'17년
광주 광산	선비문화(서원)	광주 월봉서원	교육문화공동체결	'16~'17년
경북 경주	역사문화유적지	경주 신라문화유적	신라문화원	'16~'17년
경남 산청	생활문화(한방)	산청 한방테마파크	한방약초힐링산업육성사업단	'16~'17년
전남 해남	전통예술(수목화)	해남 녹우당, 일지암	행촌문화재단	'17년
울산 울주	전통공예(옹기)	전통 옹기가마	울산옹기축제추진위원회	'17년
경기 강화	문화유적, 전통공예	강화 고인돌	우리문화재보호회	'17년
부산 동래	전통민속, 생활문화	부산 동래일원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17년
경북 영주	선비문화(서원)	영주 선비촌	한국선비연구원	'17년

### ○ 불런투어리즘 도입

- 불런투어리즘(voluntourism) : '자원봉사자(volunteer)', '관광(tourism)' 합성어로, 자원봉사를 겸하는 관광을 의미하며, 2000년대 이후부터 NGO, 학술단체, 여행사 등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 청소년 및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전활동 관련 불런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고, 해당학교 및 기관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학습, 봉사, 관광이 결합된 투어 프로그램을 도입

(사례) UNESCO 세계유산자원봉사단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지에서 세계유산의 보전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청년들의 주체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 만 18세 이상의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워크캠프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 활동, 보전, 보수 활동, 세계유산 교육활동 등을 수행
  - UNESCO 세계유산자원봉사단은 국제적인 차원의 민간교류 프로그램이며, 신청에 합격한 참가자들은 전 세계 12개국에서 활동 종료 후 인증서를 수여



※ 자료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원봉사단(www.1.or.kr/whv)

○ 전북가야 발굴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적발굴 현장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큰 발굴현장을 단체관람객에게 개방
- 유산관광 투어상품의 일환으로 개발,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 (해설사 동행)

전북가야의 국민적 관심유도를 위한 문화재청 계획

□ 사업내용

- 가야 문화재 알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육청과 연계, 학생 문화재지킴이 및 가야문화교실 운영
- 가야유적 발굴현장 탐방 및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 상시·주기적 발굴현장 공개 및 지역주민 대상 공개 발굴현장설명회 개최
- 가야 문화유산 전문가 강연 및 전시관 운영
  - 가야사 특별강연 및 발굴유물 기획전시 실시
- 생생문화재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 김해시 “Talk하면 통하는 생생가야나들이” 등 지자체, 국립박물관과 연계 추진

□ 주요 추진일정

- 가야 역사문화체험 연계프로그램 확대 : 2017~2022년 (계속)
  - 교육청 연계프로그램 운영 : 연 4회 가야문화교실 및 지킴이 활동
  - 발굴현장 탐방 및 공개 : 연 2회 이상 발굴조사 현장별 실시
  - 강연 및 전시 : 연 2회 이상 실시
  - 생생문화재 사업 연계 : 연 3~4건 지역별 실시

## ○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활용하여 전북가야 주제의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개발
- 남원시는 '신관사또 부임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장수가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 \* (예) 봉수로 재현 행사(공연), 또는 장수가야 기마전투 재현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현황(2017년 기준)]

시도	시군	프로그램명	사 업 비				
			계	국비	시도	시군구	민간
합 계			3,534.2	660	312	2,259.2	303
부산	-	토요상설전통민속놀이마당	110	44	66	-	-
대구	-	옛 골목은 살아있다	88	44	44	-	-
울산	-	태화루 누각 상설공연	92	44	48	-	-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상설한마당	388	44	22	22	300
강원	강릉시	강릉 관노가면극	88	44	-	44	
	정선군	정선 아리랑극	1,141	44	-	1,097	-
충북	영동군	난계국악단 상설공연	88	44	-	44	-
충남	공주시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	200	44	44	112	-
	서산시	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	168	44	44	80	-
전북	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사	127	44	-	83	-
전남	임실군	임실 필봉 GOOD 보러가세	91	44	-	44	3
	나주시	천년의 나주 樂 풍류열전	88	44	-	44	-
경북	안동시	하회별신굿 탈놀이공연	484	44	44	396	-
경남	진주시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137.2	44	-	93.2	-
	하동군	화개장터 최참판댁 주말공연	244	44	-	200	-

## ○ 전북가야 기념품 개발

- 전북가야 중심에 지역문화를 연계하여 ICT와 융합한 기념품을 개발
- 개별 여행객,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기념품 제작
- \* (예) 초콜릿으로 만든 전북가야문화유산,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유곡리·두락리고분군 금동신발, 내 얼굴이 들어간 전북가야장군 피규어, 가야어벤져스 피규어·스토리북 등



3D프린팅 활용한 피규어 제작 장비 및 제작 모습

-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 지원: 사회적 기업 또는 민간 기업, 창업 지원 등

(사례) 3D프린터를 활용한 기념품



※ 실제 아이 얼굴을 집어넣어 만든 어린이집 졸업기념 피규어(좌), 아이언맨 등 캐릭터에 실제 얼굴을 넣어 프린팅한 피규어 (우)

## ■ 재원 투자계획

- 2019~2028년까지 총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900	-	100	400	200	200	10,00
국비	800	-	-	100	100	100	500
도비	200	-	100	100	-	-	-
시·군비	800	-	-	100	100	100	500
기타	100	-	-	100	-	-	-

- 문화체육관광부의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홍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사업 등을 활용

[전복가야 유산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50%)</li> <li>• 사 업 비('18년) : 660백만원</li> <li>• 사업내용 : 지역전통예술 공연,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운영비 및 홍보·마케팅비), 프로그램당 44백만원</li> </ul>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 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대상 :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시도 추천대상)</li> <li>• 선정규모 : 10개 프로그램(기존 5개, 신규 5개)</li> <li>• 지원기간 : 당해년도</li> <li>• 지원규모 : 500백만원(프로그램당 50백만원)</li> </ul>



## 2.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개최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의 대중적 인지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 발굴·보존 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야왕국 체험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이미지 메이킹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 개최가 필요함
- 전북가야의 정체성 확립 및 계승을 위해 역사, 자연, 문화가 융합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력형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 중심지, 전북가야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7개 시·군
- 사업기간 : 2021~2022년(2개년)
  - (2021년)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 마스터플랜 수립(상반기)
  - (2021년)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실시(하반기)
  - (2022년)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 사업 실시, 사업평가(1년간)
- 총사업비 : 2,000백만 원(시·군비 2,000)
- 사업주체 : 7개 시·군

### ■ 사업 내용

- 전북가야 방문의 해 선포식
  - 선포식은 전북가야 7개 시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며 시기적으로

는 2021년 1월 혹은 3월경 선포식을 시행. 개회선언, 전북가야 홍보영상물 상영, 축하공연, 캐릭터 소개, 전북가야 1년간 행사 및 이벤트 소개 등

○ 개막식

- 인지도 높은 대중적 인물이나 지역 대표 스타 등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며 언론기관 초청하여 대내외 홍보

○ 축제 및 이벤트

- 전북가야 관련 축제 및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개발·개최하여 방문의 해를 홍보하며 방문의 해 기간 중 7개 시·군 대표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 강화
- 월별 시군 방문의 해 지정 :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를 7개 시·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유적·유물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연계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방문의 해 시군 월별 개최(예를 들면, 5월 남원, 6월 임실 등)

(사례) 2014 지리산권 방문의 해

- 참여 지자체 : 지리산권의 3도(전남, 전북, 경남) 7시군(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은 1998년에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를 결성
- 사업 목적
  -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
  - 지리산권 방문의 해를 개최하여 지리산권 관광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2014(3년간)
  - 사업비 : 3,640백만원(국비 1,445백만원, 지방비 2,195백만원)
- 사업 계획
  - 지리산권 관광기반 조성의 성과 집약 및 지리산권 관광의 이슈화
  - 관광객, 주민, 관광업체, 지자체등 다양한 주체의 입체적 참여 유도
  - 문화유산해설사 및 관광종사원 소양교육 및 관광서비스 메뉴얼 제작
  - 한국관광공사의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이벤트 유치·개최
  -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체험투어 등 이벤트 개최



[지리산권 방문의 해 로고]



[지리산권 방문의 해 홍보 포스터]

## ○ 조직구성

-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 사업은 7개 시·군 중심으로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등은 후원
- 추진조직은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되며, 전북가야 7개시군 문화관광과 중심으로 협의회 설립
- 추진기획단은 사업 총괄·추진하는 조직이며 기획, 상품개발, 홍보, 행사운영 4개 팀으로 구성하며 자문단 구성은 방문의 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
- 2022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는 사업의 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관계기관·단체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담당
- 추진기획단은 사업 계획의 추진 및 집행, 문화행사 주관 및 지원, 홍보 지원 활동, 관광안내 지원 담당

## ■ 재원 투자계획

- 2021~2022년까지 총 2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2,000	-	-	150	1,850	-	-
국비	0	-	-	-	-	-	-
도비	0	-	-	-	-	-	-
시·군비	2,000	-	-	150	1,850	-	-
기타	0	-	-	-	-	-	-

### 3. 전북가야 역사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의 유적·유물을 활용한 지역 대표 축제 마련을 통해 전북 가야에 대한 인 지도를 제고시키고 지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함
- 전북가야의 강점인 봉수·철 등을 중심으로 신규 축제를 개발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자원(예, 장수의 말)을 연계하는 축제를 개발하되, 전라북도 통합축제를 개발하거나 시군별 기존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 사업기간 : 2021~2028년(8개년)
  - 2020년 : 전북가야 축제개발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시범사업 진행
  - 2021년 이후 : 전북가야 축제 매년 개최
- 총사업비 : 2,400백만원 (국비 1,200, 시·군비 1,200)
- 사업주체 : 남원시, 장수군(문화체육관광부)

#### ■ 사업 내용

- 장수가야 '빛(봉수)과 불(제철)' 활용한 축제 개최
  - 장수가야의 봉수와 제철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 장수 말산업과 연계하여 장수가야 왕국의 과거를 재현하는 축제프로그램을 운영
  - 봉수와 제철 상징하면서 빛과 불을 활용한 대표적인 축제상징공간을 조성, 장수가야축제만의 브랜드로 개발
    - \* (예) LED를 활용한 빛의 정원, 레이저와 홀로그램을 이용한 장수왕궁 복원 등

## (사례) 동대문DDP LED 장미정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2014년 10월 DDP에서 열렸던 글로벌 브랜드 오메가(OMEGA)의 신제품 런칭쇼에서 선보였던 LED 장미 설치작품을 오메가 측이 행사 이후 DDP에 기증하게 되면서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부각됨
- 장미정원은 총 2만 5,550송이의 LED 장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조명에 비해 수명이 길어 교체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LED조명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전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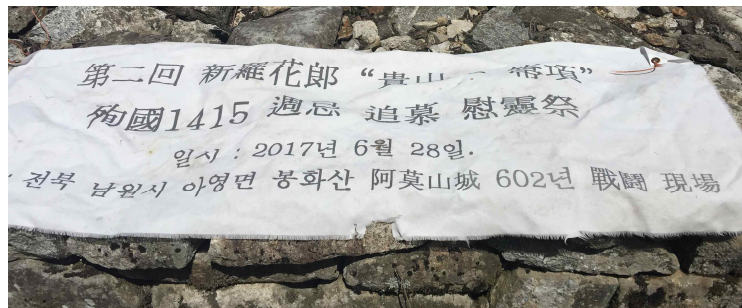
※ 자료출처: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4000219&md=20141215003103\\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4000219&md=20141215003103_BL)

## ○ 운봉가야 제천의식 복원 및 정례 재현 행사 개최

- 운봉가야가 고대왕국임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면서,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운봉가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운봉가야(기문국) 제천의식(일명 기문국 제천제)을 발굴하고 정례적으로 개최
- 고분군의 주인들을 기리고, 기문국의 현대적 계승을 기리는 축제로 발전

## (사례) 아막성 화랑 추모 위령제

- 602년, 신라와 백제가 아막성에서 전투. 이때 활약한 사람이 삼국사기 열전에 등재되어 있는 화랑 귀산과 추향. 귀산과 추향은 귀산의 아버지가 백제의 계략에 빠졌을 때 귀산과 추향이 단기 필마로 백제군에 맞서다 장렬히 전사(삼국사기)
- 현재에도 귀산과 추향을 기리는 제례가 민간에 의해 진행



## ■ 재원 투자계획

- 2021~2028년까지 총 10,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2,400	-	-	300	300	300	1,500
국비	1,200	-	-	150	150	150	750
도비	0	-	-	-	-	-	-
시·군비	1,200	-	-	150	150	150	750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공공디자인 진흥',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산확보를 추진

[장수가야 역사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계정 : 관광진흥기금</li> <li>지원예시 : 2018년 사업으로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 300백만원 지원</li> </ul>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축제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li> <li>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권역 단위 농촌 축제(시장· 군수, 축제추진 마을)</li> <li>전담기관 : 시장· 군수</li> <li>2017년 국비 : 500백만원</li> <li>지원현황 : '17년도 57개소 사업에 대해 1,000백만원 지원(지방비 포함)</li> </ul>

## 4. 전북가야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라는 명칭은 전라북도 내에서 일부 정책적 용어로만 사용되고 있고 공식적인 브랜드로 정착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장수, 남원 등을 비롯하여 7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가야를 소개하고 있고, 통합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음
- 전북가야라는 통합된 브랜드 구축이 필요하고, 각 시군의 특성을 살린 지역별 홍보체계를 비롯한 전라북도 전체 가야를 총괄하는 통합 홍보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문화유산 브랜드(특히 유산관광)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방안이 필요함. 젊은 개별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유산관광이라는 목적형 단체관광객의 특성에 맞추는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구체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파워블로거, SNS 홍보단 육성 등)와 유명인(셀러브리티)을 활용한 홍보, 학생들을 활용한 서포터즈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통합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 규 모 : 전북가야 통합브랜드 개발, 통합홍보계획 추진
- 사업기간 : 2020~2028년(9개년)
- 총사업비 : 1,000백만 원(도비 500, 시·군비 500) ※ 연간 100백만원
  - 2020년 소요예산 : 통합CI 개발 100백만원
    - \* 2019년 전북가야의 스토리 개발 이후 2020년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에 의뢰
  - 2021년 이후 연간 소요예산 : 100백만원

- \* 파워블로거·SNS홍보단 연간 10(파워블로거 팸투어 등), 셀러브리티 홍보대사 위촉 50(1명), 다큐제작 및 교류행사 30(미디어콘텐츠 제작, 호영남교류행사 등), 학생서포터즈 10(운영비) 추정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주관 : 홍보진흥사업 위탁운영기관 지정

## ■ 사업 내용

- 전북가야 통합CI 개발 및 진흥

### (사례) 김해가야테마파크 캐릭터 개발 및 이름 공모

- 김해가야테마파크는 2017년 5월에 금관가야의 '수로왕'과 부인 '허왕후'를 모티브로 하여 캐릭터를 개발, 홍보에 활용
  - 캐릭터 조형물, USB· 보조배터리 상품화 등에 활용
  - 방문객 대상으로 캐릭터 이름 공모전도 시행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수로왕' '허왕후' 캐릭터]



- 파워블로거 및 SNS 홍보단 육성

-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 준전문가를 블로거와 SNS 홍보단으로 임명
  - \* 역사학도와 해설사 등 준 전문가를 온라인 네트워크 정보 제공자로 구축
  - \* 일반 상식 이상의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
- 기존 온라인 유력자 활용
  - \* 파워 블로그 및 SNS 인플루언셜을 대상으로 팸투어 개최



- \* 팸투어로 전복가야 체험기회를 제공한 후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경험 게재 유도
- 장기적으로 유학생 활용한 해외 마케팅 실현
  - \* 유학생을 홍보단으로 임명, 외국인으로서 느낀 소감을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 하여 자국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
  - \* 자국의 블로그나 SNS를 활용하여 효율성 증가, 대표적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중국 '웨이보', '웨이신', 일본 'mixi', '모바게타운', 'GREE', 영어권 '페이스북', '트위터'

(사례) 삼성그룹 열정기자단



- 삼성그룹은 대학생들 열정기자단으로 임명, 삼성그룹 계열사 및 각종 행사, 관계자 정보를 기사형식으로 제공함
- 열정기자단과 서포터즈, 글로벌 리포터로 구성된 영삼성 구성원들은 영삼성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게재 하여 정보를 확산시키고 있

- 다양한 셀러브리티 홍보대사 위촉
  - 지역에 연고를 둔 연예인 또는 기타 유명인을 활용
  - 유산관광 및 유산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역사학과 관련된 방송인 등을 활용
  - SNS 분야의 인플루언셜 홍보대사 위촉
    - \* 인플루언셜은 SNS 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력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오프라인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SNS에서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인도 유력자임
- 미디어 콘텐츠 활용, 전복가야 브랜드 확산
  - 다큐멘터리 제작
  - 호영남 교류의 원조, 호영남이 함께 만드는 콘서트
- 학생 서포터즈 발족
  - 중.고등학생 서포터즈 구성
    - \* 한국사를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구성함. 전복가야유적을 방문하여 학교에서 배웠던 가야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감회를 전파
  -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
    - \*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공익적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여 의미를 부여

- 자원봉사 점수 부여

- \* 학생 서포터즈에게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여 행사 참여 등을 독려
- \* 개인 블로그나 SNS 활동도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자원봉사 점수 부여

(사례) 문화재청의 한문화재 지킴이

-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한문화재 지킴이’
  - 문화재를 통해 공동체 문화 건설
  -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의 주변 정화활동
  - 예방적 차원에서 문화재를 관찰하고 보호하는 모니터링활동
  - 문화재를 소개하고 보호하는 소개활동



■ 자원 투자계획

- 2020~2028년까지 총 1,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000	-	100	100	100	100	600
국비	0	-	-	-	-	-	-
도비	500	-	50	50	50	50	300
시·군비	500	-	50	50	50	50	300
기타	0	-	-	-	-	-	-

- 총 사업비 중 50%는 도비, 50%는 시·군비 매칭

## 제5절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

### 1. 전북가야학의 정립 및 진흥

#### ■ 필요성 및 목적

- 가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업추진과 전북가야의 보존·활용 사업을 기회로 삼아 전북가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함
- 산재해 있는 전북가야 유적을 발굴한 이후에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면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뒷받침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해짐. 따라서 유적의 조사·발굴과 병행하여 전북가야의 이론적 토대 및 이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가야의 역사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야학을 정립하고 있으나, 이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가야를 다루며, 특히 경상가야를 중심으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함
  -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가야학 관련 사업은 대부분 경상가야를 중심으로 진행됨

#### 문화재청의 2018년 가야문화권 사업 중 '가야문화 심화연구'

##### □ 사업목적

- 가야 유적·유물에 대한 심화 및 비교연구를 통한 가야사 실체 규명
- 고대사 재정립을 위한 가야 소국의 형성·발전, 물질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 □ 사업내용

- 가야연맹체 사회경제 네트워크 형성 및 물질문화 전개 과정 연구
  - 가야문화권별 토기 표준분류안 제시 및 공간적 분포패턴 연구
  - 토기, 철기 등 가야 유물 생산기술 및 유통시스템 연구
  - 영·호남 가야 고분 입지환경 및 축조기법 비교 연구
- 대내외 교류관계 및 해상로 복원 연구
  - 국외 가야 관계 유적·유물 분포현황 조사 및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고고자료 기반 가야 대외교류 규명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전북가야와 관련된 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00건에 불과함. 논문이 부족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북가야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임. 유적의 조사·연구·발굴에 필요한 인력뿐 아니라, 조사·연구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해석하여 전북가야 학으로 정립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시급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 거점연구기관 지정)
- 규 모 : 전북가야학 거점기관 1개소 지정 등
- 사업기간 : 2020~2028년(9개년)
- 총사업비 : 1,000백만 원(도비 500, 민간 500) ※ 지정된 거점기관 매칭
  - 연간 100백만원 (거점기관 지원 : 논문지원, 출판, 학술대회 등)

[전북가야학의 정립 및 진흥 사업 연간 사업비]

사업명	금액(천원)	내역	비고(일정)
계	100		
전북가야학의 정립 및 진흥	100	• 자료수집/아카이브 10,000 × 1식 • 전북가야 논문 지원 2,000 × 10건 • 전북가야 총서 출판 5,000 × 2건 • 국내학술대회 10,000 × 1건 • 국제학술대회 50,000 × 1건	2019.01.~12.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전북가야학 진흥 지정 거점기관 (위탁)

## ■ 사업 내용

- 전북가야학 진흥 거점기관 지정
  - 전북가야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관련 연구를 총괄 기획하는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전북가야학 진흥사업을 총괄하도록 지원
  - \* 전라북도 내·외에서 활동하는 가야 연구단체 등과 연계하는 거점기관으로서 활동: 지역

연구기관별 연구 및 활동을 연결하고 공동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 전북가야학 관련 국내·국제 연구네트워크를 구축
  - \* 전북가야학의 가야학의 이론과 가치 및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기획 및 역할을 조정하고, 전북가야와 관련한 지자체·연구단체·국외기관 등과 학술연구 및 교류를 담당
- 전북가야학에 대한 DB·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콘텐츠에 대한 자료를 제공
  - \* 전북가야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를 수행

○ 전북가야학 연구(논문) 지원

- 봉수왕국, 철의왕국 등과 관련한 전북가야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거나, 전북가야의 DNA를 정립하는 연구 및 전북가야를 활용하여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실용적인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 전국 공모 통해 우수 연구계획을 지원하고, 연차별로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자리 마련

○ 전북가야학 국내·국제 학술회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

- 전북가야학의 정립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각각 연 1회 개최
  - \* 지역사적 의미로서의 전북가야학이 아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사적 가치와 의미규명을 통한 전북가야학의 역사적 학문 토대를 구축
- 전북가야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 추진

(사례) 지역학 관련 연구 및 학술대회

□ 신라학 국제학술회의

-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개최
  - 1회 2007년 세계 속의 신라·신라 속의 세계
  - 2회 2008년 실크로드와 신라문화
  - 3회 2009년 신라, 세계 속의 인물
  - 4회 2010년 7세기 동아시아의 신라
  - 5회 2011년 동아시아 속의 신라 도성 복원 문제
  - 6회 2012년 삼국사기 정덕본 간행의 역사적 의미
  - 7회 2013년 신라국학의 수용과 전개
  - 8회 2014년 신라학과 장안학의 관계연구(중국 장안개최)

□ 중국 장백산문화연구회

- 장백산문화연구회설립 후 백두산중국화전략, 관광산업전략 등 개발
  - 백두산(장백산)으로 포괄된 공간의 역사, 문화, 산업, 관광전략
  - 한민족의 백두산을 만주족 역사문화상징으로 변화시켜 중국문화자원 전략마련
  - 백두산관광자원개발 근거 이론
- 백두산을 중국 장백산으로 변화시켜 대규모관광문화산업진행
  - 중국 동계스포츠리조트 및 관광자원 개발
  - 백두산 광천수, 인삼, 백두산특용작물 산업극대화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8년까지 총 1,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000	-	100	100	100	100	600
국비	0	-	-	-	-	-	-
도비	500	-	50	50	50	50	300
시·군비	0	-	-	-	-	-	-
기타	500	-	50	50	50	50	300

- 총 사업비 중 50%는 도비, 50%는 지정된 거점기관에서 매칭

## 2. 전북가야 지역주민 역량 강화

### ■ 필요성 및 목적

- 유적지구 및 인접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광만족도 제고 및 체류관광 확대에 기여
- 주민 스스로 목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가야역사유적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인드 제고 필요
- 지역주민들에게 일회성 교육이 아닌 사업기간 내 지속적인 교육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주민의 흥미유발과 더불어 교육의 질도 고려하여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0~2028년(8개년)
- 총사업비 : 400백만 원(시·군비 400) ※ 연간 50백만원
- 사업주체 : 7개 시군

### ■ 사업 내용

- 가야역사유적관광 기반 지역민 Host mind 향상
  - 7개 시군 중 유적 관련 지역민 대상 정례 학습프로그램 제공 및 교류회 운영
  - 유적관광과 직·간접 연관된 지역민, 해설사, 서비스업 종사자, 민간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가야역사유적관광에 대한 전문성, 서비스 마인드, 주인의식 함양
- 가야역사유적마을 ‘이야기 어르신(가칭)’ 양성

- 가야역사와 관련된 교육·교훈적,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여 가야역사지구 인근 마을 관광재미를 배가시키는 가야지기로 활용

(사례) 이야기할머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사업계획 수립,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국인성교육연수원에서 사업 주관</li> <li>▪ 현황 : 제1~6기 이야기할머니 2,100여명, 전국 6,008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활동</li> <li>▪ 자격요건 : 만56세 이상 ~ 만70세 이하</li> <li>▪ 교육과정 : 신규교육(국학진흥원 2박3일), 월례교육(월 1회, 6개월간 권역별 교육장)</li> </ul>	
<p>자료: 한국국학진흥원(<a href="http://www.koreastudy.or.kr">http://www.koreastudy.or.kr</a>)</p>	

○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주민교육은 가능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론 위주의 교육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행하도록 함
- 교육전문기관 및 대학 등 위탁교육기관에 의뢰하거나, 교육주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구성하고 토론 강사들도 최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함

구 분		내 용
리더교육	리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 유도해 낼 수 있는 갖춘 가야역사 리더자 육성</li> <li>• 가야역사유적지구 관련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가야 지킴이 리더 양성</li> </ul>
주민교육	전문가 초청교육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야역사유적지구를 이해하고 지역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주민 의식제고, 역량함양 및 동기부여</li> <li>• 가야역사와 관광객 대응 방안 관련 전문가와 타 지자체 세계유산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현지 교육 실시</li> </ul>
선진지 견학	국내외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세계유산 선진지 견학</li> </ul>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8년까지 총 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400	-	50	50	50	50	200
국비	0	-	-	-	-	-	-
도비	0	-	-	-	-	-	-
시·군비	400	-	50	50	50	50	200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활용

### [전복가야 지역주민 역량 강화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사업 (2134-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전통문화과)</li> <li>• 사업규모 : 250명 신규양성 및 2,700명 현장 활동</li> <li>•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li> <li>•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국학진흥원, 17개 시·도 지자체</li> <li>• 사업내용 : 소양을 갖춘 여성 어르신을 선발·교육, 전국 유아 교육기관에 파견,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li> <li>• '17년 예산 : 84억원(국비 78억, 지방비* 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할머니 활동비의 10% 부담액</li> </ul> </li> <li>• 지원대상 : 만 56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 기본적 인성을 갖추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학력, 경력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 선발인원은 지역별 수요기관 등 감안 배정</li> </ul> </li> <li>• 추진방식 : 1차 년도 선발양성 후 차년도 파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방식 : 1차년도 선발양성(만 56 ~ 70세 / 72시간 교육) 후 차년도 활동</li> <li>- 활동횟수/지원 : 1인당 주 2 ~ 3회(3개소), 연간 78회 파견 / 1회 파견 35,000원</li> </ul> </li> </ul>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 044-203-2554)</li> <li>• 지원대상 : 전국의 사업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기관·시설</li> <li>• 전담기관 : 생활문화진흥원</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서민주택, 농산어촌 등) 주민 참여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문화 회복 및 지역변화 유도</li> <li>-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연극, 합창, 주민악단, 마을영화만들기, 시 창작, 축제 등)</li> <li>- 지원현황 : '17년 27개 단체 1,080백만원 지원</li> </ul> </li> </ul>

### 3. 전북가야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및 배치

#### ■ 필요성 및 목적

- 가시적인 유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가야를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북가야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쉽게 설명해주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해설사가 필요함. 특히 '유산관광'(heritage tourism)에서는 전문적인 해설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기초연구로 발굴되고 텔링(Telling)된 스토리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함. 기존에 운영되던 문화관광해설사와는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더 전달해야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어야 함
- 시·군별로 양성하면 제공되는 해설 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생길 수 있고, 왜곡된 역사·문화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통합적으로 양성하되, 시·군별 해설인력에게 시·군별 특화교육을 실시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장수군 (통합교육 장소-연차별 순회)
- 규 모 : 전북가야 역사문화해설사 30명
- 사업기간 : 2020~2028년(9개년)
- 총사업비 : 200백만 원(국비 100, 도비 50, 시·군비 50)
  - 2020년 신규 해설사 양성 교육 : 40백만원
  - 2021년 이후 : 심화(보수)교육 연간 20백만원 ※ 8개년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주관 : 전북가야 전문연구소 및 관련 기관 (위탁)

## ■ 사업 내용

- 전북가야 역사문화 해설 통합콘텐츠 및 운영매뉴얼 개발
  - 전북가야의 역사적 사실을 비롯하여 문화적 특징, 발굴된 스토리, 가야유적 주변지역의 설화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함
  - 전북가야와 관련된 통합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군별 특화콘텐츠를 추가함. 특히 시·군콘텐츠는 유적 지역의 설화, 주변 관광자원(관광지, 음식·체험 등)을 연계하여 개발함
    -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함
  - 전북가야유적 및 가야문화의 해설 및 관광지·유적 안내, 여러 사안(위기)별 대응과 관련하여 행동매뉴얼을 개발함
    - \* 단체 관람, 개별 관광 등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유적 등을 방문할 때 해설사가 여러 위험에 대처하고 불편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행동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
- 전북가야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해설사 양성 교육
    - \* 해설사의 수준별(기초/심화) 교육 실시, 현장중심(해설·안내·응대·위기관리 등)의 프로그램 운영
  - 보수(역량강화) 교육
    - \* 기존에 활동하던 해설사의 질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를 습득하기 위한 주기적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초기(2019년)에는 신규 해설사를 양적으로 늘리는데 집중하고, 이후(2020년 ~)에는 보수교육에 집중
- 전북가야 전문연구기관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전문기관에 위탁
  - 2019년 : 기존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시범 교육 실시
  - 2020년 : 전북가야 역사문화 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실시 (30명 목표)
    - \* 장수군 10명, 남원시 10명, 완주·진안·무주·순창·임실 10명
    - \* 전북가야 전문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탁 운영
  - 2021년 : 기존 양성 해설사 대상의 심화(보수)교육 (매년 상반기)

(사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세계유산 해설사 양성(보수교육)

- 센터(평가·배치·운용 등 관리기능) ↔ 제주 인재개발원(교육·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보수교육 : 40명 내외 총 20시간(이론/실습 각 10)
  - 보수교육 실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 2015년 해설사 배치 현황: 108명(세계유산해설사 99명, 지질공원해설사 9명)

○ 전복가야 역사문화 해설사의 활동복장 표준화

- 유산관광 해설사는 문화유산과 관람객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역사적, 문화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자임
- 자유로운 복장보다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전복가야 역사문화 해설사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방문객에게는 해설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음
- \* 전복가야 역사문화 해설사 공통으로 표준화된 옷과 모과, 명찰 등을 착용

(사례) 해설사 복장

- 궁궐문화원 문화유산해설사는 생활한복이 지정복장. 복장은 개별적으로 준비
- 순천만 자연해설사는 조끼와 명찰, 모자를 통일하여 착용



[궁궐문화원 문화해설사 활동복장]



[순천만 자연해설사 활동복장]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8년까지 총 2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200	-	40	20	20	20	100
국비	100	-	20	10	10	10	50
도비	50	-	10	5	5	5	25
시·군비	50	-	10	5	5	5	25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연계

### [전복가야 역사문화 해설사 양성교육 사업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li> <li>•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li> <li>•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50%) 및 민간경상보조</li> <li>•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li> </ul>

## 4. 호·영남 가야교류 활성화 지원

### ■ 필요성 및 목적

- 가야역사문화에 대한 국정과제 추진의 첫 번째 타당성은 가야가 동서교류 및 동서화합의 역사였다는 것임. 특히 전북가야는 동서교류의 중심축임
- 가야역사문화 정비의 국정과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북가야와 경상가야가 상호 교류하면서 과거의 동서교류 및 동서화합의 역사를 복원, 계승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이 지속되기 위하여 주민 주도로 교류행사가 일상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교류를 통해 얻어진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하는 통합행사를 추진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및 경상가야 지역
- 사업기간 : 2019~2028년(10개년)
- 총사업비 : 1,300백만 원(국비 450, 시·군비 850)
  - 호·영남 가야교류 학술대회 : 연 20백만원 (2019년~)
  - 호·영남 가야주민 상호 유적방문 행사 : 연 20백만원 (2019년~)
  - 호·영남 가야교류 축제(가칭 육십령 동서화합 가야 축제) : 연 100백만원(2020년~)
- 사업주체 : 7개 시·군(문화재청)

### ■ 사업 내용

- 호·영남 가야교류 학술대회
  - 가야 역사 중에서 호·영남 교류와 관련된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 장수 및 남원시를 순회하여 개최 : 경상가야 지역 초청

- 호·영남 가야주민 상호 유적방문 행사
  - 전북가야지역 주민과 경상가야지역 주민이 상호 방문
  - 경상가야지역 주민 방문 시, 전북가야지역 주민이 환대 (설명 및 환영행사 추진)
    - \* 가야 관련 시군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제안
- 호·영남 가야교류 축제(가칭 육십령 동서화합 가야 축제)
  - 가야와 관련된 특정일을 지정하고, 연 1회 가칭 육십령 동서화합 가야축제를 개최
  - 동서화합을 주제로 가야 주제의 문화행사 개최 : (예) 음악행사, 음식나눔행사 등
    - \* 육십령휴게소를 활용

## ■ 자원 투자계획

- 2019~2028년까지 총 1,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300	40	140	140	140	140	700
국비	450	-	50	50	50	50	250
도비	0	-	-	-	-	-	-
시·군비	850	40	90	90	90	90	450
기타	0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사업 활용

### [전북가야 기반,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예산 : 관광진흥기금</li> <li>- (예시) 2018년 사업으로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에 300백만원 지원</li> </ul>
문화재청	가야문화권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예산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가야 사업</li> <li>• 심화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등의 기존 사업계획을 활용 (연차별 계획에 호·영남 교류사업 반영)</li> </ul>

## 5. 주민참여형 전북가야유적 돌봄 지원

### ■ 필요성 및 목적

- 국가사적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유적관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주민 주도의 대책이 필요
-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가야문화재 돌봄사업을 활용하되, 가야역사유산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공모방식) 선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가야역사문화유산은 비지정 문화재 및 유적이 많기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함
  - 전북가야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사업 대상 : 53개 사업
  - 전라북도 문화재돌봄사업(2018년 기준) 문화재 1개소당 평균 사업비 3.24백만원

#### 2018년 전라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개요

- 사업비 : 1,653백만원(국[기금] 827, 도 826)
- 사업규모 : 문화재 510개소(국가지정 127, 등록 39, 도지정 282, 비지정 62)
- 사업내용 : 문화재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한 사항 보수
- 시행주체 : 미정(공모 예정)

- 지역 주민 주도의 유산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함
  - 가야역사유산에 대한 일상 관리와 경미한 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 사업기간 : 2020~2028년(9개년)
- 총사업비 : 1,431백만 원(국비 715.5, 시·군비 715.5)
  - 문화재돌봄사업 : 1개소당 3백만원 × 53개소 = 연 159백만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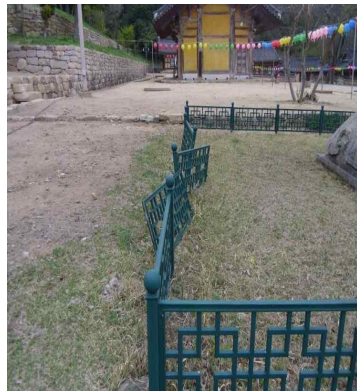


##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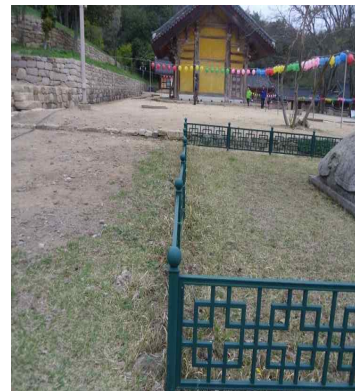
- 전복가야유적 돌보미 조직 운영
  -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유적에 대한 일상적 관리, 훼손 방지, 방문객 안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돌보미 조직 설립
    - \* 사회적기업, 문화재 보호 민간단체, 봉사단체 등 민간 차원의 주민 참여조직으로 설립
    - \* 유산 자체가 아닌 토양, 구조물, 철책, 안내판 등 경미한 훼손 등에 대한 정비·관리 역할
    - \* 방문객 안내,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유적관광지구 안전경비활동 등 수행
  -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 일자리 창출 형태로 사업 운영
    - \* 퇴직자, 고령인, 여성, 이주민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의 공공일자리 창출 형태로 운영
- 전복가야유적 지역민 포럼 운영
  - 문화재 돌봄활동의 통합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지역민 주축의 포럼 운영
    - \* 지역민을 비롯하여 전복가야유적의 운영·관리주체가 하나가 되는 포럼으로 주체간 소통, 우수사례 공유, 현장애로 개선 등에 역점
  - 상시 예방관리 및 재해·재난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협업·대응 매뉴얼 구상과 공유

### (사례)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 사업

- 문화재청 사업으로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
  - 주기적 순찰, 배수로 정비 등 환경 미화, 창호·벽체·마루 등 경미한 훼손 보수
- 지역민 활용으로 지자체 관리여력 문제에 대응
  - 취약계층 등 인력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돌봄 이전의 훼손 모습]



[돌봄 이후의 복원 모습]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8년까지 총 1,43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1,431	-	159	159	159	159	795
국비	715.5	-	79.5	79.5	79.5	79.5	397.5
도비	-	-	-	-	-	-	-
시·군비	715.5	-	79.5	79.5	79.5	79.5	397.5
기타	0	-	-	-	-	-	-

- 문화재청의 문화재 돌봄사업을 활용

[전복가야 기반,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 항목]

관계기관	예산항목	내용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예산 : 기금</li> <li>• 국가지정, 등록, 도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등에 대한 예산 지원</li> <li>•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51조</li> </ul>

## 제6절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 구축

### 1. 가야사 특별법 제정 및 개정

#### ■ 필요성 및 목적

-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2017.6.1.)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과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가야사의 연구·복원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됨
- 역사의 바로 세우기에서 가야사의 연구·복원이 출발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한 이유는 ‘가야’를 통해 호·영남의 벽을 허물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데 있음
- ‘가야’를 통한 호·영남의 지역감정을 허물고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적 지역발전이 뒤따라야 함. 그럼에도 지난 시기동안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지역의 가야사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조사 및 복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음
- 가야사의 연구·복원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불균등하게 추진되어온 조사·정비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함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1개년)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 사업 내용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代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을 기준으로 전북가야의 조사·연구 및 정비·활용을 위한 추가 내용을 정리하여 법 개정을 추진
  - 국가균형발전이 최종목표로 설정한 법률안 제안
  - 핵심제안 내용: 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명시, ②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③ 연구 외 진흥기관이 설립에 관한 내용 포함

###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1.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명시

- 지역발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으로 법률명 및 목적 수정
  - 국토위 소위원회안(대안)에는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 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대통령의 지시사항, 국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야사특별법의 목적은 지역발전보다 국가균형발전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음. 가야사를 연구·복원하는 목적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호영남의 교류를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 대안의 법률명에 있는 ‘지역발전에 관한’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함
  - 또한 법률안의 제1조 목적을 비롯하여 주요 법조항에 가야사의 연구·복원이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대안을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조 항	기존 법률안(대안)	수정 법률안
제1조 (목적)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조사·정비의 주요 조항에 국가균형발전 명시
  - 국가의 책무에 단순히 ‘가야역사문화권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야역사문화권을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국가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 (대안의 제3조 수정)
  -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과의 연계·협력의 수준을 뛰어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명시함(대안의 제7조 수정)
  -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정비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사업이 균형적으로

-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킴(대안의 제16조 수정)
- 정비계획을 승인하는 조항에 새롭게 '정비구역 내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과 정비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대안의 제19조 수정)
  - 이와 같이 연구·조사 및 정비의 목적에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비구역 지정 및 승인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수정함

조항	기존 법률안(대안)	수정 법률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야 역사문화권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야역사문화권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
제7조(기본계획안의 입안)	5.가야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가야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16조(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호~제8호	(신규 포함: 제1호~제9호) 1.정비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사업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것
제19조(정비계획의 승인 등)	제1호~제14호	(신규포함: 제1호~제15호) 5.정비구역 내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과 정비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2.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 조사연구의 국가지원 강화 조항

- 현재의 대안은 정비에만 치중되지 않고 '연구·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법률명에도 연구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법률안에도 주요하게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법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가야와 관련된 연구조사에 있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현재 마련된 대안의 내용대로면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이 뒤따르지 않음
- 즉 이 특별법이 없어도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연구조사가 가능함
- 가야사특별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연구·조사가 이뤄짐으로써 가야사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출발함. 그렇기 때문에 가야사의 연구·조사·복원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임
- 따라서 가야사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출발점인 가야사의 연구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특별법에 담겨야 함. 현재의 법률(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과 차별화되는 가야사만을 위한 지원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 시급한 조사·발굴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국가 지원 강화

-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호영남이 공동으로 가야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야를 통한 정비의 기반이 균형적이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지정(사적)된 가야유적 26개 중에서 경남이 19개소, 경북이 4개소, 부산이 3개소인 반면 전북과 전남은 단 1개소도 지정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 전북에서 2개소가 사적지정이 예고됨
- 또한 지금까지 가야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등은 주로 고분과 성곽, 생활유적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가야왕국의 성립에 중요한 봉수와 제철유적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이러한 이유에는 가야유적의 발굴조사가 주로 이뤄진 경상도 지역에서 봉수와 제철유적이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전라북도에는 현재 80여개소의 봉수와 180여개소의 제철유적이 확인됨
- 이러한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봉수와 제철유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국가의 가야유적 발굴조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함을 말함
- 문화재청의 2017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최근 보고된 유적은 모두 369개소이나, 이 중 발굴조사가 이뤄진 곳은 42개소에 불과함. 아직까지 발굴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특별법에 발굴조사가 시급한 유적을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하는 권역(유적)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을 명시함
- 대안을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조항	기존 법률안(대안)	수정 법률안
제2조(정의)	제1호~제5호	(신규포함: 제1호~제6호) 4. “가야역사문화권 우선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유적”이란 가야역사문화권 내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가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해야 하는 유적을 말한다.
제3장 제9조 (신설)		(제3장 제9조 신설) 제9조(우선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유적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0조에 따른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유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유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우선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유적을 지정된 유적에 대하여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 ○ 가야유적의 복원·정비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 현행 법률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유적의 정비는 사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가능함. 앞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전라북도에는 사적이 없음(지정예고 2개소).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정비사업이 특별법으로 추진될 경우 주요 정비대상은 경사가야가 될 것임. 이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호영남 공동의 좋은 사업이 될 수 없으며, 자칫 가야유적의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이 호영남의 불균등 발전을 부추길 수 있음
- 따라서 양 지역 간 정비사업이 균형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차원의 발굴조사가 미진한 지역의 활발한 복원·정비를 위하여 국가사적 외에 시도기념물까지 정비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 구체적으로 대안 제16조의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가야역사문화권 내의 유적 중에서 시도 기념물이거나 사적으로 지정된 것”이라는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킴

조항	기존 법률안(대안)	수정 법률안
제16조(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호~제8호	(신규포함: 제1호~제9호) 2.가야역사문화권 내의 유적 중에서 시도 기념물이거나 사적으로 지정된 것

## 3. 연구 외 진흥기관이 설립에 관한 내용 포함

- 특별법안은 연구·조사와 정비로 구분됨. 대안에는 연구와 관련된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 또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즉 연구와 관련된 기관은 이미 설립되어 있거나 특별법안에 담겨 있음
- 이에 반해 정비 즉 가야유적을 활용한 진흥과 관련한 기관은 현재 설립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안에도 담겨 있지 않음. 가야유적을 통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규명함과 동시에 유적을 현대화하거나 관광자원화하는 진흥사업이 요구됨
- 특별법이 크게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과 ‘정비를 통한 활용’(지역발전 연계)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관련 기관 역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 전담기관과 활용(진흥)과 관련된 전담기관 역시 필요함. 따라서 진흥(활용)과 관련된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킴
- 대안을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조항	기존 법률안(대안)	수정 법률안
제16조 (가야역사문화 진흥기관의 설립)		(신설) 제16조(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가야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흥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代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제정 이후 개정하는 방안과 독자적인 법률을 발의하여 기존 대안을 다시 병합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 2018년 상·하반기 국회 원구성에 따른 차별적 방안 추진

[국가균형발전 목적의 새로운 가야사특별법 개·제정 추진 방안]

시기	법률안	추진방안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위 대안(代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호영의원 주도로 국가균형발전 목적의 가야사특별법안 마련(2018년 3월 공청회 개최)</li> <li>국토위 대안을 제정한 뒤, 법률의 공포(국회 통과 이후 6개월)하기 전에 안호영의원 발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토위 대안(代案)</li> <li>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및 국토위 대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년 5월 25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가야사특별법)이 불발됨에 따라 상반기 내 법률 제정이 불가능</li> <li>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따라 대응전략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홍철 의원이 국토위에 속하면 상반기 전략을 유지하여 先 제정 後 개정작업을 추진</li> <li>민홍철 의원이 현재 국토위 간사이나, 향후 국토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기존 국토위 대안과 병합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법률 제정 추진</li> </ol> </li> </ul>



## 2. 전라북도 조례 제정 및 진흥기관 지정

### ■ 필요성 및 목적

- 「가야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지역 차원에서 전북가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특히 전문적인 민간 주도의 진흥사업을 위한 진흥기관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함
- 현재 전국적으로 가야와 관련된 조례는 가야 관련 박물관, 전시관, 테마파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가야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가야 관련 축제를 담당하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뿐임
  - 경상도를 중심으로 가야박물관, 전시홍보관, 체험관, 테마파크 운영조례가 제정
- 전라북도에서 가야와 관련된 조례는 남원시와 장수군이 제정한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뿐으로, 전북가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부터, 관련 사업의 지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함

[가야 관련 조례 현황 (가야 관련 박물관·전시관 등 시설 관련 조례 제외)]

지역	조례	제정일	비고
남원시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2017.10.13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장수군	장수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2016.10.28	
고령군	고령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2016.11.14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99.6.17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2014.12.19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함안군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2016.11.14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김해시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2016.10.14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4.05.28	•김해 가야문화축제 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총사업비 : 비예산사업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 사업 내용

- 가칭 「전북가야진흥조례」 제정
  - 전북가야의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진흥사업을 위한 지원 기관 지정 등 포함

### (사례)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왕조 역사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동구릉 주변 보존 및 정비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동구릉 주변 정비, 자연환경 보존·조성 사업
  2.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
  3. 동구릉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사업
  4. 동구릉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5.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조선왕조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북가야진흥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관련 진흥사업 위탁
  - 전북가야 진흥을 위한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을 지정
    - \* (예)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를 전북가야진흥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3. 국토교통부 소관,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설립

#### ■ 필요성 및 목적

- 가야유적을 활용한 진흥과 관련한 기관은 현재 설립되어 있지 않고 특별법안에도 없음
- 가야유적을 통해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규명함과 동시에 유적을 현대화하거나 관광자원화하는 진흥사업이 요구되며, 이를 담당할 전담기관(진흥원)이 국가 차원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함

####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또는 장수군
- 사업기간 : 2020~2023년(4개년)
- 총사업비 : 20,100백만 원(국비 10,100, 도비 5,000, 시·군비 5,000)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 ■ 사업 내용

-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설립이 포함된 가야사특별법 제정(또는 개정)
  - 가야사특별법안에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설립과 관련한 조항 신설 추진

국토위 대안(代案) 기준 신설, 제16조(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가야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흥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제정한 이후 개정을 통하여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2018년 하반기에 별도의 법률안을 제안하여 기존 대안과 병합을 통한 새로운 대안(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 포함)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직접 수행을 목표로 하되,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행하여 국토교통부에 진흥원 설립을 제안
-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조성 및 진흥사업 추진
  - 전국 단위의 진흥사업 추진, 새로운 진흥사업 발굴 및 운영 등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3년까지 총 20,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20,100	-	100	8,000	8,000	4,000	-
국비	10,100	-	100	4,000	4,000	2,000	-
도비	5,000	-	-	2,000	2,000	1,000	-
시·군비	5,000	-	-	2,000	2,000	1,000	-
기타	0	-	-	-	-	-	-

- 가야사특별법에 의한 진흥원 설립 및 법률에 의한 진흥원 지원

## 4. 가야고분 및 제철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 필요성 및 목적

-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후보에 선정되었으나, 전북가야의 주요 유적은 여전히 세계유산 등재후보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현재 세계유산 추진은 가야고분군이기에 때문에 다른 유적이 세계유산에 추가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세계유산에 가야고분군이 등재된 이후에 남원 외 다른 지역의 가야고분을 세계유산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전략과 함께 전북가야를 상징하는 다른 유적을 별도로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계유산 등재의 핵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는 유적은 제철유적으로 평가되므로, 제철유적에 대한 조사·발굴 및 사적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2024년(3개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300)
  - 국내·국제학술대회 : 200백만원
  -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작성 : 200백만원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 ■ 사업 내용

-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전북가야의 다른 고분군에 대한 조사·발굴 및 사적 지정 등을 거쳐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 추진

-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목표로 조사·발굴작업과 국제학술대회 등을 병행
- 제철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제철유적의 조사·발굴 등과 병행하여 전북의 제철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국내외에 확산하는 활동 추진

## ■ 재원 투자계획

- 2019~2028년까지 총 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400	-	-	-	150	150	100
국비	0	-	-	-	-	-	-
도비	100	-	-	-	50	50	-
시·군비	300	-	-	-	100	100	100
기타	0	-	-	-	-	-	-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및 등재절차

## ■ 등재 기준

## ○ 기본원칙

- 완전성, 진정성,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뛰어난 보편적 가치) 내재여부,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
-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어야 함. 이것이 가장 중요한 등재기준
- 특정 지역의 문화유산을 등재 신청할 때는 그 문화유산의 세계적인 가치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기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으로 함

## ○ 세부기준

[세계유산 등재기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디자인에 있어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화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필요	
공통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용암동굴·화산섬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 체계: 법적, 행정적 보호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 ○ 진정성(Authenticity)

- 당해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제안된 신청기준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함
- 형식과 디자인, 소재와 내용,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등

## ○ 완전성

- 뛰어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개발 또는 방치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등이 표현되어야 함

## ■ 등재 절차

### ○ 잠정목록 등재절차

- 잠정목록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 즉,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함
- 잠정목록은 문화재청에서 선발하여, 외교부를 통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하기 때문에 잠정목록 신청 전에 문화재청과 사전협의 과정이 중요함
- 잠정목록 신청기한은 없으며,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수시로 접수 가능함

### ○ 세계유산 등재절차

-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투입 때문에 잠정목록에 올라있는 문화유산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심사로 선정된 대상은 국제간 비교 연구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도출



※ 자료 참조 : 전북연구원 (2012), 「유네스코 등재유산 지정 확대방안」 14~16쪽 인용



## 5. 전북가야 기반,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 ■ 필요성 및 목적

- 전북가야유적의 보존, 활용 지원 및 지역 주도의 참여, 공적 책무감, 자긍심 확보·확산의 수단으로서 공익 성격의 지역주체가 필요
  - 세계유산 및 국가사적 등의 보존, 활용·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교육, 상품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기 위한 지원 조직 필요
  -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사적 지정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분야의 참여 유도과 지역 문화산업 부흥을 위한 주체 육성
- 유산 관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 육성
  - 지역 주도의 유산 관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형, 지역형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 및 일자리 창출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2022년(3개년)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240, 시군비 60) ※ 연간 100백만원
- 사업주체 : 7개 시군(문화재청, 노동부)

### ■ 사업 내용<sup>188)</sup>

- 전북가야유적 기반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육성
  - 고용노동부의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문화재청의 문화재형 예비사회적 기업 정책을 활용하여 전북가야유적지구 기반 사회적 기업을 육성
  - 문화재형(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188) '2015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화재청 공고 제 2015-139호). 문화재청(2015) 참조

- \* 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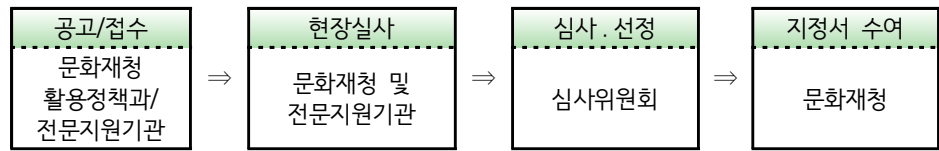
- 지정기관 지원

-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운영 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공모.접수→실사.심의→지정→관리(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대상 중 추천

[표 1-1]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전복가야유적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행사 기획·운영(안)

○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 유적 관리 및 해설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고령인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사업 추진

## (사례) 백제문화원(대전시 사회적기업)

-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사, 전통, 자연환경에 대한 흥미 있는 체험학습과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
- 주요 사업
  - 대전둔산 선사유적, 충남 보령 성주사지에 대한 체험교육 및 문화유산답사 프로그램 운영(고고학탐험대, 선사마을로의 시간여행, 보령 성주사지 등)
  -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이벤트 기획 등



## ■ 재원 투자계획

- 2020~2022년까지 총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300	-	100	100	100	-	-
국비	240	-	80	80	80	-	-
도비	0	-	-	-	-	-	-
시·군비	60	-	20	20	20	-	-
기타	0	-	-	-	-	-	-

-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문화재청),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 사업 활용

## 제7절 활용과제의 집행 및 관리

### 1. 재정 계획

#### 1) 계획 사업비

##### ■ 총 사업비

- 전북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에 있어 활용에 포함된 사업은 6개 영역에 25개 사업이며 10년 간 총 203,790백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임
- 전략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중요자원발굴 및 거점 사업 개발'에 137,359백만원, '시너지 창출 연계사업 개발'에 19,100백만원,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에 15,300백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에 7,300백만원,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에 4,331백만원,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 구축'에 20,4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재원별로는 국비가 85,204.5백만원, 도비가 21,490백만원 시군비로 92,995.5백만원, 기타로 4,1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

(단위 : 백만 원)

구분 (전략별/재원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예산 (백만원)	비율 (%)				
합계	204,190	100	85,204.5	21,590	93,295.5	4,100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사업 개발	137,359	67.3	55,299	12,740	66,820	2,500
시너지 창출 연계사업 개발	19,100	9.4	10,300	400	8,400	-
역사/자연/문화/기술 융합콘텐츠 개발	15,300	7.5	6,000	2,100	6,200	1,000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7,300	3.58	2,000	700	4,500	100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	4,331	2.1	1265.5	550	2,015.5	500
지속가능한 활용발전 기반구축	20,400	10	10,340	5,100	5,360	-

## 2. 추진 계획

### 1) 추진 방안

#### ■ 단계별 추진 방안

- 본 계획은 2019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0개년으로 계획됨.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사업추진을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구분함
- 1단계 기간은 2019~2021년으로 전복가야의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점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설정함
  - 추진방향 : 전복가야의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발굴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실시, 전복가야를 알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도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유산관리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 등
- 2단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로 설정함. 이 기간에는 대규모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기반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전복가야의 위상 제고를 위해 주민과 지역을 연계한 협력 사업이 추진됨
  - 추진방향 : 대규모 예산과 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중장기적 사업 연속해서 추진,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을 연계한 계승사업,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역사문화축제, 호·영남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

사업기간	추진방향
기반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야사특별법 제·개정과 도 조례제정을 통한 정비사업 실시</li> <li>사업 추진을 위한 중심거점 마련</li> <li>전북 가야민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 개발</li> </ul>
연계협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적인 계획 연속 추진</li> <li>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계승 사업·전복가야 관광 활성화 사업 실시</li> <li>중심거점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역·주민)과 내용이 확장, 연계 되는 과제</li> </ul>

## 2) 사업 추진체계

### ■ 전북가야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사업의 적절성과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 주체 간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과정 및 역할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한 계획수립’, ‘직접적인 사업실행’, ‘직·간접 협력지원’ 역할로 구분함
- 참여 주체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가야 정비 관련 공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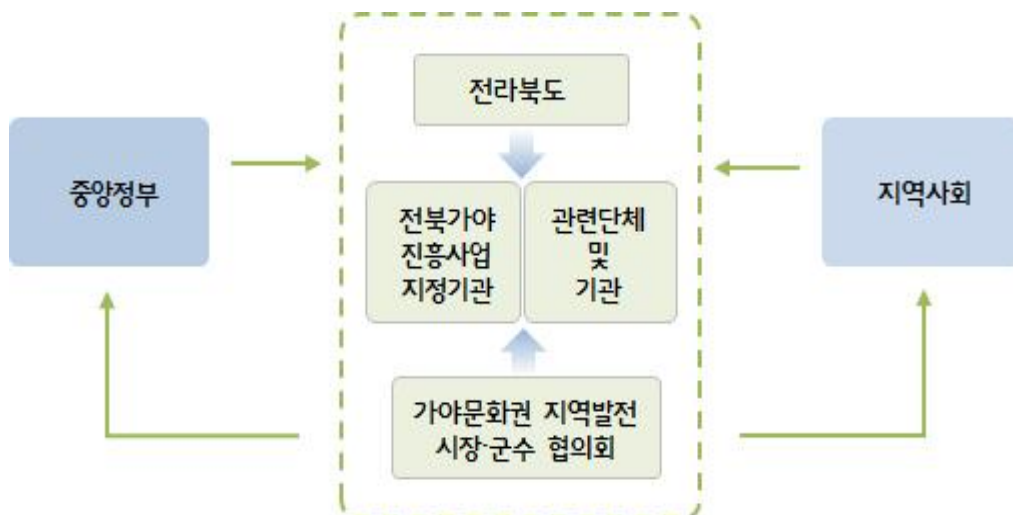
### ■ 주체별 협력 방안

- 계획수립
  - 계획수립의 주체는 중앙정부
  - 특별법 제정을 통합 정비계획 수립으로 사업 실행의 근거와 기본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전북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본 계획은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공존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지역 간 협력 추진과 예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등 타 부처와 협력하여 기능을 분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사업실행
  - 사업실행의 주체는 지방정부
  - 전라북도 및 관련 시군에서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할 TF팀을 구성함
  - 정책 동향 및 전북의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라북도 내 실천 가능한 정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전라북도 및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실행 주체들의 협력이 요구됨

## ○ 협력지원

- 협력지원의 주체는 지역사회
-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중요 자원을 중심으로 거점시설을 마련하여 지역민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전북가야 유적 정비와 관련하여 전북가야만의 고유성을 찾기 위한 작업이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구분	역할
계획수립 (정부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li> <li>• 부처 간 협력 도모 및 예산 지원</li> <li>• 중앙 추진 사업의 전달 체계</li> </ul>
사업실행 (도/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직접적인 실행 역할</li> <li>• 지역 간 협의 도모 및 협력 체계 구축</li> <li>• 전라북도 추진 사업의 전달 체계</li> </ul>
협력지원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li> <li>• 정보, 자본, 기술, 인력 제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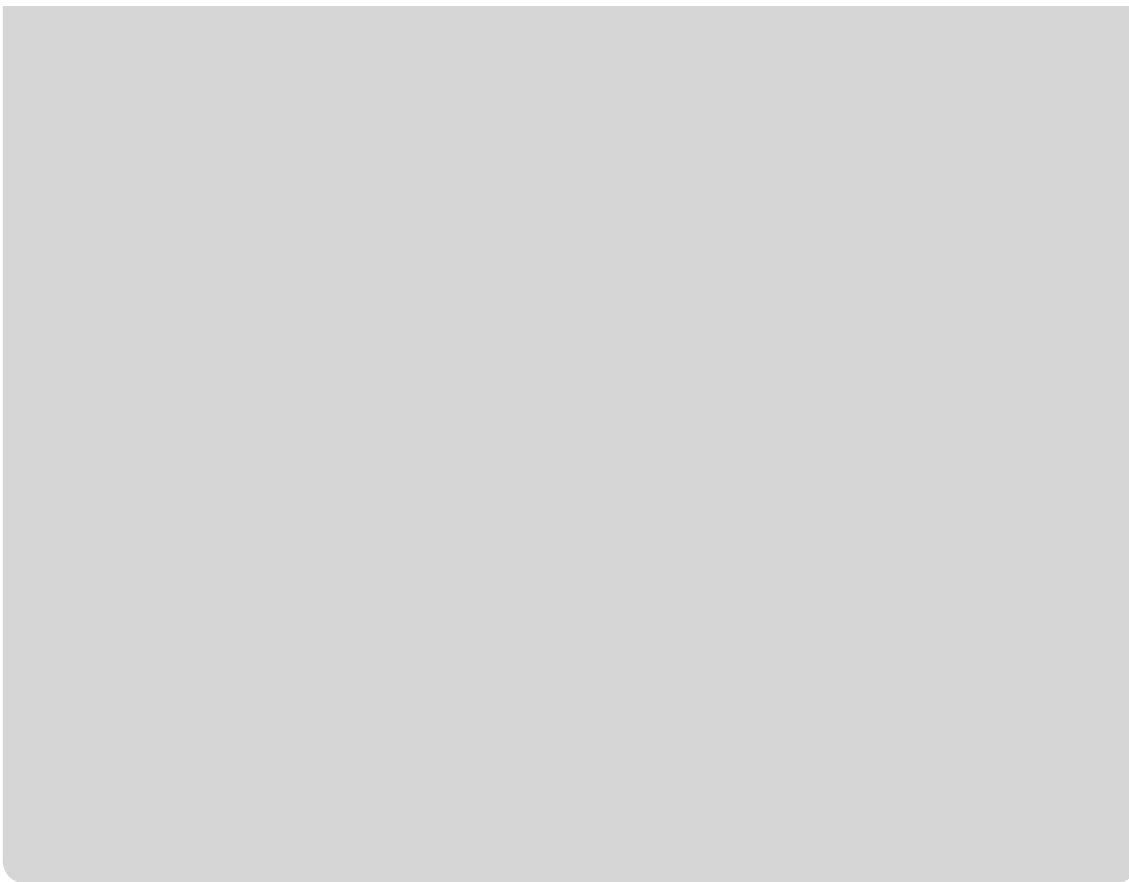
## ■ 총괄 추진표

(단위 : 백만 원)

6대 전략	25대 과제	계획년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단계		2단계							
		19	20	21	22	23~					
중요자원 발굴 및 거점사업 개발	① 장수가야 역사문화 ‘관광지’ 조성						80,000	32,000	1,800	46,200	·
	② 운봉가야 역사문화 ‘현장박물관’						46,159	17,819	10,940	17,400	·
	③ 고대역사(관방유적) 실감체험 테마파크						10,000	5,000	·	2,500	2,500
	④ 가야문화마을 조성						1,200	480	·	720	·
	⑤ 농림부사업 연계, 가야역사마을 개발						-	-	-	-	-
시너지 창출연계 사업개발	① 전북가야 역사벨트 거점 조성						15,100	7,000	100	8,000	·
	② 한반도 최초의 봉수왕국 복원사업						3,000	3,000	·	·	·
	③ 장수/운봉가야 연계, 전북가야마실길						1,000	300	300	400	·
자연/문화/ 기술융합 콘텐츠	① 전북가야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300	·	100	200	·
	② 전북가야 테마, 문화유산 4.0 실감콘텐츠						5,000	2,000	1,000	1,000	1,000
	③ 전북가야 브랜드공연 및 예술행사						10,000	4,000	1,000	5,000	·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① 전북가야 유산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1,900	800	200	800	100
	②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개최						2,000	·	·	2,000	·
	③ 전북가야 역사문화축제 개발/운영						2,400	1,200	·	1,200	·
	④ 전북가야 통합 홍보마케팅 추진						1,000	·	500	500	·
전북가야 정체성 확립 및 계승	① 전북가야학의 정립 및 진흥						1,000	·	500	·	500
	② 전북가야 지역주민 역량강화						400	·	·	400	·
	③ 가야역사문화 해설사 양성/배치						200	100	50	50	·
	④ 호·영남 가야교류 활성화 지원						1,300	450	·	850	·
	⑤ 주민참여형 전북가야유적 돌봄 지원						1,431	715.5	·	715.5	·
지속 가능한 활용발전 기반구축	① 가야사특별법 제정 및 개정						·	·	·	·	·
	② 도 조례제정 및 진흥기관 지정						·	·	·	·	·
	③ 가야역사문화진흥원 설립						20,100	10,100	5,000	5,000	·
	④ 가야고분·제철유적, 세계유산 추진						400	·	100	300	·
	⑤ 전북가야 문화재형 사회적 기업						300	240	·	60	·
합계							204,190	85,204.5	21,590	93,295.5	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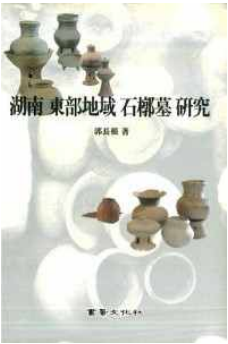


## 부록





## 제1절 전라북도 가야 관련 논저 목록

### 1. 단행본

연번	표 지	제 목	작성자	발 행 기 관	발행 년도
1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곽장근	서경문화사	1997
2		고고학으로 이해하는 장수의 역사와 문화	곽장근	서경문화사	2001
3		장수군의 산성과 봉수	곽장근	장수문화원	2002

4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군산대학교박물관 전라북도	2002
5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김태식	푸른역사	2002
6		장수군의 고분문화	곽장근	장수문화원	2003
7		(전북동부지역) 가야유물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8		장수군의 교통문화	곽장근	장수문화원	2005
9		운봉고원에 문헌 가야무사 : 남원 월산리 발굴유물 특별전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10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이야기		국립전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2018

## 2. 시·발굴 보고서

연 번	제 목	발 행 기 관	발행 년도
1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3
2	長水合米山城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전북문화재연구원	1983
3	두락리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1989
4	남원 건지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1991
5	행정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1994
6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IV	군산대학교박물관	1996
7	장수 삼고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1998
8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와정유적-	전북대학교박물관	1998
9	장수 삼봉리 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00
10	유적조사보고서 -장수 봉서리고분-	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11	완주 봉동읍 재수지 시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배매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12	남원 대곡리 유적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	2003
13	남원 봉대 고분군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14	장수 삼봉리·동촌리고분군	군산대학교박물관	2005
15	장수 침령산성	전북문화재연구원	2005
16	장수 합미산성	전북문화재연구원	2005
17	침곡리 마무산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2008
18	임실 성미산성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19	상운리 I, II, III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
20	순창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구간내(1공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21	장수 동촌리 고분군 -1호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22	임실 도인리 유적	군산대학교박물관	2011
23	임실 석두리 유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24	長水砮嶺山城정밀지표조사보고서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25	고속국도12호선담양성산간(6공구)확장공사 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26	남원 월산리 고분군 -M4·M5·M6-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27	장수 삼봉리고분군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3
28	남원 봉대고분군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29	남원 입암리·임리고분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30	순창 무수리유적	전북문화재연구원	2013
31	남원 운봉 북천리 고분(3호분)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32	장수 동촌리 고분군 -1호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33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32호분	전북대학교박물관	2015
34	순창 구미리 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35	장수 영취산·봉화산봉수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36	완주 구역리산성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6
37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38	완주 수계리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39	남원 고기리 제철유적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40	완주 삼봉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부지 내 문화재 발굴(정밀)조사 약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41	장수군 제철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42	장수 호덕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43	장수 동촌리, 삼봉리 고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44	장수 합미·침령산성 I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45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긴급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2017
46	임실 금성리 가야고분 긴급발굴조사 약보고서	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7
47	장수 장계리 고분군 시굴조사 약보고서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7
48	무주 대차리 시굴조사 약보고서	군산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2018

### 3. 학위논문

연 번	제 목	작성자	학위 수여 기관	발행 년도
1	全北地方의伽倻墓制에對한一考察:5,6세기古墳을 중심으로	곽장근	전북대학교대학원	1990
2	全北地方 墓制의 研究 : 百濟 南進에 따른 變遷을 中心으로	유 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1993
3	湖南 東部 地域의 石槨墓 研究	곽장근	전북대학교대학원	1999
4	全北 東北地域 山城의 研究	강원종	전북대학교대학원	2001
5	전북 동부 지역 석곽묘 출토 토기 연구 : 장경호와 기대를 중심으로	조인진	전북대학교대학원	2001
6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 석곽묘의 구조 연구	전상학	전북대학교대학원	2006
7	전북지역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조명일	전북대학교대학원	2009
8	남원 월산리 M5호분 피장자의 성격	정재영	원광대학교대학원	2014
9	雲峰高原 出土 馬具 研究-재갈·사행상철기·등자를 중심으로	유영춘	군산대학교대학원	2015



#### 4. 국내학술지 및 기타

연 번	제목	작성자	발행 기관	발행 년도
1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 百濟 南進 前後時期를 中心으로	유 철	호남고고학회	1996
2	전북 남강 수계지역 석곽묘의 변천과정과 그 성격	곽장근	한국상고사학회	1997
3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김태식	백제연구논총 5	1997
4	소백산맥 이서지역의 석곽묘 변천과정과 그 성격	곽장근	한국고대사연구 18	2000
5	錦江 上流地域으로 百濟의 進出過程 研究	곽장근	호남고고학회	2003
6	湖南東部地域의 伽倻勢力과 그 成長課程	곽장근	호남고고학회	2004
7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조명일	호남고고학회	2004
8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연구	전상학	호남고고학회	2005
9	『백제의 변경』; 웅진기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 연구	곽장근	백제연구소	2006
10	전북 동부지역 수혈식석곽묘의 구조 연구	전상학	호남고고학회	2007
11	남원 운봉지역의 고대 관방체계	강원종	호남고고학회	2007
12	호남(湖南) 동부지역(東部地域) 산성(山城) 및 봉수(烽燧)의 분포양상(分布樣相)	곽장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13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 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박천수	한국상고사학회	2009
14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곽장근	한국상고사학회	2009
15	금강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곽장근	한국상사학회	2010
16	금강상류지역의 산성과 봉수의 분포양상	조명일	한국상고사학회	2010
17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전상학	한국상고사학회	2010
18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곽장근	백제문화 43	2010
19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곽장근	한국고대사학회	2011

20	금강상류지역의 교통망과 그 재편과정	곽장근	한국상고사학회	2011
21	장수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유 철	한국상고사학회	2011
22	호남지방 역사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윤덕향	한국상고사학회	2011
23	전북동부지역을 둘러싼 백제·가야·신라의 지역지배	김재홍	한국상고사학회	2011
24	5~6세기 금강상류지역의 정치세력과 그 향방	주보돈	한국상고사학회	2011
25	삼국시대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곽장근	한국고대사학회	2011
26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 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	박천수	한국상고사학회	2012
27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김재홍	한국상고사학회	2012
28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유영춘	호남고고학회	2012
29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조명일	호남고고학회	2012
30	계수호와 초두를 통해 본 남원 월산리 고분군	박순발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31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전상학	호남고고학회	2013
32	文化遺産의 保存·管理와 活用方案 : 長水·長溪盆地의 古墳群·山城·烽燧를 中心으로	유 철	전북사학	2013
33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금속유물의 제작기법	이영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3
34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 임나사현과 기문의 위치	곽장근	백제학보 9	2013
35	남원지역 가야고분의 구조와 변천	하승철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36	남원지역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방안	김낙중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37	남원의 고고학적 연구성과	곽장근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38	출토유물로 본 삼국시대 南原지역의 정치적 向方	박천수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39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32호분) 발굴조사 성과	변희섭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40	남원 월산리 고분군 -M4·M5·M6號墳-	양영주 김상규	남원시·호남고고학회	2014

41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비, 蛇行狀鐵器, 燈子를 중심으로-	유영춘	호남고고학회	2015
42	운봉고원의 제철유적과 그 역동성	곽장근	백제문화 52	2015
43	장수군 제철유적 지표조사	유영춘	호남고고학회	2015
44	장수 동촌리 고분군	조자영	호남고고학회	2015
45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한수영	장수군·호남고고학회	2016
46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곽장근	장수군·호남고고학회	2016
47	장수군 제철유적의 지질학적 특징	장현근	장수군·호남고고학회	2016
48	장수 침령산성 집수시설	이한나	호남고고학회	2017
49	장수가야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	전상학	호남고고학회	2017
50	장수군 제철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의미	곽장근	호남고고학회	2017
51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남원·장수 삼국시대 분묘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유영춘	호남고고학회	2017
52	세계유산의 전북가야의 미래전략	심승구	호남고고학회	2017
53	전북가야의 백제의 문물교류와 그 역동성	최완규	호남고고학회	2017
54	위세품으로 본 전북가야의 위상과 그 성격	김재홍	호남고고학회	2017
55	중국남조와 전북가야의 교류 -천계호를 중심으로-	李軍	호남고고학회	2017
56	전북지역 가야 고분의 현황과 특징	전상학	호남고고학회	2017
57	전북가야 철기문화의 독자성	유영춘	호남고고학회	2017
58	전북가야의 봉수 운영과 그 역사성	조명일	호남고고학회	2017

## 제2절 전라북도 가야문화유산 목록 및 분포도

### 1. 남원시

#### ■ 조사 현황

연 번	조 사 명	조사 년도	조 사 기 관
1	남원 월산리 고분군	1982	원광대학교마한백제문화연구소
2	남원 건지리 고분군	1988	전북대학교문화재연구소
3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1989	전북대학교박물관
4	월산리 고분군 시·발굴조사	2009	전북문화재연구원
5	남원시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용역	2011	군산대학교박물관
6	남원 임리고분군	2011	군산대학교박물관
7	고기리 제철유적 긴급발굴조사	2013	전주문화유산연구원
8	남원 두락리 및 유곡리 고분군	2013	전북대학교박물관
9	남원 운봉 북천리 고분 정밀발굴조사	2014	전라문화유산연구원
10	남원 유곡리 및 두락리 주변 고분군 분포조사	2014	해원문화재연구원
11	남원 운봉고원 제철유적 학술조사	2016	군산대학교박물관
12	인월 성산리 제철유적 긴급발굴조사	201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3	운봉고원 제철유적 분포조사	2017	군산대학교박물관

#### ■ 고분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갈계리 갈계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산63 일대	지표조사
2	두락리 성내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산70 일대	지표조사

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746-1 일대	발굴조사
4	봉대리 봉대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산1 일대	발굴조사
5	봉대리 봉대 고분군 Ⅱ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801-2 일대	지표조사
6	성리 상성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성리 산89-1 일대	지표조사
7	일대리 부동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산60-1 일대	지표조사
8	월산리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1-7 일원	발굴조사
9	청계리 청계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8-7 일대	지표조사
10	청계리 광평 고분군	남원시 아영면 청계리 산 87-2 일대	발굴조사
11	권포리 가동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152 일대	지표조사
12	권포리 권포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산99 일대	지표조사
13	가산리 비전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344-1 일대	지표조사
14	공안리 용은동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75-4 일대	지표조사
15	덕산리 가장리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산46-1 일대	지표조사
16	덕산리 고분군 A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산36 일원	지표조사
17	매요리 점촌 추정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산18-1 일대	지표조사
18	매요리 매요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임리 산62-1 일대	지표조사
19	북천리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31-2번지 일원	발굴조사
20	신기리 신기 고분군 I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산7 일대	지표조사
21	신기리 신기 고분군 Ⅱ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산64-9 일대	지표조사
22	임리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임리 산49 일원	발굴조사
23	용산리 산덕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4-1 일원	지표조사
24	장교리 갈마지기 고분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산7-1 일대	지표조사
25	장교리 연동 고분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산 38-1 일대	지표조사
26	장교리 장교 고분군 Ⅲ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731-29 일대	지표조사
27	장교리 장교 고분군 Ⅳ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산75 일원	지표조사
28	준향리 준향 고분 I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산40-3 일원	지표조사
29	준향리 준향 고분 Ⅱ	남원시 운봉읍 준향리 산37 일원	지표조사
30	행정리 고분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32 일원	발굴조사

31	행정리 고분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32 일원	지표조사
32	행정리 고분군A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35-1 일대	지표조사
33	행정리 고분군B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산40-6 일대	지표조사
34	건지리 고분군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3 일원	발굴조사
35	건지리 내건 말무덤 고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17-1 일원	지표조사
36	건지리 외건 고분 I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192-1 일대	지표조사
37	건지리 외건 고분 II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84-2 일대	지표조사
38	건지리 외건 말무덤 고분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산8-3 일원	지표조사
39	성산리 성산 고분군 I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49-1 일대	지표조사
40	성산리 성산 고분군 II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산69-1 일대	지표조사
41	인월리 인월 말무덤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157 일대	지표조사
42	자래리 자래 고분군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97-25 일대	지표조사
43	자래리 고분	남원시 인월면 자래리 97-25 일원	지표조사
44	취암리 동무마을 고분	남원시 인월면 취암리 186 일대	지표조사
45	고죽동 유적	남원시 남원시 고죽동 198-6 일대	지표조사
46	만도리 고분군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산27 일대	지표조사
47	서도리 고분군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산51 일원	지표조사
48	괴양리 고분군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 산45-1 일원	지표조사
49	월락동 유적	남원시 월락동 659번지 일대	지표조사
50	호경리 유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산56 일대	지표조사
51	길곡리 유적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 산71-22 일대	지표조사
52	서매리 서재 고분군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산36 일대	지표조사
53	택내리 성안 고분군	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산12-4 일대	지표조사

■ 봉수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주천면 덕치리 봉수	주천면 덕치리 산28 일원	지표조사
2	운봉읍 준향리 봉수	운봉읍 준향리 산34 일원	지표조사
3	운봉읍 권포리 고남산 봉수	운봉읍 권포리 산38 일원	지표조사
4	아영면 아곡리 봉화산 봉수	아영면 아곡리 산39 일원	지표조사
5	아영면 성리 매봉 봉수	아영면 성리 산50 일원	지표조사

■ 산성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인월면 성산리 합미성	인월면 성산리 산62 일원	지표조사
2	아영면 성리 깃재토성	아영면 성리 산40-2 일원	지표조사
3	아영면 성리 아막성	아영면 성리 산83 일원	지표조사
4	운봉읍 가산리산성	운봉읍 가산리 산45 일원	지표조사
5	아영면 아곡리 이산산성	아영면 아곡리 산35-1 일원	지표조사
6	산동면 부절리 고남산성	산동면 부절리 산20-1 일원	지표조사
7	운봉읍 장교리 산성	운봉읍 장교리 산108 일원	지표조사
8	운봉읍 준향리 양지산성	운봉읍 준향리 산33 일원	지표조사
9	운봉읍 주촌리 노치산성	운봉읍 주촌리 산7-2 일원	지표조사
10	주생면 내동리 할미성	주생면 내동리 산57-2 일원	지표조사
11	산내면 덕동리 정령치차단성	산내면 덕동리 산215 일원	지표조사

##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기타
1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남재골	철재, 노벽편	
2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땅골	철재	
3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C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도장골	철재	
4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D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점골	철재	
5	산동면 대상리 제철유적 E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윗점골	철재	
6	운봉읍 화수리 제철유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옥계동계곡	유구 확인	숯가마
7	운봉읍 산덕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쟁이재골	철재	
8	운봉읍 산덕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소방골	철재	
9	운봉읍 공안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쇠골	철재	
10	운봉읍 공안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수철리	유구 확인	금새암골
11	운봉읍 주촌리 제철유적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고리봉	철재	
12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선유폭포	발굴조사	
13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안암골	철재	안암골
14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C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수태골	철재	수태골
15	주천면 고기리 제철유적 D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물방아골	철재	물방아골
16	아영면 일대리 제철유적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풍천	철재	풍천
17	인월면 인월리 제철유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덕두산	철재	흥덕골
18	인월면 성산리 제철유적	남원시 인월면 성산리 투구봉	유구 확인	
19	인월면 중군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움투골	철재	
20	인월면 중군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바래봉	유구 확인	수성대골
21	인월면 중군리 제철유적 C	남원시 인월면 중군리 바래봉	철재	하구박골
22	인월면 중항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인월면 중항리 상황마을	철재	
23	인월면 중항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인월면 중항리 하항마을	철재	
24	산내면 내령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내령마을	철재	
25	산내면 내령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빗기재	철재	빗기재



26	산내면 부운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부운치	철재	
27	산내면 부운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개선골	철재	
28	산내면 부운리 제철유적 C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뱀사골	철재	와운마을
29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A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외얏골	철재	윗쪽
30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B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외얏골	철재	아랫쪽
31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C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큰점골	철재	
32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D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언양골	철재	
33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E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언양골	철재	
34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F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달궁터	철재	달궁터
35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G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하점골	유구확인	광산골
36	산내면 덕동리 제철유적 H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봉산골	철재	
37	산동면 좌사리 제철유적 A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계곡	철재	
38	산동면 좌사리 제철유적 B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노고단계곡	철재	성삼재
39	산동면 좌사리 제철유적 C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대판골	철재	임걸령
40	함양읍 죽림리 제철유적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상봉	철재	



## 2. 장수군

### ■ 조사 현황

연 번	조 사 명	조사년도	조 사 기 관
1	장수 삼고리 고분군(긴급수습)	1995	군산대학교박물관
2	장수군 문화유산 기초조사	2003	군산대학교박물관
3	장수군의 산성과 봉수	2003	군산대학교박물관
4	장수군의 고분문화	2003	군산대학교박물관
5	장수 동촌리 고분군 시굴조사	2003	군산대학교박물관
6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발굴조사	2003	군산대학교박물관
7	장수 삼봉리고분군	2012	전주문화유산연구원
8	장수군 산성,봉수 발굴조사	2013	군산대학교박물관
9	전북 장수 동촌리 삼봉리 가야고분군 학술발굴조사	201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0	장수 가야고분 발굴조사	201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1	가야문화권 종합정비기본계획	2015	군산대학교박물관
12	장수군 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2016	군산대학교박물관
13	장수군 제철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2016	군산대학교박물관
14	장수 노하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201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5	장수군 가야고분 분포조사	201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16	장수 침령산성3차 발굴조사	2017	군산대학교박물관
17	장수 합미산성3차 발굴조사	2017	군산대학교박물관
18	장수군 문화유산 전수조사	2017	군산대학교박물관



## ■ 고분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신전리 고분군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산130 일원	지표조사
2	침곡리 고분군 A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141 일원	지표조사
3	침곡리 고분군 C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2-1 일원	지표조사
4	침곡리 마무산 유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959-2 일원	발굴조사
5	호덕리 고분군 B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산17-1 일원	발굴조사
6	화양리 고분군 B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352 일원	지표조사
7	화양리 고총	장수군 계남면 화양리 203 일원	지표조사
8	화음리 고분군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산35-1 일원	지표조사
9	교동리 고분군 A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879 일원	지표조사
10	국포리 고분군 B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산51-1 일원	지표조사
11	대론리 고분군 A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740-1 일원	지표조사
12	건지리 고분군 A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166-2 일원	지표조사
13	건지리 고분군 B	장수군 산서면 건지리 산61 일원	지표조사
14	마하리 고분군 A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482 일원	지표조사
15	마하리 고분군 B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산35-4 일원	지표조사
16	봉서리 고분군 B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산73 일원	발굴조사
17	봉서리 고분군 C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산68-1 일원	지표조사
18	사계리 고분군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산33-1 일원	지표조사
19	사상리 고분군 A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산51 일원	지표조사
20	사상리 고분군 B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산17 일원	지표조사
21	오성리 고분군 A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62 일원	지표조사
22	오성리 고분군 B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45-1 일원	지표조사
23	하월리 고분군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산32 일원	지표조사
24	명덕리 고분군 B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34 일원	지표조사
25	삼봉리 고분군 A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02 일원	지표조사

26	삼봉리 가야 고분군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108-1 일원	발굴조사
27	오동리 고분군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792 일원	지표조사
28	월강리 고분군B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102-4 일원	지표조사
29	장계리 고분군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12-22 일원	지표조사
30	노곡리 말무덤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산130-1 일원	지표조사
31	노하리 고분군 A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5 일원	발굴조사
32	대성리 고분군 A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13-1 일원	지표조사
33	동촌리 가야 고분군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산4 일원	발굴조사
34	선창리 고분군 A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산23 일원	지표조사
35	송천리 고분군 A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936-16 일원	지표조사
36	송천리 고분군 B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91-1 일원	지표조사
37	송천리 고분군 C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058-6 일원	지표조사
38	식천리 고분군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1일원	지표조사
39	용계리 고분군 B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106-1 일원	지표조사
40	용계리 고분군 C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70-3 일원	지표조사
41	남양리 고분군 A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산2 일원	지표조사
42	남양리 고분군 D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산54-7 일원	지표조사
43	남양리 고분군 E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산71-1 일원	지표조사
44	봉덕리 고분군 A	장수군 천천면 봉덕리 170 일원	지표조사
45	삼고리 고분군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77 일원	발굴조사
46	삼고리 고분군 B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73 일원	지표조사
47	장판리 고분군 A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산49 일원	지표조사
48	춘송리 고분군 B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140-1 일원	지표조사

## ■ 봉수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천천면 춘송리 매봉 봉수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산35 일원	지표조사
2	천천면 월곡리 봉화산 봉수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산11 일원	지표조사
3	천천면 삼고리 성수산 봉수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산84-1 일원	지표조사
4	장계면 무농리 수락봉 봉수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산1-2 일원	지표조사
5	장계면 명덕리 할미봉 봉수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	지표조사
6	장계면 오동리 구시봉 봉수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65 일원	지표조사
7	장계면 금덕리 깃대봉 봉수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4 일원	지표조사
8	계남면 화음리 백화산 봉수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산63 일원	지표조사
9	장계면 삼봉리 봉수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산66 일원	지표조사
10	번암면 지지리 영취산 봉수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5 일원	발굴조사
11	계남면 침곡리 봉수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산20 일원	지표조사
12	계북면 어전리 매봉 봉수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산70 일원	지표조사
13	장수읍 개정리 사두봉 봉수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4 일원	지표조사
14	장수읍 대성리 원수봉 봉수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산258-1 일원	시굴조사
15	장수읍 가곡리 장안산 봉수	장수군 장수읍 가곡리 산116-3 일원	지표조사
16	장수읍 식천리 신무산 봉수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3 일원	지표조사
17	장수읍 오성리 묘복산 봉수	장수군 장수읍 오성리 산106-1 일원	지표조사
18	장수읍 동촌리 마봉산 봉수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산36	지표조사
19	번암면 동화리 봉화산 봉수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200 일원	시굴조사
20	번암면 노단리 매봉 봉수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산108 일원	지표조사
21	산서면 사계리 사계봉 봉수	장수군 산서면 사계리 산71-1 일원	지표조사

## ■ 산성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장수읍 용계리 합미산성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110-1 일원	발굴조사
2	계남면 침곡리 침령산성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090-1 일원	발굴조사
3	장계면 명덕리산성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 일원	지표조사
4	산서면 봉서리산성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산38-3 일원	시굴조사

##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기타
1	장수읍 노하리 제철유적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판둔마을	철재	
2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A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리골	유구확인	윗점
3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B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리골	철재	아래점
4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C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리골	철재	지실가지
5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D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무돌리골	철재,노벽편	
6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E	장수군 장수읍 덕산로 763-3	철재,노벽편	
7	장수읍 덕산리 제철유적 F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진골	철재	
8	장수읍 식천리 제철유적 A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586 일원	철재	
9	장수읍 식천리 제철유적 B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말치골	유구확인	
10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A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무릉골
11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B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선태골
12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C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목골
13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D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유구확인	구골
14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E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작은구골
15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F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청옥골
16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G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원삼거골
17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H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서낭골

18	번암면 지지리 제철유적 I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지지계곡	철재	어채골
19	번암면 동화리 제철유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하동마을	철재	미골
20	번암면 국포리 제철유적 A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삼밭골	철재	
21	번암면 국포리 제철유적 B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도장골	철재	
22	번암면 국포리 제철유적 C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쇠바탕골	철재,노벽편	
23	번암면 교동리 제철유적 A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산67-1	철재	
24	번암면 교동리 제철유적 B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1319-17	철재	금천마을
25	번암면 죽산리 제철유적	장수군 번암면 죽산리 대성방마을	철재	
26	번암면 노단리 제철유적 A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197	철재	신기마을
27	번암면 유정리 제철유적	장수군 번암면 유정리 641	철재	
28	번암면 대론리 제철유적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큰논실마을	철재	
29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A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유구확인	시굴조사
30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B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큰시양골	철재	큰시양골
31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C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343 일원	유구확인	
32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D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너더리골	철재	
33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E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삼거리골	유구확인	
34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F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할미산골	유구확인	
35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G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절골	철재	
36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H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문봉골	철재	문성골
37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I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정토골	철재	
38	장계면 명덕리 제철유적 J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큰거두장골	철재	
39	장계면 오동리 제철유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쇠판이골	철재	
40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A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북정골	철재	
41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B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점골	철재	
42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C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텃골	철재	숯가마
43	장계면 대곡리 제철유적 D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무릉골	철재	
44	장계면 월강리 제철유적 A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큰골	철재	
45	장계면 월강리 제철유적 B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토골	철재	



46	장계면 금덕리 제철유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울음박골	철재	
47	계남면 신전리 제철유적 A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106	철재	
48	계남면 신전리 제철유적 B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295	철재	
49	계남면 궁양리 제철유적 A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가재골	철재	
50	계남면 궁양리 제철유적 B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지소골	철재	구리광산
51	계남면 궁양리 제철유적 C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괴목동골	철재	
52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A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지추골	철재	
53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B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산35 일원	철재	
54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C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참새미골	철재	
55	계북면 양악리 제철유적 D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원지기골	철재	
56	계북면 어전리 제철유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삼막골	철재	
57	천천면 오봉리 제철유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86 일원	철재	
58	천천면 삼고리 제철유적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탑상골	철재	
59	천천면 남양리 제철유적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먹골	철재	
60	천천면 비룡리 제철유적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와룡휴양림	유구확인	시굴조사



### 3. 무주군

#### ■ 고분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46 일원	시굴조사
2	고창리 고분군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333 일원	지표조사
3	대유리 고분군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44-1 일원	지표조사
4	청량리 고분군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1-3 일원	지표조사
5	공정리 내당 고분군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338-4 일원	지표조사
6	공진리 고분군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1494-2 일원	지표조사
7	금평리 궁대고분군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산73-2 일원	지표조사
8	금평리 두문 고분군 1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산3-1 일원	지표조사
9	금평리 두문 고분군 2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산81-1 일원	지표조사
10	죽천리 고분군 1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894-3 일원	지표조사
11	죽천리 고분군 2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123-1 일원	지표조사
12	죽천리 고분군 3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396-7 일원	지표조사
13	진도리 고분군 1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259 일원	지표조사
14	진도리 고분군 2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28-1 일원	지표조사
15	괴목리 고분군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31 일원	지표조사

#### ■ 봉수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무주읍 읍내리 향로봉 봉수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9-2 일원	지표조사
2	무주읍 용포리 노고산 봉수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산54 일원	지표조사
3	부남면 굴암리 조항산 봉수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산26-1 일원	지표조사

4	부남면 가당리 수로봉 봉수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239-1 일원	지표조사
5	적상면 방이리 구리골산 봉수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65-1 일원	지표조사
6	안성면 진도리 봉화산 봉수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60-1 일원	지표조사
7	안성면 죽천리 매방재산 봉수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37-1 일원	지표조사
8	안성면 덕산리 향적봉 봉수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산109 일원	지표조사
9	안성면 공정리 망봉 봉수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175-1 일원	지표조사
10	안성면 죽천리 시루봉 봉수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177 일원	지표조사
11	안성면 죽천리 만봉 봉수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산175-1 일원	지표조사

#### ■ 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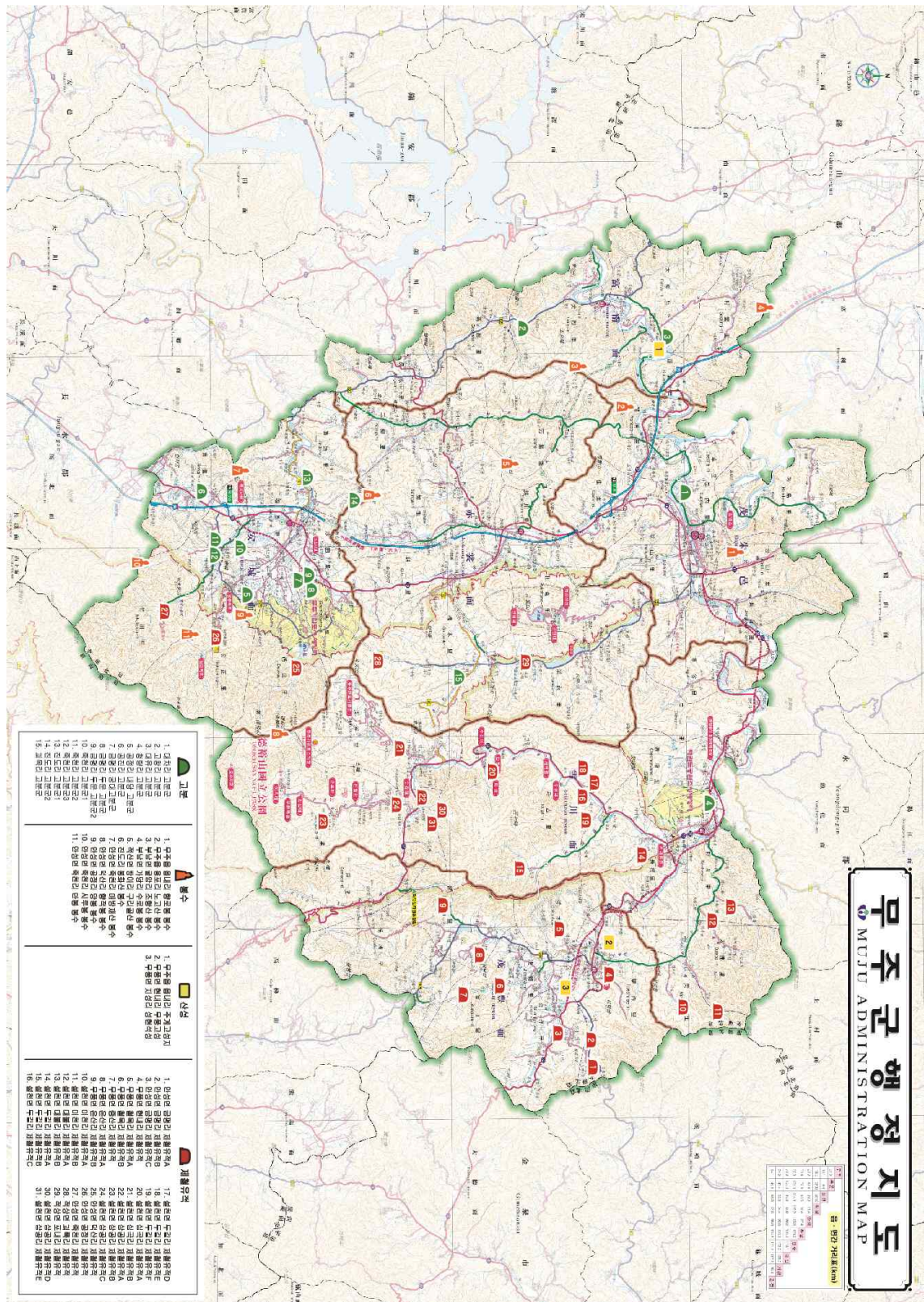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무주읍 대차리 주계고성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산54-3 일원	지표조사
2	무풍면 현내리 무풍고성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산96 일원	지표조사
3	무풍면 지성리 성현석성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산13-1 일원	지표조사

####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1	무풍면 금평리 제철유적 A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속병리	철재
2	무풍면 금평리 제철유적 B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대동천	철재
3	무풍면 금평리 제철유적 C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금평천	철재
4	무풍면 현내리 제철유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극락골	철재
5	무풍면 철목리 제철유적 A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옥담골	철재
6	무풍면 철목리 제철유적 B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소미실골	철재
7	무풍면 증산리 제철유적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도마천	철재

8	무풍면 은산리 제철유적 A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대밭골	철재
9	무풍면 은산리 제철유적 B	무주군 무풍면 은산리 절골	철재
10	설천면 미천리 제철유적 A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박실리골	철재
11	설천면 미천리 제철유적 B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도투마리골	철재
12	설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A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내북천	철재
13	설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B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배나무쟁이골	철재
14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A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동골	철재
15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B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벌한천	철재
16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C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월헌마을	철재
17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D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와석마을	철재
18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E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철량재	철재
19	설천면 두길리 제철유적 F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무르내	철재
20	설천면 심곡리 제철유적 A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깊은골마을	철재
21	설천면 심곡리 제철유적 B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등방천	철재
22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A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현방골	철재
23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B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월음령계곡	철재
24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C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구천계곡	철재
25	안성면 덕산리 제철유적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산계곡	철재
26	안성면 공정리 제철유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용추계골	철재
27	안성면 죽천리 제철유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명천계곡	철재
28	적상면 괴록리 제철유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상곡천	철재
29	적상면 포내리 제철유적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왕소천	철재
30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D	무주군 설천면 현방골	철재
31	설천면 삼공리 제철유적 E	무주군 설천면 작은 오절리골	철재





## 4. 진안군

### ■ 조사 현황

연 번	조 사 명	유적명	조사 년도	조사기관
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황산리 고분군	1996	군산대학교박물관
2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와정 토성	1998	전북대학교박물관

### ■ 고분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황산리 고분군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304-2 일원	발굴조사
2	운교리 고분군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산157 일대	지표조사
3	수항리 대곡 고분군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15-2 일대	지표조사
4	신정리 가정 고분군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산93-1 일대	지표조사
5	월포리 고분군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1-7 일대	지표조사
6	삼락리 장등 고분군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340 일대	지표조사
7	물곡리 하도치 고분군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산71, 75 일대	지표조사
8	동촌리 원동촌 고분군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산71 일대	지표조사
9	동창리 원동창 고분군	진안군 백운면 동창리 1034-1 일대	지표조사

### ■ 봉수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주천면 용덕리 선봉 봉수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산87-1 일원	지표조사
2	주천면 신양리 성치산 봉수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산12 일원	지표조사

3	주천면 대불리 태평봉수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31-2 일원	지표조사
4	용담면 옥거리 봉화산 봉수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4 일원	지표조사
5	용담면 운봉리 봉수	진안군 용담면 운봉리 산99-1 일원	지표조사
6	안천면 삼락리 지장산 봉수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48 일원	지표조사
7	정천면 갈용리 조포 봉수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40-1 일원	지표조사
8	정천면 갈용리 국사봉 봉수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88 일원	지표조사
9	상전면 월포리 성주봉 봉수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22-4 일원	지표조사
10	동향면 능금리 국사봉 봉수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산17 일원	지표조사
11	부귀면 대불리 운장산 봉수	진안군 부귀면 대불리 산1 일원	지표조사
12	부귀면 봉암리 입봉 봉수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107-3 일원	지표조사
13	진안읍 물곡리 봉우재 봉수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산131-1 일원	지표조사
14	마령면 계서리 봉수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산175 일원	지표조사

## ■ 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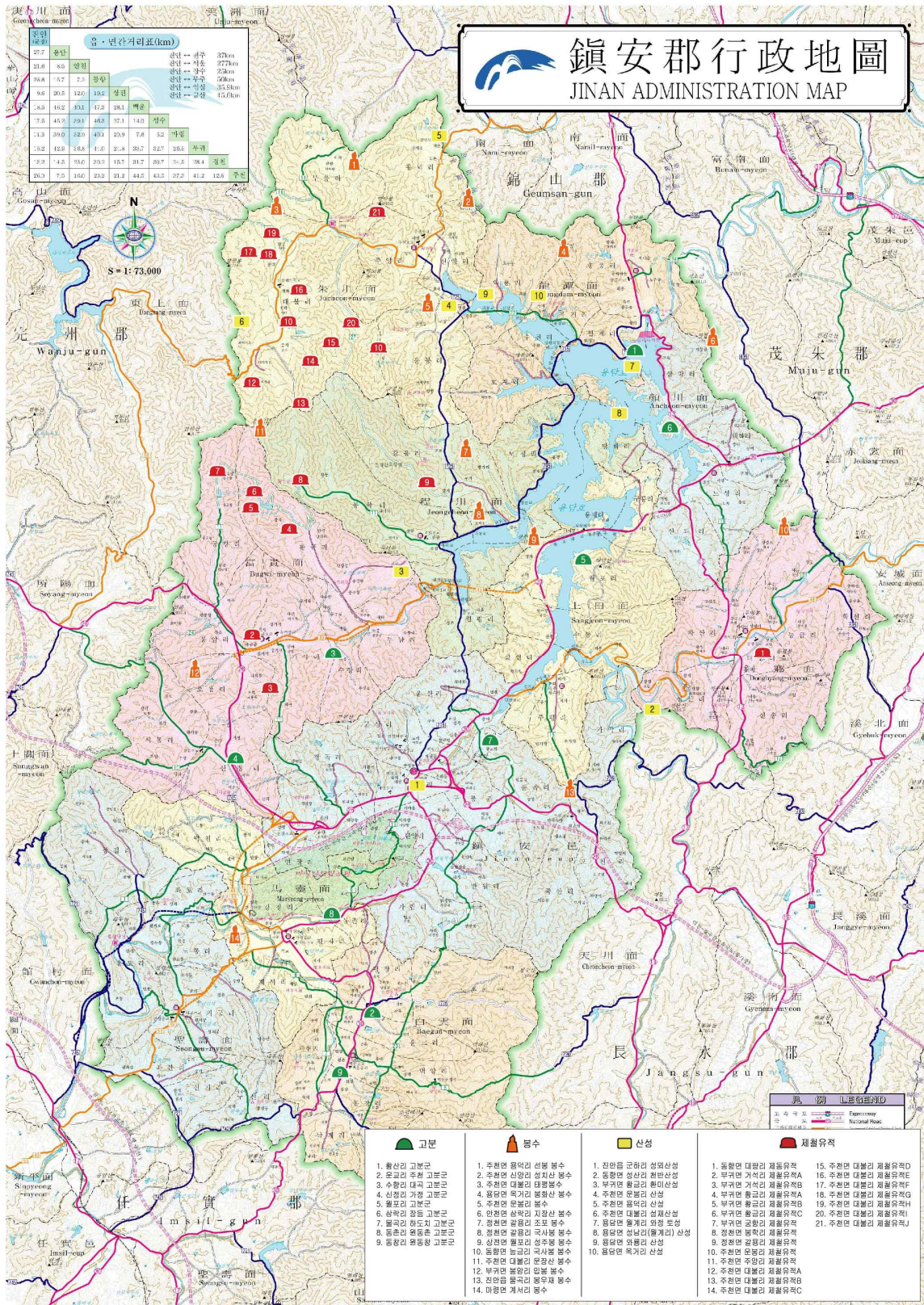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진안읍 군하리 성뢰산성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53-8 일원	지표조사
2	진안읍 가막리 천반산성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산9-1 일원	지표조사
3	부귀면 황금리 환미산성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45 일원	지표조사
4	주천면 운봉리 산성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76 일원	지표조사
5	주천면 용덕리 산성	진안군 주천면 용덕리 산19 일원	지표조사
6	주천면 대불리 성재 산성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86 일원	지표조사
7	용담면 월계리 와정 토성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32 일원	발굴조사
8	용담면 월계리 성남리 산성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15 일원	지표조사
9	용담면 와룡리 와룡리 산성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79 일원	지표조사
10	용담면 옥거리 산성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71-4 일원	지표조사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비 고
1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103-1	동재,노벽편	시굴조사
2	부귀면 거석리 제철유적 A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큰골	철재	
3	부귀면 거석리 제철유적 B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마구실골	철재	
4	부귀면 황금리 제철유적 A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번덕골	철재	
5	부귀면 황금리 제철유적 B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중고개골	철재	
6	부귀면 황금리 제철유적 C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봉화골	철재	
7	부귀면 공항리 제철유적	진안군 부귀면 공항리 늦은목골	철재	
8	정천면 봉학리 제철유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마조마을	철재	
9	정천면 갈릉리 제철유적	진안군 정천면 갈릉리 갈거리안골	철재	
10	주천면 운봉리 제철유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물탕골	철재	
11	주천면 주양리 제철유적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닭발골	철재	
12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A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운양산골	철재	
13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B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술쟁이골	철재	
14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C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곰직이골	철재	
15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D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능막골	철재	
16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E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마당제골	철재	
17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F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사지바위골	철재	
18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G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사금비골	철재	
19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H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고려장골	철재	
20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I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칠은이골	철재	
21	주천면 대불리 제철유적 J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싸리제골	철재	







## 5. 완주군

### ■ 봉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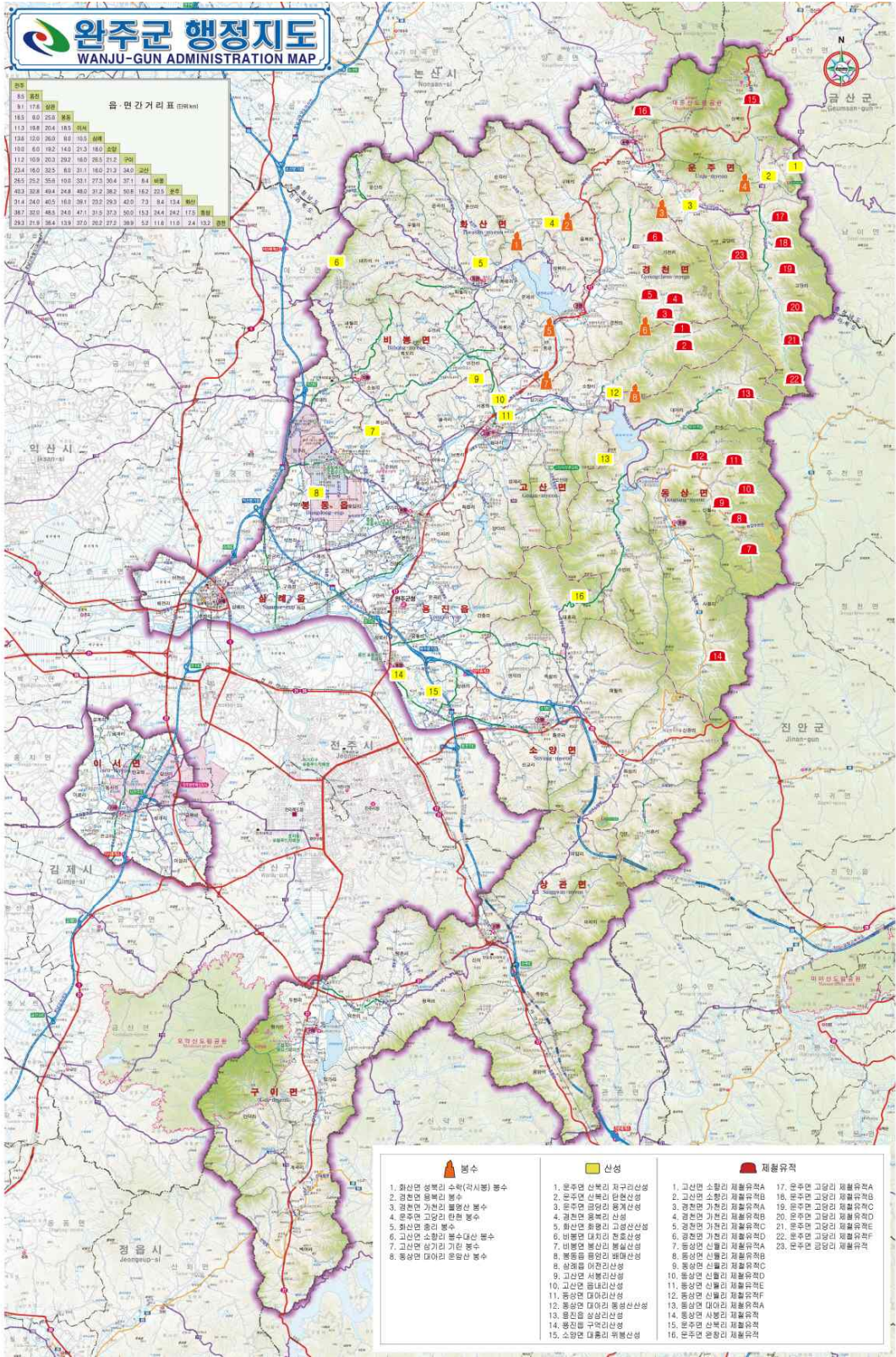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화산면 성북리 수락(각시봉) 봉수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103 일원	지표조사
2	경천면 용북리 봉수	완주군 경천면 용북리 산84 일원	지표조사
3	경천면 가천리 불명산 봉수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51-1 일원	지표조사
4	운주면 고당리 탄현봉수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17 일원	지표조사
5	화산면 종리 봉수	완주군 화산면 종리 산65-5 일원	지표조사
6	고산면 소향리 봉수대산 봉수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3-1 일원	지표조사
7	고산면 삼기리 기린봉수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11 일원	지표조사
8	동상면 대아리 운암산 봉수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산1-2 일원	지표조사

### ■ 산성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운주면 산북리 저구리 산성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109 일원	지표조사
2	운주면 산북리 탄현 산성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7 일원	지표조사
3	운주면 금당리 용계 산성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79 일원	지표조사
4	경천면 용북리 산성	완주군 경천면 용북리 산84 일원	지표조사
5	화산면 화평리 고성산성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산26-2 일원	지표조사
6	비봉면 대치리 천호산성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산105 일원	지표조사
7	비봉면 봉산리 봉실산성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14 일원	지표조사
8	봉동읍 용암리 배매산성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 일원	발굴조사
9	용진면 구억리 산성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829-2 일원	시굴조사

##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1	고산면 소향리 제철유적 A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북암골	철재
2	고산면 소향리 제철유적 B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동암골	철재
3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A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시우동골	철재
4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B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불당터골	철재
5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C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먹뱅이골	철재
6	경천면 가천리 제철유적 D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새재골	철재
7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A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검태골	철재,노벽편
8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B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문박골	철재
9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C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지피골	철재
10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D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울목골	철재
11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E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구수골	철재
12	동상면 신월리 제철유적 F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마당목골	철재
13	동상면 대아리 제철유적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축령골	철재
14	동상면 사봉리 제철유적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황새목골	철재
15	운주면 산북리 제철유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운주천	철재
16	운주면 완창리 제철유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안심골	철재
17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A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태평리골	철재
18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B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불모골	철재
19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C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당골	철재,숯가마
20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D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반피목골	철재
21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E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싸리재골	철재
22	운주면 고당리 제철유적 F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큰흐민골	철재
23	운주면 금당리 제철유적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활골	철재



## 6. 임실군

### ■ 조사 현황

연 번	조 사 명	유 적 명	조사 년도	조사기관
1	임실 금성리 고분군 수습조사	임실 금성리 고분군	1972	전주시립박물관
2	임실 치즈밸리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임실 도인리 유적	2009	군산대학교박물관
3	임실 청웅우회도로공사부지 내 유적	임실 석두리 고분군	2012	전라문화유산연구원
4	임실 금성리 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임실 금성리 고분군	2017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 고분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금성리 고분군	임실읍 금성리 산174 일원	발굴조사
2	도인리 유적	성수면 도인리 산3 일원	발굴조사
3	석두리 고분군	청웅면 석두리 567-5임 일원	발굴조사

### ■ 봉수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신덕면 조월리 경각산 봉수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산61 일원	지표조사
2	신덕면 신덕리 치마산 봉수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산95 일원	지표조사
3	신덕면 삼길리 노적봉 봉수	임실군 신덕면 삼길리 산6 일원	지표조사
4	운암면 학암리 봉수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산24 일원	지표조사
5	임실읍 신안리 백이산 봉수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산93 일원	지표조사
6	임실읍 현곡리 용요산 봉수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 산28 일원	지표조사

7	임실읍 두만리 옥녀봉 봉수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산143 일원	지표조사
8	임실읍 이인리 무제봉 봉수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 산362 일원	지표조사
9	관촌면 용산리 용암산 봉수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산9 일원	지표조사
10	임실읍 망전리 매봉 봉수	임실군 임실읍 망전리 산72 일원	지표조사
11	임실읍 대곡리 봉화산 봉수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04 일원	지표조사
12	성수면 봉강리 덕재산 봉수	임실군 성수면 봉강리 산116-2 일원	지표조사
13	성수면 왕방리 영태산 봉수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산51 일원	지표조사
14	성수면 오봉리 매봉 봉수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 산81-2 일원	지표조사

#### ■ 산성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관촌면 덕천리 성미 산성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산24 일원	지표조사
2	신평면 대리 산성	임실군 신평면 대리 390-17 일원	지표조사
3	성수면 월평리 산성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산33 일원	발굴조사
4	청웅면 석두리 산성	임실군 청웅면 석두리 607 일원	지표조사

####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1	강진면 용수리 제철유적 A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사적곡	철재
2	강진면 용수리 제철유적 B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쇠종골	철재
3	신덕면 신덕리 제철유적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치마산	철재
4	임실읍 금성리 제철유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쇠점골	철광석







## 7. 순창군

### ■ 고분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구미리 유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916 일원	발굴조사
2	현포리 연산 고분군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산7 일원	지표조사
3	금평리 석헌 고분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279-1 일원	지표조사

### ■ 산성 현황

연 번	유 적 명	소 재 지	조사현황
1	동계면 신흥리 합미성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산51 일원	지표조사
2	구림면 안정리 성미산성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278 일원	지표조사
3	유등면 오교리산성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산3 일원	지표조사
4	순창읍 백산리 대모산성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55 일원	지표조사
5	풍산면 대가리 옥출산산성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산108-1 일원	지표조사

### ■ 제철유적 현황

연 번	유적명	소재지	수습유물
1	구림면 금창리 제철유적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금천천	철재

